

# 성경의 역사

## 어둠 속의 등불

크리스 핀토 지음

김용목·남윤수 번역

장용철·정동수 편집

GVLIELMVS TINDALE MARTYR  
OLIM EX AVLA MAGD.

REFERT HÆC TABELLA QVOD SOIVM PVNIT ARS. GVLIELMI TINDALE IVIVS OLIM AVLÆ AIVNI, SIMVL  
ET ORNAMENTI. QVI POST FELICES PVRIORIS THEOLOGIE PVMITIAS. HIC DEPOSITVS. ANTVERPÆ IN NOVO  
TESTAMENTO, NEC NON PENITENTIA CHO IN VERNACVLAM TRANSFERENDO OPERAM NAVAVIT.  
ANGLIS SVIS EO VSQ. SALVTIFERAM. V I INDE NON IMMERITO ANGLIÆ APOSTOLVS AVDIRET  
MARTYRIO WILFORDÆ PROPE BRVXELLAS. CORONATVS. A. 1536. VIR SI VFL. ADVERSARIO  
(PROCVRATORI NEMPE IMPERATORIS GENERALI) CREDAMVS. PEROCTVS PIVS ET BONVS.



## 그리스도예수안에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he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성경의역사: 어둠 속의 등불

저자 / 크리스 핀토, 번역 / 김용목 남윤수

1판 1쇄 / 2014년 12월 15일

2판 1쇄 / 2021년 7월 1일, 2판 2쇄 / 2022년 11월 16일, 2판 3쇄 / 2023년 5월 5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전화: 032-872-1184

웹사이트: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mailto:webmaster@KeepBible.com)

ISBN 978-89-92485-39-5 03230

값 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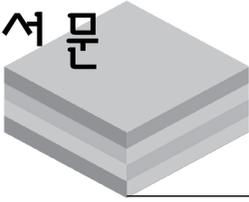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본서에 있는 성경구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킹제임스 흠정역 마케스티 에디션>(그리스도 예수안에, 2021)에서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 목 차



A. 서문 .....	4
B. 영화 소개 .....	6
C. 어둠 속의 등불 .....	9
1. 복음 전파와 초기 그리스도인들 .....	11
2. 콘스탄틴과 어거스틴의 국가 교회 .....	19
3. 도미니크와 종교 재판 .....	33
4. 순례하는 교회 .....	37
5. 위클리프 .....	39
6. 종교 개혁 .....	42
7. 틴데일부터 제임스 왕까지 .....	57
8. 개신교와 교황 제도 .....	61
9. 예수회의 등장 .....	74
10. 화약 음모 사건 .....	86
11. 킹제임스 성경 .....	89
D. 맺음말 .....	101
E. 에라스무스 이야기 .....	103
F. 틴데일 이야기 .....	118
G. 부록 .....	135
1. 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가? .....	137
2. 킹제임스 Only(유일주의)의 정의 .....	146
3. 영감과 보존: 원본, 사본, 역본의 관계 .....	150
4. 영어로 원어를 고칠 수 있다고요? .....	160
5. 영어를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	164
6.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	167
7.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 .....	175
8. 딱정벌레 이야기 .....	180
9. 원어로 너스레 떠는 자들 격퇴하기 .....	184
10. 원어, 도를 벗어나면 독약이 된다! .....	189
11. 메시지는 MSG이다! .....	197
12. 번역과 반역 사이에서: 기계적 일치 번역 No! .....	203
13. 킹제임스 성경의 증인: 「툰스대역 한영성경」 .....	211



성경을 가리키는 영어 'Bible'은 마1:1에서 '책'을 지칭하는 그리스어 'Biblos'에서 유래하였으며 5세기 이후부터 영어권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책'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다양한 문화와 배경과 경험과 학식을 가진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들 - 왕, 농부, 어부, 의사, 정치가, 학자 등 - 이 기록한 '한 책'입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간의 침묵기가 있었으며 이때에 나온 외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히1:1-2).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기록자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 주는 증인입니다.

성경은 66개의 작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점으로 해서 39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구약 성경과 27권의 작은 책들로 구성된 신약 성경으로 나뉩니다. 구약 성경은 아람어로 기록된 일부(스4:8-6:18; 7:12-26; 렘 10:11; 단2:4-7:28 등)를 제외하고는 모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으며 크게 율법서와 대언서 그리고 거룩한 기록들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당시의 일반 통용어였던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으며 역사를 다루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사도들의 서신서 그리고 미래 일을 담고 있는 요한계시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들어오기 전의 '과거의 영원'과 주전 4000년경에 시작된 하나님의 특별 창조로부터 현 세상의 멸망 그리고 앞으로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미래의 영원'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합니다.

성경의 궁극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을 구속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요20:30-31; 요일5:20).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예표와 그림자로서 만물의 기원과 사람의 창조와 타락, 죄, 이스라엘, 희생 제도를 보여 줍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약 성경의 성취와 교회의 설립, 천년왕국과 그 이후의 미래의 일을 담고 있으며 구약 성경의 실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과학, 역사, 문학, 철학, 시, 예언 등에서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100% 진리만을 담은 완전한 하나님의 책이며(롬3:4) 또한 시, 역사, 드라마, 사랑 이야기, 증오 이야기, 전쟁 이야기, 철학, 논증 등을 담은 문학책입니다. 성경은 편견이 없는 책으로서 사람의 죄와 실수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며 하나님, 사탄, 사람, 죄, 구원,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등을 권위 있게 선포합니다.

또한 성경은 초자연적인 책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 거룩함을 보여 주는 유일무이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요, 예수님은 ‘살아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요14:1-9).

독자께서는 사람에게 영원한 삶을 제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이 귀한 성경이 역사 속에서 어떤 과정을 겪으며 지금 이 시각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마다하지 않은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마귀의 사주로 성경과 교회를 멸절시키기 위해 독버섯 같은 악한 무리들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성경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는지 아십니까?

이 책은 초대 교회 이후로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이 어떻게 보존되고 전달되었는지 또 그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또한 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현시대 모든 성경들 중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한 성경인지 보여 줍니다.

끝으로 영화 <어둠 속의 등불>에 우리말 자막을 넣어 마음대로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미국 아돌람 필름사의 핀토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영어 대사를 번역해 주신 김용목 형제님과 남윤수 자매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말 자막을 책으로 엮기 위해 편집해 주신 장용철 형제님, 꼼꼼히 원고를 교정해 주신 김대용 형제님, 그리고 표지를 만들어 주신 김재욱 형제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섬기기 위해 애를 쓰는 모든 성경 신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

사랑침례교회 목사 정동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잠30:5-6).



## 영화 소개



## Introduction

이 책은 미국 아들람 영화사에서 만든 <어둠 속의 등불: 밝혀지지 않은 성경 역사>(A Lamp In the dark: The untold history of the Bible)<sup>1)</sup>라는 3시간 분량의 다큐멘터리 영화의 대사를 옮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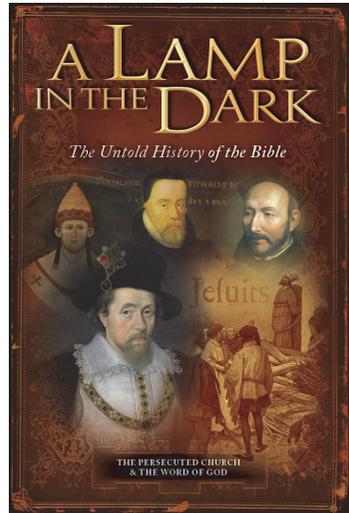
영화의 대사를 책으로 편집하면서 중간에 있는 인터뷰 내용을 읽기 쉬운 문장으로 편집했고 독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다시 한 번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대사를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위키백과)과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그리고 정수영 목사님의 「새 교회사」<sup>2)</sup>를 참고하여 지명 및 인물 등과 같은 대사의 오류를 수정하였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주로 보충 설명을 넣었습니다.

이 책을 접하는 모든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과 교회 역사에 대해 바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어둠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의 빛에 따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119:105).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별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히4:12-13).



1) 유튜브에서 '성경과 교회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이라고 치면 한글 자막이 있는 영화가 나온다. 또한 성경지킴이(www.KeepBible.com) 사이트의 영상 자료에서도 같은 제목으로 찾아서 시청할 수 있다.

2) 미국 리버티 대학에서 교회사 연구를 하신 정수영 목사님께서 지은 「새 교회사 1, 2」는 절판되어 구하기 어려우며 킵바이블 사이트(www.KeepBible.com)의 상단 구글 검색에서 '정수영 새 교회사 PDF 파일'이라고 치면 스캔 받은 책 2권이 나온다. 또한 유튜브에서 '정수영 교회사'라고 치면 40여 개의 교회사 강의를 들을 수 있다.

## <어둠 속의 등불: 밝혀지지 않은 성경 역사>

### • 등장인물 소개

브라운 박사(Dr. David Brown) - 성경학자(목사, 고대 사본 수집가)

무어맨 박사(Dr. Jack Moorman) - 미국에서 영국으로 파송한 선교사. 「Forever Settled」 등 성경 관련 다수 저서 저자

오레일리 박사(Dr. Alan O' Reilly) - 연구자, 전직 교수

웨이트 박사(Dr. D. A. Waite) - 성경학자/목사 「Defending The King James Bible」 등 성경 관련 다수 저서 저자

윌리엄스 박사(H. D. Williams) - 저자, 「The Lie that Changed The Modern World」

오클랜드(Roger Oakland) - 시대 분별 국제기구(Understand the Times International) 창설자

### • 특별 출연(벨기에)

바나우트개르덴(A. Vanautgaerden) - 앤덜레흐트에 있는 에라스무스 기념관 (Erasmus House)의 관리 책임자

베르코우틴(J. Verkoutin) - 빌보르드에 있는 틴데일 박물관(Tyndale Museum)의 관리 책임자

### • 특별 출연(영국)

고프(Moira Goff)와 매켄드릭 박사(Dr. Scot Mckendrick) - 런던에 있는 브리티시 박물관(British Library)의 관리 책임자

### • 대사 낭독

핀토(Christian J. Pinto), 아둘람 필름 대표

Adullam Films

PO Box 1147

Mount Juliet, TN 37121

Website: [www.AdullamFilms.com](http://www.AdullamFilms.com)

Telephone: 615-288-4938

E-mail: [comments@adullamfilms.org](mailto:comments@adullamfilms.org)

Copyright 2009 by ADULLAM FILMS

#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젯밤 대장간 문 옆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죠.  
그것은 마치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낡은 망치들이 보였습니다.  
수 년 동안 두들긴 탓에 망가져 버린 낡은 망치들을.

그때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루를 사용하셨죠?”

“이 모든 망치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닳아 못쓰게 됐으니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이시오.” 대답하며 그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루가 이 망치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루와 같구나! 수 세기 동안  
회의와 의심의 망치질은 거세게 말씀의 모루를 내리쳐 왔지만,  
두들기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모루는 지금도 변함없이 건재하며  
그 많은 망치들은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구나!” 하고 말입니다.



---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





지난 2,000년 동안 성경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논쟁거리를 안겨다 준 책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다양한 성경 역본들을 선택해서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단지 성경책을 소지하거나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어야만 한 적도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래로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절하게 피로 물든 책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화형으로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생매장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악한 박해자들에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때론 이미 죽은 사람도 무덤이 파헤쳐진 채 파문을 당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마귀와 그의 천사들(마25:41)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악의 무리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지라는 저주를 받는 등 끔찍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패하고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성경기록을 전파하기 위해 이런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였고 심지어 이보다 더한 역경도 견뎌냈습니다.

지난 수 세기 동안 예수님의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해 왔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자들은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중세 암흑기에도 항상 어둠 가운데서 빛을 발하였습니다.

## 1. 복음 전파와 초기 그리스도인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의 한 유대인 목수의 삶과 죽음은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 라고 주장한 것으로 인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이단 정죄를 받았습니다.



##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순교자들의 피 흘림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예수님은 성경기록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지만 당시 그분의 제자들은 겁에 질려 그분을 버리고 달아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리셨음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담대히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본토의 유대인들 및 명절을 맞아 조국을 방문한 유대인들에게 소리 높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행2:25-27).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다 그 일의 증인들이니라(행2:31-32).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하니라(행2:36).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까?”라고 물었고 이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행2:38)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은 침례를 받았고 바로 그날 삼천 혼가량이 구원받는 일이 생겼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된 뒤 나중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에게도 전해졌습니다.<sup>3)</sup> 그는 독실한 이방인으로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때에 베드로는 그와 그의 친척/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신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자를 받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모든 사람의 주이신 그분)을 통해 화평을 선포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 말씀을 너희가 아는데 그것은 요한이 침례를 선포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 전역에 전파된 것으로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과 권능으로 그분께 기름을 부으시매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하셨기 때문이라.

우리는 그분께서 유대인들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들이라. 그들이 그분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셋째 날 일으키시고 그분을 공개적으로 보여 주시되 온 백성에게 보여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신 우리에게 보여 주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자가 바로 자신임을 증언하게 하셨으며 모든 대언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하니라(행10:34-43).

고넬료의 가정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강력하게 퍼져 나갔으며 사도 바울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 여러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로 그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뒤바꿔 놓았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시기심에 동요되어… 도시의 치리자들에게 끌고 가서 외치되, 세상을 뒤집어엎은 이자들이 여기에도 왔는데… 이자들은 모두 예수라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카이사르의 명령에 반대로 행하나이다, 하고(행17:5-7)

3)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AD 30년경에 일어났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은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뒤에 일어났다. 신약 교회의 초기 10년 동안에는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당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든 것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간 것을 불쾌히 여기자 베드로는 할 수 없이 이 일을 다시 상세히 설명하였고 드디어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이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말하며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행11:18). 이 일 뒤에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를 세웠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교회에서 소수가 되고 말았다.



###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스테반을 포함해서 야고보, 베드로, 바울 등 대부분의 사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확증하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피를 흘리며 죽어 갔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은 주후 첫 세기가 절반쯤 지났을 무렵 네 개의 복음서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시작의 증거인 사도들의 서신들도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sup>4)</sup>

구약과 신약 사이를 이어 주는 가장 분명한 연결 고리는 다름 아닌 예언인데 성경은 예언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대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기록의 대언 - 예언을 포함하는 모든 말씀 - 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벧후1:20-21).

성경기록의 대언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고했고 더 나아가 그분께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인 재림도 언급합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재림 전에 믿는 자들이 복음으로 인해 큰 시험과 고난을 먼저 겪을 것이라고 주의도 주었습니다(막8:34-38; 딤후3:12-13).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작별을 할 때도 그들에게 같은 것을 경고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대언자들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교회에 경고를 남겼으며 특히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위험을 예견하고 너무나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이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깨어서 기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4) 신약 성경은 AD 4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야고보서를 시작으로 AD 9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약 50년에 걸쳐 기록되었다.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행20:28-31).

바울은 사나운 이리들뿐만 아니라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에 대해서도 경고했으며 나아가 자기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순전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후 2:17).

환편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정죄받을 이단 교리’라는 것을 몰래 들여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을 따를 것이며 또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진리의 길이 비방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벧후2:1-3).

사탄은 사람의 정신을 빼고 속이는 일에 대단히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영, 다른 그리스도, 다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고후11:4).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올리브 산에서 진리의 길을 따르려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올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5)</sup>

---

5) ‘올리브 산 설교’로 알려진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교회의 휴거 이후에 있을 7년 환난기에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환난기를 통과할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즉 이 말씀의 대상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온 뒤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성취될 때에 구원받을 유대인들이다(롬11:25-26). 그러나 이런 환난기가 시작되기 전, 즉 휴거가 임박한 시점에 온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적 소수자인 동성애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 금지법은 동성애를 뛰어넘어 종교의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데까지 이를 것이고 이 경우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현재 이런



## 히브리어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구약 시대에 자  
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  
셨고 대언자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  
어를 신실하게 기록하고 보존  
하였다.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마24:9).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딤후3:12)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4).<sup>6)</sup>

이러한 말씀대로 초기 기독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으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  
에게 미움을 받고 학살당했습니다. 지금과 달리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런 핍박이  
흔하였습니다. 이 박해는 1세기 로마 제국 황제인 네로의 시대(AD 37-68, 재위  
기간 AD 54-68)부터 시작되어 4세기 초 디오클레티아누스(AD 244-311, 재위  
기간 AD 284-305) 때에 끝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후 313년에는 기독교라 불리던 집단의 처지가 180도 바뀌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1세(AD 272-337, 재위 기간 AD 306-

---

핍박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 법이 도입되면 크리스천 믿음에 대한 핍박이 심하게  
일어날 것이다.

6) ‘왕국의 복음’은 눅1:32-33에 예언된 것으로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실 지상 왕국을 하나님께서 건설하려 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소식이다. 성경에서  
이 복음은 두 번 선포된다. 처음에 침례자 요한의 사역과 함께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선포했지만 유대인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끝이 나고 말았다. 그러나 교회가 휴거를 받아  
공중으로 올라간 뒤에 왕국의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 의해 7년 동안 다시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 즉 세상의 끝이 오리라.”는 말씀의 성취이다(마24:14). 이때에 144,000명의  
유대인들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계7:1-8).

337)는 AD 312년에 저 유명한 ‘밀비안(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승리하였으며 덕분에 그의 왕권과 정치적 입지는 절대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어용학자인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콘스탄틴은 전투에 임하기 전에 태양 위로 빛줄기가 십자가 모양으로 비치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십자가 표식으로 이길지어다!”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환상대로 십자가를 군대의 표식으로 삼고 적군을 정복했으며, 그 뒤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인들을 보호하게 했습니다. 황제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바꿈으로써 기독교는 가히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틴에 관해 고대 사본 수집가이자 목사인 브라운(David Brown)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가 기록되던 시기, 즉 AD 57년경에는 지금과 같은 로마 카톨릭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콘스탄틴이 권력을 잡은 것이 교회에 득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은 오히려 교회를 부패시켰습니다. 그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던 자기 인맥을 교회의 고위 관리로 임명하고 교회 내부에 교황 같은 독자적인 성직 계급을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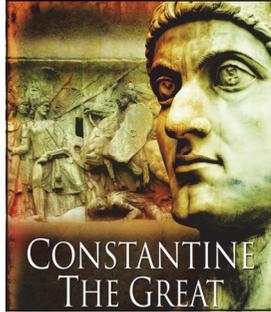
「현대 세상을 변화시킨 거짓말」(*The Lie that Changed the Modern World*)의 저자 윌리엄스(H. D. Williams) 박사 또한 콘스탄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콘스탄틴은 회심한 뒤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주후 331년에는 다른 칙령을 내려 로마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체포하여 박해하였고 그들의 교회와 그들에 대한 기록은 무엇이든지 다 불태워 버리게 했습니다.

만일 콘스탄틴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변심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 있었을까요?<sup>7)</sup> 여러 학자들은 그 이유가 그의 종교관이 양분되었기

---

7) 콘스탄틴이 참다운 회심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회심 뒤에 그가 몇 차례 살인을 저질렀다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내와 자기 친아들을 죽였다. 성경은 “살인자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한다(요일 3:15). 콘스탄틴은 미네르비나를 첫째 아내로 두었고 그녀를 통해 크리스푸스라는 아들을 얻었다. 그의 둘째 아내는 파우스타인데 그녀를 통해 그는 세 딸과 두 아들을 두었다. 크리스푸스는 뛰어난 군인으로 그의 아버지의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니케아 공회가 열린 직후인 주후 326년 그는 자기 아들 크리스푸스를 사형에 처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자기의 둘째 아내인 파우스타와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실상 이것은 파우스타의 고소 내용이었다. 파우스타는 그의 첫째 아내의 아들 크리스푸스를 그런 방법으로 몰아내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위에 앉히려 했다. 그러나 콘스탄틴의 어머니는 그를 설득하여 사실은 그의 아내 파우스타가 그의 아들에게 몸을 바친 것으로 믿게 했으며 그래서 결국 콘스탄틴은 자기 아내 파우스타를 펄펄 끓는 목욕탕 속에 넣고 질식사시켜 죽였다. 이런 일이 있을 즈음에 그는 자기 누이의 아들을 태형으로 죽였고 누이의 남편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는 목 졸라 죽였다. 이런 일은 그의 공적인 회심(?) 이후에 일어났다. 이처럼 잔인한 이야기를



## 대음모자 콘스탄틴

기독교를 공인한 것으로 알려진 콘스탄틴은 사실 자기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묶으면서 대음모를 꾸몄고 그 결과 로마 카톨릭 교회라는 비성경적인 국가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술가와 강연가로 널리 알려진 헌트(Dave Hunt)는 콘스탄틴에 대해 자신의 저서 「짐승 위에 탄 여자」(*A Woman Rides the Beast*)의 46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기독교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이교도들의 성직 체계와 각종 명절을 집어넣고 심지어 이교도들의 성전을 예배당으로 기증해 주었습니다. 그는 황제로서 이방 종교들의 최고위 신관(최고 승원장, Pontifex Maximus)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회에 대해서도 유사한 감투가 있어야 했습니다. 콘스탄틴의 호의에 순응한 기독교인들은 그를 ‘감독들의 감독’(혹은 주교들의 주교)이라고 칭송했으며 콘스탄틴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일컬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자신의 왕국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로마 제국의 이교 관습들을 기독교에 가미했으며 이러한 정치와 종교의 결합은 일명 ‘보편적’(카톨릭) 교회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새로운 종교가 세상의 권력과 타협한 ‘배교하고 타락한 시스템’임을 인지했습니다.

더욱이 콘스탄틴은 자기가 세우고 치리하는 ‘새로운 보편적(카톨릭) 신앙’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으며 로마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 관한 칙령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런 칙령으로 인해 그의 회심 사건 이후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회심 이전보다 더 많이 박해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로마 제국이 쇠망해가면서 로마의 감독(주교)들이 일어나 콘스탄틴의 칭호였던 ‘최고 승원장’ 혹은 ‘최고위 신관’을 자기들에게 붙였고 스스로 ‘주교들의 주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여기며 교회의 황제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7세기의 역사학자 토마스 홉스(Thomas Hobbs, 1588-1679)는 자신의 저서 「리위야단」(*Leviathan*)에서 거대한 교회 조직의 기원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읽고 나면 이런 황제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믿기 어려울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온통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콘스탄틴은 죽을 때에 비로소 유세비우스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까지 그가 세례를 받지 않은 이유는 세례를 통해 모든 죄가 제거되는데 죽기 오래전에 세례를 받으면 그 이후 지은 모든 죄를 최종 처리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천주교의 유래」, 우드로우)

이 거대한 교회 조직의 기원에 대해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누구라도 교황 제도는 옛 로마 제국의 망령이 무덤 위에서 왕관을 쓰고 앉아 있는 모습과 같음을 쉽게 인지할 것이다.

콘스탄틴이 역사에 워낙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그가 회심한 것과 나중에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행적이 중세 암흑기의 진정한 시작점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올 때에 내가 너희에게 그것들을 일러 주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 함이요, 또 처음에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니라(요16:2-4).

## 2. 콘스탄틴과 어거스틴의 국가 교회<sup>8)</sup>

### 로마와 기독교

이교도 국가인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에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 땅에 신약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자신의 백성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알기 원하면 사도행전을 읽기 바랍니다. 이때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더하여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 큰 기적과 이적들을 많이 이루셨습니다.

성령님의 기쁨 부음을 받은 기독교는 초원의 불길처럼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기독교는 산을 에워싸고 대양을 건너갔으며 왕들을 떨게 하였고 폭군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계를 뒤집어엎었습니다! 실로 그들의 메시지와 그들의 영은 권능으로 충만했습니다(행17:6).

그러나 여러 해가 가기 전에 몇몇 사람들은 성령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 위에 앉아 왕 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sup>9)</sup> 이들은 초기 시대와 같이 영적인 방법과

8) 원래 영화에서는 콘스탄틴 이후부터 도미니크의 종교 재판까지의 약 900년 동안의 역사가 없다. 그러나 성경과 교회의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세 암흑시대의 핵심 요소인 국가 교회의 출현 및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여 편집자가 추가하였다.

9) 계2:6, 15에는 니콜라당(Nicolaitans)이라는 이단이 나온다. 그리스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니콜라당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성도들 위에 군림하여 성도들을 통치하려는 자들이다. 신약 교회가 생기자마자 이런 무리가 생겼으며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이런 자들의 교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카톨릭교회는 아직도 구약 시대의 종교로 남아 자기들의 성직자를 '제사장'(사제, priest)이라 부르며 성직자 계급주의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는 교회에서 제사장이 아니라 '목사'(pastor)가 감독으로, 장로로 교회를 치리하며 양 떼에게 꼴을 줌을 보여 준다(행20:17, 28; 엡4:11; 딤후3:1-7; 딤후1:5-9; 벧전5:1-4).

진리로 성도들을 치리하지 않고 자기들의 사상과 방법으로 치리하며 스스로 성령님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불법의 신비’가 이미 역사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보면 이교주의를 기독교와 합치려는 시도가 심지어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때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몇몇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 이는 곧 이교도들의 가짜 교리들을 경고한 것입니다(살후2:3, 7; 딤후4:2).

이제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파고들어 온, 여러 형태의 바빌론 미스터리 이교주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바빌론 이교주의의 관습이나 믿음과 상관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거짓되이 고소를 당하고 사자 굴에 던져졌으며 화형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잔혹한 방법으로 고문당하고 순교당했지만 그 뒤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곧 로마 제국의 황제가 스스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고 공포한 것입니다. 또한 로마 황제는 로마 전 지역에서 기독교 박해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주교들(감독들)<sup>10)</sup>은 높은 명예를 얻게 되었으며 교회도 세상의 인정을 받고 강한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비싼 값을 치러야만 했고 기독교와 이교주의 사이에는 많은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하게 되기보다는 이 세상 제도의 한 부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황제는 호의를 보이면서 교회에서 가장 큰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이교주의에서 황제는 항상 신으로서 믿음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부터 이교주의가 도맷값으로 혼합되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특별히 이러한 현상은 로마에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 콘스탄틴과 국가 교회의 시작

로마가 세계를 아우르는 제국이 되면서 도처에서 밀려드는 이교도들과 그들의 문화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황제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가장 교묘하게 이룬 사람이 바로 기독교를 공인한 것으로 알려진 콘스탄틴 황제(Constantine, 콘스탄티누스 1세, 272-337년)입니다. 그는 306-337년까지 재위한 중기 로마 황제로서 동방 정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여 ‘성 콘스탄티누스’라 부릅니다.

세속 역사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 로마 군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치세는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는데 그는 313년

<sup>10)</sup>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감독(bishop)은 특정한 지역 교회의 목사를 가리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카톨릭교회가 권세를 잡자 ‘bishop’은 원래의 의미를 잃고 여러 지역 교회의 사제(목사)들을 다스리는 의미의 감독이 되었고 지금은 천주교, 성공회 등에서 주교나 대주교를 지칭할 때 사용된다. 현시대 감리교회의 감독 등은 바로 천주교 시스템에서 나온 후자의 감독을 말한다.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여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끝내고 사실상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공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교회의 수장으로서 325년에 제1차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하여 기독교의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는 330년에 공식적으로 비잔티움(터키의 이스탄불)을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정하였고 그가 죽자 비잔티움은 ‘콘스탄티누스의 도시’라는 뜻의 콘스탄티노플로 개명되었습니다.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이후로 타락한 국가 교회는 이교도들의 풍습에 근거한 마리아 숭배, 성인 숭배, 각종 우상 숭배, 제사장 체계, 교황, 추기경, 교부, 연옥, 면죄부, 유아 세례 등 도저히 성경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가증한 것들을 강제로 교회에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교회는 자기들의 범주 안에 거하려 하지 않는 자유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여 참 성도들을 화형이나 수장 등 각종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했습니다. 이단이란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중세 암흑시대에는 국가 교회인 천주교회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받으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교회에 예속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교회를 그리스도가 주인인 기독교(Christianity)가 아니라 교회가 주인인 ‘교회교’(Churchianity)라고 부릅니다.<sup>11)</sup>

세속 역사가들과 천주교 사관을 가진 교회 역사가들이 한목소리로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을 찬양하지만 우리는 그가 행한 일을 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의 기독교 진흥 정책은 다분히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내전을 거쳐 권력을 잡게 된 콘스탄틴에게 자신의 권좌를 위협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로마 황제는 교회의 권위 내지는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임명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인간이 그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을 분명히 하려 하였습니다. 이로써 국가 교회에서 황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국가와 교회의 수장이 되어 권위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sup>12)</sup>

11) 교회가 국가와 하나가 되어 혹은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며 국민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국가 교회’라고 하며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의 개념, 즉 예수님께서 친히 마22:21에서 “그런즉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신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지지한다.

12) 콘스탄틴은 그리스도인의 예배에 필요한 의식에 거의 순응하지 않았다. 또한 그가 주교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비록 그가 제국의 단합을 위해 종교적 불일치 의사를 표명하는 자를 억압하긴 했지만 사실 그 당시 기독교계를 동요시켰던 신학적인 차이점들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의 통치 기간 중 주교들을 자신의 정치 조력자로 취급하였다. 그는 주교들을 소집해서 공회를 주재하였고 대다수가 일치하는 의견을 따르도록 강요하였다. 참된 신자라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뒤에 정치가가 되어야 하는데 콘스탄틴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 기독교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수단이었지 목적이 아니었다. 『문명의 역사: 카이사르와 그리스도』, 두란트, pp. 655-656.



## 히포의 어거스틴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받는 어거스틴은 콘스탄틴 황제가 세운 국가 교회의 통치 규범을 확립하고 무력으로 성경 신자들을 제압할 것을 규정한 인물이다. 그는 마리아를 숭배하고 연옥 교리를 창안하였으며 사람의 자유 의지를 전적으로 부인하였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국가 교회’(State Church)를 국가 체제의 이상적인 모델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교황들은 세상 군주들을 교황권 아래 두고 다스리는 ‘교회 국가’(Church State)를 이상적인 모델로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지상의 평화가 유지되어야만 하며 국가가 교회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였고 오직 ‘교회 국가’만이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 ‘국가 교회’나 ‘교회 국가’는 신권 통치라는 측면에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제든 교황이든 어떤 치리자가 국가의 수반이 되어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하고 혹독한 속박 속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 어거스틴과 국가 교회

콘스탄틴이 세운 ‘국가와 교회의 일치’는 결국 구약 시대의 ‘신정 정치’(Theocracy)로 회귀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정 정치란 신성한 주권을 갖는 신이 임명한 대리자에 의한 정치를 말하며 ‘신권 정치’(神權政治)라고도 합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지식백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정 정치에서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분리되지 않고 융합되어 있으며, 권력자의 명령은 곧 법이고 피지배자의 내면적 심정까지도 지배한다. 국가의 법은 신의 법 또는 명령이며 국법과 종교가 동일하다... 이러한 정교일치의 동심원적 권력 지배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모세가 건설한 신정 국가의 정치가 가장 전형적이다. 신정 정치는 고대 오리엔트, 이슬람 세계, 인도,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에서도 각 문화의 원형과 관계하여 독자적 형태를 보인다. 신정 정치의 근대의 전형으로서는 칼빈(John Calvin)의 제네바 지배를 들 수 있고 현대의 신정 정치로는 혁명 후의 이란 정부를 들 수 있다.

콘스탄틴과 그 이후의 로마 황제들은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신정 정치를 구현하려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교회의 황제인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세상 왕국들까지 다스리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통치 모델을 완성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의 ‘국가 교회’

사상은 1,000년 이상 중세 시대를 지배하다가 16세기에 이르러 칼빈이나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서도 세력을 떨치며 신정국가를 세우는 데 초석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틴과 어거스틴을 거치면서 신정 정치 모델이 확립된 이후로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유럽의 모든 국가는 오직 카톨릭교회만을 국가의 교회로 인정하였고 천주교 외의 다른 믿음은 모두 이단 교리로 정죄받았습니다. 반면에 동유럽은 정교회(Orthodox Church)가 국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에 생긴 루터교 역시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삼국의 국가 교회가 되었고 칼빈의 장로교는 낙스에 의해 스코틀랜드의 국가 교회가 되었으며 헨리 8세가 세운 영국 국교회, 즉 성공회는 영국의 국가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sup>13)</sup>

국가 교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어거스틴은 성경을 재해석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죽인 자들’(Jesus killers)로 규정하고 구약 성경의 실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유대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복을 신약 시대의 교회가 대신 차지한다는 이론 곧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정립하였습니다.<sup>14)</sup> 이 일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성경을 영적으로/비유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어거스틴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배도한 학자들의 비유 해석을 도입하여 이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 그리스 제국은 넷으로 분열되었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중심지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철학의 중심지가 되어 헬레니즘이라는 이교도 문화를 온 세상에 파급시키는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주전 300년경부터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떠나 그리스 문화와 히브리 문화를 적당히 혼합한 채 이교도들과 더불어 삶을 공유하려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은 주전 3세기부터 고대 그리스 시인이자 작가들의 본문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플라톤의 철학과 구약 성경을 접목한 인물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 어떤 이들은 필로의 철학을 신약 성경에 적용해 ‘영지주의’

---

13) 루터나 칼빈, 츠빙글리 등이 이론 ‘종교 개혁’은 말 그대로 로마 카톨릭 종교의 틀 안에서 항거하며 개혁을 이루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래서 이들이 세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신학은 거의 대부분 카톨릭교회의 것들을 답습하고 있다(유아 세례, 성직자 계급 체계, 예배당의 성전화(聖殿化), 카톨릭교회와의 에큐메니컬 종교 통합 등).

14) 초기 교회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신약)이 모세 언약, 즉 옛 언약(구약)을 대체하고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체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역사적으로 카톨릭 교회는 자신들이 유대교의 완성이며 성취라고 주장하였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2차 세계 대전의 유대인 대학살과 1948년의 이스라엘 국가 형성 이후로 주류 신학자들과 교단들은 이런 관점을 거부하고 있다(위키백과).

라는 이단을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러한 ‘영지주의’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바실리데스와 발렌티누스 등의 유명한 영지주의자가 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왔습니다. 현대 성경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송하는 카톨릭교회의 ‘70인역’(Septuagint)이라는 그리스어 구약 성경 역본 역시 알렉산드리아의 배도한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모조품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리스 철학과 성경을 통합시키려는 욕망에 불탔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철학이 신의 영감을 받았으므로 그 기원이 신성하며 신의 말씀과 같다는 그릇된 가정하에 자신들의 해석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란 죄명을 씌운 카톨릭교회는 오리겐이 주장한 ‘유대인 개종, 추방, 멸종의 3단계 이론’을 교의로 삼아 오늘날에도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 180년경에 펜타누스(Pantaenus, 200년 사망)가 복음 선포자와 선교사들을 훈련하기 위해 알렉산드리아에 교리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19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150-215)가 이 학교를 인수했으며 결국 그는 알렉산드리아 학교의 창설자로 널리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클레멘트는 ‘알렉산드리아 기독교 철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철학이 기독교의 하너라고 믿었으며 기독교의 가르침을 다른 것과 섞지 않고 순수하게 전하는 것보다는 이교도들의 철학으로 옷 입혀서 전하기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교리 학교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추론적이고 철학적이며 비유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성경 본문 해석 과정에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신비한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리겐(Origen, 185-254년)이라는 배도한 인물이 나와 역시 성경을 영해하고 성경 본문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리겐은 알렉산드리아에서 부유하게 살던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젊은 나이에 교사로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의 삶은 세르베루스 황제의 박해가 있던 주후 202년경에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순교했고 그의 가정은 가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고 결국 오리겐은 18세의 젊은 나이에 클레멘트가 창설한 알렉산드리아의 교리 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천재였으며 수많은 책을 모으고 읽고 저술했고 또 영지주의자였던 알렉산드리아의 암브로스(Ambrose of Alexandria, 212-250)의 책들을 소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교도로서 신플라톤주의를 창설한 사카스 밑에서 공부했고 매우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신발도 신지 않고 맨땅에서 잤으며 심지어 스스로 거세했던 매우 특이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리겐은 클레멘트의 제자로서 필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경 본문이 문자적 의미, 도덕적 의미, 신비 혹은 풍유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신비 혹은 풍유적 의미를 통해 진정한 해석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셋째 의미는 상징적이며 은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성경 해석 방식은 ‘영해’라고

불립니다.<sup>15)</sup>

오리젠은 특히 성경 본문을 부패시킨 장본인입니다. 현재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회사가 카톨릭 교회사이므로 대부분의 신학교 교과서나 참고서는 오리젠을 가리켜 ‘위대한 그리스도인 학자요, 고대 교회의 가장 뛰어나고 영향력 있던 신학자 중 하나’라고 잘못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리젠에 대한 기록이 거의 다 콘스탄틴의 어용학자인 유세비우스의 글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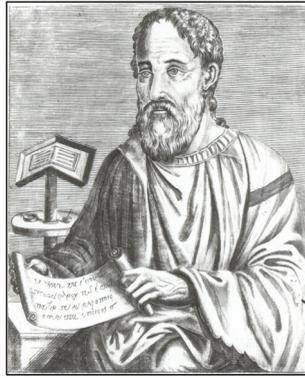
사실 오리젠은 한때 그리스의 아테네 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 이단자로 판명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이 창조된 하나님이다.”라는 이단 교리를 퍼뜨렸습니다. 오리젠은 콘스탄틴 황제의 문화비서 역할을 하던 유세비우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모자 콘스탄틴 황제의 성경 본문 복사 요청을 수행하면서 유세비우스는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인 순수한 본문을 사용하기 위해 기독교의 모태가 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대신에 이교도 교육과 철학의 중심지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학자들의 수정판’인 국지적 소수 본문을 얻었고 이것을 50개의 복사본으로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 하나가 바티칸 도서관에 보관된 ‘바티칸 사본’이며 이 사본은 NIV, 개역성경 등과 부패한 현대 역본들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오리젠과 유세비우스 이후에 알렉산드리아 철학은 암브로스라는 밀라노의 주교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비유 해석 체계를 근간으로 카톨릭교회의 교리들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는 카톨릭교회를 위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1. 그는 로마 교회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다 배제하였고 믿음의 영역에서 주교는 황제를 판단할 수 있으나 황제는 주교를 판단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2. 그는 국가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기독교의 도덕규범을 존중해야 하며 데살로니가에서의 반란 진압 시 특별히 잔인성을 보인 데오도시우스 대제에게 교회에

---

15) 영해(靈解)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비유로 푸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어거스틴은 계시록 4장 7절에 나오는 네 짐승을 네 복음서에 비유하면서 마태복음을 사자로, 마가복음을 송아지로, 누가복음을 사람으로, 요한복음을 독수리로 묘사했다. 영해를 따르면 모든 성경 구절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 영해를 가장 널리 파급시킨 사람이 바로 필로다. 유대인으로 신플라톤주의자인 필로는 성경의 모든 문자의 배후에는 어떤 신비한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필로는, ‘걸음으로 드러난 현상의 배후에 있는 것이 실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플라톤의 관념주의를 성경에 적용하였다. 신천지를 비롯한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소종파들(cults)은 성경을 비유적으로 영해하여 성도들을 유혹한다. 다음은 영해의 한 예이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의미하고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한다. 교회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면 강도를 만난다. 우리는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한다. 또 만약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었다면 포도즙과 기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피요, 기름은 성령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치료를 받아서 영혼의 상처를 고쳐야 한다. 그리고 더욱더 잘 치료받으려면 데나리온 둘이 필요한데 이것은 신약과 구약이다. 강도 만난 자를 태우고 가는 짐승의 네 다리는 사복음서를 말하므로 우리는 사복음서라는 짐승을 타고 가야 한다.”



**오리겐과 유세비우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그리고 이교도들의 사상을 혼합하여 비유 해석(영해)이라는 오류를 만들어 낸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오리겐과 유세비우스는 성경 및 교회사 변개의 주범이다.

서 참회(고해 성사)할 것을 강요하였다.

3. 그는 교회와 국가 간의 긴밀한 결속 관계를 추구하였고 이 일이 교회에 크게 유익하리라 확신하였다.

어거스틴은 오리겐의 비유적 성경 해석을 취함으로써 참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육체에서 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송두리째 제거했고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논증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생긴 그리스도의 교회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고 교회가 머리가 되는 소위 ‘교회교’를 창설한 초대 교부들은 교회사에서 엄청난 망언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의 열매들은 첫 정치 신학자 유세비우스에 의해 암브로스와 어거스틴 등에게 전달되며 로마 교회 안에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개신교 목사들은 성경에 없는 ‘바울-어거스틴-루터’라는 족보까지 만들어 놓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어거스틴의 사상에서 출발했다고 말하며 이제는 ‘성경 메시지’ 대신 ‘카톨릭 미사곡’까지 교회 안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 어거스틴의 무력 사용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늘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은 비록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므로 세상에 동화되지 말 것을 곳곳에서 가르칩니다(롬12:2; 고후6:14-18).

초대 교회 이후로 좁은 길을 걸은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의 분리 모델에 따라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며 살았고 그 결과 국가 교회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퍼져 나가 1세기 후반에는 그 당시의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 국가 교회의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깊어지고 도시를 떠나 산지와 계곡에서 유랑하며 꾸준히 순례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주후 2세기에는 처음으로 소아시아에서 몬타니스트들(Montanists)이 사도 교회의 순수성을 외치면서 믿는 성도들만이 교회의 회원이 됨을 주장했으며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에게 베푸는 유아 세례는 전적으로 비성경적임을 선언하고 재침례(Ana-baptism)를 행했습니다.

주후 3세기에는 전 로마 제국에서 노바티안들(Novatians)이 일어났습니다. 이들 역시 유아 세례의 죄악을 폭로하며 교회의 순수성을 외쳤습니다. 이들은 그 순수성으로 인해 뒤에 ‘순수한 자들’이라는 뜻을 지닌 카타리(Cathari)가 되었습니다. 그 뒤 4세기 초에는 아프리카에서 도나티스트들(Donatists)이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외치며 일어났습니다. 7세기경에는 타우루스 산지에서 폴리시안들(Paulicians)이 초대 자유 교회의 맥을 이으며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선교하기 시작했는데 이들 역시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침례와 그런 성도들만의 교회 회원권을 주장했습니다.

그 뒤 자유 교회는 12세기경의 왈덴시스들(Waldensians)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알프스 계곡에서 바른 성경을 붙들고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임을 외치면서 천주교회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불가리아와 보스니아에서는 보고밀(Bogomil)이라는 이름의 자유 교회가 천주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으면서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남부 지역에서는 폴리시안들의 뒤를 이은 알비겐시스들(Albigenses)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성도들이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였고 그 부패한 본성이 왜곡된 문화를 산출하였으며 왜곡된 문화가 다시 인간의 본성을 더욱 썩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죄가 용서되고 사탄의 지배를 받던 세상이 새로운 창조물로 갱신됨으로써 창조 세계가 변화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어거스틴은 후천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의 통치를 받으며 사람들이 변화되어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론에 의하면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생긴 대립, 갈등, 탄압, 착취, 전쟁 등 각종 무질서를 바로 세우고 어그러진 문화를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개신교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문화 정복 이론입니다.

어거스틴의 이론은 그의 저서 「하나님의 도시」에 잘 나타나는데 그가 이 작품을 쓴 목적은 이교도들이 로마 제국의 쇠퇴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는 것을 반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거스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문화가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교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변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교도 신앙의 덕이 기독교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온 왜곡된 문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세상이 변혁되고 갱신된다고 믿었습니다. 문화 변혁에 있어서 어거스틴의 목표는 모든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알덴시스와 아나뱃티스트 처형

「Martyrs mirror」(Thieleman J. van Braght, Herald Press)는 1,158쪽의 책으로 중세 천주교회의 성경 신자 박해 역사를 생생하게 기록하였다.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인격이 문화 자체를 변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심지어 국가나 교회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불신자들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바로 이것이 중세 천주교 무력 통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칼빈 역시 어거스틴의 이런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 복음이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스며들어 세상을 변화시킴으로써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고 믿었고 이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과 칼빈 그리고 루터 등의 종교 개혁자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무력을 써서라도 신정 정치를 이 땅에 구현하려 한 이유입니다.

어거스틴은 종교 강압을 교육의 한 방편으로 보았고 치명적인 결과가 닥치기 전에 그들을 오류로부터 견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황하고 있는 ‘아들들’을 참된 순종으로 인도하기 위해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세속 권력의 도움을 빌려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목적이 정당하고 선할 경우에는 교회가 물리적/군사적 방법을 사용하여 심지어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였고 직접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즉 그는 교회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기 위해 ‘치료적인 처벌’이 때로는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카톨릭교회에 대항하는 자들을 강제적으로 회심시켜야 한다는 어거스틴의 주장은 중세 천주교회의 십자군 원정과 종교 재판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나티스트들과의 논쟁에서 나타난 그의 성경 해석은 중세 천주교회와 그 이후 개혁자들의 개신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라(F. W. Farrar, 1831-1903)는 어거스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처음으로 성경을 짜 맞추어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해석을 이끌어

낸 사람들 중 하나다. 그러나 그의 성경 해석 체계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결점이 있다. 그는 교회, 즉 카톨릭교회의 정설에 따라 성경을 해석해야만 하며 어떠한 성구도 다른 어느 것에 따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원칙이란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의 권위가 나를 복음으로 향하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복음을 믿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카톨릭교회의 권위가 지지해 주고 있는 성경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제시된 구원의 길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 교회는 오류가 없으며 구원은 오직 교회에만 맡겨져 있고 따라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류투성이인 교회로 대체함으로써 철저하게 ‘사탄의 교회교’를 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의 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교회 자체가 진리의 표준이었고 따라서 교회가 복종해야만 하는 어떤 권위나 교회를 판단하는 교회 이상의 권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교회의 책, 즉 교회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귀 있는 자는 상형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이 말씀해 주듯이, 교회는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판단을 받는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여 뜯어고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그 이후로 로마 교회는 감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변경해 왔습니다.

### 어거스틴의 다른 사상<sup>16)</sup>

1. 마리아 숭배: 비록 그 나름의 마리아 사상을 퍼지는 않았지만 어거스틴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마리아에 대해 언급하였다. 431년에 열린 에베소 공회에서 로마 교회가 공식적으로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 ‘하나님의 어머니’로 부르기 전에 이미 그는 마리아를 그렇게 불렀다.
2. 교회: 그는 교회는 오직 하나만 있으며 그 안에는 두 개의 요소가 있다고 믿었다. 그중 하나는 보이는 요소로서 카톨릭 성례와 성직자 계급 체계 및 평신도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요소로서 교회에 속한 영혼들이었다. 전자는 구원을 선포하고 성례를 베푸는 제도적인 교회, 즉 그리스도가 세운 카톨릭교회이고 후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도시」에서 교회를 하늘의 도시 혹은 왕국으로 보았고 이 교회가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3. 사제들의 사도직 계승: 그는 키프리안의 가르침에 따라 카톨릭교회의 주교들과

16) 영어 위키백과의 ‘Augustine of Hippo’ 항목에서 그대로 발췌함.

사제들이 사도들의 계승자들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가르쳤다.

4. 자유 의지: 그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람들을 이성적인 존재로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지만 이 자유 의지가 죄를 짓는 용도로는 주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죄로 인해 더러워진 자유 의지는 물질들에 의해 갇혀 있으므로 죄를 짓기 전의 의지만큼 자유롭지 못하다고 믿었다. 그는 종종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멸망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어거스틴의 이론에 따라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자들은 원죄가 사람의 자유 의지를 완전히 멸절시켰다고 믿고 가르쳤다.
5. 유대인: 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 세상으로 흩으셨고 그들은 결국 세상 끝에 이르러서야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땅에 살되 흥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6. 종말론: 처음에 그는 모든 사람이 부활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신다는 천천년주의(Premillennialism)를 믿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육신적이라는 이유로 그 관점을 버렸다. 그는 사람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루는 후천년주의(Postmillennialism)에 가까운 믿음을 펴면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무천년주의(Amillennialism)를 주장하였다.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바탕으로 땅에서 승리하며 다스리는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무천년주의를 확립하였다. 종교 개혁 시대에 칼빈 같은 신학자들 역시 철저하게 어거스틴의 무천년주의를 수용하였다.
7. 연옥: 그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나 깨끗하지 못한 자는 연옥의 불에 의해 정화된다고 믿었다.
8. 현시대의 추종자들: 파이퍼(John Piper) 목사나 아렌트(Hannah Arendt) 같은 작가가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 원죄, 사람의 전적 타락, 이중 예정론, 무조건적 선택 등의 주제로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의 사상을 펼치고 있다.

### 어거스틴 사상 총정리

위에 열거된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신정 정치 교회: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무력까지도 동원하여 신정 정치를 구현하는 국가 교회가 유일한 교회이다.
2. 무천년주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왕국은 없다.
3. 이스라엘 대체 신학: 아브라함의 실제 자손인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미래가 없고 신약의 교회가 곧 구약의 왕국이므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이스라엘의

모든 복은 신약의 교회가 이어받는다.

4. 인간의 자유 의지 박탈: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의 자유 의지는 완전히 박탈되었다.
5. 세례 중생: 사람은 유아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난다.
6. 연옥: 그리스도 안에서 더러운 상태로 죽은 자들은 연옥 불에 의해 정화된다.
7. 마리아 숭배: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가져오는 은혜의 통로로서 죄 없이 수태되어 그리스도를 출생한 이후에도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8. 성인들의 공적: 수호성인들의 공적이 있으면 죄들이 경감된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사상은 지난 1,500년 이상 로마 카톨릭교회가 공언한 믿음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sup>17)</sup>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증언을 통해 어거스틴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모든 교리를 놓은 장본인이며 그래서 로마 교회로부터 '교회의 박사'(Doctor of the Church)로 불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함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사는 유세비우스나 필립 샤프(Philip Schaff, 1819-1893) 등과 같이 카톨릭교회사거나 카톨릭 편향의 개신교 교회사자들이 저술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기에 어거스틴이나 프란시스 같은 철저한 카톨릭교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성도)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마더 테레사, 프란시스 등의 카톨릭교회 성인들은 사도 바울이 저주한 '다른 복음', 즉 '행위 복음'을 믿고 가르친 사람들로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들'(saints)의 반열에 결코 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sup>18)</sup> 그 이유는 카톨릭교회의 '성인들'(saints)은 육에 속한 행위에 의해 카톨릭교회나 교황이 생산해 내는 인조 성인이지만 성경대로 믿어서 행위와 상관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saints)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확립한 로마 카톨릭교회의 '중생'(重生), 즉 '다시 태어남'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위로부터 와서 인간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는 중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어거스틴의 「고백록」이 들려주듯이 카톨릭교회에 귀의하여 그 시스템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인간의 제도적 의식이 마치 중생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사악한 카톨릭주의의 제도에다 고해 성사라는 또 다른 굴레를 하나 더 씌워 주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수도원 규칙을 보면, 그는 아비 종교를 더욱 강조하여 아비 계급에

---

17)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천주교의 유래」,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참조 바람.

18)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saints', 즉 성인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카톨릭교회가 인조 성인들을 양산해서 'saints', 즉 성자 혹은 성인이라고 부르므로 성경 번역 시 어쩔 수 없이 'saints'를 성도, 즉 '거룩한 무리'로 번역하였다.

절대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사제를 ‘신부’(神父), 즉 ‘하나님 아버지’라 부릅니다. — 물론 영어권에서도 카톨릭교회의 사제는 ‘Father’로 불린다. — 그들은 베드로를 유일한 카톨릭교회의 통일성으로 삼고 교회의 특성을 머리되신 그리스도에 두기보다는 ‘통일성, 보편성, 거룩함, 전통’에 두고 있습니다.

3세기경에 오리겐의 ‘마리아 숭배 사상’이 암브로스에게 왔을 때 그는 ‘마리아 숭배 사상’에다 ‘성물 숭배 사상’을 더했고 어거스틴은 이 모두에다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인정하는 연옥설을 보태어 ‘연옥설의 원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죄인들 중의 우두머리니라.”(딤펴전1:15)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서신이야말로 그의 고백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체적인 길, 즉 예수님의 피를 통한 구원,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온 영혼으로 체험하였으며 이 체험을 바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가지라고 성도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짧은 서신서들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In Christ Jesus)라는 말이 무려 40회나 기록되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것이 기독교이다!”

그런데 영생의 심판자 노릇을 해 온 카톨릭교회 안에 안주한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온통 카톨릭교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그가 복음을 모방한 거짓 종교에 빠진 채 침울하고도 우울한 종교적 위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의 종교성 테두리 안에서 끝없이 방황하였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 줍니다.

그는 악의 비참함을 철저히 되짚음으로써 얻게 되는 종교적 위안을 통해 회한의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찾지 못했고 따라서 오직 한 가지 일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쫓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는”(빌3:13-14) 그 환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르낙(A. Harnack, 1851-1930)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카이사르적이고 동시에 어거스틴적인 로마 카톨릭교회 안에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경험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족하기에 혹은 이방인들의 사도였던 바울이 그토록 자상하게 설명한 은혜에 이르는 길이 부족하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 성경 밖에서 어거스틴의 은총론 같은 인본주의 은총론을 들먹여야 합니까? 어거스틴의 은총론은 로마 교회의 공회 중 가장 사탄적인 공회로 알려진 트레نت(트리엔트) 공회가 결정하고 발표한 카톨릭교회의 의인론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어거스틴파에 속했던 루터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카톨릭교회와 수도원에서 수많은 현대판 어거스틴과 그의 모친 모니카를 만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아직도 인간의 종교적 은총론에 갇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분적으로 성구도 인용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머물고 있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성모 교회, 즉 ‘거룩한 어머니 교회’ 안에 안주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자리 잡을 수가 없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딤후 3:5). 비록 그들이 베드로의 무덤을 뒤적이면서 무덤에서 일어나신 ‘살아 계신 생명의 주’를 찾고 있으나 그들의 길은 결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큰길입니다.

### 3. 도미니크와 종교 재판

콘스탄틴 때부터 이미 암흑기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학자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본격적인 암흑기는 성경이 금서로 지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시119:105).

13세기 무렵, 로마 카톨릭주의는 주님의 말씀의 빛을 꺼 버리고 인류를 성경으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끈질기게 애썼습니다. 싸움의 불씨를 지핀 것은 도미니크 구즈만(Dominic Guzman, 1170-1221)이라는 이름의 스페인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는 교황 이노센트 3세(Pope Innocent III, 1161-1216)와 더불어 로마 교회의 가장 흥포한 통치 도구인 종교 재판을 고안한 사람입니다. 종교 재판은 마녀나 이슬람교도들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sup>19)</sup>

19) 종교 재판은 이단 심문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이단자의 탐색, 적발, 체포, 재판, 처벌을 포함하는 이단자 박멸을 위한 일체의 활동을 그 임무로 하였다. 이단자에 대한 탄압은 4세기 그리스도 교회[엄밀하게 말하면 로마 카톨릭교회]의 성립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12세기에 이르러 그 정도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남프랑스에서 일어난 대규모적인 이단 운동이 교회에 준 심각한 위기감 때문이었다. 로마 교황은 일종의 십자군을 결성해서 20년에 걸친 이단자 박멸 전쟁을 일으켜 어렵게 이들을 진압하였으나 사후 대비책으로서 이단 박멸 강화책을 강구할 필요성을 통감하였다. 그래서 이단자와 신학적 논쟁을 전개하는 데 충분한 학식과 종교적 열의를 가진 적격자를, 교황의 대리자로서 치외법권을 부여하여 전 그리스도교 국가[카톨릭 국가]에 파견해서 전적으로 ‘이단 사냥’에 종사시키는 전문적이고도 항구적인 조직을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 1233년 4월 당시의 교황 그레고리 9세는 교황 교서로서 이를 발표하고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를 ‘이단 심문관’에 선임하였다. 이같이 해서 제도화된 종교 재판의 조직은 이단 심문관의 파견/주둔에 따라 전 그리스도교 국가에 퍼졌다. 종교 재판 방법은 피고에게 유리한 변호는 일절 허용되지 않고 불리한 증언만 허용되었으며, 밀고는 비록 친자식 형제 사이의 것이더라도 정의라는 이름으로 칭송을 받았다. 또한 다종다양하고 치절한 고문에 의해 자백이 강요되거나 날조되었고 암흑 재판을 통해 용의자는 유죄 판결과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단 탄압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했기 때문에 종교 재판은 각국의 국왕, 영주,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세속적인 재판으로도 행해졌다. 그 뒤 종교 개혁 시대에 이르자 프로테스탄트 국가에서도 종교 재판이 시행되었는데 그 재판 방법은 카톨릭 측의 방법과 같았다. 이 종교 재판 제도는 나라에



## 도미니크 구즈맨

교황 이노첸트 3세와 더불어 로마 교회의 가장 흥포한 통치 도구인 종교 재판을 고안한 인물. 도미니크회의 창시자

그 당시에는 알비겐시스(Albigenses)라고 불리는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sup>20)</sup> 이 명칭은 프랑스에 있는 ‘알비’라는 지명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당시 알비겐시스들은 천주교 성직자들과 자주 논쟁을 벌였고 특히 구즈맨과도 논쟁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천주교회에서 성 도미니크라고 숭상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sup>21)</sup> 도미니크는 알비겐시스들을 이단이라고 고소했지만 그의 유명한 고소장을 살펴보면 오히려 알비겐시스들이 실제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비겐시스들은 권력과 영화의 과시나 그럴싸한 옷차림을 통해 개종자를 확보하지 않았다. 열정적인 설교, 겸손함, 절제하는 생활이 그들의 무기이다. 그들은 겉보기로도 티가 난다. 그러나 그들의 거룩함은 겉치레일 뿐이다.

도미니크는 알비겐시스들의 거룩함이 허울 좋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를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1820년경에 거의 폐지되었다(두산백과).

20) 네이버에서 ‘발도파와 알비파’라고 치면 지식백과에 이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을 절대자가 기술한 것이 아니라 역사가 또는 지배층이 기술하고자 한 것만을 기술한 것이다. 한마디로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그런 까닭에 역사에서 잊히거나 잘못 알려진 사건 또는 존재들을 깨내는 작업은 뜻도 있고 재미도 있다. 발도파와 알비파도 역사와는 썩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왜곡된 채 알려졌다고보다는 제대로 알려질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러할 것이다. 알비파는 프랑스의 알비 시 근처에 살면서 성경에 근거한 삶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선량하고 순진한 사람들이었다. … 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 청빈한 삶,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삶, 신자와 수도자 사이에 평등함을 유지하는 삶을 추구했고, 교황과 기존 교회는 이러한 삶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21)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는 개신교와 달리 교파가 없이 하나라고 오해한다. 그런데 개신교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등이 있듯이 천주교에는 어거스틴파, 도미니크파, 프란시스파, 베네딕트파, 갈렐파 등의 이십여 개의 파가 있다. 영어 위키백과 혹은 구글에서 ‘Catholic religious order’라고 치면 전체 명단이 나온다. 구즈맨은 종교 재판을 실시한 도미니크파의 원조이며 카톨릭교회의 성인으로서 보통 ‘성 도미니크’(Saint Dominic) 혹은 ‘오스마의 도미니크’로 알려져 있다. 우리말 위키백과에서 ‘도미니코회’라고 치면 이 파의 활동을 알 수 있다.

탄로낸 뒤 천주교식의 거룩함으로 그것을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미니크도 자신의 설교로 알비겐시들을 누르려고 마음먹었지만 그의 노력은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알비겐시들은 성경을 폭넓게 잘 아는 것으로 유명했으며 도미니크가 로마로부터 들여온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더 나아가 알비겐시들은 AD 1206년에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가 아니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로마 교회가 그저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혼돈의 교회로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클라우드(David W. Cloud)는 자신의 저서 「로마와 성경」(*Rome and the Bible*)의 9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sup>22)</sup>

로마 카톨릭교회는 선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지지도 않았다.

AD 1207년, 프랑스의 몽트리올에서는 도미니크를 주축으로 한 카톨릭 사제들과 알비겐시스들 사이에 최후의 신학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역사가들은 도미니크가 이 논쟁에서 참패를 당했으며 알비겐시스들의 대표였던 드 테름(Benoit de Termes)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대해 맥도널드(James McDonald)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sup>23)</sup>

구즈맨은 현장에서 완전히 굴욕을 당하고 말았다. 이에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대리인을 자처하면서 알비겐시스들에게 그들이 당할 역경과 죽음을 예고했다.

또한 도미니크는 이 협박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딴 공회를 만들어 종교 재판관을 집행하고 스스로는 공회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교황 이노센트 3세<sup>24)</sup>는 도미니크의 분노에 찬 간청에 힘입어 알비겐시스 신자들을 박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피의 숙청은 도미니크의 친한 친구인 드 몽포르(Simon de Montfort)<sup>25)</sup>가 주도했는데 이 사악한 사람은 천주교에서는 용감한 십자군으로

---

22) 현재 네팔에서 선교사로 일하는 클라우드는 현시대 근본주의 침례교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많은 글을 쓰고 책을 저술하며 예리하게 시대를 분석하는 분이다. 그가 운영하는 사이트 ‘생명의 길’(www.WayOfLife.org)은 미국의 근본주의 사이트 가운데서 가장 인기 있는 사이트에 속하며 여기에는 킹제임스 성경, 각종 이단, 침례교 역사 등의 자료가 매우 많다.

23) Who’s Who in the Cathar War: Dominic Guzman, James McDonald

24) 그는 교황권의 전성기를 이룩하며 ‘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한 인물이다. 그는 1204년에 제4차 십자군을 제창하고 1209년에는 제5차 십자군을 제창하였다. 그는 재위 기간 중 많은 부분을 프랑스 남부에서 일어난 알비파를 탄압하는 데 썼다. 그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교황청의 특사를 살해한 알비파를 카톨릭교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이들을 응징하기 위해 십자군을 편성하였다. 카톨릭교회와 알비파의 싸움은 크게 확대되어 14년간의 치열한 전쟁 끝에 1240년에 이르러서야 평정되었다(우리말 위키백과, ‘인노첸시오 3세’ 항목).

25) 12세기 초 교황 이노센트 3세 시절 남부 프랑스의 링구에독과 프로방스 지역에서는 카톨릭교회의 요구와 주장을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운동은 다른 많은 지역으로 확산됐는데 그중 ‘라 미네르브’(La Minerve)라는 곳에서는 140여 명의 남녀 신자들이



### 화형당하는 성도들

중세 암흑시대에 구즈맨과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 시작된 종교 재판으로 수천만 명의 성경 신자들과 유대인들이 믿음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하였다.

칭송받고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잔인무도한 학살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는 알비젠시스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교리의 흔적마저도 송두리째 없애려 한 자입니다. 이를 위해 드 몽포르르는 그들에 관한 문헌까지도 철저히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박멸했다고 합니다.<sup>26)</sup> AD 1233년, 교황 그레고리 9세는 종교 재판을 교회의 공식 교리로 채택했습니다. 이로써 성경 신자들을 향한 600여 년간의 피의 참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알비젠시스를 박멸한 뒤 교황은 성경을 번역하거나 소지하거나 읽는 행위를 전면 금지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클라우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비추는 빛은 로마 교회의 이단 교리를 모조리 폭로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평화를 사랑하는 무고한 사람들에게 끔찍한 박해를 퍼부었으며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성경까지 모조리 없애려 했다.

알비젠시스를 시작으로 로마 카톨릭교회의 종교 재판은 수 세기 동안 무수한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역사학자 돌링(John Dowling)이 1845년에 집계한 자료를 보면 종교 재판에 의한 사망자 수는 5,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숫자는 천주교에 의해 이단 판결을 받고 죽임 당한 사람의 누계가 이 정도라는 뜻입니다. 이는 공신력 있는 학자들이 빈틈없이 수집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입니다.<sup>27)</sup>

그들을 죽이려는 카톨릭 군대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때 그들은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카톨릭 군대 지도자 드 몽포르르는 커다란 장작더미를 준비하고는 그들에게 카톨릭으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장작더미 위로 올라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그때 그들은 “우리의 최고 권위는 교황이나 사제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뿐이다.”라고 외치며 모두가 장작더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다(『새 교회사 1』, 정수영, p. 283).

26) Rome and The Bible, David W. Cloud, p.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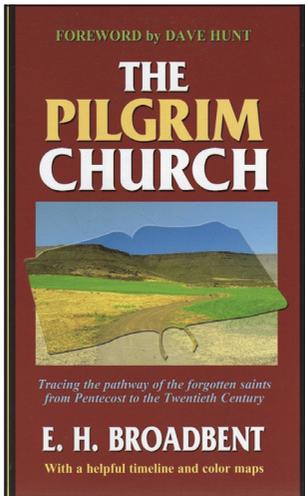
27) The History of Romanism, John Dowling, p. 541, published in 1845

#### 4. 순례하는 교회

프로테스탄트(개신교도들) 종교 개혁 이전에는 세상에 교회라고는 로마 카톨릭교회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통념과는 달리 역사의 기록은 종교 개혁 이전에도 로마 교회 밖에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이 언제나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로마 교회는 당연히 그들을 미워했는데 이들에 대한 기록은 브로드벤트(E. H. Broadbent)가 지은 「순례하는 교회」(*The Pilgrim Church*)에 잘 나와 있습니다(국내에서는 전도출판사에서 출간함).

여러 시대에 다양한 성경 신자들의 집단이 존재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로마 교황에게 순응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알비젠시스는 초기에 존재한 그런 집단 중 하나이며 다른 집단으로는 왈덴시스(Waldenses)가 있었습니다.<sup>28)</sup>

성경 신자들의 집단인 왈덴시스의 기원은 비록 성경 비평가들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대략 2세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존재한 구 라틴어 성경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sup>29)</sup>



그들은 보드와(Vaudois)라고 불렸는데 이것은 ‘골짜기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왈덴시스를 박해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거의 1,000년이 넘는 기간에 왈덴시스들의 씨를 말리려고 노력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형적으로 숨어 살기 좋은 이탈리아 북부의 산지에서 수 세기 동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왈덴시스들이 성경에 이바지한 공로는 엄청났습니다. 그들이 초기에 보유하고 있던 성경은 라틴어 역본이었는데 12세기경 이 모임의 유명한 지도자였던 왈도는 성경을 로망어(Romance dialect)라는 중세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로망어는 중세 영어와 고대 프랑스어의 중간쯤에 속한 언어였는데 로마 교회는

28) 왈덴시스는 보통 왈도파(발도파)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새 교회사 1, 정수영, p. 288」와 우리말 위키백과의 ‘발도파’ 항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29) 위에서 언급했듯이 시대를 거치면서 성경 신자들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이 영화의 저자는 초대 교회 시절부터 핍박받으며 믿음을 지킨 무리들을 넓은 의미의 ‘골짜기의 사람들’로 보고 ‘왈덴시스’라고 말한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12세기 말 리용의 상인이던 왈도(Peter Waldo, 프랑스어로는 발도(Petrus Valdo) 또는 발데시우스(Valdesius))를 통해 프랑스 남부에 세워진 기독교 신자들의 믿음 공동체를 보통 왈덴시스라고 부른다. 위키백과는 이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1. 개인적 성경 연구의 이해를 높임, 2. 회개의 의미를 높임, 3. 일반 성도 설교자(설교)들을 통한 복음의 확산, 4. 자발적 빈곤과 같은 개인적 무소유의 삶, 5. 성자숭배 거부, 6. 연옥 거부, 7. 면죄부 거부, 8. 맹세 거부, 9. 카톨릭교회의 모든 규정 거부, 10. 세속 재판권(특히 사형 제도에 관한) 거부 등.



### 왈도와 왈덴시스

중세 암흑시대에 천주교회는 왈덴시스들을 핍박하기 위해 그들을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마녀로 규정하며 그들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였다.

왈도의 성경 역본을 거부했습니다.

교황 알렉산더 3세는 왈덴시스 집단을 파문하였으며 교황 루기우스 3세는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어맨(Jack Moorman) 박사<sup>30)</sup>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늘 많은 박해와 중상모략과 이단 꼬리표가 따라다녔으며 그들에 대한 역사 기록은 종종 불태워지고 폐기 처분됐습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사를 알고 싶다면 결코 로마 교회에 합류하지 않았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좁은 발자취를 추적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이탈리아 북부와 프랑스 남부의 사이에 있는 피드몽(Piedmont) 골짜기에서 살았으며 프랑스 남부에서는 왈덴시스뿐만 아니라 알비겐시스, 카타리, 도나티스트 등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그들을 박멸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썼으나 순례하는 교회의 초기 믿음은 이에 굴하지 않고 후세로 전수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훗날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 개혁과 관련된 일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로마 교회는 루터를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는 이미 오래전에 정죄받은 왈덴시스와 알비겐시스의 이단 교리를 다시 끄집어냈을 뿐이다.<sup>31)</sup>

16세기 초 루터가 등장하기 전에 순례하는 교회의 믿음은 개신교 종교 개혁의 근간을 닮은 셋별과도 같은 한 인물 안에서 먼저 빛을 발합니다.

30) 무어맨 박사는 미국에서 파송을 받아 영국 런던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목사이다. 그는 「Forever Settled」 등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는 수십 권의 명저를 저술하였다. 그의 책들은 아마존이나 [www.BibleForToday.org](http://www.BibleForToday.org)에서 구할 수 있다.

31) The History of the Waldenses, William Jones, pp. 87-88, 1816

## 5. 위클리프

신구약이 완역된 최초의 영어 성경을 만든 사람은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4)입니다.<sup>32)</sup> 그는 라틴어 성경을 1384년경 당대의 영어로 번역했는데, 고대 사본 수집가이자 목사인 브라운 박사는 위클리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클리프는 종교 개혁의 새벽별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100년 이상 지난 시점에 틴데일이나 루터 같은 개혁자들이 뒤늦게 발견하여 믿은 것들을 이미 그때 믿었습니다.

위클리프는 전도자들을 훈련한 뒤 같이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들은 롤라드(Lollards)라고 불렸으며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효력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영국(잉글랜드)의 길거리에서 누가 두 사람을 만난다면 둘 중 하나는 '롤라드'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은 아직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은 심한 고난을 겪었으며 이들 중 다수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레일리(Dr. Alan O' Reilly)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에서 개신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인 14세기에 체포된 롤라드파 사람들은 산 채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위클리프의 성경 역본을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그 성경책을 목에 매단 채 책과 사람이 다 화형당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이전의 순례하는 교회와 마찬가지로 성경의 권위가 그 어떤 사람의 권위보다 높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해 클라우드는 자신의 저서 「로마와 성경」 81쪽에서 위클리프의 주장을 보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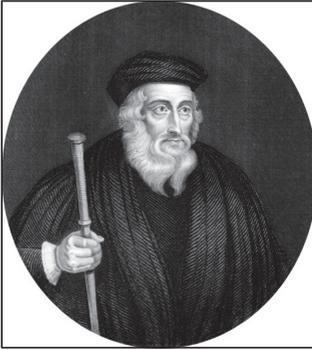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땅의 어떤 사람이든 하늘의 어떤 천사이든 성경과 모순되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피하고 멀리하되 마치 지옥으로부터 온 괴물을 멀리하듯 멀리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이 우리에게 준 진리와 자유를 굳게 붙들어야 한다.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한 사건과 더불어 중세에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했던 가장 치명적인 교리를 거부한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주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화체설입니다.<sup>33)</sup>

---

32) 위클리프는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서 생전에 시편 일부를 제외한 성경 대부분을 번역했고 나머지는 그의 추종자들이 완결하였다(「새 교회사 1」, 정수영, p. 338).

33) 화체설[Transubstantiation, 化體說] - 성변화(聖變化)라고도 함. 그리스도교[카톨릭교]에서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의 외형은 변하지 않지만 그 실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 12세기에 처음으로 화체설이라고 불린 이 교리는 로마 카톨릭교회를 비롯한 몇몇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신봉하고 있으며, 비록 빵과 포도주의 외형은 변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현존한다는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문자적 진리를 수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15세기에 스콜라 신학자들이 잘 정의한 이 화체설은 트리엔트 공의회(1545-63) 문헌에 수록되었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윌리크프와 윌클리프 영어 성경

최초로 신약약 완역 영어 성경을 번역한 윌클리프는 종교 개혁을 태동시킨 위대한 성경 신자이다.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이므로 그의 성경은 다 손으로 필사되었다.



이에 대해 '시대 분별 국제기구'의 창립자 오클랜드(Roger Oakland)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http://www.UnderstandTheTimes.org>).

영국 국교회 주교이던 라일(John. C. Ryle, 1816-1900)은 종교 개혁자들이 카톨릭교회가 공식적으로 지지한 교리를 부정한 것과 그들이 당대에 왜 그토록 목숨을 걸고 싸웠는지를 자신의 저서에 기록하였습니다. 필자가 특별히 관심을 두는 대목은, 당시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 교회로부터 극도로 미움을 받고 화형까지 당한 주된 이유가 그들이 로마 교회의 중요한 교리들 중 하나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이 교리 하나에 사람의 생사가 갈리곤 했습니다.

중세 암흑시대 사람들은 이 교리를 인정하면 목숨을 부지했으나 부인하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 교리는 주의 만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실제로 빵과 포도즙에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즉 사제의 축사를 통해 미사의 빵과 포도주가 실제 변화를 통해 100%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화체설과 관련해 고대 사본 수집가 겸 목사인 브라운 박사는 윌클리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세 암흑시대에는 화체설을 거부한 사람은 다 심문을 당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람들에게 동그란 미사 과자를 주면서 그것이 성변화가 생긴 성체(聖體),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므로 그 빵 조각에 절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감히 그 빵 조각 성체를 땅에 떨어뜨리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천주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미사의 전 과정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희생물이 되어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힙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거룩한 빵과 잔에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클리프는 화체설을 강경하게 거부했습니다.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카톨릭교회는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제거하려 했으나 그 시도는 매번 실패했습니다. 마침내 로마 교회는 그가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나서야 그에게 공식적으로 최고 등급의 저주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오레일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는 영어로 성경전서의 대부분을 최초로 번역한 위클리프를 심히 몸서리치게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훗날 그의 무덤을 파내고 그의 시신을 여러 조각으로 쪼갬을 뿐만 아니라 남은 뼈조각도 모조리 불살라 버렸습니다.

캔터베리의 대주교 아룬델(Thomas Arundel, 1353-1414)은 위클리프가 성경을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그를 가리켜 ‘저 오래된 마귀의 자식’이라 불렀습니다.

1428년, 로마 교회는 위클리프의 뼈를 파내어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위클리프가 죽은 지 44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뼈를 기어이 찾아내서 불태울 정도면 로마 교회가 얼마나 그를 중효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클리프는 생전에 파문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죽은 뒤 콘스탄스 공회<sup>34)</sup>에서 공식적으로 천주교회의 저주의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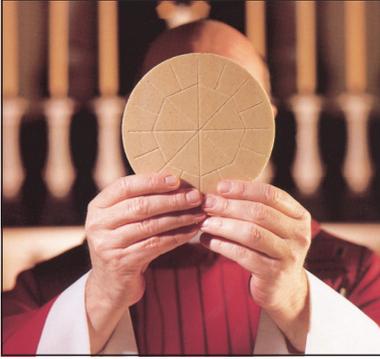
중세에는 어떤 사람이 로마 교회로부터 저주를 받으면 ‘중책-양초’라고 알려진 공식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 절차는 기록으로 잘 보존되어 있으며 위클리프의 무덤 앞에서 그를 저주한 것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클리프라는 자와 그의 추종자들 그리고 그의 배후 모두를 주님의 보배로운 몸과 피로부터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부터 떼어낸다. 우리는 이자를 하늘과 땅에 있는 성모님과 교회로부터 제명한다. 우리는 이자를 파문하며 아나테마(정죄의 저주)를 선언한다. 우리는 이자가 정죄받아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악의 무리들과 더불어 영원한 지옥 불로 떨어졌음을 엄숙히 선언한다! 이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부은 뒤 그들은 위클리프의 뼈를 루터워스 교회 뒤뜰에서 끄집어내어 완전히 불태우고 그 가루를 스위프트강에다 버렸습니다. 지리적으로 스위프트강의 물줄기는 영국에서 가장 긴 강인 세번(Severn)강으로 들어가고 세번강은 결국 영국 해협으로 갑니다. 그런데 위클리프의 교리가 세상으로 퍼져 나갔던 과정도 역사적으로 정확히 그런 루트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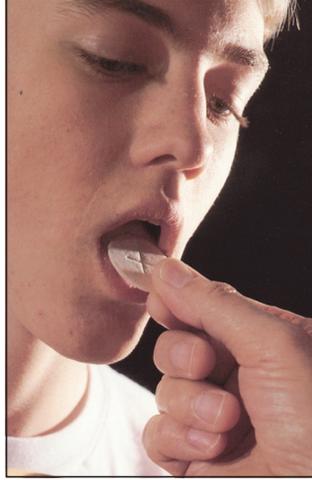
---

<sup>34)</sup> 주후 1414-1418년에 독일의 콘스탄스(콘스탄츠)에서 열린 카톨릭 공회(Council of Constance). 그 당시 천주교에는 세 명의 교황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기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명의 추기경들이 모여 회의를 하였다. 또한 이 공회는 성경 신자들인 위클리프와 후스(Jan Huss)를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천주교의 미사

천주교회는 사제의 기도를 통해 둥근 빵 조각이 실제로 살아 있는 그리스도로 변한다는 화체설을 믿는다.



위클리프가 남긴 가르침과 성경 역본의 흔적은 참으로 오늘날의 기독교계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세에 있었던 가장 위대한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 6. 종교 개혁

콘스탄스 공회는 위클리프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위클리프의 가장 유능한 동지이며 보헤미아 지방에서 열렬한 종교 개혁 활동을 하던 후스(Jan Huss, 1369-1415)<sup>35)</sup>도 정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의 이름을 따라 ‘후스파’(Hussites)라 불립니다.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그는 교황 무오설<sup>36)</sup>을 반대했으며 성경의 권위가 교회 간부의 의견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이단으로 정죄받고 1415년에 화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35) 후스는 좀 더 극단적인 입장에서 교황청과 정면 대결을 전개해 나갔다. 그는 우선 자격이 없는 교황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나갔다. 회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교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황이 교회를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의 사익을 위해 행동한다면 과연 교황으로서 그의 권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그는 의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는 교황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 신자들에게 성경이 궁극적 권위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교황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새 교회사 1』, 정수영, p. 341).

36) 주후 1869-1870년에 열린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밝힌 카톨릭교회의 입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가르침을 후대에 전할 교도직(敎導職)을 사도의 후계자인 로마 교황과 주교에게 맡겼으며 따라서 신앙과 도덕에 관한 공의회 결정, 교황좌(座)의 선언 등은 그리스도의 약속과 성령을 통해서 나왔으므로 무류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두산백과).

후스라는 이름이 체코어로 ‘거위’를 뜻하므로 ‘너희가 비록 지금 거위를 죽여 없앨지라도 하나님은 100년 안에 그 거위 잣더미로부터 백조를 일으키실 것이다. 이로써 결국 아무도 진리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sup>37)</sup>

그런데 실로 그가 죽은 뒤 약 100년이 흐른 뒤,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는 후스의 설교에 영향을 받아 독일 비텐베르크의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했습니다. 이것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종교 개혁의 서막입니다.

많은 이들이 종교 개혁은 카톨릭교회 외부에서 카톨릭교회를 반대한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종교 개혁자들의 상당수는 이런 통념과는 달리 카톨릭 사제 출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클리프도 로마 카톨릭 사제였다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뒤에 신학 노선을 바꿨습니다. 틴데일도 1521년에 천주교 사제로 임명되었지만 나중에는 평민들을 위한 성경 번역으로 인해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 살펴본 후스와 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 녹스(John Knox, 1514-1572), 츠빙글리(Ulrich Zwingli, 1484-1531) 그리고 유명한 루터도 천주교 성직자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교 개혁 이전의 오랜 세월 동안 알비겐시스와 왈덴시스 등의 성경 신자들이 천주교회와 논쟁을 벌이면서 담에 가두기 시작한 엄청난 규모의 개혁의 물을 마침내 루터가 터뜨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 성경 신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위클리프와 후스 그리고 후스의 친구인 프라하의 제롬 등이 성경을 읽고 믿었다는 이유로 로마 교회에 의해 정죄받고 화형을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님의 검입니다(엡6:17). 종교 개혁자들이 자기들의 믿음을 방어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한 무기가 바로 이 말씀의 검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루터 시대에는 종교 개혁을 가능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운동이 독일을 넘어 전 유럽으로 확산하게 했던 놀라운 매개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397-1468)가 1440년경에 발명한 인쇄기입니다. 구텐베르크는 그냥 인쇄기가 아니라 쉽게 활자를 교체할 수 있는 활판 인쇄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그는 원래 금세공업자였습니다. 나무로 된 판을 이용한 인쇄 방식은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그는 이미 만들어진 활자를 배치만 바꾸어 손쉽게 판형을 바꾸고 많은 양의 책들을 빠르게 찍어내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종교 개혁 이념이 담긴 수많은 책과 다수 사본에 근거한 종교 개혁 본문을 담은 성경책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 이전에는 평균 수준의 서기관 한 명이 성경전서 한 권을 필사하는 데 무려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1455년에 구텐베르크는 그 유명한 구텐베르크 성경을 1년 동안 혼자서 200부를 찍었습니다.

---

37) Jan Huss: The Goose of Bohemia, William P. Farley



### 구텐베르크

그가 발명한 활판 인쇄기로 인해 16세기의 종교 개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의 인쇄기로 가장 먼저 찍은 책은 구텐베르크 성경이다.

지난 수 세기 동안 로마 교회는 성경책을 불태우고 위클리프나 카톨릭주의에 반하는 노선을 가는 사람들이 쓴 책들도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해 그런 책들은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던 속도로 보급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쇄술 덕분에 루터는 당시에 그 정도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틴데일 역시 그러한 호소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서기관이 10개월 동안 꼬박 앉아서 고되게 일해야 위클리프 성경을 한 권 필사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단 몇 주면 수십 권을 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 개혁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쾌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구텐베르크가 최초로 찍은 성경은 4세기경에 제롬이 번역한 본문을 담은 ‘라틴어 벌게이트’(불가타)를 기반으로 했습니다.<sup>38)</sup>

위클리프의 성경 역본도 대본이 라틴어 본문이긴 했지만 그 대본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위클리프와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의 ‘자필 원본’(Original autographs)이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되어 있음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유대인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필사본들을 아주 세심하게 보존해 왔는데, 구약

<sup>38)</sup> 제롬(Eusebius Hieronymus, 영어 이름 Jerome, 주후 340-419)은 특별히 성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했으며 후일에는 여러 여인들의 도움으로 베들레헴에서 수도원을 창설했다. 그는 강력한 자기 부인과 성직자들의 독신생활 그리고 마리아 숭배를 주장했다. 주후 382년경에 로마 교황 다마스우스는 그에게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다시 번역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그는 오리게네의 작품인 <70인역>을 이용하여 훗날 카톨릭교회의 공식 성경이 된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다. 이 일을 통해 그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구 라틴어 성경’, 즉 원래의 사본에 거의 일치하는 바른 역본이 궁극적으로 폐기되고 그의 ‘신 라틴어 성경’이 그것을 대체하게 되었다. 즉 제롬의 라틴어 성경은 올바른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면서 강압적으로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선 강압적 성경이다. 이것은 보통 라틴 벌게이트(Vulgate) 성경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벌게이트는 ‘공통의’, ‘평민의’라는 의미의 라틴어 ‘vulgar’에서 나왔고 국내에서는 이것이 ‘불가타’로 알려져 있다.

성경은 일부 아랍어 본문을 제외하면 모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후대의 신약 성경은 시장에서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던 ‘코이네 그리스어’(고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적 측면에서 종교 개혁 다음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1453년의 콘스탄티노플 몰락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은 4세기에 로마 황제 콘스탄틴에 의해 세워진 도시로서 그는 이곳을 전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로 삼을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틴이 죽은 뒤 데오도시우스 1세 사망 이후에 로마 제국은 결국 395년에 동과 서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서쪽에서는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그리스어로 읽고 쓰며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것은 비잔틴 제국이 득세하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러다가 1453년에 오스만투르크에 속한 이슬람교도 술탄 메메드 2세(Mehmed II, 1432-1481)가 군대를 이끌고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자 서유럽은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로마 쪽 비잔틴 학자들의 다수가 서쪽으로 피신하면서 이때에 수천 부에 달하는 고대 그리스어 문서 필사본들을 같이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 본문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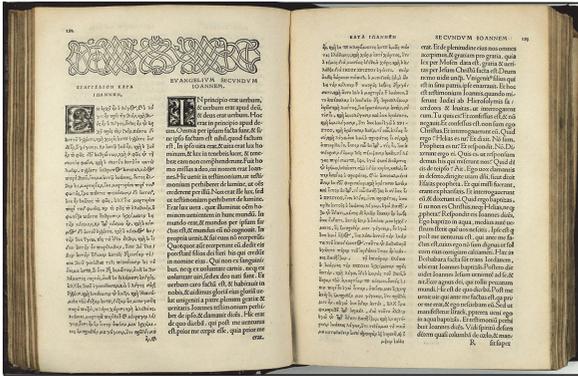
이렇게 이슬람 족속인 오스만투르크가 동로마 제국의 수도를 장악하자 그 학자들은 서유럽으로 피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어 신약 성경 필사본들도 서유럽으로 같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 이듬해부터 비잔틴 학자들은 유럽의 여러 대학교에서 그리스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학자 중에는 헤르모니무스(George Hermonymus) 혹은 ‘스파르타의 헤르모니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파리의 소르본 대학에서 최초로 그리스어를 가르친 사람이라 여겨집니다. 그가 길러 낸 제자들 중 유명한 사람으로는 네덜란드 출신의 석학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 최고의 학자로 알려진 에라스무스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 단행본을 최초로 집대성해 냈습니다. 16세기 유럽의 종교 개혁은 에라스무스의 이런 업적을 바탕으로 일어나고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살던 시절에 이처럼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소개됨으로써 서방 세계는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시각으로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벨기에에 있는 에라스무스 하우스의 관리자 바나우트게르텐은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라스무스는 서로 다른 언어로 된 상이한 본문들을 한 책에다 2개의 대역 형태로 편집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책을 펼치면 독자는 같은 쪽에서 두 종류의 본문을 같이 보며 대조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그리스어 본문과 라틴어 본문이 대역으로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1516년에 이 일을 수행한 에라스무스는 같은 쪽에 두 개의 본문을 찍은 최초의 인물입니다. 이것은 파격과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대역 성경을 통해 그리스어 원문과 에라스무스의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라틴어 대역 성경 16세기 최고의 학자인 에라스무스의 성경으로 인해 천주교회는 막강한 힘을 잃게 되었고 루터 등의 종교 개혁자들은 개혁 추진의 동력을 얻게 되었다.

번역문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었으므로 이것은 당대 종교인들의 사고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이렇게 사고 체계가 바뀐 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라틴어 학문이 아무리 우아해 보여도 원어인 그리스어 성경이 없다면 반쪽에 불과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을 진리가 흐르는 강물에 비유한다면, 그는 천주교 라틴어 성경은 소수의 작은 물줄기와 진흙투성이 웅덩이에 불과하고 그리스어 성경은 수정처럼 맑은 금을 실어 나르는 강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그리스어 필사본이 발견되자 학자들은 이것을 천주교의 공식 성경인 제롬의 라틴어 별게이트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롬의 라틴어 성경 본문은 제대로 번역된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 금세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제롬의 별게이트가 너무 부패되었기에 자기가 직접 그리스어 본문으로부터 라틴어로 새롭게 번역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당시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은 에라스무스의 라틴어 본문을 천주교의 라틴 별게이트와 대조하여 읽어 보았고 곧바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 세상에, 둘이 이렇게 서로 다르다니!

에라스무스는 장차 자신이 그리스어 성경을 통해 발견한 것과 책으로 저술할 내용이 천주교의 본질적인 정체성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책을 보면 ‘참된 신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라스무스의 대표적인 레퍼토리인데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먼저 내 글을 읽고 이해하고 그 뒤에 내 책들에 대해 새로운 의견을 내놓아야 합니다.

에라스무스는 기존의 천주교회가 수백 년 동안 사용해 오던 라틴어 성경의 핵심 부패 구절들을 찾아내어 지적했는데 이는 번역 작업이 기독교 교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선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penance’와 ‘repentance’는 의미가 서로 굉장히 다릅니다. 전자는 천주교식의 참회, 고행, 고해 성사를 가리키고 후자는 신약 성경의 회개를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는 말씀의 경우 과거 천주교 라틴 성경에는 고행해야 한다는 ‘penance’로 표현되어 있지만 에라스무스는 회개를 뜻하는 ‘repentance’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고행 혹은 고해 성사(penance)를 해야 멸망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회개(repentance)를 해야 멸망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교리적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하느냐’ 아니면 ‘동일한 성정의 죄 많은 사람에게 죄를 자백하느냐’라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카톨릭교회의 고해 성사란 죄인에 불과한 사제로부터 죄의 사면을 받는 의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해자는 용서를 승인받는 대가로 금식이나 자선을 하거나 기도문을 외우거나 육체노동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트렌트 공회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많은 눈물과 육체노동이 없이는 고해 성사가 이뤄질 수 없다.

그러나 회개(repentance)는 이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죄로부터 180도 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두는 것이 회개입니다.<sup>39)</sup> 아주 단순합니다. 이런 문헌 기록이 전해집니다.<sup>40)</sup>

과거에 복잡하고 까다로운 고해 절차를 요구하던 교회들이 에라스무스 덕분에 개인의 마음의 변화인 회개만을 요구하도록 제도를 단번에 바꿔 버리기도 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행2:38)

에라스무스는 기존 라틴어 성경에 있던 또 다른 큰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녀 마리아<sup>41)</sup>에 대한 교리입니다. 종교 개혁 전에 수 세기 동안 마리아는

---

39) 회개는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유감과 슬픔과 더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면서 마음을 바꾸어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이며, 특히 복음이 말하는 회개, 즉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죄지은 것을 슬퍼하며 그것을 철저히 증오하면서 되돌아서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들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뜻한다.

40) 다음 책에서 인용함. Quote taken from Alister McGrath, from his book 『In the Beginning: The Story of the King James Bible』, pp. 57-58

41) 성경의 마리아는 한 처녀(a virgin)로서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요셉과의 육체적 결합을 통해 여러 자녀를 둔 여인이다. 그러나 천주교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지 않은 동정녀(the Virgin)이다. 영어 사도 신경은 마리아를 신성을 가진 존재, 즉 ‘the Virgin’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동정녀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예수님의 친형제/자매들을 사촌이라고 한다. 또 천주교회는 동정녀 마리아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자로 여겨져 왔는데 그 이유는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의 누가복음 1장 말씀, 즉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sup>42)</sup>

은혜가 가득한 자여(full of grace), 평안하나?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눅1:28, 라틴 별게이트).

교회사 연구자 맥그라스(Alister McGrath)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 사람들은 라틴어로 기록된 천사의 이 말로 인해 마리아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은총의 저장 창고’로 흔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도하면 그 은혜를 직접 나눠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누가복음 1장 28절과 관련한 이 번역을 통렬히 비판했다고 합니다.<sup>43)</sup>

천사의 이 말은 ‘은혜가 가득한 자’라고 번역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 혹은 ‘크게 호의를 입은 자’ 정도가 적합하다.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다는 것이지 마리아 자신이 남에게 호의나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많은 카톨릭 신자들은 교황 바오로 2세에게 큰 영향을 준 성 루도비코 마리아 드 몽포르(St. Louis de Montfort, 1673-1716)<sup>44)</sup>가 마리아에 대해 믿는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의 라틴어 별게이트 성경의 이 부분을 극도로 확대 해석하여 모든 은혜는 오직 마리아를 통해서만 생겨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 따르면 은혜가 충만한 분은 예수님이시지 결코 마리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 성경 필사본으로부터 발견해 낸 새로운 사실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중세 카톨릭교회에 대단히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가 수정처럼 맑은 샘물이다 비유한 그 진리는 훗날 이어질 종교 개혁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그는 그리스어 성경 본문을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타락했던

---

어머니’라고 부르며 그녀가 죄 없이 수태되었다는 ‘무염 시태’ 교리를 가르치고 최근에는 마리아가 8월 15일에 승천했다는 몽소승천 교리를 가르친다.

42)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로 번역되어 있음(눅1:28).

43) 동일 문서, McGrath, p. 58

44) 프랑스의 사제와 작가였던 그는 특히 오늘날 마리아론(Mariology)이라고 알려진 신학 분야를 주창한 초창기 작가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저서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과 「묵주 기도의 비밀」이 있다(위키백과).

성직 제도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도 썼습니다. 그는 종교 재판을 규탄하고 성직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저서들과 그리스어 신약 성경 출간은 곧장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sup>45)</sup>

루터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선포한 말씀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롬1:17).

루터는 다년간 수도승으로 지내면서 카톨릭교회가 요구하는 고행과 선행 등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을 통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대언자들도 그분에 대해 증언하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행10:43).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새로 발견하여 출간한 그리스어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1522년에 독일어 신약 성경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에라스무스가 낳은 알을 루터가 부화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에 대해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라스무스가 한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곳곳에서 발품을 팔면서 필사본들을 수집했으며 그것들을 편집하고 한데 모아 성경전서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516년에 드디어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성경 초판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급하게 만들어진 감이 있어서 그는 1519년에 증보판을 내었고 루터는 이 본문을 이용하여 1522년에 독일어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틴데일은 그리스어 성경과 이 독일어 성경을 참조하여 1526년에 영어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틴데일(William Tyndale, 1494-1536)은 ‘잉글랜드의 사도’라 불리며 일각에서는 그를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칭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는 존경과 사랑을 받았지만 로마 교회로부터는 극심한 미움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어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절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해 붙잡혀서 투옥되었고 나중에는 빌보르드라는 곳에서 교수형과 화형을 연달아 당하며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 북쪽에 있는 빌보르드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틴데일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두 그의 존재를 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현지 사람들은 틴데일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를 기리는 흔적이 현장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그곳에 있는 틴데일 기념비에는 그의 이름과 얼굴이 새겨진 동판이 붙어 있고 그곳의 한 개신교회에는 틴데일 박물관이 있습니다.

45) 에라스무스 이야기는 본서의 103쪽부터 자세히 수록됨(「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참조).



## 루터의 독일어 성경

루터의 종교 개혁은 독일어 성경 번역으로 인해 추진력을 얻게 되었다. 루터의 성경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밑받침이 되었다.

틴데일이 사제 서품을 받은 1517년에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입구에다 걸어 놓았습니다. 틈데일은 자기보다 앞서 복음을 평민들에게 전하려 했던 위클리프와 루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노센트 교황 시절부터 로마가 공포하여 시행한 교회법은 그 당시에 이러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거룩한 산(시내산)에 접근하려는 짐승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을 못 받은 일자무식들은 성경을 손에 대서도 안 되며 또한 교리를 설교해서도 안 된다.<sup>46)</sup>

틴데일이 살던 시절에 영국(잉글랜드)은 여전히 카톨릭 국가였으며 성직자들은 미사에서 오로지 라틴어만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라틴어는 평민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였습니다. 당시 틈데일은 라틴어를 알았지만 그리스어를 공부해서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어 했습니다. 틈데일은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하여 1515년에 이미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신학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옥스퍼드에서는 오로지 라틴어만을 다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어도 가르치는 케임브리지로 갔습니다. 그곳은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고 금서 처분까지 받았던 에라스무스가 그리스어를 가르쳤던 곳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시 에라스무스가 케임브리지에서 틈데일을 대면하여 직접 가르쳤다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에라스무스가 떠난 직후에 그가 도착하여 둘이 서로 만나지는 못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틈데일과 로마 교회가 대립하기 시작한 곳이 케임브리지임은 분명합니다.

젊은 시절 틈데일은 율시 추기경과 언쟁을 벌였는데 그는 고위 성직자일 뿐만 아니라 영국 왕 헨리 8세의 대법관이기도 했습니다. 틈데일 박물관 관리인인 베르크우틴(Johann Verkoutin)은 율시 추기경과 틈데일 사이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46)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p. 723, as cited by D. Cloud in 「Rome and the Bible」

어느 날 올시가 케임브리지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금반지를 비롯한 호화 액세서리를 하고 있자 틴데일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위 성직자라는 양반은 저렇게 땡땡거리며 사는데 평민들은 너무 가난해서 교육도 못 받고 라틴어를 몰라 성직자가 하는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 이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이 말을 들은 올시는 노발대발한 채 돌아가 버렸고 틴데일은 이내 학교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 뒤 웰치(혹은 웰쉬, Sir John Welch)의 도움으로 그는 자신의 고향인 글로스터셔주에 있는 리틀소드베리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틴데일은 성경을 알기 쉽게 백성들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하는 것만이 그들이 진리 안에 서는 길이라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틴데일이 신약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곳은 리틀소드베리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대해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틴데일은 리틀소드베리 저택에서 성경 번역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는 거기서 천주교 사제들과 논쟁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웰치 경은 기사 작위가 있는 고위층 사람이었으므로 천주교의 고위 성직자들을 초대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곳에서 틴데일은 웰치 경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가정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면 사제가 뭐라 말하든 틴데일의 반응은 늘 이랬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는 천주교 쪽 사람들이 드디어 부아가 치밀어서 ‘교황의 법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틴데일은 자기 신념에 대해 참으로 열정적이었고 자신이 신성모독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독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틴데일은 우연히 어떤 신학자와 사귀게 되었는데 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매우 학식이 깊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며 논쟁을 하다가 마침내 틴데일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대해 그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위대한 박사는 다음과 같은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성경이란 필요 없소. 보통 사람들이 읽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교황뿐이오. 교황의 법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낫소.

이 말을 들은 틴데일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충만한 채 이 같은 신성모독 발언을 참지 못하고는 다음과 같이 공개적으로 응수했습니다.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에 도전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신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오.

틴데일은 이 선언으로 인해 인생에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폭스의 순교사화」(*Foxe's Book of Martyrs*)<sup>47)</sup>의 기록에 따르면, 틴데일은 결국 해당 지역의 종교

47)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 존 폭스(John Foxe, 1516-1587)가 카톨릭교회의 박해 속에 죽은

재판소에 출두하여 심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관리들은 탄데일을 개 취급하며 거칠게 대했지만 그 어떤 것도 소몰이꾼까지도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겠다는 그의 열정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리틀소드베리에 있을 때 창문을 통해 저 멀리서 발을 가는 아이들을 실제로 보며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없다면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옮겨야겠다는 그의 열정, 바로 이것이 그를 움직인 원동력이었습니다.

소몰이꾼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겠다는 탄데일의 선언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평생의 과업이 되었으며 이 때문에 그는 로마 교회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건디나니 이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딤후2:9-10).

탄데일의 죽음에 관해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데일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함으로써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또한 카톨릭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언어로 성경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파문을 당했습니다. 탄데일을 파문한 사람들은 그를 미리 목 졸라 죽인 뒤에 불태웠는데 아마도 이것은 그나마 그들이 보여준 일말의 자비라면 자비일 것입니다.

종교 재판소 관리들이 보기에 탄데일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형에 처하기 전에 그의 목을 졸라 미리 질식사시켜 죽게 한 것은 그들이 나름 선처를 해 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탄데일이 처형당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은 빌보르드성의 외곽입니다. 그때 있던 빌보르드성은 이제는 파괴되고 없지만 탄데일 박물관의 내부에는 빌보르드성의 당시 모습이 모형으로 만들어져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탄데일이 간혀 있던 감옥 독방도 실제 크기와 동일한 모습으로 재구성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접하는 옥중의 탄데일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은 상당히 미화된 것이며 실제 모습은 사뭇 달랐을 것입니다.

탄데일이 머문 독방은 참으로 작았고 무엇보다도 아주 황량하고 심히 추웠습니다.

---

프로테스탄트들의 순교 역사를 생생히 기술한 책. 영국 청교도들의 가정에서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널리 읽힌 책으로 오랫동안 카톨릭교회에 대한 대중들의 견해를 형성하는데 이바지했다(탄데일 이야기는 118쪽부터 자세히 수록됨).

틴데일은 바로 이런 곳에서 2년 정도 갇혀 있다가 처형당했습니다.

틴데일이 죽은 지 수 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틴데일의 생애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유럽의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는 그들이 틴데일의 목을 졸랐지만 그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으며 여전히 산 채로 불길에 휩싸여 심히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처형당한 틴데일의 정확한 죄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합니다.

아마도 그가 저지른 유일한 실수는 교황을 카톨릭교회의 우두머리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일 것입니다.

틴데일이 죽임을 당한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틴데일의 죽음에 관해 런던에 있는 브리티시 도서관 관리인 중 하나인 고프(Moira Goff)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당시의 통념은 성경을 영어 같은 한 지역의 언어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헨리 8세와의 불화도 틴데일의 명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헨리가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것을 지지하다가 나중에는 헨리의 이혼을 반대하면서 그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틴데일은 표면상으로는 이단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지만 이는 모함에 의해 누명을 쓴 것이었습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은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어 누구나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게 가능해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잉글랜드의 정계는 매우 복잡하였습니다. 헨리 8세는 왕비이던 ‘아라곤의 캐서린’과 이혼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혼하려면 교황의 승인이 필요했기에 헨리는 교황에게 빨간 줄(red tape)로 묶은 80여 통의 청원서를 보냈습니다.<sup>48)</sup> 헨리는 이후에 최종적으로 교황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이 직접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 노릇을 하게 되지만 그전까지는 마음속으로 여전히 로마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황을 좀 그만 존경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황을 존경하는 일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헨리 8세 시절 영국의 대법관은 모어(Thomas More, 1478-1535)였는데 그는 훗날 틴데일과 그의 성경을 정면으로 대적한 사람입니다. 그는 교황에게 워낙 충성을 많이 바친 덕분에 나중엔 로마 교회에 의해 성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또 그는 틴데일을 마귀의 개와 같은 흉악한 야수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틴데일에 대해 악담을 퍼붓고 종교 개혁을 비방하는 내용의 책을 아홉 권이나 썼는데

48) 번문옥례(繁文縟禮)란 규칙이 너무 세세하고 번잡하여 비능률적인 현상을 말한다. 서양에서는 이것을 ‘레드 테이프’(red tape)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방대한 양의 공문을 묶어 저장할 때 붉은 띠를 썼기 때문이다. 이 말은 헨리 8세가 교황에게 보낸 편지를 빨간 줄로 묶어서 유래하였다(영어 위키백과).

그것들은 모두 합해 무려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는 언제나 교황과 로마 카톨릭교회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헨리 왕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로마 교회와 단교한 뒤에 모어는 도리어 반역자로 전락하여 교황에게 계속해서 충성을 바친다는 죄목으로 처형당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AD 2000년에 토머스 모어를 정치가들의 신성한 수호성인인 '성 토머스 모어'로 지명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모어의 수호성인 시성이 선포된 날은 10월 31일인데 그날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종교 개혁일로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게시했습니다. 어쩌면 당시 교황은 종교 개혁을 비웃을 의도로 일부러 이 날짜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개신교 신자들 중 일부는 모어가 천주교의 수호성인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 언짢아합니다. 모어는 틴데일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그를 집요하게 괴롭혔고 그의 지지자들까지 이단으로 몰아 고문하고 화형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모어는 아예 첼시에 있던 자신의 집 내부에 죄수 구금 및 채찍질 시설을 갖추고 거기서 이단자들을 직접 심문하기도 했습니다.<sup>49)</sup>

다음은 토머스 모어가 쓴 글입니다.

이단자들이 있으면 먼저 성직자가 이들을 고발한다. 만약 그들의 죄질이 불량하면 가차 없이 화형에 처한다. 스미스필드(화형장)의 불길에 덮친 뒤엔 지옥이 놈들을 반겨 줄 것이며 그들은 거기서 영원히 불타리라.<sup>50)</sup>

개신교 역사가들은 모어가 틴데일의 주변에 배신자를 심고 결국 그를 붙잡아 처형하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틴데일의 마지막 기도가 그의 대적들을 이겼습니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그런데 참으로 슬프게도 틴데일이 죽은 지 6개월 만에 왕은 커버데일(Miles Coverdale, 1488-1568)에게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틴데일의 뒤를 이은 커버데일은 물론 틴데일의 성경을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보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틴데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헨리 왕은 역사상 최초로 영어 성경 역본을 만드는 작업을 왕명으로 승인했으며 이를 계기로 틴데일의 번역본은 그 뒤에 만들어진 거의 모든 영어 성경들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틴데일에 관해 고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틴데일의 업적은 오늘날까지 참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9) Thomas More: Zero Tolerance, Brian Moynahan

50) Thomas More: The Search for the Inner Man, Louis Lohr Martz, p. 4

3절의 '빛이 있으라(Let there be light) 같이 자주 인용되는 유명한 구절이 이때 정립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현존하는 권력들(the powers that be)도 좋은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틴데일의 번역본은 최초로 널리 퍼져 나간 영어 성경일 것입니다. 또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틴데일은 영국인에게 영어를 확정해 주었습니다. 그의 성경이 인쇄되어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영어를 발달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틴데일의 영어 성경에 대해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틴데일은 1526년에 신약 성경을 완성함으로써 현대 영어의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이 금서였고 읽을 수 없는 책이었지만 그 뒤로 성경은 반대로 가장 널리 읽힌 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게 되면서 성경은 문맹 타파에도 이바지했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진 성경책은 대단히 컸고 교회 내부에만 보관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틴데일은 성경을 작게 만들어 누구나 어디서나 휴대하여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틴데일이 만든 성경의 상당수는 종교 재판 때 소실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소수만 남아 있고 그중 한 부는 런던의 브리티시 도서관에 있습니다. 브리티시 도서관의 고프는 틴데일 성경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틴데일 성경은 현재 몇 부만 남아 있는데 다 아주 예쁜장한 모습입니다. 틴데일 성경은 언어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1526년에 출판되었는데도 그 안의 표현이 우리에게 아주 친숙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가 후대 성경들에서 계속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10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출간된 이 두 역본을 꺼내 본문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틴데일은 죽기 전에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최초로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세 오경을 포함해 여호수아부터 역대기까지의 책들과 요나서를 번역했습니다. 비록 그가 구약 성경을 다 번역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모든 작업은 헨리 8세의 지시로 만들어진 '그레이트 성경'(1539년)의 근간이 되었고 또 종교 개혁 성경이라 알려진 '제네바 성경'(1557년)의 밑거름도 되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이 컴퓨터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로는, 킹제임스 성경도 무려 83%나 틴데일 성경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틴데일 성경을 그대로 차용한 킹제임스 성경 구절의 예입니다.

-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창1:3)
-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이까?(창4:9)
-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민6:24-25)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마6:9)

- 시대의 표적들(마16:3)
- 영은 원하나 육이 약하다(마26:41).
- 베드로가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마26:75).
-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요 1:1).
-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행17:28).
-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고전13:1)
-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살후3:13).
-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딤후6:12)
-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히12:2).

브리티시 도서관의 고프는 인터뷰에서 틴데일 성경에 대해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것은 틴데일 신약 성경의 팩시밀리 복사본으로서 틴데일이 출간한 원판과 거의 같은 크기이거나 약간 더 클 것입니다. 이 성경을 옷 안에 집어넣으려면 주머니가 좀 커야 합니다. 아마도 원판은 이보다 더 작아서 실제 주머니 크기였을 것입니다. 틴데일은 가히 놀라운 신약 성경을 만들어 냈습니다. 주머니에 들어가는 개인용 성경이라는 개념이 오늘날에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것을 처음 생각해 낸 사람은 틴데일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이 대부분 소각되는 바람에 오늘날에는 딱 세 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잘 장식된 채 온전한 형태로 책이 남아 있는 것만도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괜히 보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책이고 드라마틱한 책이며 대단히 중요한 도서입니다. 이 모든 특징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참으로 매력적인 이야기가 들어 있는 보물입니다. 역사 속의 한 대단한 인물과 관련이 있는 귀중하고 희귀하고 특별한 책입니다.

역사를 통해 여러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틴데일을 가리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어 성경 번역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의 대적들은 그를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그의 성경책들을 불태우고 그 책을 구해다 읽은 사람들까지 잡아다 화형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감독이던 턴스탈(Cuthbert Tunstall, 1474-1559)은 토머스 모어와 합세하여 틴데일의 성경에 수천 군데의 오류가 있다고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틴데일의 답변은 이러했습니다.<sup>51)</sup>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그날에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노니 나는 결코 내 양심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의 단 한 음절도 바꾸지 않았으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즉 명예와 쾌락과 재산을 내게 준다 해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51) William Tyndale, from a letter to John Frith, as recorded in Foxe's Book of Martyrs

틴데일은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요12:46-48).

## 7. 틴데일부터 제임스 왕까지

틴데일 이후로 영어 성경이 어떻게 변천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커버데일은 케임브리지 재학 시절부터 틴데일의 친구였습니다. 그는 틴데일 성경을 바탕으로 구약 성경 번역을 마치고 커버데일 성경(1535년)을 출간했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66권이 완역된 최초의 영어 성경이었습니다.

틴데일이 1536년에 처형당한 뒤, 그의 지지자 중 하나인 로저스(John Rogers, 1500-1555)<sup>52)</sup>는 ‘토머스 매튜’라는 필명으로 매튜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1537년에 나온 매튜 성경은 틴데일 성경과 커버데일 성경을 종합한 것으로 영국 내부에서 인쇄된 최초의 성경전서입니다. 이전에 출간된 틴데일 신약 성경은 독일에서 인쇄되었으며 커버데일 성경은 스위스에서 인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성경은 불법으로 영국 본토로 밀반입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틴데일이 최후의 순간에 주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되어 크롬웰(Thomas Cromwell, 1485-1540)은 헨리 8세에게 새로 세워진 영국 국교회회를 위한 영어 성경을 승인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고 커버데일에게는 예전에 만든 번역본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바로 그 결과물이 1539년에 출간된 그레이트 성경입니다.

그레이트 성경은 책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고 크롬웰 성경 혹은 크랜머 성경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름이 붙은 이유는 캔터베리의 대주교 크랜머(Thomas Cranmer, 1489-1556)가 그 성경의 서문을 작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레이트 성경은 왕명에 의해 잉글랜드의 모든 교회들에 비치되었기에 사슬 성경이라는 칭호도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책을 교회 강단에 사슬로 고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레이트 성경이 공인되면서 영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국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카톨릭교회의 수뇌들은 심기가 좋을 리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이 교황의 영향력으로부터 이탈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참된 복음의 말씀이 임하고 들려지기 시작했기

<sup>52)</sup> 잉글랜드 여왕 메리 1세의 통치시기에 활동한 종교 개혁가이자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순교자. 그는 1537년, 토머스 매튜라는 가명으로 발행된 영어 성경(보통 매튜 성경이라 불림)의 편집자이기도 하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때문입니다. 과거 도미니크 시절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성경 말씀은 로마 교황의 가르침과 일치했던 적이 없습니다.

1547년, 헨리 8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홉 살짜리 아들인 에드워드 6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에드워드 왕은 종교 개혁자들 편이었으며 대주교 크랜머까지 그 곁에 있었으므로 이제 영국이 굳건한 개신교 국가로 정착하는 것은 시간문제라 보였습니다. 새 왕은 우상 숭배와 천주교 관행을 완전히 척결할 ‘영국의 요시야 왕’처럼 비쳤으며 영국의 개신교도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과 로마의 속임수 사이의 갈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 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어린 에드워드가 왕좌에 앉아 있고 교황이 그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림에서 교황의 주변엔 “우상 숭배, 미신, 모든 육체는 풀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교황의 머리 위로는 책이 한 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개신교의 한 우화적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사복음서의 저자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교황을 들로 치는 것이 보이며 이것은 곧 교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뭇간다는 의미입니다.

에드워드 왕은 열한 살에 아예 “교황은 진정한 마귀 자식이며, 나쁜 놈이요, 적그리스도요, 가증스러운 독재자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sup>53)</sup>

그러나 새 왕의 재위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는 6년을 채 못 넘기고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개신교도인 자기 사촌 레이디 제인 그레이를 후계자로 지목하여 종교 개혁을 지속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9일짜리 여왕’밖에 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카톨릭 신자이면서 에드워드와 남매지간인 메리(Mary Tudor, 1516-1558)가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제인 여왕은 죽임을 당했고 메리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잉글랜드를 다시 로마의 손아귀로 되돌리려고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의 메리’(Bloody Mary)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sup>54)</sup> 이에 대해 데마르라는 작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메리는 잉글랜드를 로마 카톨릭의 속국으로 되돌리기로 완전히 작정했으며 이에 따라 영어 성경들을 모조리 압수하여 불태우라는 명령을 내렸다.<sup>55)</sup>

---

53) King Edward VI, as cited by David J. B. Trim, in Reformation and Counter Reformation posted in Liberty Magazine online, May/June 2009

54) ‘피의 메리’로 불린 튜더 왕조의 메리 여왕과 스코틀랜드 여왕 메리 1세는 다른 인물이다. 후자는 스코틀랜드 여왕(1542-1567) 및 프랑스 왕비(1559-1560)였다. 그녀는 현명하지 못한 결혼 결정과 정치적 조치로 스코틀랜드 귀족들의 반란을 유발해 잉글랜드로 피신해야 했고 급기야는 1577년에 잉글랜드의 왕권을 위협하는 카톨릭교도라는 이유로 참수당하였다. 그녀는 훗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공동 왕이 되는 제임스 1세의 어머니이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55) The History and Impact of the Geneva Bible from the Introductory Notes of the 2006 Restoration of the 1599 Geneva Bible, Gary DeMar

메리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경을 읽거나 번역한 사람들도 찾아내어 모조리 화형에 처했습니다. 이때 최초로 순교한 사람은 매튜 성경을 출간한 로저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 안에서 평안히 죽었으며 심지어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를 안심시켜서 화형대에 오르는 그의 모습이 마치 결혼식장에 가는 것 같았다고 전해집니다.

캔터베리의 대주교이며 그레이트 성경의 서문을 작성한 크랜머도 이때 처형당했습니다. 연로했던 크랜머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처음에는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신앙을 뒤집고서 로마 교회의 노선을 지지하는 글을 몇 편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지론을 다시 철회하였으며 이로써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크랜머는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진실하지 못한 글을 썼다. 내 손이 글을 쓰면서 내 양심을 위반했으니 먼저 내 손부터 불태워 주기 바란다. 나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원수요, 적그리스도로 여기며 그와 그의 거짓 교리들을 단호히 거부한다.<sup>56)</sup>

이처럼 크랜머는 손부터 불길 속에 집어넣으며 화형대에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피의 메리’ 시절에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돌링은 「로마 카톨릭주의의 역사」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메리 여왕 시절에 이단 정죄를 받고 산 채로 화형당한 사람의 수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88명이다. 희생자 중에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성직자와 평신도, 상인과 농부, 눈먼 자와 절름발이, 의지할 곳 없는 여성이나 갓난아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sup>57)</sup>

이런 갑작스러운 박해로 인해 800여 명의 잉글랜드 학자들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들 중의 다수는 제네바로 피신하여 칼빈(John Calvin, 1509-1564)과 스위스의 여타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았는데, 망명자들 중에는 성경 번역자 커버데일과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 녹스(John Knox, 1514-1572)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네바에서 또 다른 영어 성경을 만들기로 했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문을 담은 최고의 사본들을 사용해서 영국의 국왕이나 로마의 교황 같은 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영어 역본을 내기로 했습니다. 사실 틴데일은 죽기 전인 1534년에 신약 성경의 개정판을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네바에 모였던 학자들은 이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은 제네바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1557년에 부분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에 메리 여왕이 죽고 그녀와 자매지간이면서 개신교 신자인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1533-1603)가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한편 1560년에는 제네바 성경이 온전한 성경전서 형태로 출간되어서 잉글랜드의 새 여왕 엘리자베스 1세에게 헌정되었습니다.

---

56) Primary Sources: The Execution of Archbishop Cranmer, recorded by an anonymous bystander who saw the event, 1556

57) The History of Romanism, John Dowling, p. 550

제네바 성경에 대해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네바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본문으로부터 전체가 완전히 번역된 최초의 성경입니다.

제네바 성경은 종종 ‘순례자들(Pilgrims)의 성경’이라 불리는데, 그 이유는 1620년에 아메리카 대륙 플리머스에 도착한 청교도 1세대들(미국에서는 이들을 순례자를 뜻하는 ‘필그림’이라고 부름)이 가져간 성경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들은 이 성경을 사랑했습니다.

제네바 성경은 당시 가장 널리 보급된 영어 성경으로 등극하여 1560년부터 1644년까지 무려 200판 이상이 인쇄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최초의 스테디 성경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성경 본문에 난외주가 가득하며 그 분량이 30만 단어가 넘기 때문입니다. 난외주를 넣은 사람은 칼빈, 베자, 녹스, 커버데일 같은 걸출한 성경학자 겸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제네바 성경’에 대해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책을 읽는 것은 마치 성경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 구절에 대해 생각하는 온갖 코멘트들이 제네바 성경에 난외주의 형태로 첨가되었습니다.

「천로역정」의 번연(John Bunyan, 1628-1688), 「실낙원」의 밀턴(John Milton, 1608-1674), 청교도 혁명을 통해 공화국을 세우는 데 공헌한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 최고의 극작가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미국으로 건너가 플리머스 식민지를 건설한 브래드포드(William Bradford, 1590-1657) 등의 유명한 인물들이 제네바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한편 제네바 성경은 성경의 모든 본문에 장과 절 구분을 확립한 최초의 성경입니다. 성경의 장 구분은 캔터베리의 대주교 랭턴(Stven Lanton)에 의해 13세기경에 만들어졌으며, 구약의 절 구분은 그 뒤 유대인 랍비 나단에 의해 144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신약의 절 구분은 스테파누스(Robertus Stephanus, 프랑스어 Robert I Estienne, 1503-1559)가 1551년에 제네바에서 다른 종교 개혁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을 출판할 때 최초로 시도했습니다. 제네바 성경은 그렇게 따로따로 축적된 자료를 번역자들이 집대성한 끝에 신구약 성경전서의 형태로 1560년에 발간되었습니다.

다음은 브라운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절 구분이 생긴 것은 제네바 성경이 처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표기가 이때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물론 아주 좋았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제네바 성경은 훗날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가장 널리 퍼진 새로운 성경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제 다음 차례가 바로 1611년에 발간된 킹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발간은 제네바 성경이 잉글랜드에서 점차 금서로 지정되고 소지자가 체포되기 까지 하는 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제네바 성경이 금서로 지정된 이유는 아마 난외주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난외주는 제네바 성경을 대단히 유명하게 만든 부가 정보였는데, 거기에는 당대 종교 개혁자들의 전반적인 성경관이 담겨 있었으며 그것은 로마 카톨릭주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성향이었습니다.

성경 신자들을 향한 로마 교회의 박해가 계속될수록 그들은 로마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큰 음녀임이 틀림없다고 더욱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의 ‘신성모독 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는 한 여자’는 제네바 성경에 따르면 ‘일곱 개의 산’ 또는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도시’라고 합니다.

제네바 성경의 번역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일곱 언덕 위에 있는 도시가 무엇인지는 삼척동자라도 다 안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마땅한 창녀요, 영적 바빌론인 이곳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로마다. 이 창녀는 피로 붉게 물들어 있으며 피를 흘뿌리는 모습까지도 음탕하다. 그녀를 붉게 물들인 피는 성도들이 흘린 피다.<sup>58)</sup>

한편 그들이 교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요한계시록 11장 7절 난외주에 나옵니다. 이 구절은 ‘바닥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난외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sup>59)</sup>

이것은 지옥으로부터 권력을 갖고 올라온 교황을 의미한다.

이런 가르침은 로마 교회의 속을 뒤집어 놓았지만 그럼에도 수 세기 동안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1625년 제임스 왕이 죽은 뒤 그의 아들인 찰스 1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찰스 왕은 친카톨릭 성향과 폭군 행적으로 인해 개신교도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교황이 개신교 신앙을 말살하려고 꾸민 국제 음모를 몰래 지지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제네바 성경은 바로 이 찰스 왕 때 거의 완전히 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교회에 대해 나쁘게 써 놓은 난외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 8. 개신교와 교황 제도

개신교인을 영어로는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고 하는데 이 말은 원래 로마 카톨릭교회에 항거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한참이 지난 19세기에도 스펀전(C. H. Spurgeon, 1834-1892)은 이렇게 말했

58) Geneva Bible 1599 Edition, Tolle Lege Press, footnotes on Revelation 17

59) 동일 문서, footnotes on Revelation 17

습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항거해야 합니다. 로마 교회와의 화평이란 없습니다.<sup>60)</sup>

과거에도 이런 가르침이 알비겐시스와 왈덴시스 그리고 후대의 위클리프와 롤라드 같은 계보를 통해 전해지기는 했지만 그때는 워낙 박해가 심했고 십자군과 종교 재판 때문에 그런 항거 교리가 공개적으로 거론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활판 인쇄술로 인해 책이 만들어지고 보급되는 속도는 교황이 책을 불태우는 속도를 앞질렀으며 이로써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은 불길처럼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만이 종교 개혁의 원동력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경이 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예언했던 위험이 바로 카톨릭교회였음을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자각한 사실도 종교 개혁에 이바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리적 배경에서 탄테일이나 루터 같은 인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신교 목사인 페이즈리(Ian R. K. Paisley, 1926-2014) 박사는 루터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교황이 적그리스도임을 루터가 인지하면서부터 종교 개혁에 큰 힘이 실렸다.<sup>61)</sup>

하지만 루터는 자신이 가르치는 바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수 세기 전부터 이미 전해 내려져 오던 것임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의 기록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황청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최초로 선언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보다 훨씬 전부터 참으로 많은 위대한 선조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알리는 일을 해 왔기 때문이다.<sup>62)</sup>

그 당시에는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종교 개혁 신앙을 지닌 신자들 사이에서는 상식으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황이 사도 바울의 다음 예언을 성취한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sup>63)</sup>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

60) The Sword & the Trowel, Jan 1873, Charles Spurgeon

61) That Man of Sin: Dead or Alive, Dr. Ian R. K. Paisley, EIPS article

62) Luther, as cited by Dave Hunt in A Woman Rides the Beast, p. 257

63) 적그리스도의 뜻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이며,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이미 자기 때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여러 명의 적그리스도, 즉 불신자, 이단자, 박해자가 있다고 말했다(요일2:18; 4:3).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했고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했다(요일2:22; 4:3). 그러나 사도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있을 유일한 의미의 적그리스도를 생각했으며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살후2:3). 아마 요한도 요일2:18에서 이 구절을 생각했는지 모른다.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상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살후2:3-4).

그들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컬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황은 교회들로부터 높임을 받고 우두머리 노릇하기를 좋아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1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초기 그리스도인들과 종교 개혁자들은 교황이 발표한 온갖 신성모독적 선언들에 이끌리 나 있었습니다. 옛적부터 교황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선언했으므로 이는 극심한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어떤 자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마23:9).

하지만 역대 교황들은 ‘거룩한 아버지’(Holy Father)라는 호칭을 자신에게 적용해 왔으며 그에 걸맞은 권위와 권한까지 주장했습니다. 종교 재판을 주도한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sup>64)</sup>

교황은 이 땅에서 그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한편 교황 니콜라스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sup>65)</sup>

짐은 모든 것 안에 있고 모든 것 위에 있다. 고로 짐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과 동급이다. 짐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모두 할 수 있다. 짐은 모든 것보다 위에 있으니 응당 다른 모든 신들보다 위에 있다.

또한 니콜라스는 심지어 교황이 복음을 바뀔 권능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sup>66)</sup>

그러니 만물을 쥐락펴락하고 심지어 없애기도 하는 것이 짐의 권능에 달려 있다 한들 놀라워하지 말지어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자, 진실한 자,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64) Decretals of Gregory IX, Book 1, chapter 3

65) The Church Historians of England: Reformation Period, Josiah Pratt, p. 159, 1856

66) 동일 문서, Pratt, p. 159



### 재침례성도들의 순교

중세 천주교회는 유아 세례를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교리를 가르치며 국가 교회 체제를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재침례성도들(Ana-Baptists)은 천주교회의 유아 세례는 비성경적임을 주장하며 성경에 따라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침례를 주었고 이에 천주교회는 많은 성경 신자들을 수장하였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느니라(계3:7-8).

또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이다(갈1:8-9).

성경의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교황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급이거나 그보다 더 높다고 주장하였으며 카톨릭 신자들은 아예 ‘우리 주 하나님 교황님’이라는 호칭까지 썼습니다.<sup>67)</sup>

5차 라테란 공회(AD 1512-1517)는 그 당시 교황이던 율리우스 2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sup>68)</sup>

삼가 주의하시어 성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생명과 호흡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하께서는 목자이시고 의사이시며 통치자이시고 농부이시니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계신 다른 하나님이시니이다.

19세기에 들어서서 훗날 교황 비오 10세가 된 추기경 사르토(G. M. Sarto)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sup>69)</sup>

교황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다. 교황이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67) The Beast & His Image, Frederic Fysh, p. 276, 1837

68) Lateran Council, cited by Dr. Ian R. K. Paisley in The Bible of the Antichrist, p. 2

69) Evangelical Christendom, p. 15, published in London by J. S. Phillips, Jan 1, 1895

것과 같다. 그러니 누구든 교황의 말을 들었다면 탄생을 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14:6).

하지만 교황 비오 9세는 감히 다음과 같이 신성모독을 감행했습니다.<sup>70)</sup>

짐은 홀로 사도직의 계승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짐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교황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이 교황에게 직접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 보니파스 8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언하고 말하고 정의 내리는 것,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구원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황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sup>71)</sup>

또한 교황 클레멘트 6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교황 밖에서는 절대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항하다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저주받고 지옥으로 떨어졌다.<sup>72)</sup>

현대에 와서도 교황 요한 23세는 1958년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sup>73)</sup>

주권자인 교황의 인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오직 교황에게 연합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1984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sup>74)</sup>

하나님에게 가지 마라.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짐에게 와야 한다.

다음 인용문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보도되었던 기사로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여러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 믿는 바를 반박한 것입니다.<sup>75)</sup>

---

70)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Henry Charles Sheldon, p. 59

71) Pope Boniface VIII — UNAM SANCTUM, as cited in Apostolic Digest, book V: The book of obedience

72) Pope Clement VI — Super Quibusdam, as cited in Apostolic Digest, Book V: The book of obedience

73) Pope John XXIII, Coronation Homily, Nov 4, 1958

74) Pope John Paul II quoted by Professor Arthur Noble, as cited in The Pope's Apology, published online by the European Institute of Protestant Studies

75) No forgiveness Directly from God, Pope Says, Don A. Schanche, The Los Angeles Times, Dec 12, 1984, 과거에 비해 현대 카톨릭교도들 중에서도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널리 알려진 생각을 무시해 버렸다.

전통적인 천주교 교리에 따르면, 교황이 아무리 무섭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탈리아의 수호성인 중에는 ‘시에나의 캐서린’(Catherine of Sienna)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녀의 머리는 미라로 만들어져 오늘까지 로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sup>76)</sup>

교황이 사탄의 성육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대적하며 머리를 들어서는 안 되고 다만 그의 가슴에서 고요히 안식해야 한다. 교황 성하게 대항하는 자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며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존경한다. 우리가 교황을 존경하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이다.

역대 교황들은 거듭거듭 신자들이 자기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고집했지만 종교 개혁자들은 이에 정면으로 대항했습니다.

그중 루터와 같은 사람들은 “마귀에 사로잡힌 교황은 그의 독재와 폭정을 교회법을 통해 우격다짐 형태로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교회법은 설령 교황이 전 세계를 지옥으로 인도한다 해도 그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루터는 교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자의 권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귀한 피로 구속하신 우리의 혼을 우리가 잃어버려야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다.<sup>77)</sup>

나는 교황이 가면을 쓴 ‘성육신한 마귀’라고 믿는다. 그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sup>78)</sup>

루터만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14세기의 위클리프부터 19세기 후반의 스필전에 이르는 모든 저명한 개혁자들이 이 믿음을 갖고 있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교의 왕자’로 알려졌던 스필전 목사의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에 맞서 기도하는 것은 필수적 의무다. 그게 무엇인지 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다. 로마에 있는 천주교회가 아니라면 적그리스도라고 불릴 만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sup>79)</sup>

그는 또한 “일어나 이 도시 여리고를 건축하는 사람은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수6:26)라는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

76) Catherine of Sienna, as cited in Apostolic Digest, Book V: The book of obedience

77) Luther's Works, Table Talk, vol.54, no.441, p. 300

78) 동일 문서, p. 346

79) Charles H. Spurgeon, as cited by Dr. Ian R. K. Paisley in Spurgeon on Antichrist

여리고 성을 건축한 자가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 가운데 로마 카톨릭교회를 재건하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큰 저주가 있으리라. 우리 선조들 시대에 로마 카톨릭교회의 거대한 벽이 믿음의 힘과 노력의 인내와 복음의 나팔로 무너졌다. 그런데 지금 그 옛 터전 위에 또다시 저주받은 제도를 재건하려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로마 교회의 최악에 동조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사려 깊게 그러나 담대하게 경고해야만 한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선조들 시대에 로마 교회가 저지른 최악의 진상을 이야기해 주어야만 한다. 로마의 사제들이 올빼미처럼 햇빛을 싫어하므로 우리는 철저히 온 땅에 빛을 전파해야만 한다.

로마 교회에 독과 해가 되는 성경을 반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건전한 복음 책자들을 해외에 보내고 있는가? 한때 루터는 “마귀는 거위 깃털 펜을 싫어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는 성령님의 축복으로 기록된 책들이 마귀의 왕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대해 확실하고도 충분한 체험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이리들이 교훈을 받지 못한 양 무리들을 약탈하고 있으니 올바른 가르침만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종횡무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단들로부터 양 떼를 보호하는 최선의 길이다.<sup>80)</sup>

사보이 고백과 더불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옛 침례교회 고백 그리고 웨슬리의 감리교 교리 등은 모두 “교황은 교회에서 자신을 높이는 적그리스도이며 저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다.”라는 선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바치는 헌사의 서문에서 “폐하께서는 진리를 옹호하는 글을 쓰셔서 그 글을 통해 저 죄의 사람에게 치명타를 가해 그를 회복 불능으로 만드셨습니다.”라고 왕을 칭송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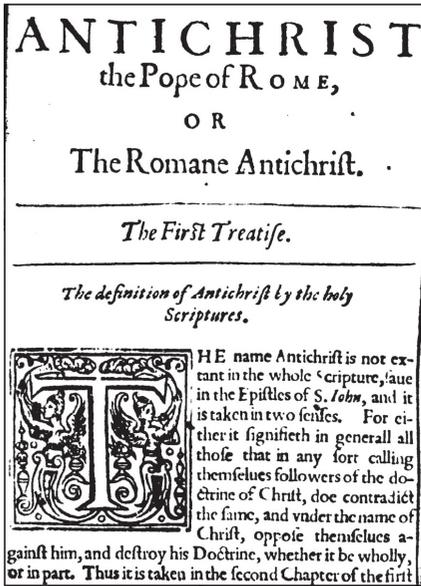
적그리스도가 단일 인물이 아니라 동일한 지위를 이어 나가는 다수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는 사실 완전히 새로운 생각이 아니며 저 옛날의 위클리프도 이를 지지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나고 물었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마24:4-5).

위클리프는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역대 교황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교황의 칭호인 ‘비카리우스 크리스티’(Vicarius Christi)는 직역하면 ‘다른 그리스도’라는 뜻이며 위클리프는 이처럼 적그리스도란 기괴망측한 합성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80) The Accursed City, C. H. Spurgeon, VPIF, Wales



교황은 적그리스도이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과 그들의 후예들은 “교황은 교회에서 자신을 높이는 적그리스도이며 저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성경적으로 보면 계13장의 적그리스도는 예수님 재림 전에 나타나 7년 동안 온 세상을 다스릴 마귀의 통치자이고, 요한계시록 17-18장의 바빌론 미스터리 음녀는 교황을 구심점으로 해서 적그리스도를 도울 종교 체제이다. 이를 위해 세상의 거짓 교회들은 종교 일치 운동을 통해 성경의 예언을 이룰 것이다.

교황의 호칭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힌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어 ‘안티’(anti)는 라틴어 ‘비카리우스’(vicarious)와 같은 말이다. 거기에서 ‘비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따라서 교황의 호칭인 ‘Vicar of Christ’는 문자 그대로 적그리스도라는 뜻이다.<sup>81)</sup>

하지만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여기는 이 전통적인 견해는 웬일인지 오늘날의 개신교인들에게는 널리 퍼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혁자들의 원래 믿음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현 교황의 공식 바티칸 초상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진리와 길과 생명: 거룩한 교황 베네딕트 16세의 초상화’입니다. 초상화의 이름을 보니, 현시대에도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지 부시가 미국 대통령 재임 당시 EWTN이라는 카톨릭 뉴스 기관과 인터뷰한 내용입니다(제목: G. W. Bush interview).<sup>82)</sup>

- ▶ 진행자: 대통령 각하, 마지막 질문입니다. 각하께서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눈을 들여다봤을 때 그의 혼을 보았다는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으시죠?
- ▶ 부시: 네!

81)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 p. 45

82) <http://www.youtube.com/watch?v=cZOWb1SsGaw>

- ▶ 진행자: 그러면 교황 베네딕트 16세의 눈을 보고 있을 땐 무엇을 보셨죠?
- ▶ 부시: 하나님입니다!
- ▶ 진행자: 인터뷰를 마무리하기 좋은 말이네요.
- ▶ 부시: 천만에요, 저도 감사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페이즐리 박사는 로마 교회가 영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오랫동안 반대해 온 개신교 목사입니다. 그는 영국과 유럽 의회의 회원이었고 북아일랜드의 첫 목사로서 2008년에 은퇴하였습니다. 페이즐리는 자신이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라고 생각했으며 그의 강력한 설교는 늘 다음과 같았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점에서는 언제나 가장 밝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태울 때 고맙게도 복음이 강력한 불길로 번져 나갔습니다.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 때 발생한 첫 순교자 패트릭 해밀턴이 화형당할 때 고맙게도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를 태운 연기가 날아가 닿은 자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주홍색 옷을 입은 오래된 창녀인 로마 교회를 떠났다.’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승리를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단 한 번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유럽 의회에서 연설하려 할 때 페이즐리 박사는 ‘피의 메리’ 시절에 화형당했던 대주교 크랜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며 회의장에서 외쳤고 교황에게 맞섰습니다. 그는 과거의 종교 개혁자들처럼 포스터를 들어 올리며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강렬한 비난 내용입니다.

나는 당신이(교황) 그리스도의 원수이며 적그리스도라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가짜 교리들도 규탄합니다. 나는 당신을 고발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제목: Ian Paisley Heckles the Pope (1988))<sup>83)</sup>

그러자 의장은 페이즐리 목사에게 그런 행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그의 주머니 안에는 다른 포스터도 있었지만 다 압수당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유럽이 인류 역사의 횃불이라는 것을 담은 원고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약간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페이즐리는 그날 유럽 의회의 모임과 앞으로 남은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훗날 자신이 밖에서 괴한으로부터 얻어맞았지만 자신을 제대로 보호하고 막지 못한 의회 경비대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의회장에서 페이즐리가 사용한 포스터에는 단순히 “요한 바오로 2세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즐리 목사의 증언입니다.

83) <http://www.youtube.com/watch?v=JlbmIMbKZa4>

나는 종교 개혁자들의 믿음을 역사적으로 계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론에다 예전부터 선조들이 지켜온 신앙 고백을 알렸고 그러다 보니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로마 교회가 거짓 교회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이 제가 처음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묘사된 그 교회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프로테스탄트(개신교도들)들의 믿음입니다.

페이즐리는 교황이나 교황의 조직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성취한 시스템임을 본인이 여전히 믿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물론 오늘날 성경의 예언을 가르치는 많은 교사들은 적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으며 우리는 그것이 맞음을 인정해야 합니다.<sup>84)</sup> 하지만 그 미지의 적그리스도 역시 교황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시대 분별 국제기구’ 창설자인 오클랜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며 성경에 따르면 이 사람은 물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일 뿐이며 성경에 따르면 사탄이 그에게 권능을 줄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온 세상을 통치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sup>85)</sup> 그러나 과거의 종교 개혁자들의 관점에서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교황 제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위클리프는 그 사실에 대해 너무 확신한 나머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 아직도 미심쩍게 다른 적그리스도를 찾아 헤맬 필요가 있단 말인가?<sup>86)</sup>

---

84) 종교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았으나 계시록 17-18장을 보면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를 돕는 바빌론 음녀 세력의 수장(핵심)이다. 그의 세력은 적그리스도의 힘을 입고 재림 전에 최고조에 이른다. 종교 개혁 시대에는 교황을 죄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로 보았지만 그는 결코 7년 환난기에 드러날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다만 마귀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교황을 죄의 사람으로 보는 것은 합당하다. 현시대에도 장로교, 안식교 등은 여전히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성경적 종말론의 입장에서 보면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의 하수인이다.

85) 한마디로 불법의 신비, 즉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초능력 인간일 것이다. 그는 거둔다지 않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는 놀라운 재능과 매혹적인 힘과 여러 방면에 능한 업적들, 초자연적인 지혜, 놀라운 통치력과 행정능력을 가질 것이다. 또한 그는 완벽한 아침꾼, 뛰어난 외교가, 최상의 전략가로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는 위대한 인도주의자, 사람들의 친구, 유대인들의 특별한 친구로 가장하여 자신을 대언자들이 예언한 황금시대로 인도하려 온 사람이라고 말하며 유대인들을 설득할 것이고 유대인들은 그를 자신들의 메시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는 강력한 기만술과 변치 않는 성공으로 사람들을 도취시킬 것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 내어 살해당했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것이다(계13:3). 그때에도 그는 이러한 권세들 중 어느 것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는 7년 환난기 동안 통치할 것이지만 종말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다시 오셔서 그의 연합 군대들을 쳐부수실 것이고 거짓 대언자와 함께 그를 산 채로 불 호수에 내던지실 것이다(「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86) Wycliffe, translated from *De Verstate Sacrae Scripturae*, Vol. 3, pp. 262-263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죄의 사람에 대해 경고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살후2:8).

루터는 종교 개혁자들 자체가 ‘주의 입의 영’이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마치 불이 장작더미를 소멸시키는 것처럼 교황을 소멸시키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루터는 교황에 관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그를 죽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입이 그 일을 해야만 한다. 그것만이 그가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찢겨나가는 것이며 그의 거짓말이 알려지고 멸시당하게 되는 길이다. 거룩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지혜롭고 담대하게 말하자! 이것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교황을 죽이는 길이다.<sup>87)</sup>

루터는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인 교황을 아마겟돈에서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계속해서 소멸 과정을 거치리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출간할 필요를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느낀 것입니다. 오클랜드는 루터의 성경 번역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사람들이 말씀의 빛이 없으므로 어둠 속에 붙잡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루터를 통해 성경이 번역되자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이 곧 종교 개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천주교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독교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카톨릭교회 미사에 관한 브라운 박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로마 카톨릭주의의 특징 중 하나는 미사라는 예식(개신교에서는 성찬식이라고 함)을 통한 구원을 아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폭스의 순교사화」에 나오듯이 로마 교회의 교리에 따르면,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미사를 포함한 온갖 예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에 폭스는 카톨릭 교리들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구원’의 원래 의미에서 완전히 이탈하여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스스로 일해야 하는 카톨릭 시스템을 확립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로마 교회는 성경에 없는 행위 구원을 가르칩니다.

천주교 교리에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속죄받기 위해 고행해야 한다는 행위 개념이 준비합니다. 속죄의 행위는 천주교 미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미사에서 주교는 산 자들과 연옥에 있는 죽은 자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끊임없이 미사의 빵 조각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임하도록 합니다.

---

87) Martin Luther, as cited by Dr. Francis Nigel Lee – Luther on Islam and the Papacy

오클랜드는 화체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카톨릭주의의 화체설에 따르면 사제의 손에는 권능 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동그란 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바꿔 놓으며 이것을 먹게 함으로써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 없는 희생’을 드립니다.

그들은 미사를 정기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연옥에서 불타고 있는 죽은 혼들을 위한 속죄 작업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얼마 동안 불속에서 자기 죄를 완전히 태워 없애 버린 사람들은 진정한 신자로 여겨집니다. 천주교회에 있는 한 그림은 그 과정을 완벽하게 보여 줍니다. 연옥에서 아직 고통당하고 있는 혼들을 위해 사제는 미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피를 쏟고 또 쏟아내는 그리스도를 동그란 빵 조각마다 단번에 소환시켜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들이 아직 완전히 속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는 서품을 받은 천주교 제사장만이 미사 때 그리스도를 불러올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카톨릭주의에서는 성만찬이 구원을 위해 도덕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sup>88)</sup>

덧붙여 오클랜드는 성만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제가 개입해야 하며 사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를 수 없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제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로마 교회는 미사가 단순히 상징일 뿐이며 문자적 의미의 희생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자유가 어느 누구에게도 없음을 아래와 같이 분명히 밝힙니다. 로마 교회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누구든지 미사에서 문자적이고 물리적인 희생이 하나님께 드러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거나, 그것이 과거 십자가 사건을 단순히 기념하는 의식일 뿐이라고 말하거나, 그것이 산 자와 죽은 자를 막론하고 죄의 대속을 이를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sup>89)</sup>

교회가 구원을 베푼다는 이런 해괴한 개념은 잘 아시다시피 결코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그토록 격렬히 맞서 싸웠던 대상이 바로 이런 사악한 교리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it is finished)라고 외치셨습니다(요19:30).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테테레스타이’(tetelestai)인데 이것은 ‘완전히 지불되었다’(paid in full)는 의미입니다.

---

88) New Advent, The Catholic Encyclopedia-Holy Communion, online at newadvent.org

89) The Canons and decrees of the Council of Trent, 22nd Session, Chapter IX

히브리서 10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리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10절).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14절).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느니라(1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피를 쏟으심으로 완전한 희생물이 되신 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희생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메시지는 신약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행16:30)

그들은 이렇게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

그러나 교황이라는 우두머리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카톨릭교회는 어찌구무없게도 구원이 자기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자기들이 구원을 퍼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다음은 브라운 박사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수치맞는 장사입니다. 이 명목으로 돈을 걷고 저 명목으로 돈을 걷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탁발 수도승들이 돌아다니면서 또 돈을 걷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수도승에게는 돈과 먹을 것을 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구원으로 향하는 방법인 줄로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은 사람의 혼이 연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미사를 드리기 위해 돈을 내야 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발단은 면죄부(Indulgence)입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한다면서 교황의 위임하에 만들어지고 판매된 증서인데 실로 면죄부 판매는 사람의 혼을 완전히 상업화한 관행이었습니다. 면죄부가 발행된 목적은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건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루터와 다른 개혁자들로 하여금 바른말을 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구원이 행위에서 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재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3:16).



면죄부 판매

중세 천주교회의 면죄부 판매는 16세기 종교 개혁의 한 원인이 되었다. 많은 돈을 내고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는 죄인들의 죄가 깨끗해진다는 교리로 천주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갈취하였다.

로마 교회는 이 사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개신교 종교 개혁은 마르틴 루터와 다른 위대한 개신교 지도자들 덕분에 가속도를 더해 갔습니다. 반대로 로마 교회는 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한 명분을 찾으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이러한 속임수 뒤에 있다면 강력한 반격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교황이 적그리스도라고 맹렬히 비난당한 지 20년 이상이 지나서야 세상은 다시 뒤집어졌고 로마의 권위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응하여 어둠의 세력도 조용히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탄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사악한 자들을 또다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러한 ‘반개혁 운동’(Anti reformation)은 개신교 개혁을 망하게 하려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확실한 음모입니다. 이제 다음에 벌어질 일은 마치 지옥의 내부가 열려서 역사상 가장 두렵고 사악한 사람들의 무리를 뱉어낸 것과도 같았습니다.

## 9. 예수회의 등장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딤후3:13).

로마 교회가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쏟아부은 막대한 노력을 생각한다면 이 구절은 참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잉글랜드가 ‘그레이트 성경’을 출간한 지 겨우 1년 뒤인 1540년, 교황 바오로 3세는 로마에서 새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특별한 전투를 벌이는 것이었고 가능하면 개신교 개혁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어 사람들이 사제가 없이도 성경을 이해하게 되자 로마 천주교는 어떻게든 다른 형태의 반격을 취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제들로 구성된 새로운 팀은 로올라(Ignatius Loyola, 1491-1556)라는 스페인의 전직 군인에 의해 군대 조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그는 1491년 스페인에서 태어났고 본명은 ‘이니고 로페즈 드 로올라’이며 ‘예수의 조직’(Society of Jesus)이라 불리는 ‘예수회’(Jesuits)의 창설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회는 교회사를 통틀어서 ‘떨어져 나간 프로테스탄트 형제들’을 모든 교회의 어머니인 카톨릭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집단이었습니다.

‘떨어져 나간 형제들’이라는 말은 카톨릭교회의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자신과 연합할 개신교 이단들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예수회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 은밀히 속이는 방법을 즐겨 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는 첩자 노릇, 침투, 암살, 혁명과 같이 악하고 살벌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예수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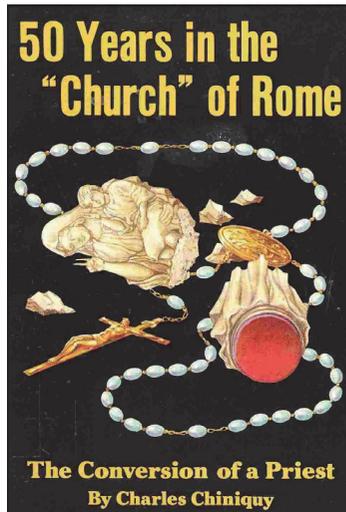
예수회와 그들이 맡았던 역할 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류 역사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셰퍼드(J. E. C. Shepherd)는 그의 저서 「바빙톤 음모」(*The Babington plot*)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1555년에서 1931년 사이에 예수회는 정치적 계략과 체제 전복의 음모들에 관여함으로써 적어도 83개 국가나 도시 국가 혹은 도시들에서 추방당했다.<sup>90)</sup>



위: 로올라, 옆: 치니퀴의 「로마 교회에서의 50년」  
루터의 종교 개혁을 반대하기 위해 로올라는 예수회를 조직하고 로마에 충성하였다.



90) The Babington Plot, J. E. C. Shepherd, p. 12

미국의 아담스 대통령은 제퍼슨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예수회가 부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집시들의 왕이나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다양하게 변장하는 그들의 무리가 여기에도 고정적으로 우글거리지 않을까요? 만일 지상과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할 인간의 무리가 있다면 그것은 곧 로올라의 예수회일 것입니다.<sup>91)</sup>

19세기의 작가 셔먼(Edwin Sherman)은 그들을 ‘지옥의 공병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책 겔표지에는 아브라함 링컨의 암살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19세기 천주교 사제인 치니퀴(Charles Chiniquy)가 링컨의 죽음에 예수회가 깊이 관여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치니퀴는 이 사실을 그의 저서 「로마 교회에서의 50년」(*50 Years in the Church of Rome*)에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링컨 자신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 남부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나의 싸움은 로마의 교황과 단 속내가 있는 예수회 그리고 거기에 소속된 맹목적이며 피에 굶주린 노예들과의 싸움이며 이것이 더 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만 한다.<sup>9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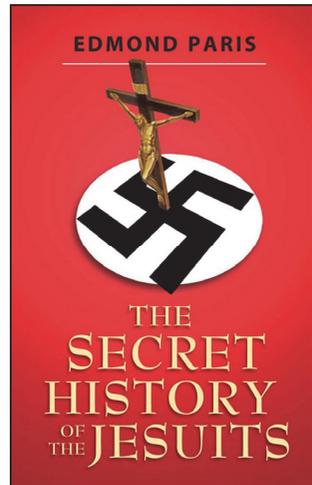
심지어 20세기에도 에드몽 파리(Edmond Paris)는 그의 저서 「예수회의 비밀 역사」(*The Secret History of the Jesuits*)에서 예수회가 히틀러와 그의 나치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는 특히 이렇게 말합니다.

SS 친위대는 예수회의 원리에 따라 설립되었다.<sup>93)</sup>

히틀러는 자기의 측근인 히틀러를 자신을 돕는 ‘이그 나티우스 로올라’라고 친근하게 불렀고, 하젠이라는 사제로부터 천주교 사원에서 나치 심벌까지 얻어 냈습니다.<sup>94)</sup>

로올라가 직접 창안한 직위인 예수회 수장은 보통 ‘검은 교황’(Black Pope)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그가 입고 있는 검은 의상 때문이며 또 동시에 그가 가진 어마어마한 권력 때문입니다. 전 예수회 수장이었던 탐부리니(Michelangelo Tamburini)는 한때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 방에서 프랑스 파리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지배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91) John Adams, Letter to Thomas Jefferson, 1816, as cited in *The Fifth Week*, O'Malley & Martin, p. 55

92) *50 Years in the Church of Rome*, Charles Chiniquy, p. 496

93) *The Secret History of the Jesuits*, Edmond Paris, p. 164

94) 동일 문서, p. 176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sup>95)</sup>

오늘날에도 페이즐리는 주요 신문 방송사였다 예수회에 대항하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은 교황 예수회 수장이 정말로 누구인지 신문사에도 설명하면 그쪽에서는 예수회가 누구냐고 다시 묻습니다. 저는 그들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게슈타포라고 당당히 비유해 주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계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 교황의 명령을 수행하는 최전방 군대라고 말입니다.

페이즐리는 예수회와 게슈타포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리의 책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스페인의 독재자이던 프랑코의 통치하에서 매체에 게재되었던 어록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즐리가 파리의 「예수회의 비밀 역사」로부터 인용하며 말한 내용인데 이 인용문은 스페인의 독재자 프랑코의 언론사가 히틀러가 죽은 1945년 5월 3일에 발간한 것입니다.

천주교회의 아들 히틀러는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칭송하면서 그의 죽음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이해가 됩니다. 그의 유해에서도 승리에 찬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순교자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줍니다.<sup>96)</sup>

이 인용문에 대해 파리는 같은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장례식 연설은 교황청이 직접 한 것으로 마드리드를 통해 주어진 바티칸의 공동 성명입니다.<sup>97)</sup>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중 아래 내용을 선포한 단체는 바로 예수회입니다.

히틀러의 제3제국 건설은 나치즘을 천주교식 기독교와 연합하는 것이다.<sup>98)</sup>

역사의 증언들을 통틀어 보면, 로올라가 만든 예수회라는 집단의 궁극적 목표는 시종일관 동일했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의 예수회는 창설된 지 1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 탁월한 첩보 및 암살 단체가 되었고 왕들과 평민들이 모두 똑같이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지식인 계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황이 1540년에 개신교 종교 개혁에 맞붙을 놓기 위해, 특별히 로올라와 그의 예수회에게 특별 임무를 주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로올라는 자기 친구들과 더불어 교황에게 충성하고 종교 개혁을 거꾸러뜨리는 일을 하는 어떤 단체를 만들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나타난 카톨릭 '반개혁 운동'은 이미 그 전에 일어났던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막고 사람들을 다시 로마 천주교로 데려가려는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5) 50 Years in the Church of Rome, Charles Chiniquy, p. 484

96) The Secret History of the Jesuits, Edmond Paris, p. 163

97) 동일 문서, p. 163

98) 동일 문서, p. 164

세상을 정복해 교황 천하로 만들려는 예수회의 계략을 경고하는 글과 책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했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오클랜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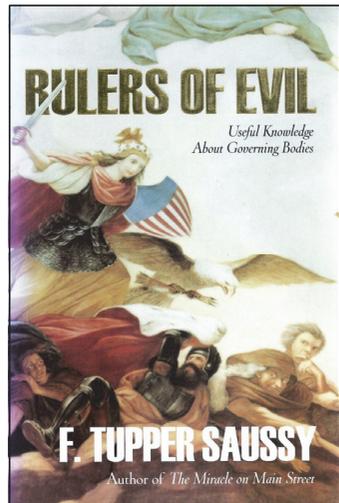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주의로 끌어들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육, 사회 프로그램, 조직 침투 등이 좋은 예입니다.

예수회 회원이 맹세하는 서약만큼 살벌하고 강렬한 서약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20세기 이전부터 잘 알려졌었고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전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서약은 예수회의 최고 우두머리가 전해 주는 훈계의 형태로 예수회가 사용하는 침투 방법을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까지 너는 위선자로 행동하는 것을 배워 왔다.  
종교 개혁자들 사이에서는 같은 종교 개혁자가 되고  
칼빈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칼빈주의자가 되며  
개신교도들 사이에서는 개신교도가 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어라.  
심지어 그들의 강단에서 설교도 하며  
너는 첩자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의 환심을 사서 이단을 믿게 하도록...  
어느 계급이든 인물이든, 일반 학교와 대학교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로올라와 그의 추종자들이 종교 재판을 수행하고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반대하는 일에 이바지한 행적은 학문과 교육의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그들은 학계에서도 지도자가 되어 학교의 학풍을 장악했으며, 대학과 각종 교육 기관들을 포섭할 만큼 학술적 전략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인본주의 계몽을 통해 성경에 근거를 둔 개신교식 교육을 뒤집어엎는 것이었습니다.

소시(Frederick T. Saussy, 1936-2007)가 지은 예수회에 관한 책 「악의 지배자들」(*Rulers of Evil*)을 보면 1556년까지 그 모임의 회원 중 75%가 46개 예수회 대학에서 헌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회는 1749년까지 669개 대학과 176개 신학교 그리고 61개의 연구원과 24개의 종합 대학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자기들의 방향대로 이런 단체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sup>99)</sup>

19세기에 스필전은 예수회 교육의 영향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어떤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일부분은 감추어 두고 마귀가 새롭게 세운 예수회 대학에서 공부해 왔습니다.<sup>100)</sup>

예수회 회원들은 새롭고 교묘한 책략을 동원했지만 전향하지 않는 이단들을 꺾박할 때는 수 세기 동안 내려온 옛 방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입할 때 맹세하는 무서운 서약의 뒷부분에는 교황의 권위에 대항하는 모든 자를 멸망시키는 일에 자기의 온 힘을 쏟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서약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또 약속하고 선언합니다.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끈질긴 전쟁을 일으키겠습니다. 모든 이단들, 프로테스탄트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에게 대항하여서 지시를 받은 대로, 지구상에서 그들을 제거하고 몰살하겠습니다. 그러한 일을 공공연하게 벌일 수 없게 되면 독이 든 컵을 은밀히 사용하겠습니다. 교황의 어떤 대리자나 예수회의 수장에게 지시받은 대로 나는 목을 매는 끈, 쇠로 된 비수 혹은 총알로 언제라도 명령을 수행할 것입니다.

일단 피를 두고 한 선서가 끝나면 예수회 수장이 말합니다.

너는 온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모든 땅을 교황의 이름으로 소유하라. 교황 성하를 예수님의 대리자 및 섭정자로 인정하지 않는 자, 그는 저주받고 진멸당해야 한다.<sup>101)</sup>

노블(Arthur Noble)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16세기의 종교 재판은 예수회에 의해 진두지휘되며 회복되었다. 잔혹 행위도... 그 시기에만 90만 명 이상의 프로테스탄트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다.<sup>102)</sup>

예수회가 저지른 만행 중에는 1572년 프랑스에서 7만에서 10만의 개신교인(위그노)들을 살해한 '바톨로메의 날' 대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루이 14세로 하여금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보호해 주던 낭트 칙령을 1685년에 폐지하도록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개신교 신앙이 금지되었고 결과적으로 50만 명의 남녀와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

99) Rulers of Evil, Frederick Tupper Saussy, p. 65

100) A Solemn Warning for All Churches, Sermon No. 68 by Charles H. Spurgeon

101) The Jesuit Oath, as cited by Edwin A. Sherman in The Engineer Corps of Hell, 1883

102) The Jesuits & Their Strategy to Destroy Britain, Prof. Arthur Noble, EIPS online article



### 위그노 대학살

1572년 성 바돌로매의 날 학살 때에 프랑스의 수많은 위그노 개신교인들이 천주교 군대에 의해 학살되었다. 그 결과 1598년 위그노의 신앙 자유를 보장하는 낭트 칙령이 발표되었다.

당시 루이 14세의 고해 신부는 라췌즈(Pere Lachaise)라고 하는 예수회 사제였습니다. 이렇게 낭트 칙령이 폐지됨으로써 그 뒤 100년 동안 프랑스에서는 성경 읽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잉글랜드에서는 예수회가 캔터베리 대주교인 윌리엄 로드(William Laud, 1573-1645)<sup>103)</sup>와 긴밀하게 일했는데 그는 ‘제네바 성경’의 인쇄나 영국 반입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당시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로드는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개신교도들에게 지극히 잔학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윌리엄 프린’이라는 뛰어난 개신교 신자가 있었는데 프린은 귀가 두 번이나 잘렸고 귓속을 파내는 고문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채찍에 맞았고 대중 앞에서 코를 잘렸으며 그들의 얼굴은 뜨거운 인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sup>104)</sup>

로드는 예수회와 더불어 잉글랜드를 다시 교황 아래로 돌려놓으려는 음모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유죄를 받고 반역죄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남긴 서신 중에는 브뤼셀에 있는 예수회의 수장에게 쓴 것도 있었습니다.

과거 여러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교회가 왜 자신들을 증오해 왔는지 잘 설명했습니다. 그중 베자(Theodore Beza, 1519-1605)는 왈덴시스들을 옛날 순수한 교회의 원조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미신 같은 것에 절대로 끌려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카톨릭 주교나 종교 재판관들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고도 그들이 그렇게 존속해 있는 것은 분명 기적이다.<sup>105)</sup>

103) 그는 청교도가 쓴 글은 다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알렉산더 레이턴과 윌리엄 프린 같은 유명한 청교도 전도자들을 불구자로 만들어 옥에 가두었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104) The Jesuits and Their Strategy to Destroy Britain, Sir Arthur Noble, EIPS online article

105) A Brief Sketch of the Waldenses, Robert Webb, The Primitive Baptist Library, emphasis in the originals

한편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왈덴시스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전 세계에 곳곳이 퍼뜨렸습니다. 글도 많이 쓰고 설교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교황이 사도 요한이 미리 얘기했던 진짜 적그리스도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들은 지속해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기들의 믿음의 간증을 남겨 왔습니다. 영광스러운 순교까지 감수하면서 말입니다. 지금(1531년)까지도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sup>106)</sup>

왈덴시스들에 관해 오레일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왈덴시스들이 당한 박해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1655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교황의 꼭두각사이던 사보이 공작의 군대가 왈덴시스들을 완전히 진멸해 버릴 목적으로 파견되었는데 그들은 첫 공격에는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공격은 예수회가 개입하면서 작전이 교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바티칸은 왈덴시스들에게 다른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속임수였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왈덴시스들은 그 말을 믿고 바티칸이 보낸 군대를 자신들의 보급지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경계를 해제했을 때 끔찍한 대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피드몽 혹은 뻬에드몽(Piedmont) 대학살’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시인 밀턴은 피드몽 대학살을 언급하면서 그때 왈덴시스들이 당한 비극을 기념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글 중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여 죽은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주소서. 그들의 뼈가 차디찬 알파인산으로 산산이 흩어졌나이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이 가축과 돌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을 때 그들은 주의 진리를 순수하게 지켰나이다.’<sup>107)</sup>

그때 살아남은 왈덴시스들은 실제로 올리버 크롬웰에게 항소했습니다. 크롬웰은 공화정 체제이던 그 당시 영국의 호민관이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마자린(Mazarin) 추기경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그 박해를 그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왈덴시스 소속의 목사이며 이 사건의 생생한 증인 중 하나인 장 레제(Jean Leger)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로마 교회의 이중성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자신의 동료 신자들을 설득했습니다. 알다시피 그 결과는 대학살이었지 않습니까? 그 대학살이 벌어진 뒤 그는 겨우 도망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진 생존자들을 섬기기 위해 그리스도인 목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당시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증언했습니다.

이날 벌어진 일은 눈물 없는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벌인 만행은 가히 어둠의 통치자의 행위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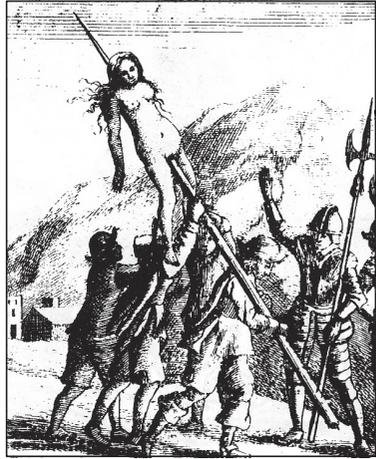
그가 이러한 증언을 한 이유는 카톨릭교회가 죄 없는 성경 신자들에게 가했던 잔학한 폭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sup>108)</sup>

106) 동일 문서, Webb, same as before

107) John Milton - On the Late Massacre in Piedmont in 1655

중세 시대 예수회는 의심의 여지없이 역사상 가장 과격하고 급진적인 단체였습니다. 이에 대해 노블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회가 저지른 만행이 어찌나 흉악했는지 그들은 70개 이상의 나라들로부터 추방을 당했다. 심지어 그 나라들 중 80%는 카톨릭 국가였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그들은 위선적인 모습으로 인해 11명의 교황으로부터 저주와 규탄을 받았다.<sup>109)</sup>



예수회는 계속해서 억압을 받았으나 그들을 억압하는 쪽에서도 역으로 예수회의 보복을 당달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스 대통령은 제퍼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회에 대해 내가 이해하게 된 계기는 네 권의 책에 있습니다. 책의 저자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저자는 유럽의 다른 모든 군주들처럼 신변 노출을 두려워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회로부터 암살당할까 봐.<sup>110)</sup>

교황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예수회가 교황조차 손사래를 칠 정도로 안하무인이 되자 교황 클레멘트 14세는 1773년에 영구적인 법령을 내려 예수회를 다시 억압했습니다.

108) 왈덴시스(왈도파)를 진멸하려는 원수들은 세계 도처에서 계속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1380년에는 프랑스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에 의해 169명이 한꺼번에 화형을 당했다. 또 1545년에는 프랑스로부터 스위스에서 군대가 왈도파 사람들이 사는 마을 22개를 멸망시켰고 4,000명의 왈도파 신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숫자의 교인들은 독일과 제네바로 도망쳤다. 1560년에는 교황에 의해 스페인에서 6월 중 11일 동안에 2,000명이 사형을 당했고 1,600명이 투옥되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왈도파에 대한 가혹한 핍박이 계속되자 1571년 이후에는 이탈리아의 왈도파 신자들이 과거와 같은 왈도파로 남아 있지 못하고 칼빈파 중의 일부로 흡수되기도 하였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여기고 온갖 살육을 계속했다. 1686년에 루이 14세와 교황 빅토르 아마데우스 2세는 프랑스 내에 있는 모든 개신교 신도들에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14일 이내로 국외로 떠날 것을 명령하였다. 이때 프랑스 내의 왈도파 신자들이 무력으로 항거하자 3,000명 이상이 전투에서 사망하고 5,000명 이상이 죄수로 잡혀 유배당하였다. 다른 한편 왈도파 교도들과 위그노 교도들은 프랑스 '피드몽' 계곡에서 자기들보다 50배가 넘는 정부군과 끈질기게 대항하였다. 그래서 1690년 6월 4일에는 왈도파 교도들이 피드몽 계곡 안에서 사는 것이 허락되었다(『새 교회사』, 정수영, pp. 290-291).

109) The Jesuits and Their Strategy to Destroy Britain, Prof. Arthur Noble, EIPS article

110) The Works of John Adams, Vol. 10, Letters 1811-1825, to T. Jefferson

그런데 이 칙서에 서명하는 동안 그는 비장한 각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은 짐의 임종 선언에 서명하고 있다.

그로부터 1년 뒤 그는 실제로 독살당했고 전해지는 바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합니다.

로마 교회의 관점에서는 실제 개혁의 근거지가 영국이었기에 예수회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목숨을 25번 이상이나 노렸고 계속해서 외국의 군대들을 동원하여 영국을 침략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영국을 집요하게 노린 이유는 1859년에 추기경 매닝(Manning)이 한 말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개신교의 우두머리며 종교 개혁 운동의 중심지요 그 힘의 근거지이다. 개신교가 영국에서 약해지면 다른 모든 곳에서도 끝장이 난다. 영국을 정복하면 전 세계를 정복하는 것과 같다. 거기만 끝나면 다른 곳은 시간문제이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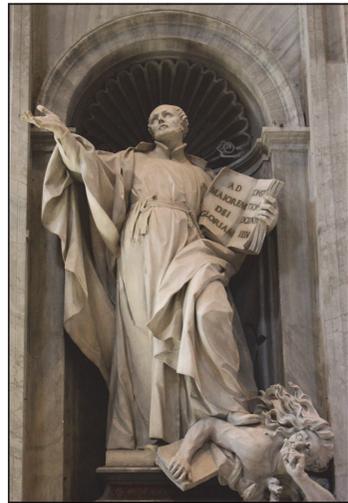
예수회의 목표를 이해하려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 안에서 볼 수 있는 예수회의 설립자 로올라의 동상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상에서 그는 펼쳐진 책을 손에 가지고 서 있는데 그것의 한쪽에는 예수회의 헌법이 쓰여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라틴어로 쓰인 글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라는 뜻입니다.

동상을 보면, 로올라의 발이 머리가 헝클어진 채 자빠진 어떤 사람을 밟고 있고 뱀이 그 밟힌 사람의 밑에 있는데 밟혀 있는 사람은 개신교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밟혀 있는 사람도 책을 한 권 붙잡고 있는 것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비록 그 동상 자체에 이렇다 할 표식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께서는 다음의 증거들을 보면서 그 책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세를 통틀어 개신교에서 유일하게 최종 권위로 인정하는 원천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황의 권위를 거부하는 근거였으므로 그때 성경은 마치 종으로 만들어진 개신교도들의 교황인 것처럼 간주됐습니다. 이것은 물론 로마 교회가 개신교를 조롱할 의도로 만들어 낸 표현입니다.

예수회는 성경의 권위에 맞서기 위해 개신교에서 다시 로마 카톨릭주의로 개종하는 사람들을 위한 신앙 고백 선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개종자는 이런 서약에 동의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로마 교황이 새로 제정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성경기록에 있든지



11) Jesuit Plots from Elizabethan to Modern Times, Albert Close, p. 18.

없든지, 그것이 진실하고 신성하며 구원이 넘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규범보다 그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황이 자기 뜻에 따라 성경기록을 변경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서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서 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가장 거룩한 교황이 우리 모두에 의해 신성의 존경심으로 존경받아야 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는 것보다 교황 그분에게 더 얽드려 절해야 합니다.<sup>112)</sup>

설마 카톨릭주의가 이런 고백을 정말 강요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19세기와 20세기의 여러 문헌에 의해 확인이 된 자료이며 여기서 열거된 것은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또한 예수회는 1545년에 시작된 트렌트(혹은 트리엔트) 공회의 배후에도 첩보전 차원에서 대거 개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레일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종교 개혁을 거꾸러뜨리려는 논의는 교황 바오로 3세가 역사적으로 트렌트 공회라고 알려진 그 회의를 소집했을 때 깊이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회의는 실제로 1563년까지 18년 동안 적어도 세 번의 회기를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트렌트 공회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으로 태동한 교리와 가르침을 반박하는 전략이 특별히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회는 종교 개혁자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반대하였습니다. 토론의 주된 주제는 은혜와 구원의 문제였는데 트렌트 공회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구라도 사람이 칭의(稱義)의 은혜를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7th Session, Canon 4).

이 공회의 선언 내용이 훗날 20세기에 제2차 바티칸 공회(AD 1962-1965)에서 재확인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제2차 바티칸 공회는 로마 교회가 연 공회 중 가장 최근의 것으로 여기서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바를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트렌트 공회에서는 종교 개혁자들이 번역해 낸 성경에 맞서기 위한 예수회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레일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학들을 장악하고 전문적으로 학구적이며 지적인 노력을 수행한 예수회가 확실히 그 공회를 주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성주의와 학식을 동원하여 사람들이 개신교 성경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 공회를 좌지우지했고 공회의 주요 결의안은 모두 순수한 성경, 즉 개신교 성경에 대항하는 방향으로 결정났습니다.

밥릭(Benson Bobrick)은 영어 성경의 역사에 대한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

<sup>112)</sup> Apocalyptic Sketches; Lectures on the Book of Revelation, John Cumming, P. 308, 1851

였습니다.

트렌트 공회는 성경 원문들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 ‘천주교의 라틴 벌게이트 역본이 모든 다른 라틴어 역본보다 나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어 본문보다도 더 낫다.’<sup>113)</sup>

트렌트 공회와 성경에 관해 오레일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공회는 다른 사람도 아닌 위대한 종교 개혁자 루터의 글을 인용하면서 글 내용을 직접 비방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종교 개혁자들은 카톨릭 성경 안에 있는 외경이 구약의 일부라는 믿음을 비난했지만, 카톨릭교회에서는 반대로 외경이 성경이 아니라는 그들의 믿음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경이 성경이 아니라고 주장한 소위 이단들을 죽음으로 응징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경에 관해 고대 사본 수집가이자 목사인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경이 초창기 개신교 성경책 안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도 건너편에 있는 제 연구실에는 옛날 성경이 몇 권 꽂혀 있는데 그 책에도 외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 안에 외경이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사실 그 전에는 가장 반카톨릭적인 제네바 성경에도 외경이 있었습니다. 1599년에 나온 일부 해적판 제네바 성경에서는 빠졌지만 원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외경이 개신교 진영에서 성경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그렇다고 선언을 했지만 외경은 결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 여겨진 적이 없습니다.<sup>114)</sup>

로마 교회와 그 수하의 예수회는 개신교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개신교 성경 자체에 반격을 가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레일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회의 다음 단계는 그들만의 고유한 신약 성경을 영어로 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의 랭스라는 도시에서 예수회 학자들에 의해 편찬되었기 때문에 ‘예수회의 랭스 역본’이라고 알려졌으며 나중에는 ‘두에 랭스’ 역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sup>115)</sup>

---

113) Wide as the Waters, Benson Bobrick, pp. 89-90

114) 초기 영어 성경에는 두 가지 이유로 대개 외경이 포함되었다. 그 이유 중 첫째는 중세 시대에는 많은 이들이 대개 외경을 가치 있는 책으로 수용했기 때문이었고,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경우에는 성경 분석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외경을 넣었는지 간에 영어 성경에서 외경은 부록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정경이 아님을 밝히는 분명한 글과 함께 성경책에 포함되었다(『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p. 168).

115) 두에 랭스 바이블(Reims-Douai 혹은 Rheims-Douay Bible이라 불림). 라틴어 불가타(Vulgate) 성경의 영어 번역본(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이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씨’를 ‘여자’로 바꾸어서 마치 마리아가 인류를 구속하는 것처럼 만든 악명 높은 성경이 되고 말았다.

예수회는 천주교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본문 내부에 기괴한 말들과 난외주들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두에 랭스 성경에 대해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에 랭스 성경의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위클리프 성경이나 틴데일 성경 혹은 제네바 성경처럼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daily) 빵을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날 우리에게 초물질적인(super-substantial)빵을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그런 단어가 전혀 없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화체설 교리를 지지하려고 자기들 방식대로 성경을 고쳤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그토록 열심히 번역한 데는 이런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에 랭스 역본은 로마 교회가 종교 재판을 통해 성도들을 대량 학살했다는 종교 개혁자들의 견해도 반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을 보면 신비의 바빌론을 설명하는 부분에 “그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회가 이 구절에다 쓴 각주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개신교도들의 피는 성도들의 피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단지 도적, 살인마들과 다른 흉악범들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 그들이 그런 피를 흘리게 한 것에 대해 그 어떤 통치 권력도 답변할 필요가 없다.<sup>116)</sup>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에 랭스 역본은 바빌론의 창녀가 로마를 상징한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단지 네로 황제 시대의 이방인으로서의 로마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 10. 화약 음모 사건

중세에 예수회가 꾸민 가장 악랄한 음모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1605년에 일어난 ‘화약 음모 사건’(Gunpowder plot)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레일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약 음모가 만들어진 데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1603년에 죽자 로마 교회는 잉글랜드에 반드시 카톨릭 군주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교황은 당시 잉글랜드의 카톨릭 사제이면서 예수회 회원인 가넷(Henry Garnet)에게 교황의 칙서 두 개를 보냈습니다.

교황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가넷은 신실한 카톨릭교도라고 선언하지 않은 사람은 왕위에 올라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후임인 제임스 1세는 왕좌에 오르면서 자신이 개신교도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로마는 그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로마 교회는 새로운 왕을 제거하기 위해 포크스(Guy Fawkes, 1570-1606)라는 이름의 스페인 군인을 이용했습니다.<sup>117)</sup>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매년 영국 사람들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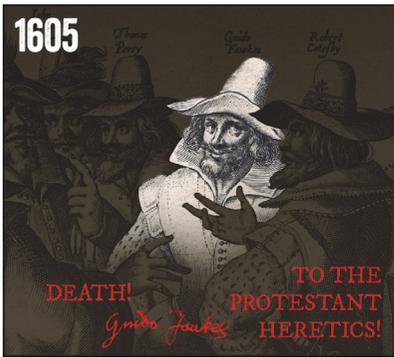
<sup>116)</sup> Original Douay Rheims footnotes, as cited by David Cloud in *Rome and The Bible*, p. 235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그를 붙잡은 11월 5일을 기념하며 만든 ‘포크스의 날’(Guy Fawkes Day) 밤에는 지금도 그를 닮은 형상을 만들어 불태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포크스가 제임스 왕과 그의 측근들을 모조리 죽여 버리려고 의사당 건물 지하에 36배럴에 달하는 화약을 묻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에서 로마 교회와 그 수하의 예수회는 잉글랜드를 다시 장악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오레일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 포크스는 예수회 사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회의 조수 정도일 것입니다. 그는 직업이 용병으로 전문 군인이었고 스페인의 카톨릭 군대에서도 복무한 바 있습니다.

포크스는 화약을 폭발시키기 거의 직전에 발각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영국 사람들은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포크스는 동료 음모자인 예수회 소속 가넷과 함께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 가넷만이 음모에 가담한 예수회 회원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존경받는 변호사이던 코트(Edward Coet)는 재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로마 교회의 사제가 개입하지 않은 반역죄를 결코 알지 못합니다. 이번 일에도 이미 알려진 예수회 회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영국의 가넷, 스페인의 크레스웰, 플랜더스의 볼드윈, 로마의 파슨 등. 그래서 이 일의 주된 범법자들은 가장 신성하고 복 받은 이름, 즉 예수라는 이름을 방패삼아 온갖 사악한 짓을 일삼아 온 파렴치범인 예수회 바로 그자들입니다.<sup>118)</sup>



#### 화약 음모 사건의 주범 포크스

로마 교회는 제임스 왕을 제거하기 위해 포크스(Guy Fawkes)라는 이름의 스페인 군인을 이용했다.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매년 영국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그를 붙잡은 11월 5일을 기념하며 만든 포크스의 날 밤에는 지금도 그를 닮은 형상을 만들어 불태우기도 한다.

117) 그는 화약 음모 사건을 계획한 로마 카톨릭 혁명 단체의 구성원이었다. 화약 음모 사건은 영국 왕 제임스 1세를 국회의사당에서 폭약으로 암살하려다 밀고자의 고변으로 미수해 그친 사건이다. 영어에서 ‘녀석’을 뜻하는 ‘Guy’는 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위키백과).

118) The Jesuits & Their Strategy to Destroy Britain, Prof. Arthur Noble, EIPS article, citing Vigilant: Revolution, Britain’s Peril & Her Secret Foes, p. 16

소시(F. T. Saussy)에 따르면, 이 시기에 만들어진 셰익스피어의 연극 맥베스(Macbeth)는 화약 음모의 저지를 경축하는 일명 '화약 연극'이라고 일컬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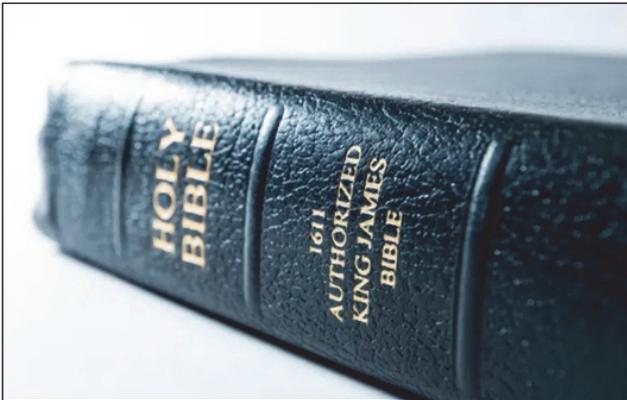
맥베스는 예수회를 사탄주의자, 살인자, 마녀로 묘사하며 맹비난한 작품이다.<sup>119)</sup>

예수회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바로 전 해 청교도 지도자인 레이놀즈(John Reynolds)는 제임스 왕에게 새로운 성경을 번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임스 왕은 이것을 승인했으며 이로써 킹제임스 성경 번역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약 음모 사건이 그로부터 딱 1년 뒤에 발생한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오레일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음모가 성공했다면 1604년에 시작된 새로운 성경 번역 작업도 덩달아 실패로 끝나 영원히 물거품이 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의심의 여지없이 바로 그것이 예수회가 원하던 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화약 음모 사건은 미수에 그쳤으며 제임스 왕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유명한 성경이 완성되는 것을 살아생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HOLY BIBLE

1611  
AUTHORIZED  
KING JAMES  
BIBLE

---

<sup>119)</sup> Rulers of Evil, F. Tupper Saussy, p. 68, referencing the book *Witches & Jesuits*, Garry Wills

## 11. 킹제임스 성경



거의 100년간의 박해와 피 흘림 속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염원하던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사람들이 쓰는 쉬운 언어로 번역되어 복음이 널리 퍼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영국의 종교 개혁은 드디어 역사상 가장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개혁의 산물을 내놓는 데 이르렀고 그것은 바로 1611년에 완역되어 나온 킹제임스 성경이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26년 이래로 영어 성경 번역과 출간이 빈번하였으나 킹제임스 성경 이후에는 그런 관행이 완전히 뚝 멈췄습니다. 더 새로운 성경이 나올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틴데일 성경은 신약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창세기에서 역대기까지의 책들과 요나서를 번역하였는데 그중 모세 오경과 요나서만 개별적으로 출간되었고 나머지는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커버데일은 그의 작업을 이어받고 그것에다 독일어와 라틴어 번역을 추가해 처음으로 영어 성경전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원어 본문에서 번역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틴데일의 번역을 가져다 놓았지만 일부는 커버데일의 역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간 것이 제네바 성경입니다. 제네바 성경은 마침내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과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기반으로 전문이 원어에서 번역되었고 킹제임스 성경에 상당히 근접하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번역이 좀 거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 본문에서 번역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수용하였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책의 서문을 통해 선배 번역자들과 그들의 번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세우고 양육하는 일에 사용하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이 임하고 그들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원하며 그들이 혼의 구원을 돕는 일에 더욱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관련해 무어맨(Jack Moorman)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서문에 드러난 것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찾고자 했던 사람들이며 겸손하고 훌륭한 학자들이었으며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 위원회는 거룩한 성경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어맨 박사는 영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감이란 저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했는데 그것이 곧 원본이요, 원문입니다.

그리스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에 대해서 번역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편집자는 사도나 대언자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교회는 그것을 단지 인정하였을 뿐입니다. 또한 킹제임스 성경 번역 위원회는 서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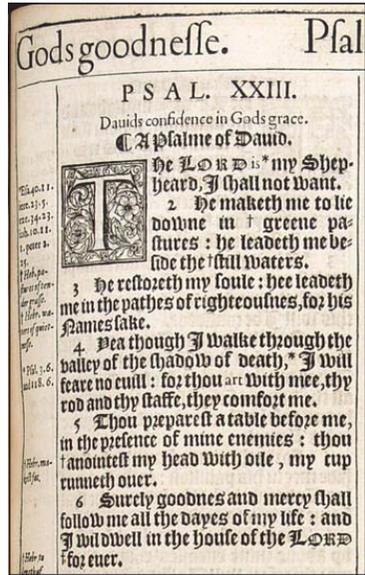
선한 그리스도인 독자들이여, 우리는 애초부터 완전히 새로운 성경 역본을 만들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나쁜 것을 개선해 좋은 것으로 만들 의향도 없었습니다. 단지 좋던 것을 더욱 좋게 하거나 혹은 여러 개의 좋은 것들 중에서 최고의 좋은 것을 선별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노력한 일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보다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것이 최상의 후보로 많이 채택되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위해 54명의 학자가 선택되었으나 실제로는 47명만 참여했다고 합니다. 번역 기간인 7년 동안에 일어난 일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독창적이고 세밀하고 철저하며 가장 잘 조직된 번역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웨이트(D. A. Waite) 박사<sup>120)</sup>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역자 개개인이 다 언어에 매우 뛰어나야 했으며 그래서 이들은 제각기 직접 번역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팀 번역 기법은 그 이전이나 그 이후의 어떤 번역 팀에게도 뒤지지



킹제임스 성경 시편 23편

120) 웨이트 박사는 현대 미국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www.BibleForToday.org](http://www.BibleForToday.org)를 참조하기 바란다.

않는 훌륭한 번역 기법이었습니다.

번역자들은 웨스트민스터,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그룹으로 나뉘었고 이 세 그룹에는 구약과 신약 등을 번역할 두 조가 있어서 총 여섯 조로 구성되었습니다. 여섯 조에 속해 있는 각 사람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에 능통한 사람이어야 했고 자기 조에 맡겨진 책들을 직접 번역해야 했습니다. 또한 개인별로도 구약과 신약 구간이 할당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독창적인 방법으로 번역했습니다.

가령 창세기에서 열왕기까지 맡은 1조의 경우 7명의 조원들 각 사람이 직접 모든 책과 장과 절을 번역해야 했습니다. 이때 본문은 7명에 의해 7번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이 일이 끝나면 같이 모여 한 번 더 확인하였으므로 본문을 총 8번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1조가 총 8번의 검토를 끝내면 그 초안을 2, 3, 4, 5, 6조로 보내고 거기서 다섯 번 더 검토를 거쳤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총 13번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조에서 2명씩 선출된 총 12명의 사람이 모여 최종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자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책을 14번씩 번역하고 분석하고 교정했는데 사실 이것은 현대 번역자들이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팀 단위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임스 왕이 매우 치밀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의 감독과 지도자들에게는 출간 전의 초벌 복사본이 보내어졌습니다. 이들은 자기 관내에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능숙한 전문가들에게 이 초벌 번역을 다시 점검하도록 했고 이로써 번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게 하였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기법이 우수한 까닭은 번역자들이 소위 문자적 일치 혹은 형식적 일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대 역본들의 이른바 ‘동적 일치’(Dynamic equivalence)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추차적 일치란 원어 단어와 영어 단어가 일대일 대응이 되게 하여 단순히 메시지나 생각 혹은 개념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원어의 모든 단어가 그대로 번역되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 일치는 단어의 품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어가 명사이면 영어로 바꿀 때도 명사로 표현하려 하였습니다. 대명사는 대명사로, 형용사는 형용사로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단어를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등의 일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sup>121)</sup>

---

121) NASB, NIV, NKJV를 번역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자질이 없었다. 그저 포장만 그럴 듯했을 뿐이다. 물론 현대 역본 번역 위원회에도 학위 있는 사람들과 박식한 ‘학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해당 역본의 구입을 부추기는 홍보 위원에 불과했다. 출판사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사람들이 필요했다. 홍보 위원들이 써놓은 추천사에는 대개 “아무개 박사가 극찬한 역본!”이라는 광고 문구가 실려 있다. 역본의 종류와 관계없이 현대 역본의 번역 위원들은 번역하는 사람이 아니다. 굳이 모든 번역 위원들이 번역에 가담할 필요는 없다. 그들에게는 번역을 하지 않는 번역 위원이 더 이상 낮은 개념이 아니다. 혹 여러분에게 이것을 반박할 만한 자료나 문서가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확실하건대 나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대 역본 번역 위원들 중 실제로 번역을

이런 구체적인 번역 원칙 외에도 제임스 왕은 새로 번역되는 성경에 가능한 난외주를 최소화하라고 번역 위원회에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성경기록의 상호 참조가 원어에 관한 간단한 메모 정도만 난외주로 제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킹제임스 성경은 간결한 표현과 신뢰할 만한 정확성, 언어의 시적 아름다움 덕분에 다른 영어 번역본들을 다 압도하게 되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방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킹제임스 성경은 제네바 성경을 서서히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네바 성경을 금방 포기하기 어려웠습니다. 제네바 성경은 잘 알다시피 난외주가 많고 거의 스테디 성경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만들어질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곧 생기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개신교인들은 킹제임스 성경과 그 안의 교리에 대해 아주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했던 모든 종교 개혁자들의 한결같은 노력의 최종 결정판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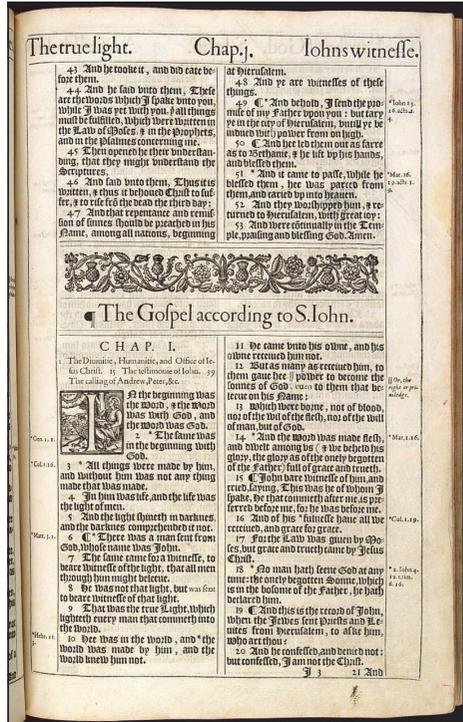
브리티시 도서관 관리인인 고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영국의 개신교회가 연합하여 1611년에 만들어 낸 거대한 통합 문헌이라고 보면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초판은 휴대용이 아니라 교회 비치용이었기 때문에 2절판 크기의 아주 큰 성경이었습니다.

[고프는 킹제임스 성경 초판을 들고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여 주며 이야기를 계속한다.]

누가복음 바로 전에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16장이 있습니다. 16장에서 천사는 세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무서움에 잠겨

한 ‘학자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반대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각자가 최고의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었고 자기의 번역을 마친 뒤에도 같이 모여 최종 번역을 결정하는 작업을 했다(「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웨이트).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시골로 내려가던 두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에게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sup>122)</sup>

킹제임스 성경은 오늘날까지 불변의 베스트셀러로 등극했지만 역사상 가장 극심한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역본은 완성되자마자 천주교도들과 몇몇 개신교도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청교도로 알려진 브라우튼(Hugh Broughton, 1549-1612)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련한 영국 교회들이 쓰도록 강요하느니 차라리 내가 야생마에게 갈기갈기 찢기는 것이 더 낫겠다.<sup>123)</sup>

그런데 브라우튼에 대해서는 좀 미심쩍은 게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맥마혼(Matthew McMaho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학식 있는 예수회 회원들로부터 높이 존경받았다. 비록 그가 교황 체제와는 대담하게 대립각을 세웠지만 한편으로는 추기경 직을 제안받기도 했다.<sup>124)</sup>

과거부터 예수회는 돈과 칭찬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카톨릭교회의 명분과 교리를 은밀히 지지하면서 겉으로만 로마를 반대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우튼이 이런 경우였을까요?

이 시대에 유명한 영국의 시인이며 런던의 성 베드로 성당의 주임사제였던 존 던(John Donne)은 자기의 서신 중 하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어제 나를 방문한 어느 신사는 브라우튼이 우리 교회를 떠나 로마 교회로 갔다고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니우스 추기경이 보낸 예수회 소속 그나폴인 세라니우스가 브라우튼을 끌어들이 로마로 데려갔다는 사실을 이미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sup>125)</sup>

던의 진술에 따르면 브라우튼은 카톨릭교회와의 분쟁을 피하려고 수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회중들이 로마 교회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면서 어느

---

122) 고프가 마가복음 16장을 언급한 것은 NIV, NASB, 개역성경 등의 현대 역본들이 한결같이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12구절(9-20절)이 원본에는 없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본들의 증거는 매우 명확하다. 마가복음을 포함하는 사본은 약 1,500개가 있는데 그중 카톨릭교회가 사랑하는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 2개만 빼고 나머지는 다 12구절을 포함한다. 즉 사본들의 99.9%가 이 12구절을 포함한다. 킹제임스 성경은 사본들이 증언하는 대로 이 열두 구절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 12구절이 없다고 하는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123) The Expositor, Edited by Samuel Cox, Second Series, Volume III, pp. 280-281, 1882

124) Memoirs of the Puritans: The Life and Death of Mr. Hugh Broughton, Dr. C. Matthew McMahon

125) The Life of John Donne, Sometime Dean of St. Paul, Augustus Jessop, p. 98



시내 사본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2구절을 지운 것이 명확하게 보임

정도는 그런 일에 협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기록이 보입니다.

그는 그들을 가끔 독촉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라. 다른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 수고하고 화평을 유지하라. 그러나 천주교 교황 제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더 이상 땅에 퍼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런 일에서 네 손을 깨끗이 하고 싸움을 피하라.'<sup>126)</sup>

오늘날의 사람들이 볼 때 브라우튼의 말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캔터베리의 대주교이며 영국 국교회의 수장이던 윌리엄스(Rowan Williams)가 2003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무릎을 꿇으며 그의 반지에 입맞춤하는 그림을 보면 의혹이 더 생깁니다. 또 영국의 블레어 총리가 유럽 연합의 헌법을 교황 이노센트 10세의 거대한 석상 아래서 서명하고 있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 협약은 로마의 일곱 언덕 중 하나인 카피톨리누스 언덕에서 서명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오늘날까지도 로마의 종교 개혁 저지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이에 대해 오레일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종교 개혁 저지 운동이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보여 주는 많은 징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은 유럽 연합의 회원국임

<sup>126)</sup> Memoirs of the Puritans: The Life and Death of Mr. Hugh Broughton, Dr. C. Matthew McMahon

니다. 유럽 연합은 비록 본부가 브뤼셀에 있지만 분명히 바티칸의 전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힐튼(Adrian Hilton)이라는 학자가 자신의 저서 「유럽의 권력과 권능」(*The Principality and Power of Europe*)에서 서술했듯이, 바티칸의 반개혁 운동은 분명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블레어 총리는 임기를 마치기 직전이던 2007년 7월에 교황 베네딕트 16세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다음은 당시 취재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것은 블레어 총리가 놓치고 싶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그의 바티칸 방문은 그의 마지막 국외 업무였습니다. 중요하겠죠? 그가 언제 카톨릭주의로 개종할지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카톨릭 신자들 중엔 그가 언젠가 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아마도 교황에게 주는 총리의 선물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선물한 액자에는 천주교로 전향한 전 성공회 사제인 ‘추기경 뉴먼’(John Henry Newman, 1801-1890)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뉴먼은 19세기 영국 국교회를 카톨릭 노선으로 돌려놓으려고 노력했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뉴먼은 영국과 로마 교회 그리고 성경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sup>127)</sup> 간단히 말하면 그는 로마의 반개혁 운동의 완전한 상징적 인물입니다. 뉴먼은 19세기 중반에 옥스퍼드 운동이라고 불렸던 모임의 프로테스탄트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833년에 시작된 옥스퍼드 운동은 영국 교회를 카톨릭화하기 위해 그리고 영국 교회를 성경에서 벗어나 로마의 의례적 관행으로 되돌리기 위해 일어난 조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옥스퍼드 운동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오늘날 미국에서 나타나는 ‘이머징 교회 운동’(Emerging church movement)<sup>128)</sup>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 오클랜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

127) 원래 영국 성공회의 성직자이자 옥스퍼드 대학교 복음주의학과 교수였던 뉴먼은 옥스퍼드 운동의 주역이었다. 옥스퍼드 운동가들은 성공회 내에 영향력 있는 세력을 구성하여 영국 교회를 과거 로마 카톨릭교회의 신앙과 전례로 되돌리기를 소원하는 이들이었다. 뉴먼은 1845년 성공회에서 카톨릭교회로 회심하였으며 교황 레오 13세에 의해 추기경에 서임되었다 (위키백과).

128) 이머징 교회 주창자들은 “포스트모던 사회인 현대에 모든 사회적 교회나 교회 구조는 맞지 않다. 옛것이다. 그래서 포스트모던 사회에 맞는 교회로 변화해야 하며 그것은 현대사회(문화)와의 융합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근대적 교회 구조의 맞지 않는 부분을 탈피하여 교회를 초월하는 사회에서의 하나님 나라 구현을 추구한다.”라고 주장한다. 이러면서 거의 예외 없이 이머징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신학적인 배경을 말할 때 관상 및 영성 등의 신비주의를 말한다. 다시 말해 이 운동을 엮는 요소는 신비주의이다. 이런 생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지금 이 운동의 위험성은 너무나 크다. 오늘날에는 이머징 교회를 통해 마귀의 이단 사교 지혜가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의 영성을 휘어잡고 있다. 오클랜드의 「이머징 교회와 신비주의」(부흥과 개혁)를 참조하기 바란다.

요즘 이머징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오기 전의 과거 경험으로 돌아가라고 권유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들은 로마 카톨릭교회로 가라고 말합니다. 즉 형상, 우상, 향료, 이런 종류의 다양한 것들로 되돌아가라고 권유합니다. 명상을 하면서 수도사들의 훈련을 배우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에 절대로 없습니다. 현대에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비성경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였습니다. 뉴먼은 옥스퍼드 운동의 주된 등불 중의 하나였고 많은 성공회 신자들을 영국 국교회로부터 떼 내어 카톨릭교회로 전향하게 했습니다. 그 자신도 카톨릭 사제가 되었고 나중에는 추기경까지 되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 둘이 있는데 그들은 웨스트코트(Brook Foss Westcott, 1825-1903)와 호르트(Fenton John Anthony Hort, 1828-1892)였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이들은 새로운 수정판인 비평 그리스어 본문(Critical Greek text)을 개발하였는데 그 일은 성경 학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100년 동안 그들의 일과 또 그 일이 불순한 노력이나 아니냐에 대해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대 세상을 변화시킨 거짓말」의 작가 윌리엄 박사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에 의해 만들어진 성경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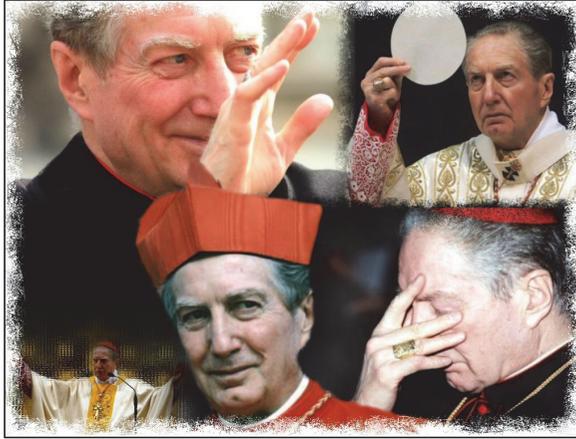
1881년에 나온 ‘영국개역성경’(English Revised Version)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책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이 1611년에 발표된 역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만든 ‘새로운 수정판 그리스어 본문’에 근거하여 완전히 새롭게 번역된 책입니다[즉 번역의 본문이 다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sup>129)</sup>는 둘 다 옥스퍼드 운동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했고 또 뉴먼 추기경을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이들은 혹시 로마의 반개혁 운동의 구성원은 아니었을까요? 이에 대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다른 이유는 그들이 개정한 그리스어 본문이 20세기에 네슬레-알란드(네슬-알랑) 위원회에 의해 더욱 개선되었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원 중에도 로마 천주교 추기경이 된 예수회 사제 마르티니<sup>130)</sup>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 위원회에 관여한 예수회 사제의 비중을 더 관찰하려면 옥스퍼드 운동이 시작되기 바로 전인 18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특히 이탈리아의 키에리라

129)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거듭나지 않은 성공회 목사들이었다. 그들은 “어떤 성경도 완전하지 않다.”는 알렉산드리아 철학에 완전히 심취되어 킹제임스 성경과 안디옥 계열의 그리스어 본문인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에 대해 악의와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p. 194).

130) 마르티니(Carlo Maria Martini, 1927-2012)는 1944년에 예수회에 들어갔고 1952년에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1979년에 밀라노의 대주교가 되었다. 그는 현대 역본들의 본문을 제공하는 연합성서공회(United Bible Society)의 성경 편찬 위원이 되어 오랫동안 UBS를 이끌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찬성론을 펼 그는 자유주의 성향이 짙은 카톨릭교도도 알려져 있다(위키백과).



연합성서공회를 움직인 마르티니 추기경

는 도시에서 있었던 예수회 지도자들의 유명한 모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임은 레온(Abbate Leone)이라는 이름의 예수회 입회자에 의해 기록되었는데 그의 저서를 보면 당시 예수회가 어떻게 발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일, 즉 교회를 일으키고 세상의 구원을 이루며 모든 종파와 정당들을 교황의 권위 아래로 연합하는 일... 교황은 땅 위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대리자이다. 그러나 이 일은 모두가 그에게 순종할 때에만 가능하다.<sup>131)</sup>

레온은 교황의 세계 지배와 더불어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들의 계획의 일환으로서 예수회가 성경을 장악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한 예수회 수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마치 머리를 세우고 눈을 번뜩이는 독사와도 같이 우리를 독으로 위협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를 잘 봐서 그것을 먼저 붙잡을 수만 있다면 그 독사를 막대기로 바꿔 버릴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들도 너무나 잘 알듯이 지난 3세기 동안 이 잔인한 독사는 우리를 편안하게 쉬게 해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무엇이 우리를 휘감았고 무엇이 송곳니를 내밀어 우리를 물어뜯는지 잘 알지 않는가?<sup>132)</sup>

오래일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주목표물은 물론 개신교 종교 개혁의 최고 성과물인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회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어느 것보다도 없애 버리고 싶은 종교 개혁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전 세계를 특히 영국을 다시 교황의 손아귀 아래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1) The Jesuit Conspiracy: The Secret Plan of the Order, Abbate Leone, p. 5, 1848

132) 동일 문서, p. 98

키에리에서 예수회가 모임을 가진 뒤 18년 뒤 티센도르프(Constantine von Tischendorf, 1815-1874)라는 이름의 독일 학자가 로마로 여행했는데 그는 그것을 교황과의 ‘장시간의 접견’이라고 묘사했습니다.<sup>133)</sup>

그로부터 또 1년 뒤인 1844년에 티센도르프는 이집트의 시내산 아래에 있던 성 캐서린 수도원이라는 동방 정교회 수도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종교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것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성경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그 뒤 그는 그 수도원을 몇 차례 방문했으며 그가 찾아낸 원고는 ‘시내 사본’(Codex Sinaiticus)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본은 성경 사본 역사에서 그 어떤 사본보다도 더 많은 수정과 변경을 거쳤습니다. 티센도르프는 스스로 그 원고에 14,800군데가 수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수년이 지난 뒤 티센도르프는 그 원고를 출판하였고 한 권을 교황 비오 9세에게 증정하였습니다. 교황은 그 사본의 출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 편지를 보냈습니다.<sup>134)</sup> 같은 시기에 또 다른 사본이 로마의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되었고 그것은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이라 불렸습니다. 학자들은 이것 역시 종교 개혁자들이 사용한 사본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브리티시 도서관의 관리인 중 하나인 매켄드릭(Scot Mckendrick)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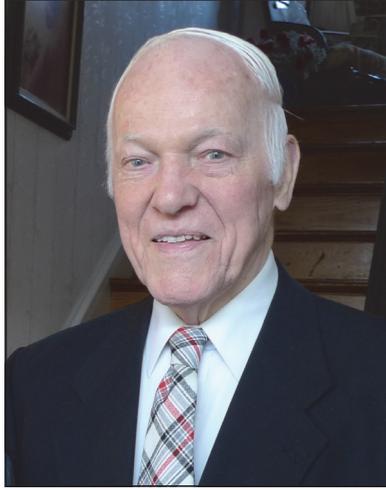
시내 사본은 가장 많이 수정된 사본입니다. 또한 바티칸 사본은 성경 본문 전문가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4세기경의 사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15세기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데는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본의 본문에는 거의 다 15세기 필사자에 의해 중첩 기재된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이라는 두 종류의 카톨릭 성향의 그리스어 본문이 등장했으며 19세기에 와서는 이 두 사본이 과거 종교 개혁자들이 사용한 본문보다 더 오래되고 더 믿을 만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그 둘을 결합하여 새로운 수정 그리스어 본문을 만들어 냈으며 이것이 20세기에 나온 새로운 현대 역본들의 중요한 근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티칸 웹사이트에 의하면, 마르티니 추기경은 사제로 처음 임명받았던 1952년에 이탈리아의 키에리 신학 대학에서 공부를 마쳤다고 합니다. 1967년에 연합성서공회(UBS)는 니다(Eugene Nida, 1914-2011)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바티칸과 협약을 맺어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초교파 성경 번역 사업들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축자적/형식적 일치 방법이 아니라 뜻만 통하면 되는 동적 일치를 공식적인 번역 원칙으로 삼았고 그 결과 리빙 바이블 같은 의역 성경과 NIV 등의 반(半)의역 성경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33) Constantine von Tischendorf, as quoted by George E. Merrill in *The Story of the Manuscripts*, p. 74, 1881

134) *The Story of the Manuscripts*, George E. Merrill, p. 74, 1881



Bible For Today의 웨이트 박사

‘동적 일치’는 원문의 표현을 의역이란 명목으로 마구 바꾸어 번역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성경 원문의 단어를 형식적으로 일치시키며 단어 대 단어의 형태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뜻만 통하도록 번역하는 것이 ‘동적 일치’ 기법입니다. 그러자 많은 성경 신자들은 새로 나오는 성경이 갈수록 의역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으며 새로운 역본이 나올 때마다 성경은 원어와 점점 더 격차가 벌어져 갔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라고 말합니다(롬10:17).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차이점들이 성도들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다음은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자 웨이트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나와 있듯이 저는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이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pistis’인데 여기에 정관사를 붙여 ‘hei pistis’라고 하면 “땅에서 믿음(the faith)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의 ‘믿음’(the faith)이 됩니다.

‘믿음’(the faith)이란 단어가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 쓰일 때마다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체 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육체의 부활, 피를 통한 속죄, 기적 등 이 모든 교리를 통틀어 ‘믿음’(the faith)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재림의 때에 ‘믿음’(the faith)을 찾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다른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 말세에는 속이는 자들과 속는 자들이 있을 것이며 그 결과 ‘믿음’(the faith)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세의 다양한 표적들입니다.

2008년 10월엔 미국성서공회(American Bible Society)의 대표들이 바티칸과 미국성서협회의 도장이 찍힌 다국어 특별 성경을 교황 베네딕토 16세에게 바쳤습니

다. 한편, 미국성서공회는 CEV(*Comtemporany English Version*, 1995)라 불리는 새 역본, 즉 ‘적그리스도’(Antichrist)라는 단어를 완전히 제거해 버린 더 새로운 역본을 출간했습니다. 이 역본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대신에 원어의 뜻이 반 이상 없어져 버린 ‘그리스도의 원수’(the enemy of Christ)라는 말을 씁니다.

이에 대해 웨이트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안티(anti)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무엇 대신에’라는 뜻이 있고 ‘무엇에 대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하며 주 예수님을 대체할 자입니다. 그러니 CEV처럼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는 성경 역본이 퍼져 나간다면 성경을 통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 수 없게 되며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설명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자가 실제로 출현할 통로가 더욱 가까이 예비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죄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자기의 신성을 선포하는데 바로 그자가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예언의 사건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시간만이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는 방식은 성경 예언에 대한 이해도에 확실히 영향을 줍니다. 어떤 이들은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빠진 새로운 국제 성경이 나올 거라고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티칸은 다양한 성서 공회들을 통해 지금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언어로 된 성경의 번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1,000년 이상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인 로마 카톨릭교회는 이제 180도 태도를 바꾸었는가?

아니면 로마 카톨릭교회는 단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략을 적용하는 것일까?

아무도 어떤 방법으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살후2:3).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마24:4).





지금까지 우리는 굳게 닫혀 있던 지하의 보물 창고를 보기 위해 칠후 같은 어둠을 작은 등불로 밝혀듯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던 성경과 교회의 참된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돌람 출판사에서 제작한 <어둠 속의 등불: 밝혀지지 않은 성경 역사> 다큐멘터리 영화의 한글 자막을 책으로 엮은 본 책자의 대부분 내용은 한국의 평범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생소한 내용일 것입니다.

아마도 어떻게 이토록 중요한 내용이 그동안 감추어졌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가에 대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과 교회의 참된 역사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경고의 말씀이 있듯이 지난 교회 역사의 어느 시대나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악한 일들은 있었고 심지어 그것은 시대의 대세가 되어 많은 추종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 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벧후2:1-3).

우리는 독자 여러분에게 그저 무조건 이 책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따르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모든 바른 지식과 깨끗한 양심을 동원해 이 책의 모든 내용을 검증하고 따져보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할 뿐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가 갈수록 사람들에게 외면당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진단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태 속에서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과 가족의 영적 평안을 위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짓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히5:13-14).

과연 지난 교회 시대 속에서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평범한 사람들에게

게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던 사탄의 발톱은 누구입니까? 또 오늘날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 대다수가 알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책은 이토록 중대한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지난 역사의 교훈을 깊이 새겨 자신과 가족의 영적 평안을 든든히 지키느냐는 오직 여러분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책자가 짙은 영적 어둠이 깔린 마지막 때에 장성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길로 행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요, 진리의 항구로 인도하는 등대가 되길 소망합니다.<sup>135)</sup>

### 하나님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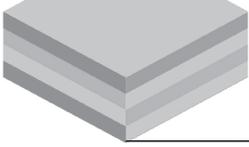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  
이다... 주의 말씀은 삼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시119:105, 140).



---

<sup>135)</sup> 1611년 초판 킹제임스 성경, 틴데일 성경, 에라스무스 성경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고대 성경들의 팩시밀리 실물 복사본을 구하기 원하면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기 바란다.  
<http://greatsite.com/>

# 에라스무스 이야기



*Desiderius Erasmus*

성경의 본문이나 사본에 대해 논의하게 되면 언제나 에라스무스라는 이름을 접하게 되며 그때마다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가 인본주의자였다.” 혹은 “그는 전형적인 로마 카톨릭교도였다.”라는 주장을 하곤 합니다. 한마디로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들의 요점은 ‘인본주의자’<sup>136)</sup>나 ‘카톨릭교도’가 만든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둔 킹제임스 성경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필라델피아 제십장로교회의 유명한 목사이자 성경 무오성에 관한 국제 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보이스(James M. Boice) 목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공연하게 나쁘게 말하며,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에라스무스가 인본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정확히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을 만든 에라스무스가 실제로 인본주의자였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지난 400년간 온 땅에 퍼져 복음의 빛을 발한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근본주의 대학인 밥존스 대학의 커스터(Stewart Custer) 교수 역시 ‘킹제임스 성경 논쟁에 대한 진실’이라는 글에서 에라스무스에 대해 동일한 견해를 펼칩니다.

공인 본문은 1516년에 로마 카톨릭 인본주의자였던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과 함께 시작되었다.

비난을 받았지만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다른 훌륭한 사람들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에라스무스에 대한 이러한 견해 역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언뜻 보면 에라스무스에 대한 이런 견해가 이미 역사적으로 정립된 사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수많은 증거들은 에라스무스란 인물이 ‘로마 카톨릭 인본주의자’를 능가하는 매우 비범한 사람이었음을 보여 줍니다.

대부분의 역사적 사건들처럼 에라스무스에 대한 이해에도 어떤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완전하지

136) 영어로는 ‘humanist’이며 우리말로는 보통 ‘인문주의자’라고 함.

못하고 또 과거의 역사를 규명하기에 충분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450년이라는 긴 역사의 시간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현존하는 기록들은 여러 각도에서 해석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역사가나 기록자의 생각에 따라 한쪽으로만 해석되곤 합니다.

우리는 결코 에라스무스가 영적으로 혹은 지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역시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들 -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 왕과 같은 완전한 사람도 지니고 있던 문제들 - 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변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에라스무스

근본주의 크리스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에라스무스에게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완전치 못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 자신이 보고 있는 분명한 잘못으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것, 이교도들의 학식을 열렬히 동경한 것, 각종 성사, 교황 제도, 사제 제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로마 카톨릭교회의 명백한 잘못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것 등등.

그러나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에라스무스를 ‘로마 카톨릭 인본주의자요, 부주의한 성경 본문 편집자’로 낙인찍는 것은 참으로 잘못임을 보여 주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라스무스에 대해 올바른 평가를 하기 위해 그의 생애와 신학에 대한 서적들을 찾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두 개의 중요한 책들을 찾아냈습니다. 첫째 책은 저명한 역사학자 베인튼(Roland H. Bainton)이 저술한 「기독교계의 에라스무스」(*Erasmus of Christendom*)<sup>137)</sup>이고 다른 책은 1894년에 출간되어 지금은 절판된 프로드(J. A. Froude)의 「에라스무스의 생애와 서신」(*Life and Letters of Erasmus*)입니다.

우리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들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 소위 복음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에라스무스를 부정적인 인물로 내모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에라스무스에 대해 것처럼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자신들이 신뢰하지 않는 그리스어 공인 본문과 관련해서 에라스무스가 처음으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을 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생애와 서신을 통해 그가 결코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을 보여 주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다음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사람 아담이 창조된 뒤 약 6,000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완전치 못한 사람들을 자신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가, 즉 천국인

137) 이 책은 1998년 11월에 현대지성사에서 「에라스무스」(현대지성신서 010)로 출간하였으며 교보문고의 인터넷 서평은 다음과 같다. “카톨릭에 의해서는 파괴적인 인물로 배척당하고, 프로테스탄트에 의해서는 도교적인 인물로 배척당했던 에라스무스. 그의 삶과 사상을 새롭게 조명한 전기. 수도원주의 : 홀란드, 왕들과 성직자들에 대한 채찍, 최악의 세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등 11장에 담았다.”

가 지옥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일에서 에라스무스를 선택하셨는가, 선택하지 않으셨는가에 대해 논의할 때도, 과연 에라스무스가 구원받은 사람이었는지 혹은 영적인 사람이었는지 자체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발람, 삼손, 솔로몬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들 중에서 발람은 구약 성경 보존의 임무를 맡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며 삼손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으며 특히 발람과 솔로몬의 경우에는 이들을 통해 영감된 성경기록을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로 쓰였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4-45장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 불린 페르시아(바사)의 고레스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이교도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이므로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을 이행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고 삼전에게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사44:28).

주께서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서 정복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띠를 풀어 문짝이 두 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사45:1).

이사야서 45장 4절을 보면 고레스가 구원받지 못한 인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내가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해 네 이름으로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이름을 주었노라(사45:4).

우리가 말씀드리려는 바는 비록 에라스무스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옳지 못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 보존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앞으로 자료를 통해 독자들께서도 확신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역사적 기록들을 통해 에라스무스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매우 영적인 사람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인본주의자였다.”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려 합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인본주의자’라고 정의 내리는 관점에서 볼 때 에라스무스는 결코 ‘인본주의자’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자’라 하면 사람을 하나님 위에 놓으며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의 인본주의

자들은 무신론자요, 진화론자들입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결코 그런 범주에 들지 않습니다. 사실 ‘인본주의자’라는 말은 16세기 이후로 그 뜻이 크게 변했습니다. 16세기 이전의 ‘인본주의자’라는 말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 점에 대해 영국 ‘트리니테리언 성경 협회’(Trinitarian Bible Society)의 브라운(Andrew Brown)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라스무스는 젊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철저한 ‘크리스천 인본주의자’였다. 르네상스 시대와 종교 개혁 시대에는 ‘인본주의자’라는 말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무신론적 진화론자’를 의미하지 않았다. 중세가 로마 카톨릭교회의 ‘우민정책’으로 인해 말 그대로 암흑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인본주의자들은’ 고대문학, 문화, 교육 등에 큰 관심을 두고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시민 생활을 추구하려고 애를 썼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스테파누스, 베자, 칼빈 등이 모두 인본주의자였으며 이 같은 인본주의자들의 이상이 기독교의 복음과 합쳐져서 암흑시대를 벗어난 16세기 이후의 서구 문명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분명히 에라스무스는 로마 카톨릭교도였지만 동시에 개혁자였다. 그는 카톨릭교회의 권리 남용과 심각한 부패에 대해 크게 비판했으나 카톨릭교회를 내부에서 개혁해야 하며 거기에서 분리되어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분명히 프로테스탄트들과 카톨릭교도들에게 모두 칭송을 받았다. 그의 작품들 중 몇몇은 비록 그 안에 가끔 옳지 못한 교리가 있기는 하지만 참으로 영적인 것이었다. 특히 그가 지은 「크리스천 군사를 위한 안내서」는 너무나 유익한 책이어서 영어 신약 성경을 출간한 틴데일이 영어로 옮길 정도였다.

사실 1997년도에 출간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펴 보면 틴데일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번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평민들의 손에 쥐여 준 프로테스탄트 학자도 ‘휴머니스트’, 즉 ‘인본주의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이 유명한 백과사전 편집자들 역시 그 당시에 고전 문학에 조예가 깊었던 사람들 모두를 하나로 묶어 ‘인본주의자’로 분류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에라스무스의 행적을 조사하여 과연 그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인본주의자’이며 동시에 복음을 깨닫지 못한 ‘로마 카톨릭교도’였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는 1466년(혹은 1469년)에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태어났고 1536년에 일흔 살의 나이로 죽었으며 16세기경 유럽에서 최고의 학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시적 의학술과 함께 전염병이 사람의 평균 수명을 대략 30-40년으로 제한하던 그 당시 그가 그처럼 장수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에라스무스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전염병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그와 그의 형은 삼촌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지만 양육비 부담을 회피하려고 하는 삼촌이 그들을 수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청년 시절 에라스무스는 데벤터라는 도시에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전수받게 되었고 그가 지닌 매력과 예의범절 그리고 재치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큰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그는 확실히 비범한 지능의 소유자였으며 수많은 책을 저술한 작가였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 열 시간 걸려서 하는 일을 단 한 시간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대영 박물관내 도서관의 많은 부분이 에라스무스 개인이 저술하거나 편집한 책으로 쌓여 있을 정도로 그는 많은 작품을 저술했습니다.

에라스무스를 논하기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의 기초를 쌓았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에라스무스는 성경을 매우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형제들 — Brethren of the Common Life — 사이에서 자라났으며... 그의 일평생 동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다(라이온의 「기독교의 역사」(*History of Christianity*), p. 359).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라이온이 지은 「기독교의 역사」라는 책이 그리스어 공인 본문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온은 에라스무스가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들 안에서 양육을 받아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처럼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종교 개혁 이전이나 이후에 로마 카톨릭교도들에게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에라스무스의 믿음과 영은 천주교보다 성경에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인본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아 온 에라스무스의 성경관이 어떠했는가를 그 자신의 말을 통해 살펴봅시다.

나는 매우 연약한 여인이라도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스스로 읽고 깨닫기를 바라며... 그런 말씀들이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사람뿐만 아니라 터키 사람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나는 또한 쟁기질하는 소년이 쟁기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옷을 짜는 사람이 옷 짜는 기계 소리에 맞추어 이 말씀들을 흥얼거리며, 여행하는 사람이 이 말씀들을 통해 여행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른 공부를 한 것으로 인해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올 때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으셨다 다시 일어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 주며 그분이 바로 우리 옆에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Famine in the Lord」, Norman Ward, p. 38).

이와 같은 진술문은 결코 16세기에 살았던 ‘천주교 인본주의자’의 확신이 아닙니다. 그는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 주려는 매우 고귀한 생각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가장 훌륭한 점은 보통 사람들을 향한 그의 태도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의 엄격히 ‘계급화된 사회’에서 그는 일반인들의 손에 성경을 쥐여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신념의 사람이었습니다.

제목의 라틴어 역본이 로마 제국이라는 철저한 계급 조직의 명령에 의해 번역된 데 반해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라틴어 역본과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그 당시 일반인들의

손에 쥐여 주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로 번역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경이 단지 향기를 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가 번역한 성경을 집에서 읽는 자마다 그것으로 인해 큰 유익을 얻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농부, 재단사, 여행자 그리고 심지어 회교도들조차’ 손에 성경을 잡고 읽는 것을 보기를 오랫동안 갈망해 왔다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의 상급 동료들이 놀라 자빠지도록 심지어 ‘석공과 매춘부와 포주들’까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장성한 뒤에 그는 카톨릭교회의 어거스틴과 사람들이 가장 좋은 장서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파에 속하게 되었으며 1492년에는 공식적으로 카톨릭교회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어거스틴과 교도들의 기준에 따르자면 참으로 유별난 데가 많았습니다. 그는 교회 축제일 전야의 철야 기도를 지키기를 거부했고 금요일에 고기 먹는 것을 절대로 주저하지 않았으며 사제로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제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비록 로마 카톨릭교회가 그의 몸을 구속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그의 영과 혼은 그런 틀에서부터 벗어나 언제나 자유로웠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많은 작품을 썼으며 그 안에서 자기가 속한 로마 카톨릭교회의 부조리와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반기를 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교황의 권력과 사제단 그리고 수도승들의 허랑방탕함을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수도승들이 돈을 만지지는 않지만 술과 여자에 대해 깨끗하지 못함을 성토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성직자들의 내연 관계와 로마 카톨릭교회가 소위 ‘이교도’라 부르는 자들을 다루는 잔악성에 대해 공격했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공공연한 사악함에 대항하여 저술한 「야만인들에 대하여」(*Against the Barbarians*)라는 제목의 소책자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한 그의 많은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한편 그는 율리우스 교황을 비롯한 여러 교황의 독재를 계속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는 종종 교황 율리우스가 이끄는 ‘성전’(聖戰)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전쟁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율리우스’(교황)가 율리우스(카이사르) 역을 얼마나 잘해내고 있는가!”라는 유명한 말 역시 그가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게다가 그는 ‘로마 교황의 이 같은 독재는 기독교를 쪼먹는 해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에서 교황좌(座)를 제거해 버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이 지옥에 간 것으로 묘사한 신랄한 풍자의 글이 익명으로 배포되었을 때 그 글을 지은 사람이 에라스무스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비난을 잠재울 양으로 천주교 지도자들은 그에게 추기경직을 수여하려 했지만 그는 그 같은 노골적인 뇌물을 거절했습니다.

온 유럽은 수도승들의 무지와 사제들의 미신 등을 적나라하게 밝혀 놓은 에라스무스의 저서들로 인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요동했다... 이에 교황은 그에게 추기경 자리를

주어 그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으나 그는 자신의 양심과 타협할 수 없었기에 이 같은 제안을 계속해서 거부했다.

그가 이 같은 교황의 제안을 계속해서 거부했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며 여러 가지 기록들은 그가 자유롭게 남아서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번역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거부했음을 보여 줍니다.

에라스무스는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나 학자나 인쇄공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를 버리려 하지 않았다(「기독교계의 에라스무스」, p. 103).

완숙한 지경에 다다른 학자 에라스무스는 그 시대의 별이었으며 그 명성으로 인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유복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국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다.

한편 에라스무스는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이 천주교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라틴어 신약 성경은 카톨릭교회의 라틴 벌게이트와 너무나 달라서 사람들은 에라스무스의 라틴어 신약 성경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라틴 벌게이트를 드러내 놓고 공격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번역이 옳음을 보여 주는 각주들을 만들었으며 이런 각주에는 부패한 카톨릭 사제들을 겨냥한 뾰족한 가시들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에라스무스가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를 사용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그의 작품들을 비난했습니다. 그가 제롬의 역본을 반대한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어 사본이 4세기경에 오리겐 등에 의해 개악(改惡)되었음을 간파했고 제롬의 역본이 4세기 초에 기록된 알렉산드리아 필사본인 ‘바티칸 사본’에 기초를 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한편 그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권위를 주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경 구절들을 제롬과 달리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롬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고해 성사 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번역했는데 반해 에라스무스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라고 달리 번역했습니다. 어느 번역이 맞는지는 독자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에라스무스는 또한 성경 비평 학자들과 인본주의 학자들이 그 신빙성을 의심해온 마가복음 16장 9-20절과 요한복음 8장 1-12절 말씀을 충실히 옹호한 사람이었습니다.

밀러(Andrew Miller)라는 역사학자는 그 당시 로마 카톨릭교회의 라틴 벌게이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잘 보여 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 밑에서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모든 지적 능력을 동원하여 참으로 힘든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편집하게 되었다. 이 작품은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516년 스위스의 바젤에서 라틴어 신약 성경과 함께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가 만든 라틴어 신약 성경에는 카톨릭교회의 라틴 벌게이트의 오류들이 수정되어 있었다.

사실 이 같은 작업은 그 당시에 아무도 감히 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 작품이 출간되자마자 사방에서 그의 작품을 공격하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는 종파 분쟁을 일으키는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신성하고 전통적인 라틴어를 간섭하려 하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여 말하였다. “도대체 누가 카톨릭교회의 라틴 벌게이트에 수정을 가하여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단 말인가?” 그 당시에 카톨릭교회의 라틴 벌게이트 역본에 대해 의심을 품는다는 것은 로마 카톨릭교회가 매우 큰 범죄로 여기는 것들 중 하나였다(『Miller's Church History』, Andrew Miller, Bible Truth Publishers, 1980, p. 696).

한편 에라스무스의 성경 주석 역시 카톨릭교회의 왜곡된 모습에 대일격을 가했습니다.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에라스무스가 일하던 시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저서들과 그리스어 신약 성경 출간은 곧장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에라스무스는 ‘종교 개혁’이라는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장본인입니다. 이 같은 그의 업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으며 더구나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인본주의자’나 ‘로마 카톨릭교도’가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해 로마 카톨릭교회가 힘을 잃게 되었고 그 결과 지난 400년간 온 세상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같은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을 일으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을 편집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다섯 판에 걸쳐 출판했습니다. 그것들은 주후 1516년, 1519년, 1522년, 1527년 그리고 1535년에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첫째 판의 번역 및 출간 작업은 1515년 3월 15일에 시작되었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516년 3월 1일에 출간되었습니다.

그 당시 바젤에는 프로벤이라는 인쇄업자가 있었는데 그는 스페인 학자 스투니카가 저술하여 1514년에 시메네스 추기경에 의해 처음으로 인쇄되었으나 1522년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출간된 ‘킴플루텐시안 폴리글롯’이라는 최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출간되기에 앞서 자신이 처음으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하려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라스무스를 고용하여 그 일을 하게 했고 결국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킴플루텐시안 폴리글롯’보다 먼저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출간된 첫째 판은 그리스어 본문과 라틴어 역본이 동시에 들어간 두 가지 언어로 구성된 성경, 즉 ‘디아글롯’(46쪽 사진 참조)이었습니다.

한편 둘째 판은 첫째 판을 조금 개정한 것으로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셋째 판은 소위 '사도 요한의 씬표'라 불리는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을 삽입한 것으로 인해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은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라는 것으로 이 구절은 모든 알렉산드리아 본문에서 삭제되었고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가장 명백한 구절입니다.

비록 자신이 수집해서 소장하고 있던, 주후 15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다량의 비(非) 그리스어 자료들에서는 요한일서 5장 7절의 본문이 들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첫째 판과 둘째 판에는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자신의 신약 성경 본문에 이 구절을 포함해야만 함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권위를 입증해 줄 만한 최소한의 그리스어 필사본도 없이 이 일을 했다가는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째 판에서와 같이 자신의 둘째 판을 출판할 때 요한일서 5장 7절을 포함하는 그리스어 필사본이 하나라도 발견되면 그다음 판에 이 구절을 반드시 포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실 그가 편집한 첫째 판과 둘째 판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나오자 카톨릭교회에서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그는 15세기경의 사본을 찾아내게 되었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 구절을 신약 성경에 포함했으며 그 뒤 이 구절은 영원히 그리스어 공인 본문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킹제임스 성경에 남아 보존되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은 구(舊) 라틴 벌게이트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와 고대 왈덴시드(왈도파)의 성경, 테플 성경 등 10여 개의 증거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들의 특징은 이것들이 한결같이 비잔틴 계열이 아니라 라틴 계열이라는 점입니다. 영지주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 분파의 철학에 심취한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이 저술한 알렉산드리아 본문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으나 삼위일체를 인정하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임을 확증한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과를 따른 라틴 계열의 기독교계는 처음부터 구 라틴 벌게이트를 사용하면서 이 구절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영지주의자들과 아리안주의자들이 성경 본문을 맹렬하게 공격해서 요한일서 5장 7절의 말씀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 비잔틴 계열이 아니고 라틴 계열의 사본 및 역본들을 통해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셨습니다.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의 이 구절을 반대하는 소위 '근본주의 학자'라 하는 사람들은 에라스무스가 새로 발견한, 요한일서 5장 7절을 포함하고 있는 두 개의 필사본이 에라스무스의 요구를 만족하게 하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그릇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비난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지금도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에라스무스 당시에도 옹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에라스무스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또한 그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너무나 짧은 기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보통사람이 아니며 16세기 최고의 그리스어 학자였다는 점을 이해하면 이 같은 비난은 사실상 합당한

근거를 잃게 됩니다. 또한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가 기원이 오래되지 않은 몇 개의 사본들에 근거해서 성경 본문을 만들었으므로 그의 작품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다음의 표는 그가 사용한 사본들을 보여 줍니다.

<에라스무스가 사용한 사본들>

사본 번호	사본 시기	신약 성경 부분	비고
1	11세기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비교용
2	15세기	사복음서	본문으로 채택
2 <sup>ap</sup>	12/14세기	사도행전, 서신서	본문으로 채택
4 <sup>ap</sup>	15세기	사도행전, 서신서	비교용
1 <sup>r</sup>	12세기	계시록	계시록만

그렇습니다! 그는 주로 두 개의 사본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본의 개수나 시기가 아니라 그 사본이 어느 계열에 속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온 유럽을 여행하면서 많은 사본들을 수집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더욱이 카톨릭교회의 사제였으므로 카톨릭교회가 수집한 수많은 사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바티칸 도서관에 '바티칸 사본'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본은 이미 1481년에 바티칸 도서관에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약 성경 사본에 두 종류가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따라서 모든 사본을 '바티칸 사본'과 일치하는 사본과 비잔틴 계열의 사본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월켄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에라스무스는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또한 얼마든지 '바티칸 사본'을 참조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은 그가 로마에 있는 봄바시우스라는 교수와 계속해서 서신을 교환했기 때문이었다. 그 교수는 에라스무스가 원하는 부분의 본문을 보내 주었다. 한편 1533년에 에라스무스에게 '바티칸 사본'의 여러 부분을 보내 주면서 '바티칸 사본'이 '공인 본문'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려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름이 아니고 카톨릭교도인 세폴베다였으며 그는 '바티칸 사본' 본문을 그에게 보내 주었다.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바티칸 사본'이 위 표의 1번 사본과 같다는 것을 간과하고는 무시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에라스무스가 '바티칸 사본'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신 본문이 어떤 것인가를 확신했으며 그 같은 확신에 따라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편집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프로드가 지은 「에라스무스의 생애와 서신」을 통해 에라스무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에라스무스는 온 세상 사람들이 원어로 된 신약 성경, 즉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자신의 새로운 라틴어 역본과 함께 읽을 수 있게 하려고 이 일을 시작했으며 지성인들을 일깨워 성경 말씀이 실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풍금이 내는 소리같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려 했다.

마침내 이 작업은 끝이 났고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과 라틴어 역본이 인쇄되었으며 기독교가 전하는 생생한 사실들과 그리스도와 사도들, 그들의 역사, 생애, 가르침 등이 마침내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온 세상이 크게 놀라게 되었다.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일반 신도들은 온 세상을 변화시킨 성경의 기독교와 교황, 추기경, 종교 재판, 각종 거짓신화로 가득한 천주교를 서로 대조 비교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이 일은 영적으로 볼 때 엄청난 지진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스스로를 고자로 만드는 사람들에 관한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독신 생활을 하겠다는 서약을 하려는 유혹을 받거나 혹은 그런 서약을 하도록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서약을 한 사제들은 창녀에게 갈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되며 단지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얽매이게 될 뿐이다. 또한 그들은 첩을 둔 채로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두게 되면 화형에 처해진다. 따라서 자기 자녀들을 독신 사제로 만들려는 부모들은 그들이 어릴 때에 거세를 시켜서 탐욕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관한 마태복음 23장에 대하여: 만일 동정녀 마리아의 모유가 돈을 벌기 위해 전시된 것을 성자 제롬이 본다면 무어라고 말할까? 어떤 이들은 “여기에 성 프란시스의 모자가 있다.”라고 하며, “저기에 동정녀 마리아의 겹옷이 있다.”라고 말하며, 혹은 “성자 앤의 빛이나 캔터베리의 성자 토마스의 신발이 있다.”라고 말한다. 사제들과 수도승들의 침묵과 위선을 통해 또한 일반 백성들의 무지를 통해 이런 일들이 — 즉 회칠한 무덤같이 겉만 번지르르한 일들이 — 많이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주교들조차도 이런 멧있는 쇼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포교력을 통해 이런 불법들을 승인하고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마태복음 24장 23절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직접 내 눈으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볼로냐에 있다가 로마로 간 것을 보았다. 그는 행렬의 맨 앞에서 마치 그리스도처럼 당당하게 행진해 갔다. 과연 베드로가 믿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던가? 아니면 무기나 군대나 혹은 다른 전쟁하는 기계들을 사용하여 온 세상을 정복했던가?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있는 ‘알지 못하는 타 언어’에 대하여: 그들(사제들 및 수도승들)은 현재 우리 교회 내에서 ‘알지 못하는 타 언어’(즉 라틴어)로 찬트를 부르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지난 여섯 달 동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바꾸어야 한다는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단 한 차례도 전한 적이 없다. 다시 말해 마땅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 그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를 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헛된 상상을 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1장 6절의 헛된 논쟁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죄의 형태에 대해 논하는 일에 전혀 피곤해 하지 않는다. 즉 그들은 이 죄가 영혼을 좀먹는 것인가? 아니면 영혼에 흠이 되는 것인가? 등을 논한다. 도대체 한마디로 죄를 미워하라고 단순히 말하면 되지 않는가? 유명하다는 신학자들이 겨우 이런 일에 대해 논의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다루는 주제들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만다. 이 모든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다. 기독교를 가르친다고 공언하는 이 신학자들은 실제로 자신들의 삶을 허비하고 있다.

감독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감독의 직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나열했다. 그런데 지금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것도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있다. 살인, 근친 살인, 근친상간, 해적 행위, 동성애, 도둑질 같은 것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결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지금 수많은 사제들이 있지만 그들 중 동정인 자들은 거의 없다. 수많은 사제들이 욕심에 빠져 심지어 근친상간 등을 행한다. 따라서 욕정을 참을 수 없는 자들은 합법적으로 아내를 얻어서 살 수 있게 하여 이처럼 더러운 오염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들은 그 당시 카톨릭교회의 교리와 원리 등에 대해 숙고한 뒤 에라스무스가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의 각주에 적은 기록들입니다. 이것들 중 어떤 것들은 신약 성경 첫째 판부터 기록되었으며 나머지는 판이 갱신되면서 뒤에 기록되었습니다.

위의 글은 결코 만평이나 논쟁거리를 담은 소책자에 실린 글이 아닙니다. 이런 기록들은 신약 성경 본문과 함께 기록된 것으로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가르친 기독교와 이 같은 기독교를 대신한 로마 카톨릭주의의 미신을 비교하고 비난하려는 목적으로 그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적은 것들입니다.

그는 천주교의 의식과 예식, 신학, 철학, 사제들의 인격 등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수 세기 만에 처음으로 그들의 참상을 온 세상에 밝히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교와 신부와 수도승들은 심판대로 끌려와 교황이 출간을 허락하지 않은 책, 즉 모든 책 중에 가장 거룩한 책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의 책처럼 열광적으로 팔린 책은 없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순식간에 수만 부가 팔렸을 정도였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여우에 불을 붙이자 불이 순식간에 번져 나간 것처럼 에라스무스가 일으킨 경각심의 불은 온 유럽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후에 공인 본문으로 알려지게 된 그리스어 본문의 기초가 된 본문을 편집했던 에라스무스는 교황을 당혹하게 만든 인물이었다고 ‘충실한’ 로마 카톨릭교도이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본보기였습니다.

에라스무스가 로마 카톨릭교회에 대해 가장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카톨릭교회가 가르치는 것들, 즉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와 더불어 그 교회의 신조들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구원은 각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 문제이며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로마 카톨릭주의의 방식에 대해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교회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판을 치니 복음을 설명할 시간조차 없을 지경이다.

그러면 에라스무스가 말하고자 했던 복음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자신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분의 피가 우리의 구원을 봉인했습니다.

그는 교회의 어떤 의식도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다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는 회개한 강도가 간 길이 바로 ‘낙원에 이르는 길’이며 단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현시대의 ‘인본주의자들’이 에라스무스의 글과 같은 것을 쓸 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시대의 ‘인본주의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성경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에라스무스는 결코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인본주의자들’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대 역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를 ‘인본주의자’로 매도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는 결코 오늘날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본주의자’도 아니며 또한 무지에 갇힌 로마 카톨릭교도도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베드로나 바울을 기쁘게 하려 하는가?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본받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로마에 열 번 순례 여행을 다녀오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당신들은 나무나 돌로 만든 그리스도의 형상을 존중히 여긴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복음서에 기록해 주신 것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다. 당신들은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이나 수건이라 불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흥분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꾸벅꾸벅 졸고 있지는 않은가? 나무 십자가를 집에다 갖다 놓고 기뻐하는 것보다는 그분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을 잊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자기 입술을 예수님의 입에 댄 가룟 유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유품 등은 결코 당신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 한마디로 당신들의 소유와 관심과 염려를 모두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두어야 한다. 그분은 자기를 위해 태어나지 않았고 자기를 위해 살거나 죽지 않았으며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우리는 죽음과 육신과 세상과 사탄에 대해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들의 사면과 이생에서의 백 배의 결실 그리고 그 이후의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가? 우리의 선한 공로와 행위 때문인가? 절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은혜 때문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의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안전하다. 그분께서는 우선 아담의 타락을 이겨내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봉인하셨으니 이 모든 것은 대안자들과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증거에 의해 입증된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같은 확신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도록 성령님의 봉인을 주셨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칭의가 되시며, 승리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안전이 되신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났으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것이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신다. 바로 이분께서 우리를 위해 배고픔과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의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리하셨다. 또한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 같은 역사적 고증들을 통해 우리는 로마 카톨릭교도가 아닌 프로테스탄트로서의 에라스무스의 마음과 영혼을 보고 듣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배격하는 ‘인본주의자’가 아닌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에라스무스가 비록 로마 카톨릭주의의 범주 안에 남아 있기는 했지만 성경을 믿은 신자요, 개혁자였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그 시대의 가장 성경적인 무리로 여겨진 재침례교도들(Anabaptists)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미 1523년경에 그들을 재침례교도라 불렀고 심지어 그 자신도 종종 ‘16세기의 유일한 재침례교도’라고 불리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에라스무스가 ‘근본주의’(Fundamental)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에라스무스가 프로테스탄트였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1535년 바젤로 다시 돌아가서 프로테스탄트 친구들과 함께 거하며 로마 카톨릭교회와는 아무런 연관도 맺지 않고 지내다가 그다음 해에 죽었습니다. 특히 카톨릭 신자라면 죽을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종부 성사’도 거절한 채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Dear My God!)이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으며 바젤의 프로테스탄트 형제들이 선구자 에라스무스의 시신을 프로테스탄트 교회 안에 안치하였고 그 역사는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라스무스는 1536년 7월 11일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결코 ‘충실한 카톨릭교도’의 삶과는 동떨어진 프로테스탄트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에라스무스의 프로테스탄트 성향 및 기질로 인해 그가 받게 된 가장 큰 찬사는 그가 죽은 지 23년 후인 1559년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교황 바오로 4세가 에라스무스의 저작물을 모두 금서 목록에 올려놓은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성경이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들려 읽히기를 원했던 그의 순수한 소망을 아신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로서 에라스무스가 저술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흔히들 “에라스무스가 품은 알을 루터가 부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말에는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자들은 에라스무스의 성경, 그의 저서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주의의 협박에 저항하는 그의 태도로 무장하였기 때문입니다. 루터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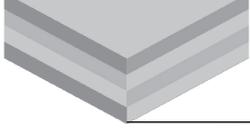
나의 운명이 그의 운명과 연관된다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있는 한 루터의 편입니다.” 그는 루터를 위해 여러 편의 글을 썼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의 의견에 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고위 성직자들로부터 루터를 이교도로 선포하라는 압력을 받았으나 거절했습니다. 만약 당대 최고의 석학인 에라스무스가 루터를 공격하기 위해 그의 펜의 힘을 사용했다라면 교황과 그의 하수인들이 할 수 있었던 힘없는 압력보다도 더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믿음의 확신에 따라 개혁자들을 옹호했고 단지 루터의 예정설을 믿지 않았기에 이 점에 대해서는 펜과 잉크로 종교 개혁자들을 비난했습니다.

한편 에라스무스가 만든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을 개정한 편집자들 역시 프로테스탄트 성경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만들어 내는 일에서 에라스무스의 뒤를 따른 사람들은 에라스무스와는 달리 완전히 카톨릭교회와 결별한 철저한 성경 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박해를 받으며 카톨릭교회에서 분리되어 나왔을 때에야 비로소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완전히 개정되어 ‘공인 본문’이 나오게 되었고 이 공인 본문을 기초로 해서 -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이 아니고 -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에라스무스를 인본주의자니 혹은 로마 카톨릭교도니 하며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은 결국 에라스무스를 통한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 등의 종교 개혁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요한 웨슬리, D. L. 무디, 조나단 에드워즈 등 프로테스탄트 부흥을 가져온 이들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역사적 고증을 통해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을 편집하는 동안 에라스무스는 그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같은 확신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고대 및 중세를 통해 신약 성경 본문을 안전하게 보존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인쇄해서 중세 이후의 사람들에게 주려 하실 때에도 결코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을 믿는 성도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할 확신이다. 우리는 결코 에라스무스나 베자나 틴데일이나 혹은 제임스 왕이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는 처음에 완전한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완전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을 뿐이다.



제임스 왕(King James)이 제정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으며 특히 틴데일(William Tyndale, 1494-1536)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열정과 노력이 없이는 킹제임스 성경의 출간이 매우 어려웠거나 지연되었을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폭스의 순교사화」(*Foxe's Book of Martyrs*)의 틴데일 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영어 성경의 역사와 틴데일의 일생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통해 성경을 보통 사람들의 손에 쥐여 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고가 있었는지 기억하고자 한다.

## 영국과 영어의 역사

영어 성경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먼저 영국 민족과 영어의 역사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후 5세기에 로마가 영국 남부에서 군대를 철수하자 브리튼족은 색슨족의 도움을 받아 픽트족과 스코트족의 침략을 막아 냈다. 색슨족은 북부 지방에서 승리를 거둔 뒤 돌아갔으며 그 뒤에 영국 남부를 차지하려 했다. 이런 싸움은 거의 150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동안에 앵글로족, 색슨족, 여러 이교도 등이 고대 영국을 일곱 개의 왕국으로 나누어 통치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영국 전체에 복음의 등불이 꺼진 상태였고 6세기 후반에 켄트의 왕이었던 에텔베르트(King Ethelbert, 560-616)가 회심한 뒤에야 비로소 다시 복음의 불이 붙기 시작했다. 그 뒤 여러 왕국들은 주변의 좀 더 강한 왕국으로 합병되었고 마침내 주후 827년에 에그베르트(King Egbert, 771-839)는 이 모든 왕국을 하나로 통일하여 통치하였다.

색슨족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덴마크족이 계속해서 영국을 침략했고 여러 지역을 다스렸다. 그러다가 주후 878년에 앨프레드 대왕(Alfred the Great, 849-899)이 에딩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기독교 신앙을 전하게 되었다. 그 뒤 150년 동안 영국인들과 덴마크족 사이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영국 교회는 캔터베리 대주교인 란프랑코(Lanfranc of Canterbury, 1010-1089)에 의해 재조직되었다.

6-7세기부터 영국에서는 앵글로/색슨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백성에게 전해 주려는 시도가 있었고 8세기 초반에는 시편과 복음서를 번역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때 만들어진 번역본은 현재 대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주후 735년에 비디(Bede, 672-735)는 복음서를 번역했으며 앨프레드 대왕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위하여 스스로 시편을 번역하기도 했다. 10세기 후반에는 앨프리

대주교(Aelfric of Abingdon)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교회에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했고 이로써 책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뒤 약 400년 동안은 영어 역사에서 참으로 중요한 시기였다. 주후 1066년에서 1150년까지는 색슨족의 언어와 노르만/프랑스어가 같이 쓰였다. 그러다가 1150년 이후에 이 두 개의 언어는 병합되기 시작했고 결국 고대의 색슨어가 아니라 절반만 색슨어라는 의미의 ‘반-색슨’(semi-Saxon) 언어로 귀착되었고 그 뒤 1382년에 어느 정도 영어가 정형화된 상태에서 위클리프의 영어 성경이 나오게 되었다.

### 순교자 위클리프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4)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전혀 알지 못했고 단지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던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성경’에서 번역을 시도했다. 그가 만든 영어 성경은 원본이 잘못되었으므로 완전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로마 카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기에는 충분했다. 그는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이단으로 몰려 정죄를 받고 출회를 당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1384년에 생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인쇄술이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번역한 성경은 일일이 손으로 필사해야만 했다. 보통 한 권의 성경을 필사하는 데는 열 달 정도가 걸렸고 그 가격도 만만치 않아서 성경 한 권의 가격이 당시 도서관 사서의 일 년치 봉급 정도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의 성경이 필사되자 마침내 영국 국회는 법령을 제정하여 위클리프의 성경을 보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영국의 아룬델 대주교는 교황에게 ‘저 사악한 위클리프’를 처치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뒤 1408년에 그의 지휘하에 옥스퍼드 회의가 열려 “어떤 형식으로든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는 안 되며 아무도 그런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결정했고 이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받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 뒤 약 100년 동안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클리프의 성경을 보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위클리프의 성경을 목에 매단 채 화형을 당하며 순교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와 롤라드(Lollards)라 불리던 그의 동역자들의 수고로 많은 성경이 필사되어 아직까지 170권이 남아 있음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경을 번역하고 필사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당시에 영어 성경이 평민들의 손에 들어가자 큰 위협을 느낀 교황 요한 23세는 콘스탄스 공회를 열어 위클리프의 성경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미 죽어 무덤에 안치된 위클리프의 유골을 캐내어 불사를 것을 결의했다. 그 뒤 13년이 지나서 이들은 실제로 위클리프의 무덤을 열고 그의 뼈를 캐내어 불사르는 악행을 저질렀다. 이런 박해를 겪으면서도 성경을 보통 사람들의 손에 쥐여 주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노력은 계속되었으나 손으로 일일이 필사해야만 하는 제약 때문에 원하는 대로

성경을 널리 보급할 수는 없었다.

### 구텐베르크와 인쇄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기 약 100년 전에 독일의 멘즈라는 오래된 마을에 요한 구스플레쉬(John Gooseflesh, 1397-1468)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천주교 사제들이 글을 쓰기 위해 사용하는 양피지를 만들어 어려운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요한은 어린 시절부터 칼로 무엇인가를 조각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어느 날, 그는 불 옆에서 자기 어머니가 꿰고 있는 자주색 염색 냄비를 지켜보며 나무에다 자기 이름을 조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글씨를 새긴 나뭇조각들 가운데 하나가 염색 냄비 속으로 들어갔다. 얼른 그것을 꺼내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이 그 옆에 놓여 있던 양피지에 떨어졌다. 그가 나뭇조각을 집어 올리자 그 양피지에 'h'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세월이 흘러갔지만 멘즈의 이 소년은 자기가 살던 옛집에서 그날 일어난 일을 잊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는 그 당시까지 해 온 것처럼 손으로 책을 필사하는 것보다 쉬운 방법으로 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나뭇조각을 깎아 그 위에 글씨를 새기고 염색하는 잉크를 묻혀 여러 가지 형태로 배열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서양에서 처음으로 인쇄기를 발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제는 누구나 역사책을 통해 독일의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라는 사람이 인쇄기를 처음 발명했다는 것을 알게 될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

이 일에도 성경을 널리 보급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참으로 묘하게도 주후 1450년에서 1455년 사이에 서양에서 처음으로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로 인쇄한 책은 다름 아닌 라틴어 성경책이었다.

### 그리스 문화의 복원

서양에서 인쇄술이 발명되던 그 당시에 터키의 콘스탄티노플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터키 사람들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대부분의 훌륭한 학교들이 몰려 있던 그 도시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그 결과 그리스어 학자들은 유럽의 각처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었고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그때까지 읽어 오던 '구(舊) 라틴 벌게이트'라는 번역 성경 대신 원어인 그리스어로 쓰인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또한 그들로 인해 점차 사람들은 성경을 모든 사람의 언어로 번역하여 누구나 읽을 수 있게 한다면 참으로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내 원어에 대한 연구와 인쇄기의 발명 그리고 영어의 정형화 등으로 인해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 순교자 틴데일

이 같은 변혁의 시기에 로마 카톨릭교회와 그들이 변개한 사본을 단호히 물리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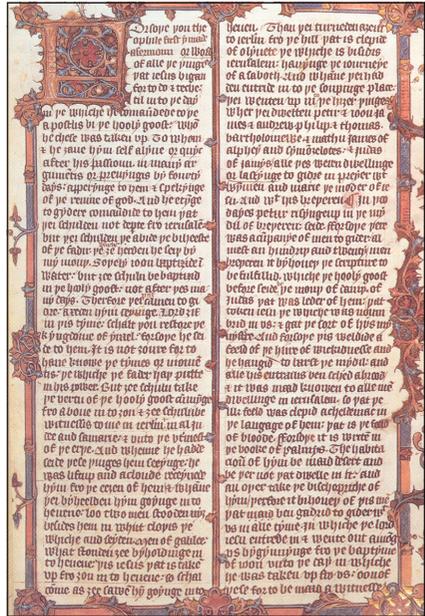
알프레드 대왕



윌클리프



구텐베르크



윌클리프 성경



구텐베르크 성경 인쇄 장면

개혁자들과 함께 순교하면서까지 영국의 평민들에게 영어 성경을 전해 주고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다음 아닌 틴데일(William Tyndale, 1494-1536)이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헌신과 사랑이 없었더라면 평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읽는 일이 훨씬 더 늦추어졌을 것이며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Version*, KJV)과 같은 걸출한 역본이 나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21세기의 현대인들은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결국엔 자기 목숨까지 바친 틴데일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윌리엄 틴데일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었던 틴데일은 주후 1484년, 영국 웨일즈 지방의 글로스터셔주의 노스니블리라는 마을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다.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는 어학과 다른 문학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고 특히 성경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성경에 몰두하게 되었고 그 결과 마그달렌 홀에서 지내면서 마그달렌 대학의 몇몇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몰래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들려주었고 성경의 지식과 진리에 대해 교훈을 주었다. 그의 예의범절과 행동 등이 성경 말씀과 일치했기 때문에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참으로 덕스러운 성품의 소유자이며 흠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거리낌 없이 말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 학교의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1521년에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옮겨 가서 강사로서 몇 년간 머물게 되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늘린 그는 그 대학을 떠나 자기 고향인 글로스터셔주로 가서 마스터 웰치(Master Welch)라는 기사(騎士)의 집에 기거하게 되었다. 거기에서 그는 웰치의 아이들을 가르쳤으며 주인인 웰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 웰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식탁을 같이하곤 했으므로 대수도원장, 집사, 집사장, 그리고 여러 부류의 의사 및 교회의 녹을 먹는 성직자 등이 그에게 모여들었다. 이들은 틴데일과 함께 상에 앉아 음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특히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와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536)같이 학식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거리와 질문 등에 대해서도 서로 견해를 나누게 되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해 온 틴데일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자기 견해를 간단명료하게 제시하곤 했다. 그들의 의견이 자기 의견과 다를 때면 그는 언제나 성경을 펴서 그들 앞에서 명백한 성경 구절을 보여 주곤 했으며 이로써 그들의 오류를 논박하고 자기 말을 확증하였다. 이처럼 그들은 얼마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논쟁을 하다가 마침내 치저서 마음속으로 틴데일에 대한 불평을 품기 시작했다. 일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

자 그 지역의 사제들은 선술집이나 다른 곳에서 함께 모여 틴데일에 대해 비난과 폭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그의 말이 이단 교리임을 확증하려 했으며 또한 비밀리에 그를 주교의 종교법 고문 및 주교의 관리들 중 몇몇 사람들에게 고소하였다.

이 일이 있는 지 얼마 되지 않아 주교의 종교법 고문이 새로 임명을 받고는 여러 사제들에게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틴데일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틴데일이 그들의 위협에 대해 미심쩍어했는지 혹은 그들이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음을 그가 알고 있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단지 그가 밝히 드러낸 바와 같이 그는 그들의 은밀한 고소에 대해 의심을 품었고 그래서 거기로 가는 길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자기에게 힘을 주실 것을 간구했다.

틴데일이 종교법 고문 앞에 설 날이 오자 그 고문은 그를 심하게 위협하였고 마치 그를 개처럼 취급하며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는 아무도 고소한 적이 없는 일들에 대해서 그에게 책임을 물었다. 그 지역의 사제들이 거기에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간신히 그들의 손에서 벗어난 틴데일은 그 길로 집을 떠나서 다시 자기 주인에게 돌아갔다.

거기에서부터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그 당시 주교의 고문으로 지내던 한 의사가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틴데일과 잘 알고 있었으며 그에게 많은 호의를 베풀었다. 틴데일은 그에게 가서 자기 마음을 열고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점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 의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교황이말로로 성경이 말해 주는 바로 그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하는가?  
그러나 말조심하게. 당신이 그런 의견을 가진 것이 알려지면 목숨이 달아날 걸세.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틴데일은 우연히 어떤 신학자와 사귀게 되었는데 그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매우 학식이 깊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논쟁을 하다가 마침내 틴데일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에 대해 그의 견해를 물었다. 그러자 그 위대한 박사는 다음과 같은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였다.

성경이란 필요 없소. 보통 사람들이 읽도록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교황뿐이오. 교황의 법 없이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의 법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낫소.

이 말을 들은 틴데일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이 같은 신성모독 발언을 참지 못하고는 다음과 같이 응수했다.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법에 도전하며, 만일 하나님께서 목숨을 살려 주신다면 앞으로 몇 년 내에 쟁기를 끄는 소년이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오.

틴데일에 대한 사제들의 불평은 점점 더해 갔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틴데일을 향해 원성을 토로했고 욕을 했으며 그를 가리켜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가 여러 가지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로부터 많은 시달림과 괴롭힘을 당하면서 결국 그는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장소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인 웰치에게 가서 그의 곁을 떠나도 좋다는 호의를 입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인이시여,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이 지역에 머무를 수 없으며 비록 주인께서 그들의 손에서 저를 보호하시려 한다 해도 저를 보호해 주는 것으로 인해 많은 불명예를 당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점에 대해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틴데일은 자기 주인의 호의를 입고 곧바로 런던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도 그전 지방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 동안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 그는 그 당시 런던의 주교였던 턴스탈(Cuthbert Tunstall, 1474-1559)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또한 턴스탈의 학식을 매우 높이 평가한 에라스무스의 추천의 말을 숙고하면서 만일 자기가 그의 일을 도울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틴데일은 왕의 감사관인 길포드 경에게 자기가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소크라테스의 연설문을 가지고 가면서 그가 자기를 위해 런던의 주교인 턴스탈에게 이야기해 줄 것을 고대했다. 그런데 그는 틴데일을 위해 그 주교에게 편지를 써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주교를 방문하자고 했다. 그래서 그는 편지를 써서 헬비스웨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그 주교의 종에게 편지를 넘겨주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게 세상일을 처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틴데일에게나 자신의 교회에게나 최상의 것이 되지 않음을 보시고 그가 그 주교의 눈에 큰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 그 주교는 현재 자기 집에 사람이 너무 많아 틴데일을 위해 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런던의 주교에게서 거절을 당한 틴데일은 런던의 부시장인 몸무스의 집에 가서 자기를 도와 달라고 간청을 했다. 그러자 그는 틴데일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집에서 틴데일은 매우 착실한 사제로서 밤낮으로 연구하며 지내게 되었고 주인의 호의로 잘 익힌 음식만을 먹게 되었다.

이처럼 1년 정도를 런던에 머물면서 틴데일은 이 세상의 행로가 무엇인지 차츰 깨닫게 되었는데 특히 복음 선포자라 불리는 자들의 행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다. 그들은 교만했고 스스로 권위를 내세웠으며 특히 고위 성직자들의 겉치레는 그들의 다른 행실들과 함께 그에게 큰 불쾌감을 가져다주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주교의 집에서 신약 성경을 번역할 수도 없고 또한 영국에서도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몸무스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 지역에서 떠나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독일로 떠났다. 거기에서 이 선한 사람 틴데일은 자신의 조국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에 불타서 어떤 힘든 일이나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확실성에 대한 깨달음을 자신의 영국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자기 친구 프리스와 의논하는 가운데 그는 성경이 보통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되어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히 읽게 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그는 성경이 보통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평이하게 주어져서 그들 스스로 본문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진리 안에 굳게 설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어떤 진리를 가르친다 해도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은 궤변이나 자기들이 고안한 전통 등으로 이 진리를 저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보통 사람들이 성경 본문의 올바른 의미를 찾아낸 경우에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본문을 조작하여 본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다.

틴데일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보통 사람들의 눈에서 가려진 것, 바로 그것이 교회 내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토록 오랫동안 바리새인들 같은 성직자들이 가증한 행위와 우상 숭배를 행해 왔지만 성경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찾아내어 지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이 부패한 성직자들은 전력을 다해 성경 말씀을 짓누르려고 애를 썼으며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그들이 읽는다 해도 여러 가지 궤변으로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흐리게 했다. 또한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각종 가증한 것들을 경멸하는 자들을 위협하고 속박했다. 게다가 그들은 본문의 의미와는 다르게 성경을 자기들의 목적에 맞추어 마구 뜯어고쳤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말한 것이 다 거짓임을 알고 있다 해도 그들의 교묘한 술책을 이길 방도가 없었다.

이런저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선한 사람 틴데일은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아 성경을 모국어인 영어로 번역하여 고국의 단순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려 하였다. 처음에 그는 독일의 함부르크로 갔다. 그러나 영국의 주교들과 사제들이 정탐꾼들을 고용하여 그의 일을 방해하였고 친구를 사귀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그가 성경을 인쇄하는 일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심지어는 신변에 큰 위협까지 느낄 정도였다.

한편 쾰른에 인쇄소가 있었으므로 그는 그곳으로 가서 자기의 성경을 인쇄해 줄 인쇄공을 찾아냈다. 그는 영국의 주교들과 사제들이 이 작업이 끝난 것을 알면 자기를 체포해 갈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비밀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숨을 건지려면 빨리 도망가라는 제보가 그에게 들어왔다. 술에 취한 인쇄공으로부터 그의 신약 성경이 거의 인쇄될 단계라는 것을 듣게 된 로마 카톨릭 사제가 그를 체포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간신히 원고들을 챙겨 루터가 살고 있던 보름스로 도망갔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주후 1524-1525년경에 자신의 영어 신약 성경을 출간하였다. 그때 그는 두 종류의 성경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크기가 컸고 다른 하나는 작았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영국의 성직자들이 큰 성경들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작은 것들은 찾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남은 일은 이 성경들을 영국으로 보내는 것이었다. 그는 큰 통이나 짐짝에

옷가지나 밀가루 등과 함께 성경들을 숨겨 마치 다른 상품처럼 꾸며 영국으로 보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성경들이 영국에 들어와 판매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성직자들은 항구를 조사하여 성경을 찾아냈고 찾는 족족 불태워 버렸다. 한편 런던의 주교인 턴스탈과 모어 경(Thomas More, 1478-1535)은 너무나 화가 나서 턴데일의 영어 성경을 ‘거짓되고 실수가 많은 번역’이라고 폄하하였고 또한 그의 역본을 없앨 방법을 모색했다.

그런데 그 당시 포목상이던 패킹턴이라는 사람이 턴스탈 주교와 함께 앤트워프에 살고 있었다. 이 사람은 턴데일을 사랑하여 그 주교에게 반대로 말을 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노력하던 주교는 어떻게 하면 턴데일의 신약 성경을 다 사들여 불태울 수 있을지 그에게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패킹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 주시여! 주교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여기 있는 어떤 상인보다도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덜란드 사람들과 턴데일에게서 성경을 사들여 여기에서 판매한 외국 사람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교께서 원하신다면, 저는 그것들을 사들이기 위해 많은 돈을 쓸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주교께서 지금까지 인쇄된 것 중에서 판매되지 않은 것을 다 차지할 수 있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말을 들은 주교는 이제야말로 이 일을 끝장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그에게 말했다.

패킹턴 선생, 부지런히 이 일을 수행하시오. 그 성경들을 구해 주시오.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다 지불하리이다. 내가 그것들을 다 모아 성 바울 십자가 광장에서 불사를 것이오.

이 일 뒤에 패킹턴은 턴데일에게 가서 이 모든 것을 알려 주고 서로 협약을 맺었다. 그리하여 런던의 주교는 턴데일의 남은 성경을 모두 인수했고 패킹턴은 주교로부터 감사의 말을 들었으며 턴데일은 큰돈을 얻게 되었다.

그 뒤에 턴데일은 동일한 신약 성경을 한 번 더 수정한 뒤 다시 인쇄해서 이전의 세 배나 되는 양을 영국으로 보냈다. 런던의 주교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패킹턴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다.

외부에 그토록 신약 성경이 많이 돌아다닌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가 그것들을 다 사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이에 대해 패킹턴은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저는 그 당시 구할 수 있는 성경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후에 더 많은 성경을 인쇄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활자와 인쇄기를 가지고 있는 한 이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쇄기까지 다 사들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불태우는 카톨릭 사제들

이 같은 대답에 주교는 웃고 말았고 그 문제는 그렇게 끝나고 말았다. 그로부터 얼마 뒤에 틴데일을 도와주던 콘스탄틴은 그 당시 영국의 종교법 고문이었던 모어 경에 의해 특정 이단 교리에 대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모어 경은 그에게 물었다.

콘스탄틴! 내가 묻는 한 가지 질문에 솔직히 답변하기 바란다. 그러면 너를 고소한 다른 모든 혐의에 대해 호의를 베풀 것을 약속한다. 바다 너머에 틴데일과 조이와 다른 일당이 있는데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는 그 사람들 중 하나이니 돈의 출처를 알고 있을 거다. 청하건대 그들을 돕는 자가 누구인지 내게 말하도록 해라.

이에 대해 콘스탄틴이 대답했다.

내 주여,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겠나이다. 우리를 도운 사람은 런던의 주교입니다. 그가 신약 성경을 불태우기 위해 우리에게 엄청난 돈을 주었습니다. 그 돈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유일한 후원금이며 위로금입니다.

그러자 모어 경은 이렇게 말했다.

나도 그럴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역시 사실이구먼. 왜냐하면 주교가 그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주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했으니까.

영어 신약 성경을 6판까지 출간한 뒤에 틴데일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 번역에

착수했으며 1530년에 창세기와 신명기 번역을 마쳤고 그다음 해에는 모세 오경을 마쳤다. 이와 동시에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읽어도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매우 경건하고 학문적인 서문을 작성했다. 한편 1535년에 그는, 가능한 한 그를 따라가며 많은 도움을 준 커버데일의 도움을 받아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인쇄했다. 이 책들을 영국으로 보냈을 때 그것들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온 영국 민족에게 얼마나 큰 빛을 가져다주었는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처음에 틴데일은 영국을 떠나 독일로 갔으며 거기에서 루터와 학식 있는 다른 사람들과 회의를 했다. 그 뒤 그는 잠시 그곳에 머물다가 다시 네덜란드로 내려가서 대부분의 시간을 앤트워프에서 보냈다. 틴데일의 경건한 책들 특히 그가 번역한 영어 신약 성경은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자마자 해외로 퍼져 나갔으며 경건한 사람들에게 참으로 큰 유익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경건치 못한 사람들 곧 일반 백성들이 자기들보다 더 현명하게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진리의 빛으로 인해 자기들이 행한 어둠의 일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은 적지 않은 동요를 일으켰다.

그때 틴데일은 이미 구약의 신명기를 번역했으므로 독일 함부르크에서 이것을 인쇄하려는 생각을 품고 함부르크행 배를 탔다. 그러나 네덜란드 해변에서 배가 좌초하는 바람에 그는 모든 책과 저작물과 필사본과 돈과 시간을 잃게 되었고 하는 수 없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른 배로 함부르크에 갔는데, 거기에는 약속한 대로 커버데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는 모세 오경 전체 번역을 도와주었다. 그들은 1529년 부활절에서부터 12월까지 경건한 과부인 엠머슨 부인의 집에 머물면서 이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당시 그 도시에 땀을 많이 흘리게 하는 병이 돌자 그는 함부르크에서의 일을 급히 끝내고는 다시 앤트워프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의 말로 된 영어 신약 성경을 널리 퍼뜨리려고 하셨을 때 틴데일은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경을 번역하면서 서문을 통해 만일 자신의 번역에서 잘못이 발견된다면 학식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기록했다. 다시 말해 그는 지식이 있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번역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을 발견하면 예의를 갖추어 부드럽게 자기들의 학식을 반영하고 수정할 부분을 고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겸손하게 제안했던 것이다.

그러나 성직자들은 그 책이 널리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므로 그 성경 안에 수천 개의 이단 교리가 있으며 따라서 그 책을 수정할 필요가 없고 완전히 파기시켜야만 한다고 큰소리로 주장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평민들이 자기들의 모국어로 된 성경을 갖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으며, 어떤 이들은 성경이 평민들 모두를 이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상의 통치자들을 이용하면서 틴데일의 성경을 통해 사람들이 왕에게 반기를 들 것이라고 모함하기도 했다.

틴데일은 창세기 앞에 있는 서문에서 몇몇 사항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자기의 번역본을 자세히 살펴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다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도 저 위대한 책인 성경을 번역할 수 있다고 상상하면서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 그런 억측으로 비교하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 또한 그는, 그들이 자기가 번역한 성경의 모든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만일 인쇄상의 실수로 거기에 ‘i’ 라는 글자가 없는 구절을 발견하면, 무식한 사람들에게 이것이야말로 큰 이단 교리라고 당당하게 말했음을 보여 주었다.

보통 사람들에게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빼앗으려는 영국 성직자들의 악랄한 계략은 너무나도 지독했다. 사실 이들의 임무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견딜 수 없었다. 틴데일이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의 이 같은 시도는 세상을 어둠 속에 가두어 두고, 헛된 미신과 거짓 교리로 자기들의 야망과 탐욕을 만족시키며, 또한 자기들의 명예를 왕이나 황제보다 더 높이면서 백성들의 양심 위에 올라앉아 사람들을 다스려 보려는 그들의 교만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었다.

마침내 주교들과 고위 성직자들은 왕의 동의를 얻어 냈고 서둘러서 주후 1535년경에 틴데일이 번역한 신약 성경을 금지시킨다는 선언문을 작성하여 포고했으며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틴데일을 자기들의 그물로 사로잡아 그의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했다. 그들이 어떻게 이 악한 계획을 실행했는지 이제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런던의 등기소에서 모인 주교들과 모어 경은 앤트워프에 있었던 것들을 다 가져다 놓고 틴데일에게 속한 모든 것을 열심히 찾아내어 조사했다. 그들은 틴데일이 어디에서 누구를 접대했는지, 그의 집은 어디에 있고 키는 얼마이며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 등을 조사했다. 부지런히 연구하여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뒤에 그들은 이제 자기들의 업적을 확고하게 할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앤트워프에 있던 틴데일은 영국 상인의 집을 지키고 있던 포인츠라는 영국 사람의 집에서 거의 1년 동안 기거했다. 그런데 그곳에 필립스라는 영국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아주 잘생긴 사람으로 신사처럼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무슨 이유로 그곳에 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때 틴데일은 상인들과 함께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하러 오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다. 이 기회를 통해 필립스는 그와 친숙해지게 되었고 틴데일은 곧바로 그를 크게 신뢰하게 되었으며 자기가 머무는 포인츠의 집으로 그를 데려가기도 했다. 또 그와 함께 한두 차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틴데일은 그와 깊은 친분을 맺게 되었고 마침내는 그를 포인츠의 집에 거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한편 그는 필립스에게 자신의 책들과 자신이 연구하는 것들 중 비밀에 속한 것들을 보여 주었다. 참으로 틴데일은 이 배신자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인츠는 그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필립스와 알게 되었느냐고 틴데일에게 물었다. 그러자 틴데일은 그가 정직한 사람이며 매우 학식이 있고 유익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틴데일이 그에게 것처럼 호의를 가지고 있음을 본 포인츠는 아마도 필립스가 그의 친구들 중 하나의 소개로 틴데일과 가까워졌으리라 생각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필립스는 앤트워프에서 약 삼십이 킬로미터 떨어진 브뤼셀의 법정에 갔으며, 거기에서 다시 앤트워프로 오면서 황제의 변호사인 검사장과 다른 관리들과 함께 돌아왔다. 그로부터 삼사일이 지난 뒤에 포인츠는 앤트워프에서 약 이십구 킬로미터 떨어진 읍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사업을 하게 되었다.

한편 포인츠가 없는 동안 필립스는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내에게 틴데일이 안에 있는지를 물었다. 그 뒤 그는 다시 나가서 브뤼셀에서 자기가 데려온 장교들을 집 근처 거리와 문 근처에 배치했다. 정오쯤에 그는 다시 돌아와 틴데일에게 가서 사십 실링을 빌려 달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침에 이곳과 메클린 사이에 있는 통로를 지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소.

이에 틴데일은 사십 실링을 그에게 빌려주었다. 권모술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그는 참으로 쉽게 사람을 믿는 순수한 사람이었다. 이에 필립스는 틴데일에게 이렇게 말했다.

틴데일, 오늘 저녁에 내 집에서 식사를 함께합시다.

그러자 틴데일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마침 내가 저녁 먹으러 가는데 당신도 함께 갑시다. 그곳에서는 당신을 환영할 것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틴데일은 필립스와 함께 나갔는데 포인츠의 집에 들어가고 나가는 길은 길고 입구가 좁아서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갈 수가 없었다. 틴데일은 자기 앞에 필립스를 가게 하려 했으나 필립스는 자기의 배려를 보이기 위해 틴데일을 자기 앞에 가게 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키가 아닌 틴데일이 앞에 갔으며 키가 크고 잘생긴 필립스가 그의 뒤를 따라갔다. 그런데 그는 이미 문 양쪽에 장교들을 배치해 놓았고 이들은 입구에서 누가 나오는지 볼 수 있었다. 틴데일 뒤에 선 필립스는 자기 손으로 틴데일의 머리를 가리켜서 장교들이 데려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 주었다.

틴데일을 감옥에 가둔 뒤에 장교들은 것처럼 단순한 틴데일을 보고 큰 동정심을 갖게 되었다고 포인츠에게 말했다. 그들은 틴데일을 황제의 변호사에게 데려갔으며 거기에서 그는 식사를 했다. 그 뒤 검사장이 포인츠의 집에 와서 틴데일의 소유물 곧 그의 책들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가져갔다. 이로써 틴데일은 앤트워프에서 약 이십구 킬로미터 떨어진 브뤼셀 근처의 빌보르드성(Castle of Vilvoorde)에 갇히게 되었다.

감옥에 홀로 남게 된 틴데일은 변호사와 검사를 대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자기가 스스로 답변하겠다고 말하며 이 제안을 거절했다. 그는 또한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선포했으며 성 안에서 그와 대화를 나눈 사람들은 만일 그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겠느냐는 진술을 했다. 마침내 심문이 시작되었고 많은 변론이 있었지만 아무런 변호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죽을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칙령으로 아우그스부르크 집회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주후 1536년 10월 6일, 빌보르드성에서 사형 집행 장소로 끌려 나와 화형대에 손발이 묶인 채 화형을 당했다. 이들은 그를 화형시키면서 불로 인해 고통이 증가하기 시작할 때에 목을 졸라매어 사망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형대에서도 놀라운 열정을 갖고 큰 목소리로 외쳤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처형장의 틴데일

Credo non latere te, Vir prestantissime, quod de me statuti sit.  
 Quam ob rem tuas benivolentiam rogatum habeo, idque per dominum Iohannem  
 ut si mihi per experientiam huiusmodi sit, sollicitus apud dominum  
 committam, si forte dignari velit, de rebus meis quas habeo  
 militare, calidiorum auribus, frigida autem partium in capite in  
 optimo perpetuo catarrho, qui sine te frigiditate non sibi augetur.  
 Calidiorum quae trinitatem, non haec quae ad odorem non sibi est  
 panem ad caligas referenda. Duplex detrita est. Causae  
 detrita sunt atque. Causae tamen quae si mittere velit.  
 habeo quae apud me, capere caligas ex crassiori panis  
 ad frigida inducunt. Nocturna tuzala calidiora habet dicitur  
 utque reserpi. hinc habere hinc. Rediit quae est per tenebras  
 solitarii sedere. Maxime ante aurum, hinc clementiam  
 rogo, atque ostendo, ut ex aere agere velit apud dominum  
 committam, quatenus dignari velit, mihi credere  
 et bene habere, gratiam habere, et roga hinc  
 habere, ut eo modo tempore tuzala. Tu tibi obligat  
 quod maxime optas, modo cum aere tuzala fiat. Verum  
 si aliud consilium de me ceptum est, aut exime speranda,  
 patiens ero, dei expectans voluntate, ad gloriam gratia domini  
 mei. Iest oris, origines tuzala regat partem dicitur  
 in Tundaly.



... 제 물품들을 여기로 되돌려 보내 주는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선 따뜻한 모자가  
 필요합니다. 극심한 추위로 인해 머리에 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계속되는 감기로 고통당하  
 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감옥에서 이 증세가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따뜻한 옷옷이  
 필요합니다. 현재 제가 입고 있는 것은 너무 얇습니다. 또 제 각반을 기용 형겅 조각이  
 필요합니다. 제 외투는 다 닳았고 셔츠 또한 그렇습니다. ... 또한 제가 바라는 것은 저녁에  
 초가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있기가 너무나 지루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저의 히브리어 성경과 히브리어 문법책, 그리고 히브리어 사전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의 시간을 그것에 관한 연구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 겨울을 나기 전에 제게 어떤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저는  
 인내하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것입니  
 다. 그분의 영께서 늘 각하의 마음을 인도하시길 기도하고 바라옵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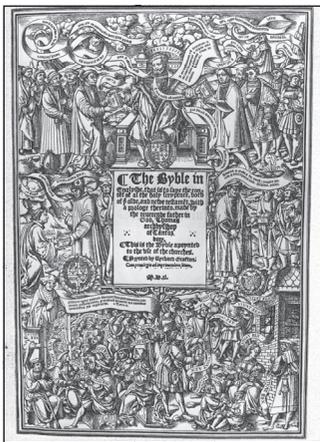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한 죄로 체포되어 1533년 겨울 빌보르드성에 감금되었던 틴데일리  
 라틴어로 써서 성주 앞으로 보낸 편지로서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그의 친필 기록>

감옥에 있었던 약 2년 동안에 그가 간수와 그의 딸과 그의 다른 가족들을 회심시켰다는 것을 보면, 그의 가르침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고 삶이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알 수 있다. 자기가 번역한 신약 성경이 이단 교리들로 가득 찼다며 대적들이 심하게 트집을 잡았으므로 틴데일은 친구 프리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될 그날에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노니 나는 결코 내 양심을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의 단 한 음절도 바꾸지 않았으며, 땅 위에 있는 모든 것, 즉 명예와 쾌락과 재산을 내게 준다 해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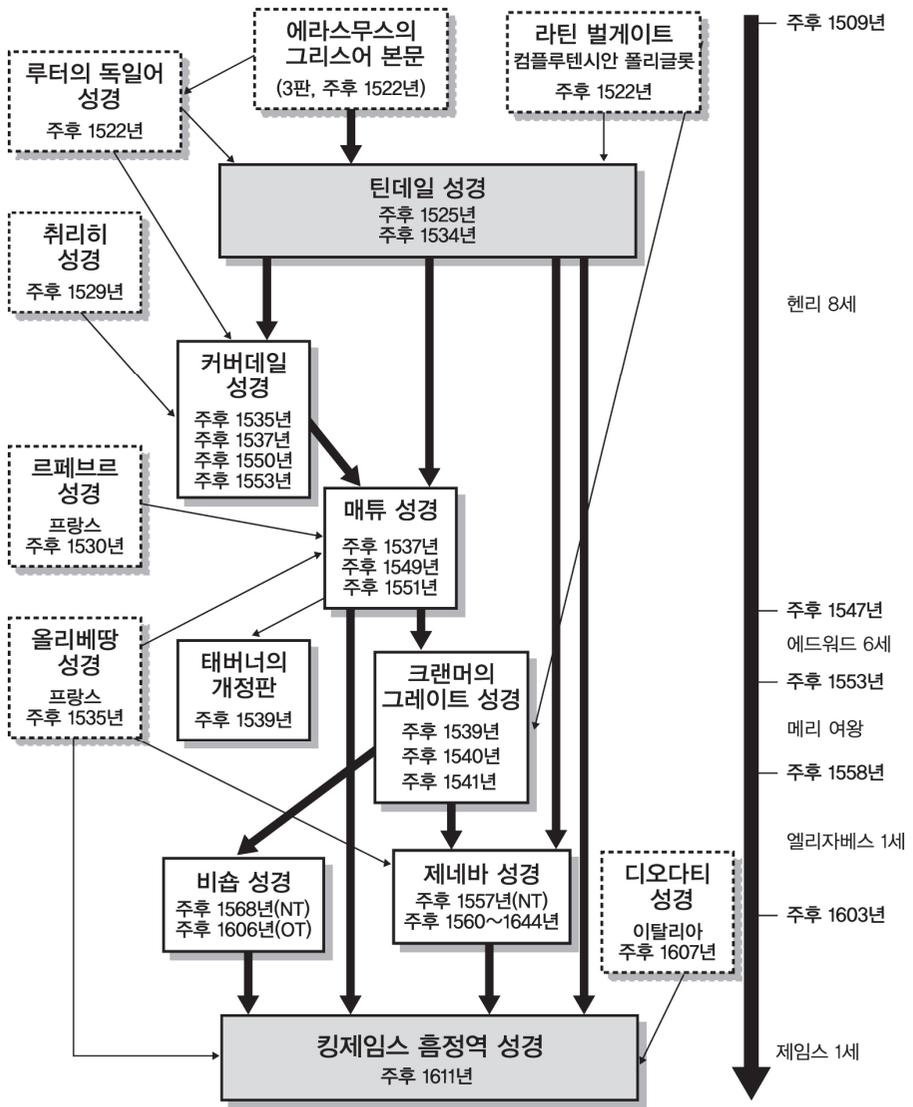
틴데일이 죽은 뒤 2년 만에 이 같은 그의 기도가 이루어져 1538년에 영국의 헨리 8세는 각 교구의 교회에 큰 성경을 비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뒤 ‘커버데일 성경’, ‘로저스 성경’, ‘매튜 성경’, ‘태버너 성경’, ‘크랜머 성경’, ‘비숍 성경’ 등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영어 성경이 출간되었으나 사실 그 내용은 틴데일이 번역한 것과 거의 같았다. 또한 그의 번역은 1611년에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에 70-80% 이상 그대로 반영되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보통 사람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쥐여 주려 했던 틴데일의 숭고한 정신은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으로 이어졌고 18, 19세기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로도 이어져 우리 민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느끼지 못하고 있다. 부디 이 작은 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위클리프나 틴데일 그리고 플라드파 사람들과 왈덴시아파 사람들 같은 선구자들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 올바른 성경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커버데일 성경 표지



킹 제임스



<틴데일 성경을 기초로 탄생한 킹제임스 성경>

---

성경의 역사

부 록

---



## 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가?

킹제임스 성경은 거의 400년이라는 기간에 개신교(침례교 포함)의 표준 성경으로 의심 없이 수용되어 왔다. 1611년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새로운 역본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중 단 한 개도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개신교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그 뒤 20세기 중반부터 새 역본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1952년에 신약과 구약이 다 출판된 RSV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최초의 만만치 않은 경쟁 대상이 되었다. 그 이후로 NASB, 리빙 바이블, NIV, NKJV, 그리고 점차적으로 수십 개의 역본들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쏟아져 나왔다.

20세기 중반에 나온 역본들의 대부분은 21세기에 들어 대중성을 잃었고, 판매 수량으로 봤을 때 오늘날 가장 인기가 많은 역본은 2011년에 업데이트 된 NIV와 ESV, 그리고 NLT이다. 새로운 역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현재와는 상관이 없는 지나간 시대의 유물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로운 역본들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은 세월의 시험을 견디어 내며 그럴 만한 이유와 함께 건실한 독자층을 꾸준히 형성해 왔다. 이 기사는 킹제임스 성경의 뛰어난 특징에 대해 설명한다.<sup>138)</sup>

### A. 교리

#### 1. 입증할 수 있는 오류가 없는 성경

James R. White의 「The King James Only Controversy: Can You Trust the Modern Translations?」나, D. A. Carson의 「The King James Version Debate: A Plea for Realism」과 같은 책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문법 및 원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책들의 목표는 ‘킹제임스 유일주의’, 즉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킹제임스 성경만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반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책들의 저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및 원문 선택을 평가하는 면에 있어서 중립적이지 않다. James R. White는 NASB의 자문 위원이었으며 D. A. Carson은 NLT의 번역자였다. 이들이 제안했듯이 번역 및 원문 선택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구절은 합리적인 대안 이론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 이 웹사이트(<http://www.kjvtoday.com>)는 킹제임스 성경에 있다고 그들이 주장하는 150개의 오류를 반박하며 킹제임스 성경이

138) 원출처: <http://www.kjvtoday.com/home/Features-of-the-KJV>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킵바이블 사이트 상단의 구글 검색에서 ‘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가?’로 검색하면 나온다.

명백히 무오함을 보여 준다.

## 2. 더 완전하고 교리적으로 우수한 원문

NKJV와 마찬가지로 킹제임스 성경의 신약은 다양한 비잔틴 계열의 신약 사본을 따르는 공인 본문에 기반을 둔다. 반면에 NASB, NIV, ESV, HCSB와 같은 인기 있는 역본들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을 따르는 ‘네슬레-일란드’판(즉 NA 27판과 UBS 4판 본문)에 기초를 두고 있다.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기반으로 하는 역본들은 많은 수의 중요한 단어들과 구절들을 생략하거나 그 말씀들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한다. 이러한 단어들과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마가복음의 결말’(마가복음 16장 9-20절), ‘간음한 여인에 관한 말씀’(요한복음 8장 1-11절), ‘주기도문의 결론’(마태복음 6장 13절),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온 천사에 관한 말씀’(요한복음 5장 4절), ‘에티오피아 내시의 믿음 고백’(사도행전 8장 37절),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47절, 마태복음 17장 21절, 마태복음 18장 11절, 마태복음 21장 44절, 마태복음 23장 14절, 마가복음 7장 16절, 마가복음 9장 44절과 46절, 마가복음 11장 26절, 마가복음 15장 28절, 누가복음 17장 36절, 누가복음 22장 43절,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3장 17절, 사도행전 15장 34절, 사도행전 24장 7절, 사도행전 28장 29절, 로마서 16장 24절, 요한일서 5장 7절 등.

알렉산드리아 본문 지지자들도 킹제임스 성경의 모체인 공인 본문이 교리적으로 더 우수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는 공인 본문을 옹호하는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가 있다.

## B. 정확성

### 1. 직역

킹제임스 성경은 본질적으로 직역된 성경이다. NIV와 NLT 같은 많은 새 역본들은 미국성서공회의 니다(Eugene Nida)에 의해 대중화된 ‘동적 일치’(Dynamic equivalence)라 불리는 번역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동적 일치의 번역 원칙을 따를 경우 번역자들은 번역이 아니라 해석을 하게 된다(이들은 성경의 단어 하나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뜻만 통하면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동적 일치 원칙을 적용한 역본을 읽는 독자들은 결국 실제 성경 본문이 아니라 학자의 해석을 읽게 된다. NKJV, NASB, 그리고 ESV 또한 본질적으로 직역된 성경들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ESV 번역 위원회의 회원인 Leland Ryken이 쓴 훌륭한 서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온라인 소책자는 다음에 있다.<sup>139)</sup>

### 2. 사람의 단수와 복수 구별

킹제임스 성경은 2인칭 단수와 2인칭 복수를 구별하기 위해 ‘thou’, ‘ye’, 그리고

<sup>139)</sup> <http://www.gnpb.org/assets/products/excerpts/1581347308.1.pdf>

동사의 어미변화를 사용한다.<sup>140)</sup>

‘Thou, thee, thy’는 2인칭의 단수를 나타내며 ‘ye, you, your’는 복수를 나타낸다. 스페인어 (‘tú’ and ‘vosotros’), 독일어 (‘du’ and ‘ihr’), 중국어 (‘你’ and ‘你們’)와 같은 현대어 역시 2인칭에 대해 여전히 이러한 구분법을 유지한다.

2인칭에 대한 이런 구별이 없이 모두 ‘you, you, your’를 사용할 경우 독자들은 출애굽기 4장 15절, 출애굽기 29장 42절, 사무엘기하 7장 23절, 마태복음 26장 64절, 누가복음 22장 31-32절, 요한복음 3장 7절, 고린도전서 8장 9-12절, 디모데후서 4장 22절, 디도서 3장 15절, 빌레몬서 21-25절 같은 구절에서 개인이 언급되고 있는지 혹은 여러 명의 그룹이 언급되고 있는지 구분할 수가 없다.

### 3. 이탤릭체의 사용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원어에는 없지만 본문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추가된 단어들을 이탤릭체로 표시했다. NIV, ESV, TNIV와 같은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추가된 단어들을 이탤릭체로 표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시편 16편 2절이 “Thou art my Lord: my goodness *extendeth* not to thee”(extendeth가 이탤릭체로 쓰여 있음. “주께서는 나의 주시니이다. 나의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오나”)라고 번역되어 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구절의 뒷부분이 ‘my goodness’, ‘not’, 그리고 ‘to thee’ (나의 선함, 주께, 못하오나)라는 세 단어로만 쓰여 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extendeth’(미치지)를 첨가하고 그것을 이탤릭체로 표기함으로써 그 단어가 첨가되었음을 표시하였다.

「옥스퍼드 주석 NRSV」의 주석은 시편 16편 2절의 히브리어가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여러 성경 역본들은 같은 방법으로 이 구절을 번역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번역자들이 추가한 단어들을 독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았다. NASB와 NKJV도 추가 단어를 표시하기 위해 이탤릭체를 사용한 성경이다.

### 4.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은 성경

인용 부호(“ ”)는 구술된 말씀을 표기한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어떠한 구절에도 인용 부호를 쓰지 않는다. 인용 부호를 쓰지 않는 것이 왜 좋을까? 킹제임스 성경이 인용 부호를 쓰지 않는 이유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원문도 인용 부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서술자가 이야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등장인물이 이야기를 한 것인지 번역자들이 직접 추측해야만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다. 인용 부호를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 때때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독자들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될 수도 있다.

<sup>140)</sup> <http://www.kjvtoday.com/home/language-guide>

## C. 스타일

### 1. 중복문(重複文)의 사용 (중속절을 하나 이상 가진 중문)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스어에 흔히 나타나는 복합 문장을 거의 나누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리스어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에서 로마서 1장 1-7절과 히브리서 1장 1-4절은 각각 한 문장으로 쓰여 있다. 반면에 현대 역본들 중에서 직역을 했다고 하는 NASB와 ESV조차 이런 문장을 여러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놓았다. 복합 문장은 아이디어들 간의 관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고 저자의 사고 과정을 더 분명하게 나타낸다.

### 2. 히브리어 특유의 표현(Hebraisms)

킹제임스 성경은 사전적이고 통어법에 따른 히브리어 어법을 그대로 지킨다.<sup>141)</sup>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독자들이 성경을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경의 히브리적 느낌을 희석한다. 킹제임스 성경에 표현된 언어의 특수성은 히브리어를 충실히 모방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히브리어의 선행 직접 목적격을 사용한 표현들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창세기 1장 4절)과 히브리어의 이중전치사 (“Abram went up out of Egypt” 창세기 13장 1절)는 본질적으로 직역의 취지로 번역된 NASB나 ESV와 같은 역본들에서조차 완전히 삭제되었다.

「Learn New Testament Greek」의 3판 저자이자, 널리 호평을 받는 그리스어 교사인 돕슨(John Dobson)은 자신의 학생들에게 히브리어가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 미친 영향을 주목하라고 권한다. 그는 분명하게 동적 번역 형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선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킹제임스 성경이 현대 역본들의 일반적인 번역보다 더 밀접하게 히브리어 스타일을 따른다.”는 것을 인정한다(p. 305).

### 3. 그리스어 구조와 스타일과의 일치

킹제임스 성경은 신약에서 다른 역본들보다 그리스어의 어순을 더 밀접하게 따른다. 마태복음 17장 19절의 “Then came the disciples to Jesus.”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동사가 주어보다 앞서 나오는 이 구절의 문법은 영어를 사용하는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어순은 그리스어의 어순 (“τοτε προσελθοντες οι μαθηται τω ιησου”)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리스어의 정확한 스타일과 구조를 따르는 것은 기록자가 그리스어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킹제임스 성경의 또 다른 특징은 역사적 현재 시제의 사용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종종 마태복음 3장 13절, “Then cometh Jesus from Galilee to Jordan unto

<sup>141)</sup> Hebraisms in the Authorized Version of the Bible, William Rosenau, 2010

John”(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르단에 있는 요한에게 오셔서)과 같이 과거의 일을 묘사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그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이 현재형으로 쓰인 그리스어 본문을 충실하게 번역했기 때문이다. 그리스어 기록자들은 과거의 일에 중요성을 부여할 때 역사적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 역사적 현재 시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더 선명하게 들리도록 하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 역본들은 역사적 현재 시제를 단순 과거형으로 번역하려는 경향이 있다.

#### 4. 시적 표현

성경은 매우 시적인 책이다. 읊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는 성경에 나오는 명확한 시집들이다. 하지만, 심지어 구약의 대언서들과 요한계시록도 형상화, 유사성, 과장법 및 직유법 등의 시적 기능들로 가득하다. 「The Five Books of Moses」의 저자인 폭스(Everett Fox)는 모세 오경의 책들도 시적 기능이 풍부하다고 말하며 모세 오경이 서양 독자들에게는 종종 간과되는 ‘말로 표현되는’ 시적 내용들로 가득하다고 주장한다. 사실 유대인들은 몇 세기에 걸쳐 ‘칸틸레이션 표시’(cantillation marks), 즉 시를 노래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표시들을 사용하여 토라, 즉 모세 오경의 율법을 노래했다. 신약에서는 우화, 유사성, 팔복의 비유, 바울의 은유, 베드로의 종말에 대한 발언, 요한의 어둠과 빛을 나란히 두어 비교하는 병치(juxtaposition) 같은 시적 기능들이 발견된다. 킹제임스 성경과 같이 진정으로 시적 번역을 추구한 역본들이야말로 성경의 시적 표현을 정당하게 다루는 역본들이다.

### D. 배경

#### 1.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 왕에 의해 승인되다

킹제임스 성경을 공인한 제임스 왕은 변명의 여지없이 성경의 무오성, 절대적인 확실성, 그리고 충분성의 교리(오직 성경)를 옹호했던 성경 신자 크리스천이었다. 성경의 무오성에 관하여 그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는 정확되고 순결한 귀로 대하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호한 부분들은 오직 너의 무능함을 힐책하며 겸손하게 흠모하라.”라고 말했다(Book I:13, Basilicon Doron).

성경의 절대적 확실성에 관하여는 “성경 말씀 전체는 명령과 금지, 이 두 가지만을 담고 있다. 명령은 지키고 그에 반대되는 것들은 삼가라. 명령과 금지 두 가지 모두에 순종하라.”라고 하였다(Book I:7, Basilicon Doron).

또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성경 자체가 성경을 가장 완벽하게 해석해 준다. 그러므로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것들을 구하기 위해 호기심을 가지고 알아내려고 하지 말라.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릇된 추정으로 이어진다. 이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분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은 친히 성경에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이다.”(Book I:13-14, Basilicon Doron).

크리스천 왕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게 된 것은 윌리엄 틴데일이 1536년 공개 처형을 당하면서 “주여,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소서.”라고 부르짖었던 그의

최후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sup>142)</sup>

## 2. 근대주의의 편견에서 벗어나다

킹제임스 성경은 자유주의 신학, 진화론, 정치적 정당성, 그리고 종교 통합 운동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늘날에는 다양한 신학적/사회적 견해를 만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역본들이 출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의 NIV는 성경이 성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내기 원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출판되었다. 그 결과는 시편 1편 3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등에서 문제가 되는 부정확한 번역으로 나타났다.<sup>143)</sup>

물론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도 그 시대의 남성들이었고 그들의 문화 역시 ‘중립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제임스 1세 시대의 영국 기독교 군주 문화는 신을 부정하는 현대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성경의 이상적인 민족인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시33:12)에 더 가까웠다. 믿음과 실행에 관한 모든 면에서 성경의 무오성과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번역자들의 헌신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제임스 왕 자신도 “이 지식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서술했다(Book I:6, Basilicon Doron).

## 3. 2차적 저작물에 관한 법률에 영향 받지 않은 킹제임스 성경

현대 역본 출판사들은 개정 작품(예: 새 역본)을 출판할 때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 법률상 상당한 개정을 해야 한다.

저작권을 취득하려면 2차적 저작물은 ‘새로운 저작물’로 여겨지기 위해 원본과 충분히 달라야 하거나 상당한 양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기존에 존재하는 작품에 사소한 변경을 하거나 소량의 내용만 추가하는 것은 새 버전으로서 저작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Copyright Registration for Derivative Works (Circular 14)).

이 법은 각각의 새로운 버전이 이전 버전과 ‘충분히 다른 면’을 갖추고 있기를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는 현대 역본들을 읽을 때 독자들은 자신이 읽고 있는 단어들i가 가장 정확한 단어들이인지, 아니면 저작권 취득을 위한 역본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대체로 사용된 덜 정확한 내용을 읽고 있는 것인지 추측해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 법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독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읽을 때에는 번역자들 스스로가 그들이 선택한 단어들i가 가장 정확한 단어들이임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확신해도 된다.

142) The Bible in English: Its History and Influence, David Daniell, New Haven, Yale UP, p. 156, 2003.

143) The TNIV and the Gender Neutral Controversy, Wayne A. Grudem and Vern S. Poythress, 2005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위해서 15가지의 규칙이 주어졌는데 그것들 중 일부는 개선할 필요가 없는 기존 번역들을 번역자들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분명하게 허용했다. 첫 번째 규칙은 번역자들이 비숍 성경(Bishop Bible)을 따르도록 권고하되 원어 텍스트가 비숍 성경과 다른 경우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열네 번째 규칙은 다른 좋은 역본이 원어와 더 잘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지면 그 번역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망가진 게 아니라면 고치지 말라.”와 같은 태도는 변화를 위해서 변화를 요구하는 오늘날의 2차적 저작물 관련 법률 아래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 4.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에 능통했던 번역자들

킹제임스 성경은 틴데일과 위클리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전의 영어 성경에 나타난 학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믿음과 기록된 말씀에 있어서 경건한 경쟁자였다. 47명의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히브리어 및/또는 그리스어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동족 언어인 아랍어, 갈대아어, 시리아어, 그리고 아랍어에도 능통했다.<sup>144)</sup>

엘리자베스 1세 시대와 제임스 1세 시대의 학자들은 젊을 때부터 문법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런 학교들은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그리고 영어 공부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스어에 능숙한 많은 현대 학자들이 라틴어에는 능숙하지 못하다. 사실 라틴어는 개신교 학교에서 성직자들(신부나 목사 등)이 주로 사용하는 교회의 언어 - 즉 일반 사람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언어 - 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원문과 번역의 변형을 해명해 줄 많은 자원들은 천 년이 넘는 세월을 걸쳐 제작된 라틴어 주석과 저작물에서 발견된다.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번역자들은 라틴어에 능숙했다.

#### 5. 영어에 능통했던 번역자들

성경을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적절한 번역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한다. 번역은 원문의 언어와 번역 대상어 모두에 대한 전문 지식을 수반한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대부분의 현대 번역자들보다 영어를 더 잘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킹제임스 성경의 비평가인 월러스(Daniel Wallace)는 다음과 같은 솔직한 발언을 했다.

킹제임스 성경이 많은 오류를 갖고 있는 만큼이나 그 성경의 번역은 종종 많은 현대 역본들보다 그리스어 원료 시제를 더 우수하게 번역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의 황금기였던 세익스피어 시대에 출간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RSV, NASB)은 에베소서 2장

144) Translators Revived, Alexander McClure

8절을 “For by grace you have been saved.”라고 번역한 반면 킹제임스 성경은 “For by grace are ye saved”라고 번역했다. 킹제임스 성경의 완곡어법 완료 형태 - ‘ye are saved’가 아니라 도치를 사용하여 ‘are ye saved’로 한 것, 또 ‘구원받아 오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다’ - 는 한번 얻은 구원을 강하게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현대 번역자들만큼 그리스어를 잘 이해하고 있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영어만큼은 그들이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에베소서 2장 8절을 영어 완료 시제(‘you have been saved’가 아니라 ‘ye are saved’)로 번역하는 경우 구원받은 이후로 생긴 상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sup>145)</sup>

## E. 유산

### 1. 초기 근대 영어

인칭에 따른 동사의 어미변화(이것은 사실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를 제외하면 킹제임스 성경에 쓰인 모든 단어들은 현대 출판물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sup>146)</sup> 게다가, NIV조차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 구절들을 비교해 보자. 에스라 9장 5절에서 KJV가 ‘heaviness’(근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반면, NIV는 ‘abasement’(근심)을 사용했다. 이사야 24장 23절에서 NIV는 ‘abashed’(수치를 당하고)를 KJV는 ‘confounded’(당황할 것이며)를 사용하고, 에스겔 40장 18절에서 NIV는 ‘abuttet’(좌우편인테)를 KJV는 ‘over against’(맞은편으로)를 사용한다.

NIV는 역대기하 15장 14절에서 ‘acclamation’(소리)을 KJV는 ‘voice’(소리)를 사용한다. NIV는 이사야 13장 8절에서 ‘aghost’(무서워하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KJV는 ‘amazed’(놀라며)를 사용한다.

밴스(Laurence M. Vance)는 NIV가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는 220개의 예들을 제공한다.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단어는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사용된 NIV의 ‘squall’(광풍)과 KJV의 ‘storm’(폭풍)이다. 인칭에 따른 동사의 어미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NIV보다 읽기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무엇이 더 어려운지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꼼꼼하게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 봐야 한다. 이를 위해 각주의 링크들을 확인해 보길 권한다.<sup>147)</sup>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은 그저 오래된 역본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래된 요소들보다 언어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145)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Daniel Wallace, p. 575

146) Archaic Words and the Authorized Version, Laurence M. Vance

147) Understanding the Language of the King James Version  
<http://www.kjvtoday.com/home/language-of-the-kjv>

각주의 링크는 초보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문법과 어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sup>148)</sup>

## 2. 정제되고 단련된 말씀

킹제임스 성경은 400년 동안 신중하게 교정되어 왔다. 현재의 버전은 인쇄상의 모든 오류(번역상의 오류가 아니라)를 수정한 신뢰할 만한 버전이다.

## 3. 성경의 인기도

인기도는 무언가의 가치를 평가하는 성경적인 척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제임스 성경이 여전히 인기 있는 역본들 중 하나임에 주목해야 한다. 2011년 2월 CBA 판매량에 의하면, 가장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NIV를 제외하고는, NKJV, ESV, NASB, 그리고 NLT보다 킹제임스 성경이 더 인기가 많다. 일부가 주장하듯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크리스천들은 구닥다리의 ‘소수’가 아니다. 독자들은 각주의 링크에서 월간 성경 판매 순위를 확인해 볼 수 있다(순위 차트는 매달 변경된다).<sup>149)</sup>

### ————— 영어 성경 명칭 요약

- English Standard Version(ESV)
- Holman Christian Standard Bible(HCSB)
- King James Version(KJV)
- New American Standard Bible(NASB)
- New International Version(NIV)
- New King James Version(NKJV)
- New Living Translation(NLT)
- New Revised Standard Version(NRSV)
- Today's New International Version(TNIV)

---

148) A Beginner's Guide to the Language of the King James Version  
<http://www.kjvtoday.com/home/language-guide>

149) <http://cbanews.org/category/bestsellers/>

## 킹제임스 Only(유일주의)의 정의

요즘 미국 등에서는 ‘킹제임스 성경만 성경이다’라는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리즘’(King James Onlyism)이라는 말이 유행합니다. 이것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숭배하려는 경향을 지닌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대적들이 붙이는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킹제임스 온리(Only)’라는 라벨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말로 ‘킹제임스 유일주의’ 정도로 부를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출간/배포하고 킹제임스 성경만을 읽고 그것만 사용하여 강해/설교하므로 자연히 ‘킹제임스 온리’라는 라벨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sup>150)</sup>

그런데 ‘킹제임스 온리’에 대한 바른 정의 없이 ‘킹제임스 온리’라는 라벨이 붙으면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크므로 오늘은 저와 또 함께 믿음의 길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견지하는 ‘킹제임스 온리’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

이런 정의는 사실 오래전에 네팔의 선교사로 있는 데이비드 클라우드 형제님이 내린 적이 있는데 저 역시 그 형제님과 비슷하게 제가 믿는 바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합니다(제목: King James Only).<sup>151)</sup>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 보존 약속과 역사적 데이터에 근거한 합당하고도 ‘좋은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 믿음’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로 ‘킹제임스 온리’가 정의된다면 그러한 라벨이 저에게 붙는 것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 좋은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 믿음

1.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입으로 불어내신(영감 과정) 완전한 말씀들(단어들)을 히브리어/그리스어로 주셨고 모든 시대를 통해 섭리로 이 말씀들(단어들)을 보존해 주셨다.
2.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존하신 단어들(원어들)을 한 점의 오류 없이 수용 언어인 영어를 통해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담아 주셨다.
3. 그러므로 모든 원어의 뜻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번역된 것만이 참되고 바르다. 이 말은 원어 단어마다 여러 뜻이 있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반영된 뜻만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른 뜻이라는 의미이다.

150) 이 기사는 2015년 5월,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에 동일 제목으로 올린 정동수 목사의 글이다. 사이트 상단의 구글 검색에서 동일 제목으로 검색하면 나온다.

151) <http://www.wayoflife.org/database/kjo.html>

4.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현대의 본문 비평은 마귀의 이단 교리이다. 현대 본문 비평가란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지 않았고 성경 본문 비평가들에게 의해 계속해서 발견되어 성경에 추가, 삭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5. 하나님의 참된 본문은 천주교 도서관, 수도원, 동굴 등에 비밀리에 숨겨지지 않았고 시대를 거치며 신실한 성도들의 손으로 필사되어 보편적으로 온 세상에 전달되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의미로 ‘킹제임스 온리 믿음’을 주장한다면 저는 그러한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 믿음’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 나쁜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 믿음

1.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을 받았다. — 아니다. 오직 영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원어에만 해당된다.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들을 정확하게 번역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1611년의 영어 번역본에 다시 한 번 영감, 즉 숨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이 아니다.
2.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것의 모체가 된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 본문보다 우수하다. ---- 이 말은 그 자체가 난센스이다. 이것은 1611년 전에는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이 없었고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어/그리스어 본문의 향상된 계시이다. ---- 이 말은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로 원어를 고치고 향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역시 난센스이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sup>152)</sup>
4.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있으면 원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번역 등에 필요한 원어 도구들도 사용할 필요가 없다. — 이런 주장은 성경 번역/해석 등에 영한사전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이며 결국 자기만 옳다는 자가당착으로 귀결된다.
5.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보존되었다. ---- 아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이 우리말로도 보존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으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읽어야 하고 영어를 할 수 있는 해석자의 지도를 받아야만 바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극단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
6. 오직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으며 개역성경 등의 현대 역본은 사탄의 성경이다. ---- 우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며(롬 1:16) 개역/개정/NIV 등의 현대 역본에도 복음이 보존되어 있다고 믿는다.

<sup>152)</sup> www.KeepBible.com 사이트 상단의 구글 검색에서 ‘영어로 원어를 고칠 수 있다고요?’로 검색(본 책의 160쪽에 수록됨)

7.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로 정죄받거나 저주받아도 할 말이 없다. --- 우리는 개역/개정/NIV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의 형제요, 자매인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믿는다. 다만 그들은 완전한 말씀 전달에 대한 지식이 없어 전통에 매인 채 바른 말씀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설득하여 성경 말씀의 완전성과 보존의 실재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대상이다.<sup>153)</sup>

##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정리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즉 킹제임스 성경의 독보적 우수성은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이후로 영미권에서 근 400년 이상 알게 모르게 지속하여 온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결코 어떤 사람이 주장하듯이 안식교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안식교는 킹제임스 성경이 반포된 지 240년 정도 지난 19세기 중반에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영미권에서는 모든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만 보았습니다.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성경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100년이 지난 1950년대까지도 이 말은 사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이미 확고하게 독보적인 성경으로 존재한 시점에 무엇이 부족해서 특히 안식교에서 킹제임스 유일주의 교리를 편단 말입니까?

지금도 몰몬교는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들 역시 킹제임스 유일주의자인가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들이 킹제임스 유일주의를 외쳤습니까? 안식교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므로 안식교가 킹제임스 유일주의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 역사에 대한 무지를 잘 보여주며 쓸데없는 음모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안식교라는 이단을 억지로 끌어와 마치 킹제임스 사용자가 이단에 연루된 것처럼 현혹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마치 신천지가 개역성경만을 쓰므로 개역성경 유일주의를 처음 만들었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억지 주장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1970년까지 약 360년 동안 영어를 쓰는 온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독보적으로 사용해온 유일한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최근 들어 나 같은 사람을 헐뜯기 위해 킹제임스 유일주의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 자체는 이미 400년 이상 영미권에서 자연스레 그들의 삶 속에서 존속해 왔습니다. 바른 역사관과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도대체 이것이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해악이라도 끼쳤는지, 특히 현대 역본 등장 전과 후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153) 나는(정동수 목사) 국내 대형 교단들에 의해 이단 판정을 받은 말씀보존학회와는 일면식도 없다. 특별히 내가 위에서 '나쁜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라고 규정한 것들에 대해 지난 25년 동안 나는 단 한 차례도 동의한 적이 없다. 실제로 미국에서 킹제임스 온리를 주장하는 대다수 학자들과 목사들은 '나쁜 의미의 킹제임스 온리'를 적극적으로 배격하고 반대한다. 그런 주장은 비상식적이며 이치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을 전해 주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구원과 영혼의 안식을 가져다준 개역성경을 사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도를 벗어난 어리석은 난센스이다.

나나 킹제임스 성경이 다른 이단/사이비 단체들처럼 사생활을 간섭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강제로 재물을 축적하고 집단생활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일과 추문을 양산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 킹제임스 성경의 유일성을 믿는 신자의 부도덕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막연한 비판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가지고 정확히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뿌린 것은 성경에 대한 확신, 양심의 자유, 영원한 구원, 건전한 가정, 신약 교회 그리고 애국심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판단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의 언행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행위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실체를 잘 보여 줄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판명이 나면 나는 언제라도 이 일을 그만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말리엘의 충고를 주고 싶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버려 두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지리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거꾸러뜨릴 수 없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하매(행5:38-39)

존귀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자 성령님의 큰 평안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sup>154)</sup>

---

<sup>154)</sup> www.KeepBible.com 사이트 상단의 구글 검색에서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변호’와 ‘미국 내 킹제임스 유일주의 학교들과 기관들’로 검색하면 자세한 기사를 볼 수 있다.

## 영감과 보존: 원본, 사본, 역본의 관계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성경대로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성경의 영감을 믿을 것입니다. 영감이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문자들을 써서 단어들로 기록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리스어로 영감(inspiration)은 ‘숨을 불어 내어 쉬다’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내어 쉬셨음’을 뜻합니다. 영어 ‘inspiration’에서 중간에 있는 ‘spir’는 영을 뜻하는 ‘spirit’에서 나왔습니다. 또 앞의 ‘in’은 들어갔다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의 영이(숨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에 숨을(혹은 영을) 불어 넣으셨을까요? 그분은 ‘모든 성경기록’에 그리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완전한 성경기록의 모든 단어에 자신의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그 단어들이 살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이것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단어]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별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히4:12-13).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단어]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감 과정이 과거에 몇 차례 있었느냐, 또 지금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감이 과거에 한 차례만 있었을까요? 여러 차례 있었을까요?

즉, 원본의 단어들만 단 한 차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사본의 단어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을까요? 혹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어떤가요? 그것들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을까요?

이 영감 과정이 과거에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현재에도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여러 사람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딤후3:16에 나오는 영감이 자필 원본의 단어들을 기록할 때 사용된 영감이라는 점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히브리 말(약간의 아람어)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나왔습니다. 그 단어들을 인간 기록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에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벧후1:20-21).

분명히 처음에 원본 성경기록들이 주어질 때 영어나 우리말로 단어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다.

단 한 차례 자필 원본의 단어들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습니다(기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자신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치밀하고 완벽하게 보존되면 그 성경은 사본이든 역본이든 자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하나님의 숨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읽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않거나 잘 표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영어와 한국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입에서 영어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나와서 인간 기록자가 완벽하게 기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필 원본: I am a boy.

자, 시간이 지나면서 'I am a boy.'가 담긴 자필 원본이 헤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사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어떤 사람이 이것을 정확하게 다른 사본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본: I am a boy(필사자와 필체는 다르지만 네 단어는 정확하게 같음).

자필 원본의 'I am a boy.'는 딤후3:16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자필 원본의 모든 단어를 정확하게 그대로 옮겨 놓은 사본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존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둘이 정확히 일치하므로 원본과 사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하나님의 숨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피땀 흘려가며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처음의 원본과 동일하게 기록하였습니다. 1960년, 밀러(H. S. Miller)가 지은 「일반 성경 입문」(*General Biblical Introduction*)에는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 회당에 있던 두루마리들을 복사하면서 지킨 여덟 가지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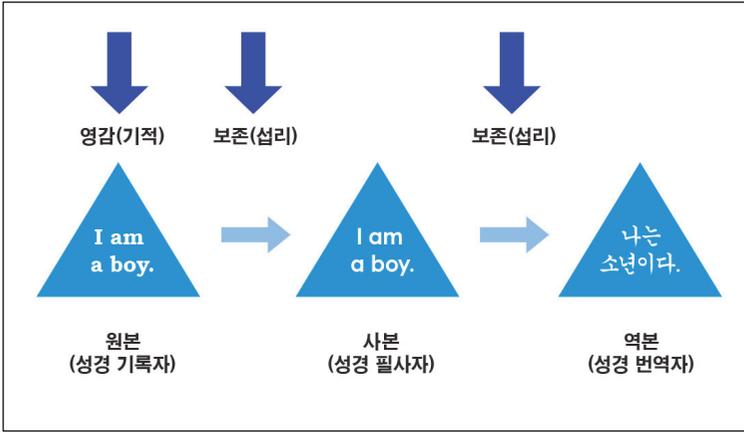
1. 양피지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되 오직 유대인만이 만들 수 있으며 정결한 짐승으로부터 만든 끈으로 묶어야만 한다.

2. 두루마리의 각 난에는 48줄에서 60줄이 들어가야만 한다.
3.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어야만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해야만 한다.
4. 어떤 단어나 글자도 머리로 외워 적어서는 안 된다.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통 복사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 소리로 읽고 발음해야 한다.
5.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아야만 하며 여호와(Jehovah)라는 이름을 적기 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반드시 온몸을 씻어야만 한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주(主), 즉 전체가 대문자로 된 'LORD'로 번역되었는데 이 이름을 쓰기 위해 그는 필사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이 몸을 씻어야만 했다.
6.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규례들이 있었다.
7.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그것이 완성된 뒤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는 무효가 된다. 또한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라도 있으면 그 장은 버려야만 했고 전체 필사본에서 세 개의 실수가 발견되면 전체를 폐기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한 뒤 그중에 단 세 개의 실수가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창세기부터 필사해야 한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지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필사하는 말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임을 믿었으므로 이런 철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보존해 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본문에서 빼거나 본문에다 첨가하거나 본문을 바꾸거나 하는 NIV, NASB, NKJV 등의 현대 역본 기록관들과는 매우 달랐다. 이런 치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보존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친히 읽으신 말씀이 자필 원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저 없이 성경이라고 부르셨다.
8. 그들은 글자와 단어 수를 세었고, 만일 글자가 삭제 혹은 첨가되었거나 다른 글자와 붙어 있으면 필사한 사본 전체를 버렸다.

이 같은 규칙들을 소개한 뒤 밀러는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이런 규칙들이 좀 부조리하거나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거룩하게 여겼는지 잘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성경,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경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안에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도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자신이 읽은 성경 말씀이 비록 자필 원본의 말씀이 아니고 필사본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을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며 기록된 필사본에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사본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필사본 두루마리가 곧 원본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영감과 보존: 원본, 사본 역본의 관계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every word)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분명히 위 구절 안에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it is written)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세의 자필 원본이 아니고 모세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약 1,500년 동안 필사되어 보존된 성경(사본)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원본만 옳았다면 ‘it was written’으로 과거 시제로 기록되었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의 현재형은 예수님 당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뜻하는 현재형입니다.

또한 ‘모든 말씀’(every word)이란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말씀이(단어가) 보존되지 않은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손 안에 들어 있는 필사본 성경이 자필 원본과 똑같음을 증명해 주셨으며 그 필사본에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이외에도 다른 구절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마5:17-18; 눅24:27; 눅24:44 등).

자, 그러면 번역본은 어떨까요? 자필 원본을 그대로 동일하게 베껴 쓴 사본의 ‘I am a boy.’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번역본:** 나는 소년입니다(참고로 우리말은 존칭이 있으므로 ‘나는 소년이다’, ‘저는 소년입니다’도 다 맞는 번역임).

하나님의 입에서는 분명히 처음에 ‘I am a boy.’가 나왔고 인간 기록자는 그것을 원본에 기록하였으며 이 네 단어는 사본에 그대로 정확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이 보존된 사본에서 정확하게 ‘나는 소년입니다.’라는 역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역본도 최초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닐까요? 물론입

니다. 정확하게 번역된 역본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100% 살아서 숨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본의 단어들 역시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신약 성경이 완성된 뒤로 실제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한 것은 다 역본이었습니다. 즉 AD 100년 이후에는 원본이나 사본의 시대가 아니라 역본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역본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에 들린 성경(역본)에 하나님의 숨이 없다면 그것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번역 성경의 단어들 딤후3:16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감은 단 한 차례 자필 원본이 기록될 때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자필 원본의 단어들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이 정확하게 필사되었고 그 필사본에서 지금의 역본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지금의 역본에도 하나님의 모든 단어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원본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해 봅시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단어는 원본을 정확하게 보존한 사본의 원어들에서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이러한 사본에는 성경기록 필사본, 성경기록을 담고 있는 성구집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사본의 모든 단어를 가능하면 일대일 대응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심지어 원어의 문장의 구조까지도 영어로 그대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당연히 언어의 차이로 인해 무언가를 첨가해야만 합니다. 번역을 해 본 사람이면 누구라도 이것을 잘 압니다.

예를 들어 다시 딤후3:16을 보도록 합시다.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is가 이탤릭체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자들이 번역을 위해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is가 없어도 말이 되지만, 영어에서는 is가 없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역자들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자들은 정직하게 이것을 이탤릭체로 표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이것은 원래 원본에 없었으나 번역을 위해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두 개의 is를 제외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사본)을 있는 그대로 영어의 구조 안에서 가능한 한 일대일 대응이 되도록 정확하게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형식적 일치'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었기에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들고 "이것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입니다."라고 외칩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경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거의 완벽한 형식적 일치를 보이는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11년 이래로 이 성경에 복을 주셔서 이 세상 모든 교회와 신학교의 교리, 신앙신조 등을 정리하며 5대양 6대주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성경을 쓰셨습니다.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수백 개 나라 성경의 번역 대본으로, 표준 잣대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너무 과장한 나머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에서 향상된 계시’ 혹은 ‘원본보다 더 좋은 계시’ 혹은 ‘영감을 받은 성경’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원본보다 더 좋은 역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향상된 계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을 형식적 일치를 통해 정확하게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향상된 계시’나 ‘영감을 받은’ 성경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원본이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라고 부를까요? 다음의 예를 보겠습니다.

‘향상된 계시’의 한 예로 행12:4를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사가 넷씩인 네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더라(행12:4).

And when he had apprehended him, he put [him] in prison, and delivered [him] to four quaternions of soldiers to keep him; intending after Easter to bring him forth to the people.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은 여기의 ‘이스터’를 유월절로 번역하였습니다. 루터 성경같이 바른 본문에서 나온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전 세계 성경 중에 유일하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이것을 ‘이스터’라고 바르게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우수하므로 이 성경은 원본을 뛰어넘으며 그래서 ‘향상된 계시’라고 주장하거나 영어 성경의 단어들도 딤후3:16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는 ‘이중 영감설’을 펴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피터 러크맨(Peter Ruckman)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향상된 계시’이거나 이중 영감을 받으려면 원본에 없던 무엇인가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스터’라고 번역한 그리스 말이 원어에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데 영어 성경이 그것을 번역해서 집어넣었다면 그것은 첨가이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터’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은 ‘파스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말 파스카는 명절의 경우 크게 둘을 뜻합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터’(이교도들의

부활절 축제)입니다. 파스카는 옥스퍼드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에도 정확하게 이 두 개의 명절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파스카는 이 둘 중 하나로 번역될 수 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행12장의 때가 이미 무교절 기간이라 유월절은 지났으므로 무교절 다음에 오는 이교도들의 부활절인 ‘이스터’로 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어 없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향상된 계시’나 딤후3:16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100% 보존된 바른 사본의 단어들을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처음에 원본이 주어졌을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서 숨 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 중 원어들을 담은 사본에서 나오지 않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향상된 계시나 이중 영감을 받은 성경이 아닙니다.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선포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흥정역: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전1:14).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것이 헛되어 영을 괴롭게 한다.”(vexation of spirit)고 전도서에서 무려 10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 NIV를 포함한 대부분의 현대 역본은 이것을 전적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영을 괴롭게 하는 것’과 ‘바람을 잡는 것’(grasping of the wind)은 너무나 크게 다릅니다. ‘영’ 혹은 ‘바람’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루아흐’입니다. 이 경우 킹제임스 성경이나 개역성경의 대본이 된 원어 성경의 원어가 동일하므로 이 같은 차이가 생긴 데 대해 원어를 닦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를 통해 우리는 성경 번역자가 같은 단어를 문맥에 따라 어떻게 번역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의 문맥상 어느 번역이 맞을까요? 우리는 전도서 기록자가 말하려는 요점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번역한 대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어 우리의 영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서 기록자는 마무리를 하면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의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영의 문제지 결코 뜬구름 잡는 것같이 바람을 붙잡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번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번역이라고 믿으며 이 같은 의미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킹제임스 성경이 ‘향상된 계시’임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했음을 보여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보다 낫다는 주장을 펴서는 안 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의 모든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해서 하나님의 단어들을 이방인들의 공통 언어로 보존한 성경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향상된 계시’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반드시 다음의 글을 읽고 진술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편 진영에서 무식하다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원본이 최종 권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간에 우리가 원본의 모든 단어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들이 바르게 번역되지 않으면 최종 권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스카’, ‘루아흐’, ‘하데스’ 등의 원어들은 다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대로 번역되지 않으면 원어들만으로는 최종적인 표준자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providence)라는 돌보심을 통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을 인도하셔서 각각의 원어 단어가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하게 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본의 모든 단어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번역되어야만 맞는다고 믿습니다.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를 택하셔서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 역본들의 역자들은 원본의 원어들의 뜻을 이 세상 문학가나 철학자의 글을 통해 전달하려고 합니다. 원어 사전들의 저자들 가운데는 불신자가 많으며 심지어 췌이어(J. H. Thayer) 같은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어는 성경의 언어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의 번역본 시대에 하나님의 원어 단어들을 100% 정확하게 옮긴 보존된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말 흠정역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일대일 대응이 되게 형식적 일치율을 유지하면서 정직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교리와 특징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말 흠정역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고 당연히 주장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딤후3:17의 진리가 흠정역 성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7).

한편 ‘I am a boy.’를 ‘나는 소년입니다.’로 하지 않고 ‘나는 아이입니다.’로 하면 반만 맞습니다. 아이에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대일 대응을 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나는 한 소년입니다.’로 하면 우스운 번역이 됩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도 이런 말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장을 펴는 이들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창1:1)라는 말씀을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번역하고는 이외의 다른 번역은 다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만용입니다.

‘In the beginning’은 관용구로서 ‘처음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 처음(시작) 안에서’로 번역하는 것은 영어와 우리말을 망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머릿속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향상된 계시’이므로 그 안에 있는 정관사, 부정관사를 번역할 때 수용 언어(한국어)의 용례를 무시하고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향상된 계시’가 아니며 이중 영감을 받은 성경도 아닙니다. 원본의 모든 단어들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대로 형식적 일치를 취하면서 정확하게 번역하여 그대로 보존한 성경, 이것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처음에 원본이 주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100% 그대로 살아 있는 성경입니다. 결코 10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원본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7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8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9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해 나를 믿으라(요14:7-11).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빌립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비록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인격체이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동,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과 100%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알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은 다 거짓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는 원본과 킹제임스 성경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원본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혹은 원본이 우월하다고 하거나 그런 주장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통해 보거나 아는 아버지만이 참 하나님이듯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보는

원어의 뜻만이 옳은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는 다른 데서 옳은 뜻을 찾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아들이 아버지보다 우월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아들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원본과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말씀들(단어들)을 온전히 전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원본의 원어들을 정확하게 번역한 ‘완전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지난 400년간 수백 개의 성경이 번역되었고 그것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바른 교리를 깨달으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배도의 때에 마귀가 세상 무대에 등장해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변개된 성경의 등장이 필수 요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라 해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의 변개일 것입니다. 마귀는 과거에 이집트에서부터 이 사악한 일을 주도하였고 주후 200년을 넘기면서 그 일은 카톨릭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카톨릭교회의 사본들만을 번역의 대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감과 보존, 원본과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바른 개념을 정립하여 다른 성도들에게 비방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바른 성경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성경 신자들을 많이 불러 주시고 이들이 바른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많은 혼들을 수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영어로 원어를 고칠 수 있다고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함에 대한 균형 잡힌 사고와 바른 이해가 없으면 성경 신자라는 우리도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극단적 주장을 펼 수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 주장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원어를 향상하거나 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당하게 믿는 것도 개인의 자유지만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거나 정죄하는 지경에 이르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는 주객이 전도된 일로 성경 신자가 될 수 있는 많은 이들의 오해를 사는 요소이며, 결과적으로 킹제임스 성경 사역에 큰 방해가 되는 일입니다.

1611년에 반포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성경을 손에 들면 원어의 여러 뜻을 두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뜻이 많이 달라진 원어의 의도를 잘 알기 어려운 이 시대의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보존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음의 예를 살펴봅시다.

아모스 4장 4절에는 십일조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과 개역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흠정역: 벧엘로 가서 범법하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삼 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

KJB: Come to Bethel, and transgress; at Gilgal multiply transgressions; and bring your sacrifices every morning, and your tithes after three years.

개역: 너희는 벧엘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NASB: Enter Bethel and transgress; in Gilgal multiply transgression; Bring your sacrifices every morning, your tithes every three days

킹제임스 성경은 ‘3년’이라고 하고 개역성경은 ‘3일’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대 역본 지지자들은 KJB가 히브리어 원문을 문자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3일’을 ‘3년’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면 ‘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스트롱 번호가 3117이고 구약 성경에 2,300회 이상 나옵니다. 욥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거의 대부분 ‘날’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역본 지지자들은 암4:4에서도 욥은 ‘3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 킹제임스 성경 지지자들은 두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어가 원어를 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장의 지지자들은 비록 욥이 날을 가리키는 것이 맞지만 이런 경우는 신명기 등의 예를 볼 때 3일이 아니라 3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면서 영어가 원어를 향상하거나 교정할 수 있다고 우기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독보적 우수성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장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3일이 아니라 3년이 맞는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영어가 원어보다 정확하거나 우수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아무 근거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욥이라는 단어를 ‘년’으로 번역한 셈이 됩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펴면, 킹제임스 성경 반대자들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3일이 아니라 3년이 맞는다고 주장할까요? 그 이유는 욥이라는 히브리 단어에 ‘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29절에 가보니 이 단어가 ‘년’으로 번역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흠정역: 어떤 사람이 성벽을 두른 도시 안에 있는 거주용 집을 팔면 그 집을 판 뒤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으므로 만 일 년 안에 그것을 무를 수 있으나

KJB: And if a man sell a dwelling house in a walled city, then he may redeem it within a whole year after it is sold; within a full year may he redeem it.

여기에도 분명히 동일한 히브리어 ‘욥’이 쓰였지만 그 단어를 ‘날’로 하면 안 되기에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그 단어의 또 다른 의미인 ‘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현대 역본들은 어떠할까요?

개역: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NIV: If a man sells a house in a walled city, he retains the right of redemption a full year after its sale. During that time he may redeem it.

NASB: Likewise, if a man sells a dwelling house in a walled city, then his redemption right remains valid until a full year from its sale; his right of redemption lasts a full year.

모든 현대 역본들도 여기만큼은 동일한 히브리어를 ‘년’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여기서 자의적인 번역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히브리어 욥의 뜻 가운데 ‘년’이 있음을 알았기에 여기서 정확하게 ‘년’이라 번역한 것입니다.<sup>155)</sup>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 욥에는 극히 드물게 사용되긴 하지만 ‘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런 용례를 알기에 이 구절들의 용을 정확하게 ‘년’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성경이든, 히브리 문학 작품이든 본래 용에 ‘년’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는데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용을 ‘년’으로 번역했다면 그것은 번역자들이 실수를 범하였거나 심한 경우 독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이 성경과 히브리 문학 작품 등을 통해 용의 용례들을 폭넓게 연구한 뒤 대개 낱을 의미하는 용을 이런 경우에는 ‘년’으로 바르게 번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할 수 있다는 점은 영어를 우리말로 옮길 때도 적용되는 번역의 보편적 원리입니다.<sup>156)</sup>

성경에는 용례가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다음이 그런 예의 하나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전1:14).

I have seen all the works that are done under the sun; and, behold, all *is* vanity and vexation of spirit.

이 구절의 vexation은 오직 전도서에만 10차례 나옵니다(전1:14, 17; 2:11, 17, 22, 26; 4:4, 6, 16; 6:9). 성경에 이 단어의 다른 용례가 없으므로 우리는 vexation에 상응하는 히브리어(스트롱 번호 7469, 7475)가 어떤 뜻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개역/NIV 등의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vexation of spirit’을 ‘바람을 잡는 것’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영어 성경 번역자들이 원어를 향상하거나 교정해서 아무도 뜻을 알 수 없는 그 히브리어를 ‘영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번역했을까요?

아닙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열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원어뿐만 아니라 이전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수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과 그 이전 역본들의 역자들은 어떻게 이리 번역하였을까요? 히브리어에 능통했던 그분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작품(대개는 성경 관련 작품)을 읽고 그런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문맥에 의거하여 바르게 성경에 도입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누군가가 하늘의 계시를 받아 다른 데서는 한 번도 쓰이지 않은 단어의 정의를 스스로 내려 성경을 번역할 수는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 번역된 것은 원어 자체가 그런 뜻을 품고 있고

155)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사이트 상단의 구글 검색에서 ‘십일조를 3일 만에 드릴까요, 3년 만에 드릴까요?’로 검색하면 자세한 기사를 볼 수 있다.

156)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사이트 상단의 구글 검색에서 ‘번역과 반역 사이에서: 기계적 일치 번역은 안 된다’로 검색하면 자세한 기사를 볼 수 있다.

히브리 사람들의 저작에서 그리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히브리어를 오직 ‘괴롭게 하는 것’으로 번역해야만 정확한 번역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성경들 가운데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만 그렇게 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심지어 뉴킹제임스 성경도 ‘바람을 잡는 것’으로 번역하여 불교 사상을 반영하였습니다.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절대로 원어를 향상하거나 교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주장은 난센스이며 오류 없이 완전하게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혹시 주위에 누군가가 이런 주장을 퍼거든 속히 그에게서 멀리 도망가야 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당시 번역 과정을 통해 성경과 히브리어/그리스어 용례를 폭넓게 살살이 살핀 뒤 모든 원어를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들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단어들)이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번역되어 보존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 위에 건전하고 바른 모든 신학이 정립되었고 이 성경으로 오대양 육대주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성경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이 성경이 원어를 향상하거나 교정할 수 있다는 극단적 주장을 펴는 것은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의 보급과 확산에 방해가 됩니다. 제아무리 동기가 좋더라도 사실이 왜곡된 비뚤어진 그릇에는 진리를 담을 수 없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을 그것이 있을 본래의 자리에 그대로 두고 정직한 마음과 맑은 정신으로 바르게 보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숭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바르고 당연한 것도 그것을 주장하고 알리는 사람이 바른 논리와 상식을 가지고 주장해야 상대방에게 바르게 들립니다. 단순히 영한사전에서 뽑아낸 지식으로 영어만을 가지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만약 성경 번역/해석 등이 그리 쉽게 기계적으로 다 될 것 같으면 구글 번역기로 전체 영어 성경을 하루 만에 번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보물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행로가 과격하거나 비상식적이며 비논리적인 주장에 의해 가로 막히지 않도록 우리 모두 맑은 정신을 가지고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며 행해야겠습니다.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오히려 악한 일에는 너희가 아이가 되더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고전14:20).

## 영어를 못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영어로 원어를 고칠 수 있다고요?’와 ‘킹제임스 온리의 정의’라는 글을 읽은 분이 이메일을 보내 와서 소개합니다.

이 글을 쓰신 형제님은 영어로만 모든 것(해석/번역 등)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분들의 설교와 글 등을 읽고 마음속에 어려움을 느끼던 차에 제가 올린 글을 보고 자신의 느낌을 적어 주셨습니다. 비록 영어를 능숙하게 읽지는 못하지만 우리말 흠정역 성경을 보며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우리말 흠정역 성경의 위치와 역할을 잘 파악하고 정립해야 함을 보여 주는 글로서 여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 소개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과도기 현상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영어로 인해 주눅 들린 분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영어를 못해도 충분히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며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민족의 우리말로도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해 주십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믿음 생활하기 어렵지요. 조용한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합니다. 샬롬!

---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기간 장로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킹제임스 성경과 바른 교리에 대해 깨닫게 된 중년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이제라도 성경대로 믿는 성경 신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킵바이블을 통해 올리신 ‘영어로 원어를 고칠 수 있다고요?’와 ‘킹제임스 온리의 정의’를 읽고 평소 저의 생각과 일치하여 반가움에 몇 자 적어 메일을 드립니다.

과거 저는 장로교회에 출석하던 시절, 신학 대학원 등에서 성경 원어(히브리어/헬라어)를 배워서 설교 때마다 그것을 인용하며 성경 해석에 활용하는 목사님들을 종종 봐 왔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그 목사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압호처럼 생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능통해서서 감히 평신도(?)가 할 수 없는 깊이 있는 성경 해석을 하신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 문맥과 전혀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께서 본래 주신 말씀의 뜻과도 배치되는 터무니없는 일, 즉 말 그대로 영해라는 것을 킹제임스 성경과

바른 교리를 접하게 된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깨달음으로 인해 기쁨으로 살던 즈음 참으로 묘한 일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수년에 걸쳐 검증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 흠정역 성경을 강단 위에 펼쳐 놓고도 여전히 설교 시간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자주 거론하며 그것만을 성경 해석의 중요한 열쇠로 삼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설교와 성경 강해를 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우리말 흠정역 성경이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번역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자주 제가 장로교회를 다니던 시절에 무언가 자신만의 독특한 성경 해석을 세우기 위해 자주 원어를 들먹이던 목사님들이 겹쳐져서 연상되었습니다.

1611년 출간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신실하게 번역한 우리말 흠정역 성경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검증되어 읽히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 해석의 중요한 길목마다 흠정역 성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도 킹제임스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오래전부터 알아 왔다는 이력과 영어에 능통하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의 성경 신자들은 계속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믿음과 성경 해석 면에서 종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양과 목양자’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양 떼는 목자를 따라가며 말씀의 꼴을 먹이는 목자의 인도와 양육을 받아야 힘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목자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바르고 선한 목자요 양 떼를 해롭게 하지 않고 좋은 말씀의 꼴을 먹이는지는 누가 분별해 줍니까? 그것은 오직 양들 스스로가 분별해 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아래와 같은 경고의 말씀들을 기록해 주셨나 봅니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니라(마7:15).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행20:29-30).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 내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라(빌3:2-3).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결국 개와 거짓 대언자, 사나운 이리, 악한 일꾼, 샅꾼 목자, 거짓 형제,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과는 구별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신실한 참 목자를 구별해 내는 일은 모두 성도 개개인의 몫입니다. 그런데 흠정역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수시로 살펴야 목사와 성경 교사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성도는 자신의 영적 안위조차

지킬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구원받고 빠르게 믿음 생활을 하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목사님! 저는 우리말 흠정역 성경이 있을지라도 영어에 능숙하지 못하면 마지막 때의 영적 혼돈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가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저의 처지를 조금도 비판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어에 능통한 성도들을 사용하여 신실하게 번역된 흠정역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바 은혜와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저 또한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흠정역 성경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내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가 버리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주장대로 흠정역 성경에 그렇게 수천 가지 이상 오역이 존재한다면,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그렇게도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고 영어도 잘 알고 모든 능력을 갖춘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라도 모든 것을 투자해서 빠르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새로운 우리말 성경을 내는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의 말이 맞다면 그렇게 외곽에서 한가하게 흠정역 성경을 공격하고 잘못을 지적이나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토록 비판하는 흠정역 번역자처럼 오랜 세월을 기꺼이 골방에 틀어 앉아 성경 번역에 매진하지 못하십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인내심이 부족해서인가요? 그도 아니면 열정이 부족해서인가요?

말하지 않아도 저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과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어 킹제임스 성경의 새로운 우리말 번역을 내놓아도 흠정역 성경과 견주어 세상의 인정을 받을 자신도 없고 엄두도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새로운 번역을 시도하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말과 글로 흠정역 성경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힘겹게 쌓아가는 이 성경의 신뢰와 권위를 조금씩 갠아먹으면 과연 누구에게 유익이 있을까요?

저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신실하게 번역한 우리말 흠정역 성경이야말로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고 타락한 이 마지막 때 저와 제 가족을 지켜 줄 영적 등대가 되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 생활에 충분한 우리말 성경임을 확고히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성경으로 보통의 평범한 대다수의 한국인 성경 신자들이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를 구별해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영어를 잘 몰라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능통하다고 자부하는 일부 형제/자매들에게 전혀 굴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람들을 바른길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실천하고 하늘의 보상을 쌓으며 탁월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부디 대다수의 선량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독자들을 위해서 힘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을 더욱 힘 있게 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불편한 진실’에 대하여

지난 몇 달 동안 종종 주변의 몇몇 형제/자매님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갑자기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다고 하며 혹시 제가 그것에 대해 아느냐고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메일의 제목은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불편한 진실’로 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각종 비방 글들의 링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메일을 무차별 살포하는 분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특히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 대해 매우 분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적어 놓은 비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지난 400년 동안 영어 세상에서 떠돌아다니고 있던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이미 잘 알려진 허무맹랑한 이야기일지라도 막상 이런 이야기를 처음 접하면 당혹스러워하는 독자들이 있을 것 같아 오늘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 글을 적은 분인지 아니면 그분의 추종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 전에는 자정이 넘은 시각에 동일한 글을 킵바이블 사이트에 올렸기에 관리자 형제가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관리자들이 신경을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이용해 짧은 순간 게재되었던 글임에도 그 글을 읽고 놀란 마음에 어찌 된 일이나고 질문의 메일을 보낸 형제님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수천 군데 심각한 오류가 있어서 많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기존 성경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시비를 걸지 않으면서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뿐인 귀중한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는 데 허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에 오늘은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이들이 차라리 현대/자유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틀렸고 인간 저자들이 임의대로 쓴 기록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나마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어로 성경을 보존해 주셨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온 시간과 에너지를 오직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데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메일과 카톡 등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글을 무차별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들의 헛된 주장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성경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거나 잃어버리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간단히 글을 씁니다.

이들은 한동안 원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주로 킹제임스 성경의 난외주와 대소문자를 가지고 성도들을 홀리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는 한 단어가 여러 개의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자는 앞뒤 문맥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 여러 개 뜻 가운데서 가장 합당한 하나를 정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는 원래 대소문자 구별이 없습니다. 위클리프 이후 킹제임스 성경에 이르기까지 약 230년 동안 영어 성경의 번역자들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어에서 같은 영(그리스어의 경우 프뉴마)이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확실히 판단되는 데는 대문자 Spirit으로, 하나님의 영이나 혹은 다른 영으로 두어도 문제가 없는 데는 소문자 spirit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문맥에 따라 독자가 판단해서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난외주와 대소문자 비방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려 합니다.

## 1. 난외주

과거에 영어 성경이 나올 때에는 번역하면서 특정 단어나 절에 대해 번역자들 간에 만장일치로 깔끔하게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 난외주에 소수의 의견을 표기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난외주가 가장 많았던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바로 전에 나온 제네바 성경이었습니다. 제네바 성경 안에는 칼빈의 개혁주의(장로교) 사상이 너무 많이 들어갔기에 제임스 왕은 성경을 새로 번역하라고 명령하면서 특별히 난외주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11년에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한 페이지에 2개 정도씩의 난외주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알아야 할 것은 난외주란 소수의 다른 견해가 있었다는 정황을 정직하게 알리는 것이 목적일 뿐 난외주 자체가 본문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1611년 초판 발행 이후에 킹제임스 성경이 정착되면서 이런 난외주는 성경에서 곧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경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역사를 보여 주는 역사서로 부록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카톨릭교회를 가장 크게 미워하던 사람들이 만든 제네바 성경에도 외경이 들어 있었지만 뒤에는 난외주와 함께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외경이나 난외주에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것은 킹제임스 성경 본문이지 난외주나 외경이 아닙니다. 바로 그 성경의 본문이 온 세상에 퍼져 나가 거기 담긴 복음을 듣고 확신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성화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독자들에게 준 서문’이나 ‘제임스 왕에게 바친 헌정문’이나 난외주나 외경이나 금박 표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철저히 인간들의 산물일 뿐입니다.

##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본문!

하나님은 바로 이 성경 본문을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611년에 발행된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순수한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일대일 대응이 되게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번역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보존하였습니다.

바로 그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사용해서 지난 400여 년 동안 복음이 선포되고 성경의 모든 교리가 확립되었습니다. 난외주나 외경 심지어 원본이 아닙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 반포된 지 400년이 이미 지난 이 시점에서 난외주가 본문보다 옳다고 주장하며 교묘하게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또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으로 기어 들어가 미련한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놀려 있고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 없느니라. 한편 안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같이 그렇게 이들도 진리를 거역하는데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하리니 이는 저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것같이 그들의 어리석음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딤후 3:6-9).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은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터인데 그때 가서 후회하면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수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은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 복사본(팩시밀리)을 하나 구한 뒤 거기에 기록된 난외주만 열심히 찾습니다.<sup>157)</sup> 그리고는 자신의 마음에 흡족하며 이슈를 만들 만한 단어가 나오면 손뼉을 치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틀리고 난외주가 맞다고 소리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성경의 본문이 틀리다고 주장하며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 신자일까요?

이런 예 중 유명한 것이 바로 이사야서 14장 12절의 루시퍼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은 분명히 에스겔서 28장의 ‘타락한 그룹’이 루시퍼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난외주에는 ‘daystar’, 즉 샛별(계명성)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접할 때는 “과거에 이 단어를 샛별로 본 사람들도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이상의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봐라, 루시퍼가 아니라 샛별이 맞다!”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샛별’을 본문으로 인정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1611년 이후로 지금까지 산 사람들의 수를 생각해 볼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적어도 100억 권 정도 인쇄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그 100억 권에 무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루시퍼지요.

<sup>157)</sup> [http://www.honortheson.com/1611\\_King\\_James-Bible\\_Version- Scanned.pdf](http://www.honortheson.com/1611_King_James-Bible_Version- Scanned.pdf)

the worme is spread vnder thee, and the wormes couer thee.  
 12 How art thou fallen from heauen,  
 || O Lucifer, sonne of the morning? how art thou cut downe to the ground,  
 which didst weaken the nations?  
 13 For thou hast said in thine heart;  
 I wil ascend into heauen. I wil exalt

1611년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사야서 14장 12절  
 본문: 루시퍼(Lucifer), 난외주: 셋별(day star)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1611년 이후의 모든 신학교가 세워지고 신학 서적들이 저술되었습니다. 즉 교리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역사적 증거와 현실을 손바닥으로 가린 채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기록된 루시퍼가 아니라 난외주의 셋별이 맞다고 주장하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과연 성경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호하게 일하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신약 성경 사본들은 공개적으로 여러 대륙의 거의 모든 성도들에게 보급되었습니다. 반면에 모든 현대 역본들의 모체가 되는 천주교회의 바티칸 사본과 시네 사본은 아무도 보지 못하게 바티칸 도서관과 동방 정교회 수도원에 고이 간직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승천 뒤 1,850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이 둘이 공개되면서 이것들이 참으로 진실한 사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의 1,850년 동안 성도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믿음 생활을 했던 말인가요?

성경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시12:6-7) 부인하는 현대 역본 역자들의 이런 주장과 난외주를 가지고 본문을 대체하려는 사람들의 시도는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순수한 본문이 보편적으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보급되고 유통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의 난외주, 외경 그리고 천주교 소수 사본 등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2. 대문자/소문자 Spirit/spirit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몇 구절에서는 Spirit/spirit이 여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11:12(Acts 11:12). And the spirit bade me go with them, nothing doubting. Moreover these six brethren accompanied me, and we entered

into the man's house.

여기의 소문자 spirit은 1611년과 1769년판에 있습니다.

행11:28(Acts 11:28). And there stood up one of them named Agabus, and signified by the spirit that there should be great dearth throughout all the world: which came to pass in the days of Claudius Caesar.

여기의 소문자 spirit은 1611년, 1638년 그리고 1769년판에 있습니다.

요일5:8(1 John 5:8). And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earth, the spirit, and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in one.

1611년판에는 대문자 Spirit으로 되어 있지만 동시에 그다음에 나오는 Water와 Blood도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638년과 1769년판에는 이것이 소문자 spirit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spirit)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 Spirit/spirit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적 존재(a spirit being), 사람의 영, 성령님, 정신 등
2. 성경에서는 소문자 spirit이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사례들이 있다(출31:3; 욥27:3; 고전2:12).
3. 소문자 spirit은 성령님의 일을 묘사할 때도 쓰인다. 예를 들어 동일한 말씀이 요엘서 2장 28에는 소문자로(pour out my spirit),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대문자로(pour out of my Spirit) 표기되어 있다.

그러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여러 판에서 행11:12, 행11:28, 요일5:8에 소문자 spirit이 쓰인 것은 앞뒤 문맥으로 살펴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가 대문자 Spirit이 쓰여야 합당하다고 주장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영이 하는 일은 다시 태어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공동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이런 구절들에서 Spirit/spirit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므로 킹제임스 성경은 오류가 없는 최종 권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 단어 프뉴마는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없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프뉴마를 있는 그대로 '스피릿'(대문자든 소문자든)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어의 영감/보존에도 문제가 없으며 번역되면서도 보존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영어 성경의 역자들은 영어 단어 스피릿에 그리스 단어에 없는 대소문자의 구별이 있으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대소문자 Spirit/spirit을 구분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인쇄술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식자공이 일일이 모든

단어의 알파벳(성경 전체를 보면 수십만 개 혹은 수백만 개)을 찾아서 조판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 조판공들은 대소문자 Spirit/spirit에서 실수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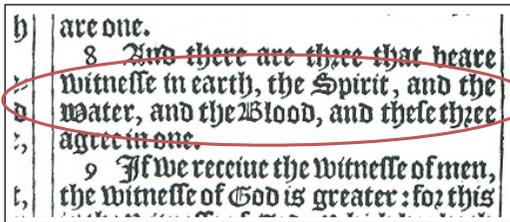
조판공의 이런 실수 예는 여럿 있습니다. 이 중에 유명한 것은 사악한 성경(Wicked Bible)으로 알려진 1631년판입니다. 이 판에서는 출20:14 말씀, 즉 “너는 간음하지 말라.”가 “너는 간음하라.”로 되어 있습니다.<sup>158)</sup> 즉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라고 조판해야 하는데 꼼꼼함을 요하는 작업 때문에 몸이 매우 피곤했던 식자공은 그만 여기서 중간의 ‘not’을 넣지 못했고 결국 그 성경은 “너는 간음하라”라고 명령하는 ‘사악한 성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성경의 대부분은 즉시 회수되어 폐기되었고 몇 개만 희귀본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초판의 이런 실수 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랍니다.<sup>159)</sup>

그래도 Spirit/spirit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 분들은 리플링거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sup>160)</sup>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 구절에서는 Spirit/spirit에서 선택의 자유를 독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앞뒤 문맥을 보고 독자가 결정하면 될 일이지 성경의 보존이나 최종 권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끝으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어 성경에 스펠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1611년의 초판을 참고하려 합니다. 그러나 1611년 초판에는 식자공의 이런 실수가 여럿 있습니다. 그러므로 1611년 초판이 최종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요일5:8의 경우 1611년 초판에는 대문자 Spirit으로 되어 있고 동시에 그다음에 나오는 Water와 Blood도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Water와 Blood도 신성을 가진 존재일까요? 아닙니다.



1611년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5장 8절  
Spirit, Water, Blood가 다  
대문자로 시작함

그 당시에는 로마체가 쓰이지 않았고 고딕체가 쓰였습니다. 고딕체의 경우 이런 사례에서는 종종 같은 구절에서 몇 단어를 언저푸 대문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독일어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요일5:8에서 반드시 대문자

158) [http://en.wikipedia.org/wiki/Wicked\\_Bible](http://en.wikipedia.org/wiki/Wicked_Bible)

159)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사이트 상단의 구글 검색에서 ‘킹제임스 성경 개정 신화’로 검색, [https://www.biblebelievers.com/Reagan\\_myth-early.html](https://www.biblebelievers.com/Reagan_myth-early.html)

160) <http://www.ourkjb.com/KJB.pdf>

Spirit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다음의 Water와 Blood도 대문자로 써야 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서너 군데는 Spirit/spirit이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감/보존/번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역자들은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번역하였으나 식자공의 실수로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식자 문제들은 역자들이 살아 있던 시대에 대부분 곧바로 교정되었으나 역자들이 죽은 이후에도 처리되지 않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서너 군데의 Spirit/spirit이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철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옥스퍼드판과 케임브리지판이 나왔고 지금 존재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둘 중의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토마스 넬슨 출판사 판은 출판 당사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킹제임스 성경의 여러 단어를 임의로 수정하였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판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리플링거의 글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리플링거의 글은 매우 훌륭하지만 100% 옳지는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안내해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초판을 낼 때에는 영어 성경 파일 자체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이탤릭체를 살린 파일을 찾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미국 Bible For Today의 웨이트 박사님이 주신 영어 파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소스를 알게 되었고 2011년에 400주년 기념판을 출간할 때에는 Pure Cambridge Text로 알려진 영어 본문을 사용하였습니다.<sup>161)</sup> 물론 앞으로도 저희는 영어 본문의 경우 Pure Cambridge Text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번역의 초기 세대들이 어쩔 수 없이 함께 감당해야 하는 짐입니다. “왜 처음부터 pure text를 쓰지 않았느냐?”라고 질책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 논쟁만 불거지게 됩니다. 영어 성경도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까지 약 230년의 담금질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본문, 번역 등에 의문이 있으면 대안과 함께 KeepBible 사이트의 이메일 주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메일의 내용은 제안이어야지 독단적인 주장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본문 난외주, 대소문자, 외경, 이역 등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을 깨뜨리려는 사람들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강한 확신 속에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의 어리석음과 답답함(자기들이 보기에)을 깨뜨리기 위해 ‘킹제임스 성경의 불편한 진실’ 같은 글을 쓰는 분들은 부디 앞으로는 그 귀중한 시간을 올바른 데 투자하여 ‘개역(개정판)성경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글을 써서 수백만 성도들을 살리는 데 매진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값진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발 눈을 열어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오류로 인해 고생하며 종교 시스템의

161) [www.bibleprotector.com](http://www.bibleprotector.com)

포로가 되어있는 신자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난 20여 년의 역사를 통해 킹제임스 성경 사역이 거의 다 완성된 시점에 뒷북을 치며 나타나 이미 킹제임스 성경의 한국어 번역사(史)가 증명한 일에 시비를 거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못할 일입니다. 더욱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펴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쓰고 있다니 이 얼마나 기막힌 아이러니입니까?

세상에는 다 때와 순서가 있습니다.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건설된 고속도로가 자기 마음에 안 드니 내가 바로 옆에 새롭게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사람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건설된 고속도로에 결함이 있다면 지혜를 모아 보수하고 다듬어 더 완성도 높은 도로가 되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 놓인 고속도로를 마음껏 달리며 상품을 나르고 이동하여 사업을 일구는 사람이 굳이 바로 옆에 길을 다시 만들겠다는 어리석은 고집쟁이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온 새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가 아니라 함께 지혜를 모아 이미 나와 굳건히 자리 잡은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잘 다듬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선포해서 죽어가는 혼들을 구원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2015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의 큰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샬롬!

「킹제임스 성경 개정 신화」에서 저자인 리건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sup>162)</sup>

여러분은 이제 확신을 가져도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정화된 것'이다.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성경이 우리를 위해 '영어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정확성에 대한 권위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의 초판 인쇄본에 있지도 않고 제임스 1세의 인품에 놓여 있지도 않으며,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 문학의 뛰어난 업적에 있지도 않고 심지어 그리스어 '공인 본문'에 있지도 않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이라는 절대 무오한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에는 그분의 완전한 말씀이 있다.

---

162)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사이트 상단의 구글 검색에서 '킹제임스 성경 개정 신화'로 검색, [http://www.biblebelievers.com/Reagan\\_myth-early.html](http://www.biblebelievers.com/Reagan_myth-early.html)

##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

요즘 ‘그리스도 예수안에’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400주년 기념판 성경이 1611년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1611년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것일까요?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그렇다’와 ‘아니다’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잘 읽으시면 왜 답이 둘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611년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인쇄공의 조판 실수로 인해 여러 가지 철자상의 실수들이 들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조금 연구한 사람들 중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리건 박사의 유명한 글 ‘킹제임스 성경 개정 신화’<sup>163)</sup>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자세히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 킹제임스 성경 발간 400주년을 기념하며 옥스퍼드 대학에서 출간한 1611년판 영어 성경의 맨 뒤에는 1611년 원판에 있는 철자상의 오류들을 보여 줍니다.<sup>164)</sup> 이 명단은 ‘and’를 ‘aud’로 인쇄한 것 같은 소소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명단에만도 150여 개의 조판 실수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조판 실수들은 첫 판이 인쇄된 이후에 대부분 곧바로 교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리건 박사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한영대역 성경 부록에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약 150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현대 스타일의 영어 성경으로 안착되었습니다. 이 기간을 거치면서 1611년에 잘못 조판된 부분이 다 교정되었습니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는 이러한 변화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예를 통해 잘 보여 줍니다.<sup>165)</sup>

### 1611년판

<sup>1</sup> Though I speake with the tongues of men & of Angels, and have not charity, I am become as sounding brasse or a tinkling cymbal. <sup>2</sup> And though I have the gift of prophesie, and understand all **mysteries** and

---

163) www.KeepBible.com 사이트 상단의 구글 검색에서 ‘킹제임스 성경 개정 신화’로 검색 바람, [https://www.biblebelievers.com/Reagan\\_myth-early.html](https://www.biblebelievers.com/Reagan_myth-early.html)

164) www.KeepBible.com 사이트 상단의 구글 검색에서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로 검색한 뒤 기사에 첨부된 파일 참조

165) [http://en.wikipedia.org/wiki/Authorized\\_King\\_James\\_Version](http://en.wikipedia.org/wiki/Authorized_King_James_Version)

all knowledge: and though I have all faith, so that I could remoove mountaines, and have **no** charitie, I am nothing. <sup>3</sup> And though I bestowe all my goods to feede the poore, and though I give my body to bee burned, and have not charitie, it profiteth me nothing.

### 1769년판(현대판)

<sup>1</sup> Though I speak with the tongues of men and of angels, and have not charity, I am become as sounding brass, or a tinkling cymbal. <sup>2</sup> And though I have the gift of prophecy, and understand all mysteries, and all knowledge; and though I have all faith, so that I could remove mountains, and have not charity, I am nothing. <sup>3</sup> And though I bestow all my goods to feed the poor, and though I give my body to be burned, and have not charity, it profiteth me nothing.

이 세 구절 안에는 철자 변화가 11개, 타이프 세팅 변화(고딕체에서 로마체로,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리건 박사의 글을 참조하기 바람)로 인한 변화가 9개, 구두점의 변화가 3개, 2절에서 본문 자체의 변화가 1개(no charity 대신 not charity)가 들어 있습니다.

자, 정직하게 이 두 판을 비교해 봅시다. 이 두 판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not’과 ‘no’를 가지고 ‘틀리다’ 혹은 ‘맞다’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이것은 문법상 not이 맞는데 조판공이 no로 잘못 조판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2절과 다니엘서 11장 38절에는 1611년판과 지금 인쇄되는 판에서 God와 god이 바뀌어 있습니다. 사43:12의 경우 원어 성경에는 god에 해당하는 단어가 원래 없으므로 지금 나오는 성경은 god을 이탤릭체로 바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판공의 실수로 1611년판에는 이것이 God으로 정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조판공이 실수한 대로 God을 따르지 않고 god을 따라 번역하였습니다. 절대적 의미에서 우리는 1611년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611년 판을 따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판 실수요, 원본을 보면 누구라도 금방 알 수 있는 명백한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god을 따라 번역한 것이 실제로 1611년판을 번역한 것입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런 실수들을 보여 주면서 “봐라. 1611년판과 지금 우리가 보는 판은 다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말 흠정역 성경은 1611년판을 번역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는 이들을 보면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과연 이런 주장이 성경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주장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반대를 위한 흠집 내기일까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흠정역이 아닌 어떤 성경이 더 낫다는 말씀인가요? 연약한 성도들을 세워 줘도 모자랄 판에 성경에 대한 확신을 무너뜨리면서 통쾌해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성경을 믿는 사람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절대적 의미에서 우리는 1611년판을 본문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760-1769년에 현대 영어로 확정된 영어 성경을 1611년판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611년판에는 사람의 명백한 실수들이 있었고,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속 사람들도 - 미국의 의회도 - 2011년을 맞아 킹제임스 성경 반포 400주년을 기념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1760-1769년이 아니라 1611년입니다.<sup>166)</sup>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교정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렇게 교정된 성경을 가지고 실제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시기 이후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150년의 기간에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행하신 교정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소문자 g나, 대문자 G나는 하나님의 교정에 의해 이미 이루어져서 지금 우리 손에 확실하게 들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 1611년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성경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한 확신을 깨뜨리는 이들이 늘 인용하는 분이 웨이트 박사님입니다. 이들에 의해 올해 연세가 90세이신 웨이트 박사님은 늘 우롱당하고 있습니다. 웨이트 박사님이 실제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무어라고 말씀하셨는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웨이트 목사님 교회에서 그분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분의 교회가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매해 미국을 방문하면 그분의 집과 교회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러므로 성경 보존에 관한 그분의 입장이 무엇인지 저는 확실히 압니다. 다음은 웨이트 박사님의 글입니다.<sup>167)</sup>

---

#### D.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과 현재 킹제임스 성경 사이엔 겨우 421개의 단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종종 현재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의 킹제임스 성경과 많이 다르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토마스 넬슨(Thomas Nelson) 출판사는 1611년도에 인쇄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일반 로마체로 서체만 바꾸어 내놓았다. 이 책은 한 때 절판되었지만 다시 출간되었다. 본래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은 독일어체로 인쇄되었다. 나에게는 독일어체로 되어 있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의 사진 복사본이 있는데 이것을 읽기는 사실 어렵다. 예를 들어 소문자 's'는 마치 'f'처럼 보인다. 하지만 넬슨 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기 쉬운 서체로 바꾸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런 작업을 한

---

166)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사이트 상단의 구글 검색에서 '킹제임스 성경 400주년 관련 미국 의회 결의안'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음

167)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사이트 상단의 구글 검색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으로 검색한 뒤 PDF 파일에서 본문 중 15-16쪽 참조하기 바람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 왔다(아마 독자들도 그랬을 것이다). 뉴킹제임스 역본(NKJV)은 그저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을 기초로 한 또 하나의 ‘판’(edition)으로서 현대인들의 수준에 맞게 개정되어 나왔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초판이 나온 1611년부터 NKJV가 나온 1979년까지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 번의 굵직한 변화들을 겪어 왔다는 말도 있다. 나는 이 사실을 직접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1917년에 나온 「구(舊) 스코필드 주석 성경」 - 킹제임스 성경 본문 사용 - 으로 이것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나는 「구(舊) 스코필드 주석 성경」은 녹음테이프를 듣고 낼출 출판사에서 나온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은 눈으로 읽으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어 하나하나를 비교해 보았다. 그런데 나의 귀로 듣고 감지할 수 있는 변화는 극히 일부분이었다. 물론 철자법은 꽤 다르다. 원판 킹제임스 성경과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는 철자법에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상당히 크다. 예를 들면 신명기 31장 1절에 “Moses went and spake these words to all Israel.”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에는 ‘words’라는 단어가 ‘wordes’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비교를 하면서 다르다고 느낀 부분은 발음뿐이었다. 즉 나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과 오늘날의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면서 소리에 있어 몇 가지 변화를 발견했다. 그러나 이것들을 모두 출력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것들은 다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었다.

결국 차이점이라는 것은 신구약 전체에 걸쳐 발음이 다르게 나는 421개의 단어였다. 킹제임스 성경이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는지 아는가? 무려 791,328개의 단어이다.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과 오늘날의 킹제임스 성경의 차이는 전체 단어들 중에 고작 발음이 다른 421개의 단어들뿐이다. 이 421개의 변화들 중에서도 285개는 ‘형태’만 바뀐 사소한 변화들이다. 나머지 136개만 ‘내용’의 변화, 즉 ‘of’나 ‘and’의 첨가와 같은 변화들이다. 소위 사소한 변화들의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towards’와 ‘toward’가 다르게 들렸다. 나는 이렇게 달리 들린 단어들을 기록했고 이것들을 모두 세어 보니 14번이었다. 또 나는 ‘burnt’와 ‘burned’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는 총 31번으로 아주 적었다. 같은 내용이라도 나는 그것을 모두 따로 계산했다. 가령 ‘amongst’와 ‘among’의 경우 36번의 차이가 있었고 ‘Lift up’과 ‘lifted up’은 51번의 차이가 있었다. ‘You’는 82번 ‘ye’로 바뀌었다. 보다시피 이것들은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다. 이러한 종류의 사소한 변화가 214군데 있었고 여기에 71군데의 다른 사소한 변화들을 합쳐서 총 285개의 형태 변화가 있다. 요약하자면, 귀로 구별할 수 있는 변화가 총 421개인데 여기서 ‘모양’만 다른 곳이 285군데, ‘내용’이 다른 곳이 136군데이다. 이 조사 자료는 모두 책자로 정리되어 구할 수 있다[B.F.T. #1294].

#### E. 오늘날의 킹제임스 성경은 사실상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과 같다

오늘날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 진짜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틀림없는 킹제임스 성경이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두고 현시대의 킹제임스 성경이 초판과 비교해 3만, 4만, 5만 개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철자법의 차이를 말하는 거라면 맞다. 하지만 철자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의 의미를 아는 것에 관한 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 이 시간 출간되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안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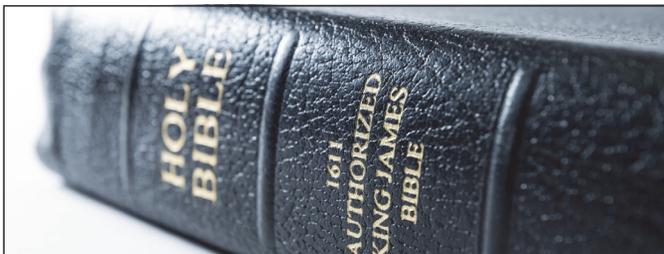
마치 자신이 숨겨진 진실을 알리는 전도사인 것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 보존에 대해 성도들이 믿고 있는 바를 어떻게든 깨뜨리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떤 기쁨을 가져다줍니까? 이들의 사술(詐術 혹은 邪術)에 말려드는 양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손에 들린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합시다.

원어의 보존을 믿는 사람이라면 웨이트 박사님처럼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완전히 보존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확신을 세워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경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철자의 변화, 대소문자 변화, 고딕체에서 로마체로 타이프 세팅이 변한 것을 보여 주면서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려는 이들에게 잠시도 틈을 주지 말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이와 같은 약속에 따라 지금 우리 손에는 완전히 보존되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저희가 출간하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1611년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 딱정벌레 이야기

구약 성경에서 ‘딱정벌레’라는 말은 레위기 11장 22절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곧 그중에서 이것들 즉 메뚜기 종류와 흰머리 메뚜기 종류와 딱정벌레 종류와 베짚이 종류는 너희가 먹어도 되지만(레11:22)

[Even] these of them ye may eat; the locust after his kind, and the bald locust after his kind, and the beetle after his kind, and the grasshopper after his kind.

이 구절은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사람들이 가끔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이들은 딱정벌레(히브리어 ‘하르골’, 스트롱 번호 2728)가 틀리고, 대신 ‘귀뚜라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물론 개역성경은 이들의 주장대로 귀뚜라미라고 번역함). 또한 이들은 몇몇 주석을 들먹이면서 유대인들은 딱정벌레를 먹지 않고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안 먹는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딱정벌레는 한자로 갑충(甲蟲)입니다. 즉 껍데기가 있는 벌레면 다 딱정벌레입니다. 인터넷에서 인기가 높은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에 가서 딱정벌레 항목을 보면 지구의 전체 곤충의 40%가 딱정벌레목(目)에 속하며 구체적으로는 약 35만-40만 종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사람과 관련해서는 인류의 80%가 벌레를 음식으로 먹으며 벌레 중에서 사람의 음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딱정벌레라고 나와 있고, 현재 344종이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딱정벌레를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레위기 11장의 딱정벌레, 즉 beetle은 생물 분류법에서 장수풍뎅이 같은 한 종(種)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目)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딱정벌레목(目)에는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sup>168)</sup>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어 ‘하르골’을 바르게 딱정벌레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번역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단어는 성경에 한 번 나오므로 다른 용례를 보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장로교 출신으로 성경 본문에 관한 세계적 석학인 에드워드 힐즈 박사는 자신의 책 「킹제임스 성경 변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 보존에 관한 교리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sup>169)</sup>

1611년 이래로 온 세상에 Holy Bible로 자리 잡으며 수십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 준 성경은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성경들은

168) <http://en.wikipedia.org/wiki/Beetle>

169)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사이트 상단의 구글 검색에서 ‘킹제임스 성경 변호’로 검색한 뒤 PDF 파일 참조하기 바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로마 카톨릭 소수 사본에서 나왔습니다. 그 수많은 신자들을 위해 하나님은 히브리어 ‘하르골’을 딱정벌레라고 번역해 주셨고 이들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역사를 통해 그 단어가 딱정벌레라고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단어들)을 보존해 주신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분의 입에서 나온 원어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처럼 원어 ‘하르골’ 자체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므로 아무도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히브리어 사전 자체도 어떤 사람이 기록했느냐에 따라 다른 뜻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우리는 단순히 약 50명의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바르게 인도를 받아 그 히브리어를 딱정벌레로 바르게 번역했다고 믿습니다.

이런 것은 다음의 유명한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 2장 11, 17, 26절, 4장 4, 6절, 6장 9절(7회)에는 다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전1:14).

I have seen all the works that are done under the sun; and, behold, all [is] vanity and vexation of spirit.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은 뒷부분을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번역하였고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이 세상의 다른 역본들은 (심지어 뉴킹제임스 역본까지) 다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영을 괴롭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루아흐’(스트롱 번호 7306)와 ‘레우트’(스트롱 번호 7460)입니다. 잘 알다시피 루아흐는 영도 되고 바람도 되고 숨도 됩니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처럼 영으로 번역해도 되고 개역성경처럼 바람으로 번역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레우트에 있습니다. 레우트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전도서에만, 위에서 언급한 일곱 구절에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른 용례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처럼 ‘영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믿든지 다른 성경들처럼 ‘바람을 잡는 것’으로 믿든지 둘 중 하나를 믿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보존 역사를 믿음으로 신뢰하고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고 믿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았고 다른 번역자들은 인생무상을 이야기하는 철학적 문제로 보았습니다. 저자인 솔로몬이 과연 어떤 관점에서 이 단어를 썼을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헛된 수고는 영을 괴롭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불교나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란 바람을 잡는 것처럼 공허하다는 뜻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성경 사역에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천주교 사본을 지지하는 현대 역본들과 번역자들을 결코 신뢰할 수 없으므로 (물론 그들이 만든

사전들도 신뢰할 수 없으므로) 단순하게 그분의 말씀대로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 바른 번역이라고 믿습니다.

이 두 예를 통해 보셨겠지만 원어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위의 말씀은 주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말씀들(단어들)을 보존해 주실 것을 확증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보존 약속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원본의 단어들에게까지  
만 미칠까요? 아니면 번역본의 단어들에게까지 미칠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 보존의 약속이 일차적으로 원어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나면 그 약속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원본의 그 단어들이 우리에게 바른 단어들로 전달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 보존 약속이 번역본에까지 이른다고 믿습니다.  
이런 약속에 따라 온 세상의 성경들을 살펴보니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역본들이 한결같이 천주교 사본을 사용하여 삭제와 첨가 등이 일치하고 교리적으로  
맞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보존해 주신 사본들에 근거한, 전 세계 만인의 말인 영어로 기록된  
킹제임스 성경이 이 시간까지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최종적인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의 믿음입니다. 눈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존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원본주의자들이 늘 인용하는 웨이트 박사님(Dr. D. A. Waite)도 자신의  
책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성도들의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서 최종적이고도 유일한 권위가 됩니다. 사실 성도들에게는  
삶 자체가 믿음과 여기서 나오는 실행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이  
믿음과 실행의 모든 문제에서 최종 권위라고 말하는 것은 곧 인생과 온 우주 공간의  
모든 문제에서 이 성경이 최종 권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역본이  
최종 권위가 될 수 있느냐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최종 권위이고 킹제임스  
성경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100% 킹제임스 성경 안에 들어 있으므로 우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따라서 최종 권위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1장 22절은 껍질이 있는 딱정벌레가 맞고 전도서의 일곱 구절은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 이외의 다른 번역은 다 틀린 번역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구절들에 관한 한 그런 성경은 보존되지 않은 성경이요, 따라서  
최종 권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원어의 단어들의 보존을 믿습니다. 또한 그 원어의 단어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100% 보존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를 향상하였음을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보존된 원어의 단어들을 만민이 알아듣게 최종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해서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다만 저는 말씀 보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실제 데이터들의 분석과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100% 보존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믿으며 누가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면 서슴없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져갈 것입니다. 원어는 못 가져갑니다.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온 세상 모든 것의 최종 권위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말 흠정역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지금 이 시간까지 최대한 우리말답게 일대일로 대응이 되게 번역해 놓은 순전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확실한 성경입니다. 확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다음은 웨이트 박사님의 글입니다.<sup>170)</sup>

---

#### D. 영어로 이루어진 성경 보존과 킹제임스 성경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께서 영어로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성경 보존을 이루셨다고 믿는다.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성경 보존이 곧 영어 역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님을 뜻한다. 다만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올바른 히브리어, 그리스어 단어들을 영어라는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하여 간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믿는 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가 있다.

- a. 첫째, 킹제임스 성경 원어 본문의 우수성 때문이다.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는 히브리어, 그리스어 본문의 우수성을 말한다.
- b. 둘째,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우수성 때문이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당대어나 오늘날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탁월했다. 오늘날 내로라하는 학자들도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에 비하면 소인국 난쟁이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다.
- c. 셋째, 킹제임스 성경 번역 기법의 우수성 때문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역본들과 차이가 있다. 다른 역본의 번역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기법을 쓰지 않았다.
- d. 넷째, 킹제임스 성경 신학의 우수성 때문이다.

---

170)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사이트 상단의 구글 검색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으로 검색한 뒤 PDF 파일에서 본문 중 30쪽을 참조하기 바람

## 원어로 너스레 떠는 자들 격퇴하기

요즘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심지어 독립 교회들 안에서도 목사가 원어를 들먹이며 순진한 성도들을 주눅들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목사의 사명인 설교는 제대로 안 하고 설교시간에 성경 구절을 읽고는 그 안의 단어들이 원어로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자기만족의 우물에 빠진 목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성도들은 킹제임스 성경마저 교정해 버리는 목사의 원어 실력에 놀라서 감탄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영리한 목사들이 설교 준비에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할 때 대개 들고나오는 것이 원어입니다.

모든 원어에는 여러 개의 뜻이 있으므로 목사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경 단어를 바꾸어가면서 열변을 토하고 많은 경우 성경을 영해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절대적인 권위를 세우려는 악한 행위입니다.

20세기 설교의 대가 중 한 분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원어란 정확성을 살펴보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고 단언하면서 성경 원어에 과도한 가치와 필요성을 부여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목사들의 목사라 불리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원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킹제임스 성경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원어를 알아야만 성경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큰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원어를 능통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경 원어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 나는 원어를 공부하는 MDiv. 석사 과정을 하느라 3-4년을 다녔고 다른 목사들은 원어를 다루지 않는 2년짜리 MA 석사 과정을 했으니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실은 공부를 못해서 학점이 안 나왔거나 돈이 없어서 학교에서 일하면서 공부해서 학교를 더 다닌 것인지 누가 압니까? 어쨌든 신학교 오래 다닌 것을 마치 원어를 공부하기 위한 것으로 포장하는 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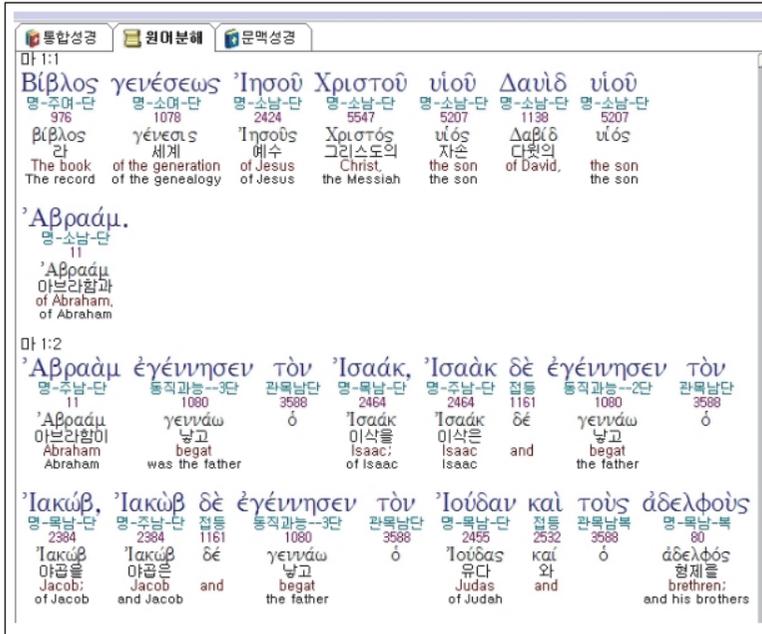
책을 짓고 글을 쓰면서 꼭 원어를 몇 자 적는 유명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분이 지은 책의 제목이 「자기 자랑」입니다.

이런 목사들에게 가서 “배가 아파서 오늘 교회에 못 갑니다.”를 히브리 말이나 그리스 말로 해 보라고 요청하면 백이면 백 모두 못 할 것입니다. 그들이 신학교에서 몇 년간 배운 원어 실력은 이미 성경 소프트웨어 등에 다 나와 있어서 누구라도 1시간만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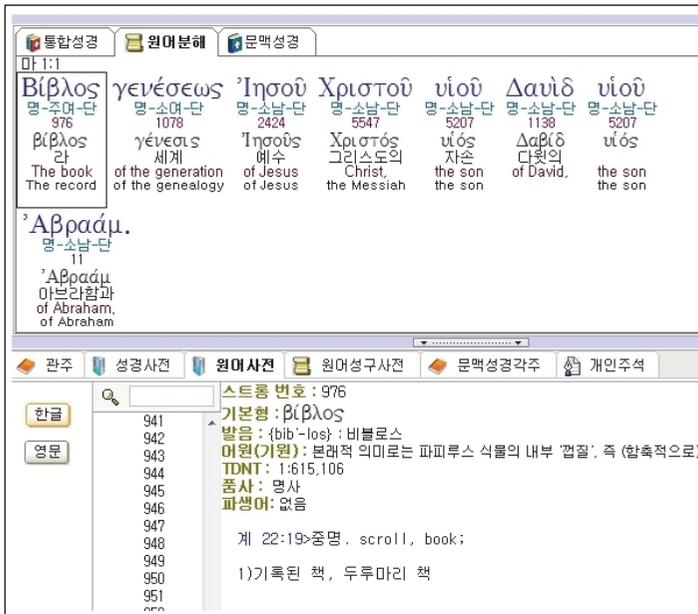
오늘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꼼수를 간단하게 물리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소개한 성경 소프트웨어를 보면 거의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sup>17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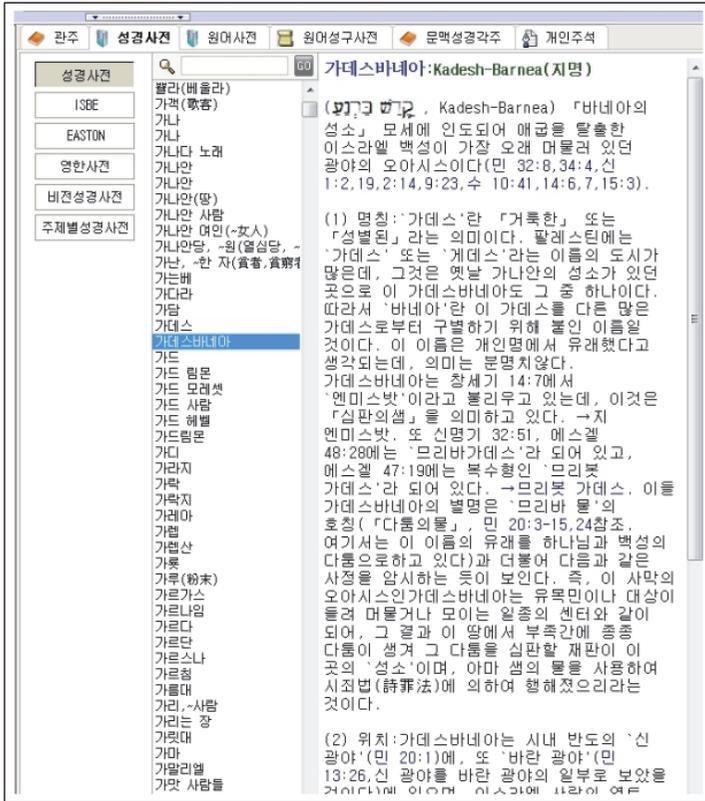




성경 소프트웨어: 마태복음 1장 1절 원어 분해



성경 소프트웨어: 마태복음 1장 1절 '책'(비블로스) 단어 설명



성경 소프트웨어: 성경 단어 설명 사전(가데스바네아)

물론 성경 원어는 중요하고 알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자신의 말씀들(단어들)을 완벽히 보존해 두셨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정확하게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자신이 졸업한 신학교 자랑, 신학교 다닌 했수 자랑, 알량한 원어 자랑하는 목사가 하나님과 성도들을 기쁘게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먹여야 합니다. 설교 시간을 원어 뜻풀이 시간으로 만들어서는 성도나 목사나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합니다.

궁홀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수확 밭에 신실한 일꾼들을 속히 많이 보내주시길 기도합니다.

## 원어, 도를 벗어나면 독약이 된다!

30년 전쯤 캐나다에서 유학할 때 옆방에 같이 공부하러 온 그리스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자 그는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기록된 것을 아느냐고 말하면서 자기가 그리스 사람이라 누구보다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을 잘 읽고 알 수 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물론 그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당연히 성도도 아니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의 말이 옳은 것 같은데 과연 그 말은 옳은 것이었을까요? 저도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단어들)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분의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과 행실에서 최종적인 권위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 말씀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세 암흑시대에 천주교 사제(제사장)들이 라틴어로 미사를 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이 경우 백성은 아무것도 모른 채 종교 의식만 행하게 됩니다.

원어 성경이 그와 비슷합니다. 현시대의 히브리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원어 성경을 가져다주면 그것의 대부분을 읽지 못합니다. 학식을 자랑하는 원어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 사전이 없이는 꼼짝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를 거치면서 말 자체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스어는 1850년대 문서를 가져다주어도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원어 성경의 뒷에 걸리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원어 성경 안에만 자신의 단어들을 가두어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 자체가 변할 뿐 아니라 같은 단어가 여러 개의 뜻을 갖습니다. 그러면 원어를 읽고 어떤 것이 맞는 뜻인지 누가 어떻게 정할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ye, comfort ye my people, saith your God.

여기서 ‘위로하라’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나함’입니다(스트롱 번호 5162).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한숨 쉬다’, 즉 강하게 ‘숨 쉬다’, 함축적으로 ‘눕우치다’, 즉 (호의적인 의미로) ‘동정하다’, ‘위로하다’, 혹은 (재귀적으로) ‘후회하다’ 또는 (비호의

적으로) ‘원수를 갚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단어가 사사기 21장 15절에서는 ‘뉘우치다’로 번역되었습니다.

백성이 베냐민으로 인해 뉘우쳤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한 지파를 깨뜨리셨기 때문이더라.

And the people repented them for Benjamin, because that the LORD had made a breach in the tribes of Israel.

즉 동일한 히브리어가 영어로 ‘comfort’도 되고 ‘repent’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른 것을 누가 최종적으로 구분해 줄까요?

이제 사사기 2장 18절을 봅시다.

**주께서** 그들을 위해 재판관들을 일으키실 때에 **주께서** 그 재판관과 함께하셨으며 그 재판관이 *살아*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 손에서 구출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로 인해 그들이 신음하므로 **주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더라.

여기에는 재판관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쇼파트’ 혹은 ‘쇄파트(스트롱 번호 8199)’로서 ‘재판하다’, 즉 ‘판결을 선고하다’, 함축적으로 ‘정당함을 입증하다’ 또는 ‘벌주다’, ‘보복하다’ 등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기하 18장 19절에서는 동일한 단어가 ‘원수를 갚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이제 내가 달려가 **주께서** 왕의 원수들에게 원수 갚은 소식을 왕께 전하게 하소서, 하니

Then said Ahimaaz the son of Zadok, Let me now run, and bear the king tidings, how that the LORD hath avenged him of his enemies.

한편 시편 82편 3절에서는 같은 단어가 ‘보호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아버지 없는 자를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와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며

Defend the poor and fatherless: do justice to the afflicted and needy.

자, 누가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 히브리어 ‘쇼파트’의 뜻을 확정할까요?

이것은 그리스어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And in hell he lift up his eyes, being in torments, and seeth Abraham afar off, and Lazarus in his bosom.

여기서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 ‘하데스(스트롱 번호 86)’로서 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죽은 자의 거처’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총 11회 나옵니다(마11:2; 16:18; 눅10:15; 16:23; 행2:27; 2:31; 고전15:55; 계1:18; 6:8; 20:13; 20:14). 이 중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는 이 단어가 무덤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O death, where *is* thy sting? O grave, where *is* thy victory?

자, 누가 그리스어 하데스를 지옥으로 혹은 무덤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즉 누가 말씀의 최종 권위일까요? 하데스만으로 문제가 안 풀립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11군데의 하데스 중에서 고전15:55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군데를 지옥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어 하데스의 뜻이 지옥 10번, 무덤 1번으로 확정되었다고 믿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역본들은 거의 다 음부나 하데스로 애매모호하게 처리해 냈습니다(개역성경, NIV 등). 반면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킹제임스 성경은 확신 있게 하데스를 10:1 비율로 지옥과 무덤으로 번역하였고 이 번역의 결과를 가지고 이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고 세상의 신학이 모두 정립되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학은 1611년 이후에 킹제임스 성경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하면서 잠시 히브리어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 교수가 히브리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 주었습니다. 잘 정리된 글이니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히브리어와 영어는 속성상 구조가 다른 언어이다.

1. 히브리어는 자음(22)만으로 글자가 구성된다(영어는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다).
2. 히브리어는 관사(the)는 있지만 부정관사(a, an)가 없다(영어는 정관사와 부정관사 모두 있다).
3. 히브리어는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없다(영어는 대문자와 소문자 구별이 아주 중요하다. 이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God와 god. 그러나 히브리의 ‘엘로힘’은 대소문자 구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뜻이 모두 포함된다).
4. 히브리어는 ‘be’ 동사가 없다/단 ‘존재하다’는 특별 동사가 있다(영어는 be 동사가 없이 문장을 구성할 수 없다. ex) I am Ruth.) Be 동사가 없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am, are, is를 이탤릭체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존재의 의미를 표현해야 할 때에는 그대로 사용했다. ex) I AM THAT I AM.
5. 히브리어에는 현재형이 없다. 오직 ‘완료’와 ‘미완료’ 밖에는 없다. 엄밀하게 말해서

‘시제’ 자체가 없다. 동작의 속성이나 성질에 따라서 완료와 미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I AM THAT I AM”은 현재형을 나타내는 ‘am’이 아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히브리어의 완료와 미완료를 영어로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영어는 12가지 시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리되지만 히브리어의 시제는 동작의 상태나 속성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이다.

6. 히브리어는 소유(have) 동사가 없다. 그래서 항상 누구누구에게 속했다는 표현을 쓴다.
7. 히브리어는 단어의 기본형은 항상 3인칭이다.
8. 히브리어의 명사에는 남성과 여성은 있지만 중성이 없다.
9. 히브리어에는 복수 대명사도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어 있다(영어로 they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지만 히브리어로는 알 수 있다).
10. 히브리어에는 하나의 접속사밖에 없다. 그 하나가 ‘and’도 되고 ‘but’도 되고 ‘therefore’도 된다. 문장의 상황에 따라서 접속사의 의미가 달라진다.
11. 히브리어는 형용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명사 안에 2차적인 뜻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ex) 코는 단순히 코가 아니라 분노를 나타내는 말로도 쓰인다.

원어를 거론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목사가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김성수 목사가 이렇게 하여 영광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를 다녔고 미국에서 신학하고 목회하다가 들어와서 남들과 달리 신선하게 하는 것 같으니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그분은 설교와 원어 해설 시간을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설교 시간에 원어를 설교하면 이로써 자연스레 신분이 구분되고 성도들은 목사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즉 목사는 은근히 성도를 누르는 니콜라당이 됩니다.

사실 히브리어 강의를 한 학기 듣거나 히브리어 문법책을 읽으면 누구라도 이런 차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교수나 혹은 그것을 들은 학생이 주장하려는 요점은 “영어와 히브리어가 이렇게 다르므로 언어적 한계가 있어서 히브리어가 아니고는 제대로 뜻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은 최종적인 권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수로부터 이런 강의를 들은 이후에 학생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최종 권위구나. 히브리어를 더 많이 공부해야겠구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이제부터 그들의 최종 권위는 히브리어 혹은 그리스어 사전이 됩니다. 신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사전은 거의 불신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또 그런 사전들의 대다수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다수 사본을 배격하고 천주교 소수 사본을 옹호하는 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

다. 그러므로 그런 사전으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킹제임스 성경과는 거리가 먼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학생은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부분을 많이 보면 볼수록 엄청난 금광을 발견했다는 희열을 점점 더 크게 느끼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평생토록 '최종 권위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성경을 확고히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들로 치부하며 진리를 모르는 그 불쌍한 성도들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겠다면서 자신감에 차서 다닙니다.

자, 이런 이들이 즐겨 인용하는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는 아모스 4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베엘로 가서 범법하고 길갈에서 범법을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삼 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

개역성경, NIV 등: 베엘에 들어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제물을 가져오며, 삼일 후에 십일조를 가져오고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히브리 원문대로 '3일'이라 번역하지 않고 '3년'으로 의역했다는 주장합니다. 과연 이것이 맞을까요? 성경이 무어라 말하는지 간단하게 조사를 해 봅시다.

먼저 「스트롱의 성구용어색인」에 가서 킹제임스 성경이 '3년'으로 번역한 단어를 찾아보면 색인 번호가 '구약 3117'로 되어 있고 이것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으며 킹제임스 성경의 용례도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명사 '욘'(스트롱 번호 3117)의 정의
yowm (yome); from an unused root meaning to be hot; a day (as the warm hours), whether literal (from sunrise to sunset, or from one sunset to the next), or figurative (a space of time defined by an associated term), [often used adverb]:
KJV - age, + always, + chronicals, continually (-ance), daily, ([birth-], each, to) day, (now a, two) days (agone), + elder, X end, + evening, + (for) ever (-lasting, -more), X full, life, as (so) long as (... live), (even) now, + old, + outlived, + perpetually, presently, + remaineth, X required, season, X since, space, then, (process of) time, + as at other times, + in trouble, weather, (as) when, (a, the, within a) while (that), X whole (+age), (full) year (-ly), + younger.

이것을 통해 우리는 여기 쓰인 히브리 단어 '욘'이 주로 '날'을 가리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말에서나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으며 이 히브리 단어 역시 '날' 말고도 분명히 '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용례의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를 보면 밑줄 친

것과 같이 ‘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어가 ‘년’으로 번역된 곳을 찾아가 봅시다. 여러분이 「Englishman's Concordance」를 가지고 있으면 그 책에서 스트롱 번호 ‘구약 3117’을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단어가 쓰인 곳과 번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더욱 편할 것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 히브리 단어는 대부분 ‘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끝나면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25장 29절에 가보니 이 단어가 드디어 ‘년’으로 번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벽을 두른 도시 안에 있는 거주용 집을 팔면 그 집을 판 뒤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으므로 만 일 년 안에 그것을 무를 수 있으나

여기에도 분명히 동일한 히브리어 ‘욘’이 쓰였지만 그 단어를 ‘날’로 하면 안 되기에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그 단어의 또 다른 의미인 ‘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현대 역본들은 다르게 했을까요?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개역성경, NIV, NASB 모두 ‘년’으로 되어 있음)

보시다시피 모든 현대 역본들도 여기에서 동일한 히브리어를 ‘년’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여기서 의역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그 히브리어의 뜻 가운데 ‘년’이 있음을 알았기에 여기서 정확하게 ‘년’이라 번역했습니다.

자, 더 확신을 갖기 위해 민수기 9장 22절을 봅시다.

이들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그 위에 남아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흠정역)

물론 NIV, NASV, 개역성경도 동일한 히브리어를 여기서 다 ‘일 년’으로 번역했습니다.

이들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이 성막...(개역성경, NIV, NASB)

이제 우리는 문제가 되었던 아모스 4장 4절의 히브리어 ‘욘’이 ‘하루’로도 번역되고 또 ‘일 년’으로도 번역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의 ‘3년’과 개역성경 등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의 ‘3일’과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성경에서 십일조가 언급된 구절을 살펴보면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십일조에 대한 언급은 있어도 ‘3일’마다 드리는 십일조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삼 년이 끝날 때에 너는 바로 그 해에 거둔 네 소출의 십일조를 모두 가져다가 네 성문들 안에 저장하여(신14:28)

셋째 해 곧 십일조를 드리는 해에 너는 네 소출의 모든 십일조 드리기를 마치고 그것을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에게 주어 그들이 네 성문들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신26:12).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아모스 4장 4절을 ‘3년’이라고 바르게 번역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항상 성경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에서 최종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게 된 지혜로운 성도들은 히브리어 강의를 듣거나 문법책을 읽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잡한 원어의 모든 뜻을 일대일 대응시켜가며 영어로 정확히 번역해서 킹제임스 성경에 보존해 주셨구나. is, am 등이 원어에 없으므로 말이 되게 넣으면서 이탤릭체로 표시하여 원어에 없었음을 알게 하시고 또 정관사, 부정관사, 접속사 하나까지, 대문자 God, 소문자 god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크신 섭리로 바르게 인도해 주셨구나. 이 완전한 성경이 내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내 손에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1611년 이후로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지금까지 만민의 공통어인 영어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해 주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을 알려 주는 성경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서신 원본을 가져다주어도 그들은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주장하며 킹제임스 성경은 단지 역본에 지나지 않으므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이 나타나면 옆에 있는 원본 성경을 주고 읽고 해석해 보라고 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런 분들이 최종 권위라고 주장하는 ‘1524년판 벤카임 마소라 본문의 여호수아기’입니다. 여호수아기도 가르쳐 주지 말고 일단 무슨 책이냐고 물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보라고 해 보십시오.<sup>172)</sup>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들을 하늘에만 두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다음의 말씀이 가능할까요?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없다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때나 지금이나 완전한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는

---

172) 원어를 주장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벤카임 사본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다가와서 원어로 장난을 치려 하거든 그들이 구경도 못한 벤카임 사본을 보여 주며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네 원본을 보기도 했나? 나는 원본이 있어. 줄 테니 가져가서 읽어 봐.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을 그대로 완벽하게 옮겨 놓은 성경이야. 괜히 보지도 읽지도 못하는 성경으로 성도들 믿음을 파괴하지 말고 자네 손에 있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갖게나!”



1524년판 벵카임 마소라 본문 여호수아기

그 완전한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히브리어든 그리스어든 원본 자체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까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적인 잣대로 은혜롭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성경 신자입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원어의 단어들을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 성경을 향상한 특별 계시가 아닙니다. 만민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원어의 모든 단어를 일대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의 실질적인 최종 권위요, 유일한 최종 권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어들 그대로가 만민의 공통 언어로 보존된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할렐루야!

## 메시지는 MSG이다!

요즘 피터슨(Eugene Peterson)의 「메시지」(Message) 열풍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피터슨은 장로교 목사로 거의 평생을 보내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메시지」(Message)를 만들어 파급시킨 영성/신비주의자입니다. 그는 관상기도, 수행, 신비 계시 등을 추구하는 마담 귀용, 아빌라의 테레사, 노르위치의 줄리아, 이그나셔스 로올라, 리처드 포스터, 달라스 워라드 등의 카톨릭 신비주의자들에 심취하여 잘못된 것들을 기독교계에 파급시킨 위험인물입니다.

영어 「메시지」는 1993년에 신약이, 2002년에 신구약 합본이 나왔고 국내에서는 신약이 출간되었고 현재 구약까지 완역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시지」를 선전하는 광고 문구입니다.

1. 「메시지」는 일상의 언어로 쓰인 「읽는 성경」입니다. 「메시지」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주려는 한 목회자의 열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받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교인들이 성경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그들이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로 ‘갈라디아서’를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걸쳐 완성된 그 번역을 읽은 교인들은, 성경이 능히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다른 도움 없이도 읽어 낼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거리와 시장과 식탁에서 사용하는 언어,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과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2. 「메시지」는 성경 원문을 학문적으로 충실히 옮긴 성경입니다. 「메시지」는 평생을 원어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쳐 온 학자이자 35년을 목회자로 살아온 저자 유진 피터슨의 모든 것이 녹아든 평생의 결실입니다. 그는 이미 좋은 번역본이 많이 나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좀 더 생명력 있고 인상 깊게 전하는 데 적합한 오늘의 언어로 의역(paraphrase)했습니다. 10년의 세월 동안 주 5일 하루 6시간을 이 번역 작업에 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지」는 한 개인의 신학과 목회적 배경과 역사를 지닌 사역(私譯)이지만, 복미의 신뢰받는 신구약학 학자들의 감수를 통해 학문적으로 검증을 받았습니다.
3. 「메시지」는 1천만 독자가 선택한 성경입니다. 1993년 신약 출간, 2002년 완역본이 출간된 이후, 영미권에서만 1천만 독자들이 「메시지」를 선택해서 읽고 있습니다. 기존의 성경을 돕고 보완해 주는 탁월한 ‘보조 성경’으로, 본문의 의미를 살아나게 하는 ‘성경 옆의 성경’으로, 「메시지」는 의미역 성경 가운데 가장 광범위하게 읽히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4. 「메시지」는 당신을 위한 성경입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읽어 왔기에 성경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낮은 사람들, 성경을 공부하려는 사람이나

홀로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픈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성경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 성경을 한번 읽어 봐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구도자나 믿지 않는 친구들... 「메시지」는 바로 당신을 위한 성경입니다.

한국에 피터슨을 소개한 사람은 고(故) 하용조 목사와 이동원 목사입니다. 특히 이동원 목사는 「메시지」의 전도사로 자처하며 다음과 같은 추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자에게 직접 그의 저작인 「메시지」의 저술 동기를 묻은 적이 있습니다. 유진은 순전히 '목회적 동기'였다고 대답했습니다. 교인들이 성경 읽기를 너무 어려워 하고, 말은 안 하지만 성경 읽기의 당위성을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죄책감에서 교인들을 해방하고 즐겁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울 길은 없을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이 책 「메시지」입니다.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영어 성경을 이 「메시지」로 읽어 왔습니다. 얼마나 쉽고 흥미까지 있는지요! 그러면서도 이 책은 성경 원문의 표현을 벗어나지 않는 학문적 엄밀성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흥미를 느끼며 성경을 독파할 다시없는 우리 시대의 대안으로, 단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외에도 국내에서 다음과 같이 유명한 이들이 혀에 침을 발라가며 「메시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가장 적절하게 잘 드러낸 최선의 번역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이름 그대로 독자들에게 살아 있는 메시지로 들려질 수 있는 번역이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이때에, 이 「메시지」가 많은 독자들에게 영의 양식이 될 줄 확신하는 바이다. - 임영수 목사(모새골 공동체)

성경은 자구(字句)를 따져 가며 세심히 읽어야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대하시며 건네시는 생생한 일상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살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신앙의 내용도 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데 이 책 「메시지」는 크나큰 유익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 박영선 목사(남포교회)

「메시지」는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단어들에 담아 생동감 있게 전해 줍니다. 성경의 원문에 충실한 바른 번역이 살아 있는 언어로 더욱 빛을 발하는 「메시지」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든 오랫동안 상고해 온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깊이 파고드는 생명력 있는 진리의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와 미래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크게 쓰일 것입니다. - 오정현 목사(사랑의 교회)

나는 「메시지」 출간으로, 한반도에 사는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성경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유진 피터슨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지만 학문적인 엄밀성도 갖춰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

성경을 공부해 온 사람이나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 없는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말씀이 되게 했다. 「메시지」는 아이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고, 학자들도 물론 읽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사용하셔서 서, 이 땅 한반도가 그분의 살아 있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한다. - 오대원 목사(예수전도단 설립자)

또한 국외에서는 배도자로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을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 인사들이 메시지를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내가 아는 성경의 최근 번역본 중에 가장 역동적인 성경이다. 「메시지」는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다. 성경을 많이 읽어 온 사람은 이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 빌리 그레이엄

「메시지」는 성경 본래의 목소리를 생생한 언어로 전해 주는 성경이다. 강력하게 추천한다. - 리처드 포스터(「영적 훈련과 성장」 저자)

학자적 엄밀성과 생생한 표현이 잘 어우러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다양한 성경 번역본 가운데 단연 돋보이고 뛰어난 성경이다. 성경 원문의 논리적 흐름과 활력적인 정서, 함축된 의미들이 탁월하게 되살아난다. - 제임스 I. 패커(「하나님을 아는 지식」 저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이들이 「메시지」에 흠뻑 빠져 극도의 찬양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문식 목사(산울교회),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김기석 목사(청파교회),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김형국 목사(나들목교회), 김중안(한국기독교학생회 IVF 대표), 이윤복(쫄이선교회 대표), 한철호(선교한국 파트너스 상임위원장), 정민영(국제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 부대표), 권영석(학원복음화협의회 상임대표), 서재석(Young2080 대표), 고(故) 안수현(「그 청년 바보의사」 저자), 하덕규(CCM 아티스트), 홍순관(CCM 아티스트), 조수아(CCM 아티스트), 조준모(CCM 아티스트,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왕대일 교수(감리교 신학 대학교 구약학), 배정훈 교수(장로회 신학 대학교 구약학), 류호준 교수(백석대학교 구약학), 차준희 교수(한세대학교 구약학), 전성민 교수(웨스트민스터 신학 대학원 대학교 구약학), 고든 피(리젠트 칼리지 신약학 교수), 달라스 윌라드(「하나님의 모략」 저자), 빌 하이벨스(윌로우크릭커뮤니티교회 담임목사), 프레드릭 뷰크너(「하나님을 향한 여정」 저자), 보노(록그룹 U2 리드싱어), 마이클 카드(CCM 아티스트), 에이미 그랜트(CCM 아티스트), 맥스 루케이도(「예수님처럼」 저자), 레베카 피펫(「빛으로 소금으로」 저자), 조니 에릭슨 타다(「하나님의 눈물」 저자),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이처럼 대단히 유명한 분들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추천하다 보니 순진한 성도들은 이것이 좋은 성경인가 보다 하고 미끼에 빠져들고 맙니다.

「메시지」는 저자인 피터슨이 말한 대로 ‘완전 의역 성경’(?)이므로 ‘성경’이라는 말 자체를 붙여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의역했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적었다는

것이므로 이런 책은 사실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피터슨은 또한 이것을 가리켜 스스로 ‘소설 같은 책’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메시지」는 소설이나 다름없는 책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소설보다 위험하고 무서운 책입니다. 순진한 양들이 이것을 소설이 아닌 성경으로 여기고 읽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분은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이 책은 유진 피터슨을 빙자해 성경 원문을 현대 한국 일상어로 읽어 내려는 발칙한 음모의 소산이다. 꽤 잘나가는 전문번역자들과 믿었던 성서학자들이 이 소란에 줄줄이 동원된 듯하다. 신속 과감하게 이 작전을 배후에서 조종한 출판사의 배포에 움찔했다. 「메시지」에 부화뇌동할 젊은 세대들과 초신자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 벌써부터 걱정이다.

「메시지」는 NIV를 이어 뉴에이지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영이 마련한 작품입니다.

성경이 주어진 목적은 다음과 같이 명백합니다.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성경은 사람의 운명을 영원토록 결정해 주는 교리의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해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사느냐, 마귀와 함께 불타는 지옥에서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절대로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방법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 책은 말 그대로 사람을 잡는 책이 되고 맙니다. 그런 면에서 「메시지」는 사람을 갇아먹는 조미료, 즉 MSG이고 사실은 MSG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책입니다. 먼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봅시다.

KJB: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

MSG: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귀 기울여 듣지 않는구나. 다시 말해 주겠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인 창조 과정을 거쳐야 한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을 통한 창조,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이끄는 세례, 이 과정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과연 물세례가 사람을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니까? 이것은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세례 중생 교리입니다. 머리에 물을 100번, 1,000번 뿌리거나 심지어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를 받았다 해도 이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으려면 영이 가난해야 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MSG는 이것을 벼랑 끝에 서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KJB: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마5:3)

MSG: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사람이 벼랑 끝에 서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위기에 몰리든지 그런 상황으로 인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이 가난한 사람만을 기뻐하고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기록합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17:3).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MSG는 이런 것을 흐리게 만듭니다.

KJB: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the only begotten Son)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요1:18).

MSG: 아버지의 심장에 계신 분,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모습 표현이신(this one-of-a-kind God-expression) 그분께서 하나님을 대낮처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셨다.

예수님이 한 종류의 ‘하나님의 표현’이라면 하나님은 여러 종류의 표현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뉴에이지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10:30에서 예수님은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MSG는 신성모독의 발언을 합니다.

KJB: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요10:30).

MSG: 나와 아버지는 한마음 한 뜻이니라.

MSG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과연 성경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은 일을 두고 MSG는 마귀와 짜고 친 고스톱이라고 말합니다.

KJB: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마귀들의 통치자를 통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더라(마9:34).

MSG: 바리새인들은 흥분해서 중얼거렸다. “속임수다. 속임수에 불과하다. 아마 마귀와 짜고 한 일일 것이다.”

또한 모든 천사들 - 권력, 권능, 치리 - 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 MSG에서는 우주와 망원경 이야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KJB: 또 너희는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골2:10)

MSG: 그리스도의 총만하심을 알고 또 그분 없이는 우주가 공허하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망원경이나 현미경이나 점성술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교리적으로 부패된 뉴에이지 책을 두고는 “「메시지」는 천상의 언어를 알아듣기 쉬운 일상의 언어로 번역한 성육신적 성경입니다. 어느 것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거나 혹은 “「메시지」는 현재 성경에 다가갈 수 있는 최고의 성경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까지 자신의 모든 말씀을 담은 성경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우리 손 안에 들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바로 그 책입니다. 이 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 번역과 반역 사이에서: 기계적 일치 번역 No!

안녕하세요?<sup>173)</sup>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뒤 출판사를 운영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이메일을 받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도 서너 개가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한 형제님께서 몇 군데 교정할 곳이 있다고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형제님은 미국인 목사님이 시무하는 교회에 다닙니다. 그래서 늘 흥정역 한영대역 성경을 보시다가 발견한 몇 가지 의견을 모아서 이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의견들을 보면서 영어를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내 주신 교정 요청 의견을 일단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 중에는 반역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제 고민이 늘어갑니다. 영어 식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그래서 다 그만두고 죽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여하튼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그 형제님은 그 뒤에 자기 의견을 다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따뜻한 위로와 함께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알면 알수록 하면 할수록 번역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서문에서 번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문을 남겼습니다.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겹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주며 휘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준다. 번역은, 야곱이 우물 어귀에서 돌을 굴러내고 물을 길어 라반의 양 떼들에게 물을 주었던 것처럼(창29:10), 우물의 뚜껑을 열어 우리가 물로 나가게 해 준다. 참으로 보통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두레박이나 물 길은 그릇이 없이(요4:11) 야곱의 그 (깊은) 우물 옆에 서 있는 아이들과 같고 이사야서에 언급된 사람, 즉 봉인된 책을 넘겨받아 읽을 것을 요구받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이처럼 번역은 글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통해 글에 생명력을 넣으려면 문맥에 따라 단어들의 뜻을 잘 고려해서 합당하고 적절하게 번역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든 그리스어든 영어든 한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단어 자체의 기본적인 뜻이 있지만 거기서 파생된 의미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

173) 이것은 2015년 5월 11일에 정동수 목사가 KeepBible 사이트에 올린 글이다.

1880년대에 나온 영국개역성경(ERV)의 실패에 대해 「사본의 증거」(Manuscript evidence)를 기록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ERV는 본문도 문제지만 기계적으로 번역해서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글이든 말이든 살아 있으려면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맞게 잘 번역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독자들이 번역된 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비로소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한국인 모두가 영어를 배우다 보니 흠정역 한영대역 성경을 보시고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번역의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영어로 pea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429회 나오는 이 단어는 흠정역 성경에 화평, 평화, 평안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왜 모두 평화로 번역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영어로는 peace 하나로 화평, 평화, 평안 등이 다 표현되지만 우리말로는 안 되므로 각각의 문맥에 맞게 구분해서 번역해야 합니다. 그래야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듯이 합당하고 적절한 우리말 번역으로 독자들을 이해하게 하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peace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그리스어도 10여 개나 됩니다. 이것을 영어는 peace 하나로 번역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6장에서 대언자는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얼마 있다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해야 하므로 그들에게는 실제로 평안, 즉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이 없는데도 거짓 대언자들은 그들이 평안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의 peace는 당연히 불안에 대비되는 평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거짓 대언자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 주고는 평안(peace)이 없는데도 이르기를, 평안하다(peace), 평안하다(peace), 하였도다(렘6:14).

이런 식으로 같은 영어 단어라도 어떤 경우에는 미묘한 차이를 살려 달리 번역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번역이 살아납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그런 의미로 peace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평화 협정'을 말할 때의 '평화'처럼 '전쟁과 대비되는 peace'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영어만 가지고 번역하면 줄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eople이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사람들도 되고 한 나라 백성도 됩니다. 특히 히브리어/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people과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는 people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사람들과 백성을 모두 동일하게 people로 번역하였습니다. 미국/영국 사람들은 앞뒤 문맥을 보고 people이 사람들인지 백성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말로는 구분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문맥과 더불어 'English men's concordance' 등을

사용해서 바르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이런 과정을 통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바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 권위를 무시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저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무결함을 믿고 그 뜻대로 바르게 번역했을 뿐입니다.

이제 다음의 몇몇 사례를 통해 번역의 미묘함을 살펴보겠습니다.

### 1. 신명기 10장 13절 등의 good과 goodness

신명기 10장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이에 대한 답이 13절입니다.

내가 이날 네 행복을 위해 네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들과 그분의 법규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우리말로만 읽으면 여기의 ‘행복’은 ‘happiness’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영어로 가서 보시면 ‘good’으로 되어 있습니다.

To keep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 and his statutes, which I command thee this day for thy good.

제게 이메일을 보내신 분은 아마도 이것을 오역이라고 생각하고 제게 알려 주신 것 같습니다. 즉 핵심은 good을 왜 선 혹은 선함이라고 번역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절을 ‘네 선을 위하여’ 혹은 ‘네 선함을 위하여’라고 번역하면 말이 될까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는 good이지 goodness가 아닙니다. 즉 good 자체가 명확히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good이라는 명사의 뜻을 사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 스마트폰에 뉴에이스 영한사전이 있어서 good의 뜻을 보았습니다.

good(명사): 1. 이익, 복리, 이로운 것 2. 탁월한 점, 장점 3. 선

즉 명사 good은 좋은 것, 복된 것, 유익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good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베(스트롱 번호 2896)를 보니 이 말은 영어 KJB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습니다.

beautiful, best, better, bountiful, cheerful, at ease, X fair (word), (be in) favour, fine, glad, good (deed, -lier, -liest, -ly, -ness, -s), graciously, joyful, kindly, kindness, liketh (best), loving, merry, X most, pleasant, + pleaseth, pleasure, precious, prosperity(번영), ready, sweet, wealth(재물), welfare(복지), (be) well ([-favoured]).

명사형의 경우 영한사전처럼 영어 KJB의 good은 prosperity(번영), wealth(재물), welfare(복지)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10:13의 경우 ‘네 행복을 위해’, ‘네 복을 위해’, ‘네 번영을 위해’, ‘네 복지를 위해’로 번역하면 우리말로 바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네 선을 위해’ 혹은 ‘네 선함을 위해’는 줄역(심하게 말하면 오역)입니다. 욥기 5장 27절, 시편 122편 9절의 good도 같은 경우입니다.

이것을 보라.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이 사실이니 너는 그것을 듣고 네 유익을 위해(for thy good) 그것을 알라, 하니라(욥5:27).

주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해 내가 네 복을(thy good) 구하리로다(시122:9).

good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선함들’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goods는 상품으로 번역됩니다.

## 2. full, fill 등

친구끼리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 배고파?

아니, 나 배불러.

이런데 우리말 ‘배’가 나온다고 영어 belly, stomach를 생각하면 영어가 안 되지요. “Are you hungry?”, “No, I am full.”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번역했더니 어떤 분이 ‘full’을 ‘찻어’라고 번역하지 않아 오역이라고 한다면 맞는 지적일까요?

full, fill 등은 물론 ‘차다’가 1차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대화가 오가는 문맥에 따라 그것은 배부름을 뜻합니다. 영한사전에도 당연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fill: ~+목/ +목+전+명

가득하게 하다, 채우다; ---에 (잔뜩) 채워 넣다; ---에 내용을 채워 넣다

(아무를) 배부르게 하다; 만족시키다, 흡족하게 하다.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Blessed *are* they which do hunger and thirst after righteousness: for they shall be filled.

이 구절의 경우에도 끝의 filled를 “그들이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요”로 하지 않아 유감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여기의 문맥은 먹고 마시는 것이므로 ‘배부르다’로 해야 맞는 번역입니다.

동일한 말이 마태복음 14장 20절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먹고 배불렀으며 남아 있는 조각들을 저들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는데 (마14:20)

And they did all eat, and were filled: and they took up of the fragments that remained twelve baskets full.

물론 여기서도 fill은 '배부르다'의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fill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코르타조, 스트롱 번호 5526)는 음식을 먹는 데만 사용되었습니다.

반면에 '채우다'로 해야만 하는 fill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깎지 아니하니 그리하면 그것을 메운 새 조각이 낡은 옷을 당기어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느니라(막2:21).

No man also seweth a piece of new cloth on an old garment: else the new piece that filled it up taketh away from the old, and the rent is made worse.

이 경우 그리스 말은 '플레이쏘'(스트롱 번호 4130 혹은 4138)이며 뜻은 '빈 공간을 채우다, 메우다, 성령님으로 혹은 지혜로 채우다' 등입니다(눅1:67; 2:40 등 다수 구절).

따라서 번역자는 같은 영어 단어 fill이라도 각각의 문맥에 맞게 '배부르다, 채우다, 메우다' 등으로 구분해서 번역해 주어야 합니다. fill을 다 '채우다'로 해도 뜻은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줄역이 됩니다.

비교적 영어에 능숙해 영어 성경을 즐겨 보시는 분들이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영어는 절대 원어를 넘지 못합니다. 영어는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했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영어로 원어를 교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퍼거든 속히 그에게서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영어 만능주의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마치 성경 해석에 있어 항상 원어를 들먹이며 자기 마음대로 영해를 일삼는 신학자와 목사들 못지않게 오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어의 역할은 성경의 단어, 시제, 단복수 등을 원어의 단어, 시제, 단복수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여 표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절대 영어로 원어를 고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합당한 원칙에 관련된 모든 질문에 그때그때 일일이 답하지 못하는 저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같은 영어 단어라도 원래 뜻이 다르면(이것은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음) 구분해 주어야 바른 번역임을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 원어(배부르다, 채우다, 메우다)가 하나의 영어 단어(fill)로 쓰였고 그것을 다시 우리말로 옮길 때는 각각 문맥에 맞게 서로 다른 우리말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것을 파악하지 못한 채 흠정역 성경에 (이런 식의) 오류가 수천 개나 된다고 주장하면 이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합당한지는 현명한 독자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나의 영어 단어를 두 개의 우리말 단어로 번역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역시 번역자는 그 단어의 본래의 뜻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가적인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27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맹세로 봉헌된 자 곧 사람들 중에서 맹세로 봉헌될 자는 결코 속량되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죽일지니라.

None devoted, which shall be devoted of men, shall be redeemed; [but]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맹세로 봉헌된’에 해당하는 영어를 보시면 단순히 ‘devoted’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자가 ‘맹세로’를 자기 마음대로 집어넣었다고 항의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번역자라면 계시록 22장 18절의 저주를 잘 알고 있으므로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단어를 첨가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보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계 22:18)

그렇다면 왜 ‘맹세로’가 들어갔을까요? 영어 ‘devoted’와 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맹세로’의 뜻을 이미 내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devoted’는 영어 성경에서 단 7회 사용됩니다(레27:21, 28 2회, 29 2회, 민18:14, 시11:38). 옥스퍼드 사전을 보면 ‘devoted’는 ‘vowed; appropriated or set apart by a vow’(맹세에 의해 할당된 혹은 구분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맹세로 봉헌된’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모세의 의도가 전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성경도 ‘아주 바친 자’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21절을 보시면 ‘devoted’의 용례를 볼 수 있습니다.

희년이 되어 그 밭이 나갈 때에는 맹세로 봉헌된 밭(devoted field)으로서 주께 거룩할 것이므로 그 밭의 소유권이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여기서 ‘devoted field’는 ‘맹세로 주님께 봉헌되어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밭’이며 그래서 그것은 거룩하게 구분된 밭입니다. 2절이 이를 설명합니다.

29절 같은 경우도 이를 강조하기 위해 맨 앞에 none이라는 강세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28절에는 every라는 강세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즉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맹세로’를 빼면 이 성경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본래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봉헌된 것은 얼마든지 있지만 이 경우는 특별하게 맹세로 주님을 위한 용도로만 봉헌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살리기 위해 ‘맹세로’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절대 번역자가 임의대로 첨가한 것이 아니라 영어 'devoted'와 히브리 말 케렘(스트롱 번호 2764), 즉 '맹세로 운명이 정해졌음'을 나타내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번역입니다.

오늘은 잠시 번역에 대해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해 흠정역 성경 번역의 원칙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완전하게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합당하고 정확하게 번역해 나갈 수 있는지 그 이해를 깊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는 흠정역 성경이 결코 무오하다고 말하지 않으며 다만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번역을 잘못하면 반역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사이트 공지를 통해 부탁드렸듯이 앞으로 성경을 보시다가 교정 의견이 생기면 언제라도 기탄없이 [webmaster@KeepBible.com](mailto:webmaster@KeepBible.com)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교정판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주신 의견들 가운데 합당한 것들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흠정역 성경 번역에 관한 문제를 공개적으로 사이트에 올려 논쟁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자원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성원이 지금의 흠정역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앞으로도 하나님과 모든 성경 신자들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이 사역을 유지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패스터 정동수

(\*) 이와 관련해서 어떤 분이 friends를 왜 '친구들'로 번역하지 않고 몇 군데서는 '친지들'로 번역했느냐고 묻기에 잠시 답을 드립니다.

그분의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막3:21).

And when his friends heard [of it], they went out to lay hold on him: for they said, He is beside himself.

신약 성경에 가서 friends를 찾으면 그리스어는 딱 두 개로 나옵니다(스트롱 번호 3588, 5384). 저희는 전자는 친지로 후자는 친구로 번역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맥이 그리 말하기 때문입니다. 영어 사전에 가서 friends를 찾아봅시다.

friend: n. (단수) 벗, 친구 (복수) 근친, 육친

복수로 쓰일 때는 친지로 볼 수 있다고 일반 사전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friends를 ‘친지들’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런 데서 friends를 ‘친구들’이라고 해도 됩니다. 다만 ‘친지들’이 틀렸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이 경우 친지들이 영어, 원어, 우리말에 맞게 정확히 번역되었다고 믿습니다.

(\*) 한 분이 다음과 같이 매우 의미 있는 댓글을 남겼기에 간단히 글을 씁니다.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하고 싶은 문장을 넣고 번역을 해 보면 기계적 번역의 한계가 무엇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어머님의 사랑은 긴 장마 끝에 비치는 아침 햇살과 같다.”는 문장의 번역을 의뢰하였는데 그 번역하시는 분이 그것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넣어 “어머님의 사랑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다.”라고 번역을 하면 전달하려는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나 제가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던 말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듣고자 하시는 분은 이것이 무엇인지 금세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NIV, 리빙 바이블, 메시지 같은 성경들(?)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 어머니의 사랑은 긴 장마 끝에 비치는 아침 햇살과 같다.

NIV, 리빙 바이블, 메시지 등: 어머니의 사랑은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다.

그래서 형식적 일치와 문맥을 보고 동일한 단어를 잘 구분해서 번역하는 일이 성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축자 영감, 축자 보존, 축자 번역” 여기의 축자(逐字)는 ‘글자를 하나하나 그대로 따른 것’을 뜻합니다.

성경 번역을 전혀 해 보지도 않고 단어 몇 개 들먹이며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잠시 살 수 있으나 곧 마음이 떠납니다. 지난 400년의 데이터와 역사를 이기지 못하니까요.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느냐?(전8:4)

우리 왕이신 주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킹제임스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 킹제임스 성경의 증인: 「툼슨대역 한영성경」

안녕하세요?<sup>174)</sup>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아무리 많은 역사적 증거들, 특히 성경을 가장 오랫동안 연구해 온 영미권 학자들(심지어 에드워드 F. 힐즈 같은 성경 본문 비평 석학)의 데이터와 결론을 보여 드려도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여전히 의구심을 보입니다.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최종 권위의 성경이면 안 된다.”는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모든 것을 거기 꿰맞추기 때문입니다.

또 성경 사본학과 역사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없고 데이터가 심히 빈약한데도 자신만이 모든 것을 안다는 상상 속에 갇혀 무익한 글이나 이야기(대개 국내외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 모음)로 순진한 사람들을 오류로 이끄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는 저 푸르고 넓은 하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디 진실을 알고 인정하든지, 서로 믿음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는 지난 400년 동안의 참 역사이며, 사본학으로 말하건대 현존하는 모든 사본의 99%가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국내의 유명 신학자인 정성구 박사님의 킹제임스 성경 추천사를 보여 드렸고 또 그분께서 직접 소수 사본 최초 편찬자들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를 이단이라고 한 것도 말씀드렸습니다.<sup>175)</sup>

그럼에도 아직 의구심을 갖는 분들을 위해 또 다른 증거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킹제임스 성경 운동이 시작된 것은 1990년대 초반입니다. 따라서 국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나온 문서들은 대부분 1990년 이후에 출간된 것들입니다. 이러다 보니 객관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곤 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의 독보적 본문과 역사성 그리고 영미 문학의 백미로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이미 1989년도에 기독교회사가 펴낸 「툼슨대역 한영성경」이 역사의 정직한 증인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저는 1992년 3월에 귀국한 뒤 이 성경의 존재를 알고는 11월에 구매해서 오랫동안 읽고 지금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1,800여 쪽으로 구성된 「툼슨대역 한영성경」의 한글 본문은 개역성경이고 영어 본문은 킹제임스 성경이며 여기에는 관주, 66권 책 설명, 페이지마다 하단의 주석이

174) 이것은 2016년 4월 5일에 정동수 목사가 KeepBible 사이트에 ‘킹제임스 성경의 정직한 증인: 「툼슨대역 한영성경」’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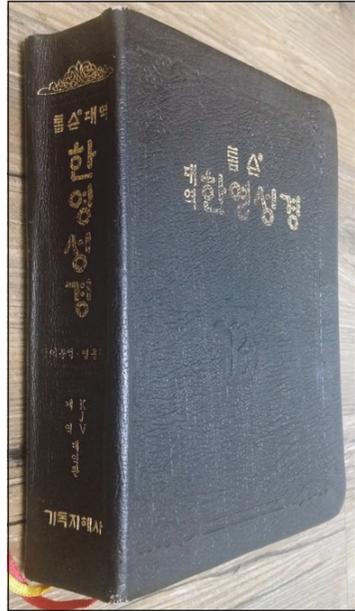
175) www.KeepBible.com 사이트 상단의 구글 검색에서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분들은 없는가?’로 검색하기 바람

있고 특히 부록에는 'KJV의 이해'라는 매우 귀중한 귀한 글이 들어 있습니다.

「툼슨대역 한영성경」의 주석, 설명, 관주 등은 미국에서 다수의 장로교인들과 개혁신교회 성도들, 그리고 감리교인들이 사랑하는 「툼슨체인참조성경」(*Thompson Chain Reference Bible*)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툼슨체인참조성경」은 1890년에 작업이 시작되었고 역시 킹제임스 성경을 본문으로 하는 성경입니다(위키백과 내 *Thompson\_Chain-Reference\_Bible* 항목 참조).

「툼슨대역 한영성경」 발행인인 강병도 목사님은 고신과 목사님으로 호크마 종합주석(30권)을 편찬하고 저술한 유명한 분입니다.

오늘은 「툼슨대역 한영성경」의 간행사와 부록 'KJV의 이해'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독보성과 역사성, 아름다움 등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부디 독자들께서는 속지 말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행20:28-32).

28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29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30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31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또한 사도 베드로가 유언으로 준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벧전5:8-9).

8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 1. 「툼슨대역 한영성경」 간행사

... (중략)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영어 성경이라도 수십 종에 이르는 역본이 있어서

역본 선정에 고심하였는바, 각계의 자문을 얻어 흠정역(Authorized Version)인 KJV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KJV는 현대의 역본이 지니지 못한 그윽하고 높은 문학적 향취와 영미 문화사에 기여한 전통적 권위, 그리고 신학적 정통성과 아울러 한글성경 번역에 있어서도 KJV가 중요 원전의 하나로 활용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17세기에 기록된 KJV의 영어를 낯설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영미 문화권에서는 공식 예배용 성경으로 거의 모든 교회가 KJV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KJV 영어의 현대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 (중략) 그리하여 영문학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KJV를 심층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피상적인 영어 이해를 극복한 영어의 진수에 접근하는 것은 물론, 그로 인하여 성경 본문의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1989년 2월 2일 발행인 강병도

## 2. 「툼슨대역 한영성경」 부록 ‘KJV의 이해’

### 1. KJV 번역 과정과 그 배경

King James Version(Authorized Version): 한 번도 교회나 왕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어떤 권위자가 인정한 것 이상으로 공인되어 영국인들에게 널리 보급되었다.

### 2. KJV 영어와 현대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에게 1600년대 초에 완성된 KJV 영어는 다소 낯선 느낌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 장에서 정리한 인칭 대명사의 형태와 몇몇 동사의 어형 변화를 숙지한다면 ‘영어 산문이 낳은 가장 뛰어난 불후의 저작’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KJV를 이해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3. KJV와 영미 문화

… (중략) 이는 KJV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세 방향에서 큰 공헌을 영어 발달사에 끼쳤다.

- a. 각 단어의 뜻의 통일
- b. 세련된 문장의 국민적 유포
- c. 표준어 정착의 강력한 매개 수단

… (중략) 현대에도 그가 기독교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영미의 문학가는 성경을 모르고는 문학 활동을 영위할 수 없으며 이 사실은 이미 성경 자체가 가장 위대한 문학의 극치이며 나아가 서구 사상의 근원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영미 문화권에 결정적으로 정착시킨 역본이 바로 KJV였던 것이다.

… (중략) 그러나 그 판단이야 어찌 됐든 과거 영미 문화가 KJV 등으로 대변되는 기독교적 영향 아래서 교육을 도모해 왔음은 엄연한 사실이다.

### … (중략) 3. 성경 통일의 지표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궁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며 만인이 수궁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바 이 점에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했던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툼슨대역 한영성경, 기독지혜사, 부록 1, 4쪽, 1989).

### … (중략) 4. 새로운 성경 번역의 자극제와 기준

현재의 한글 개역성경도 백여 년의 선교사에서 수차례의 질고를 거쳐 완역된 것으로 그동안 한국 사회 전체에 지대한 공헌을 끼쳐 온 우수한 역본이다. 그러기에 동시에 더욱 정확하고 더욱 아름다운 성경 번역이 요청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글 개역 성경이 절대 완전한 역본은 아니므로 더욱더 훌륭한 새로운 역본이 요청되는 것이고 또 번역자들은 KJV같이 우수한 역본이 그토록 큰 공헌을 한 것을 기억하며 비록 그 길이 멀고 험하지만 큰 의욕으로 성경 개역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

존귀하신 창조자 하나님 말씀에 사랑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자 성령님의 큰 평안이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샬롬! 패스터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Heaven and earth shall pass away, but my words shall not pass away.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The words of the LORD are pure words: as silver tried in a furnace of earth, purified seven times. Thou shalt keep them, O LORD, thou shalt preserve them from this generation for ever.

#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קיתה תהו ובהו וחשך על  
ההום ורוח אלהים כרחפת

히브리어 구약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함

원래의 기록  
(자필 원본)

BIBLOS γενέσεως  
'Ιησου χριστου, υιου  
Δαβιδ, υιου' Αβραάμ.  
'Αβραάμ. ἐγέννησεν

그리스어 신약 성경

히브리어/그리스어 전통 본문  
모든 사본 중 가장 신실한 것들

번역본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성경

번역자들  
오직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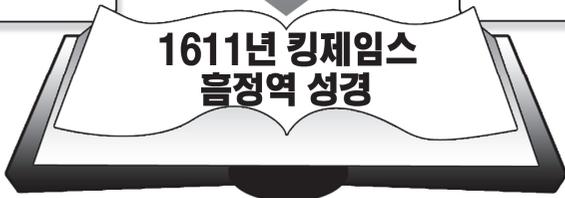
번역기술  
단어 대 단어의  
'축자 번역'  
'동적 일치 배제'

종교 개혁의 정신과  
함께 중요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보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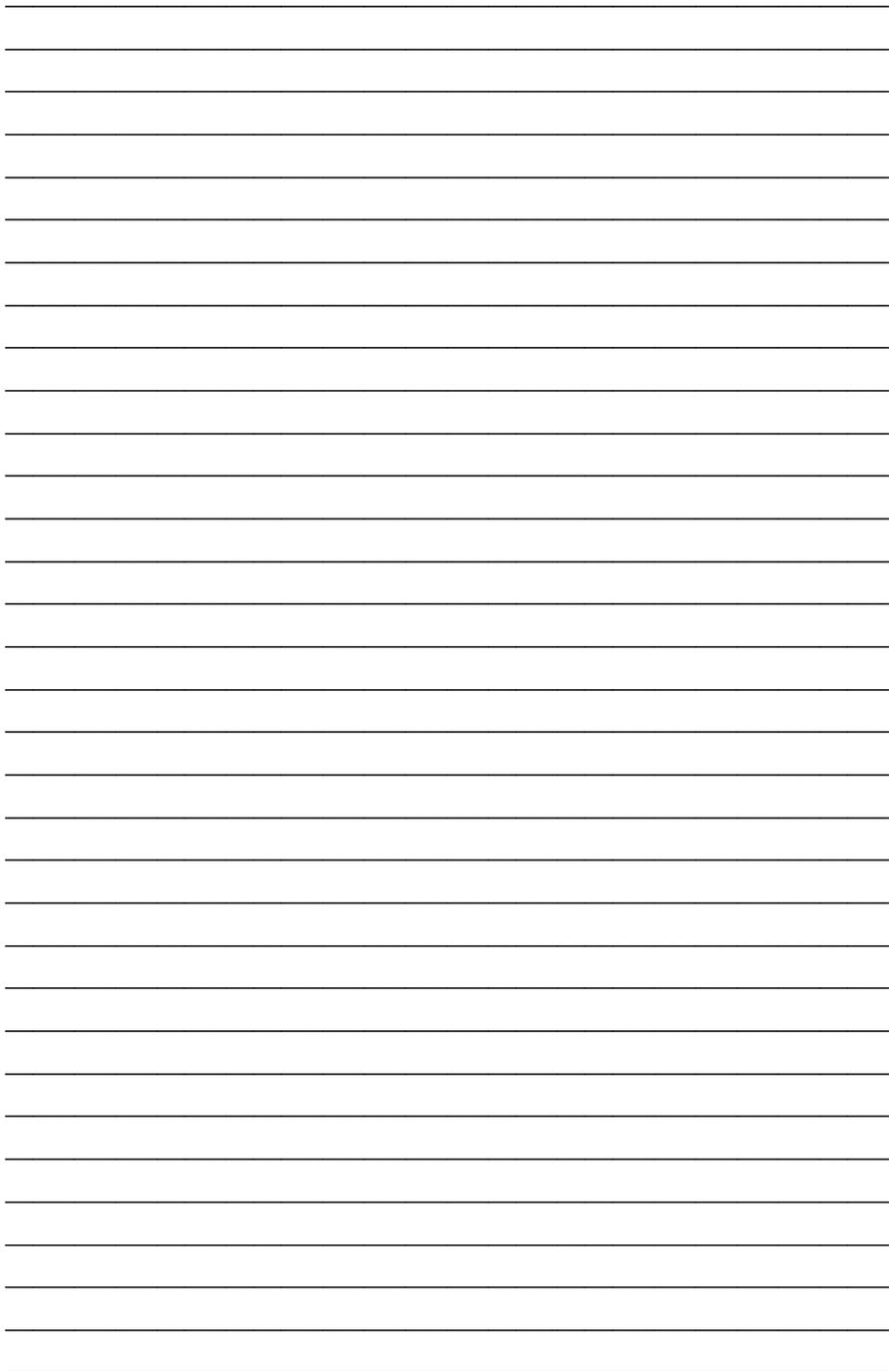
킹제임스 성경의 선구자들

윌리엄스 성경	1382
틴대일 성경	1525
커버데일 성경	1535
매튜 성경	1537
그레이트 성경	1539
제네바 성경	1560

1611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 추천 참고도서

##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테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사랑침례교회 무료 요청)
9.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K. 파이퍼 저, 이황로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0.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중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뉴바이블 송중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2.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3.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5.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넷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회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 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 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 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며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며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러.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I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괄호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소개



목회자·신대원생  
무료 성경 증정



무료 설교  
강해 노트



9 788995 158784  
ISBN 978-89-951587-8-4



03230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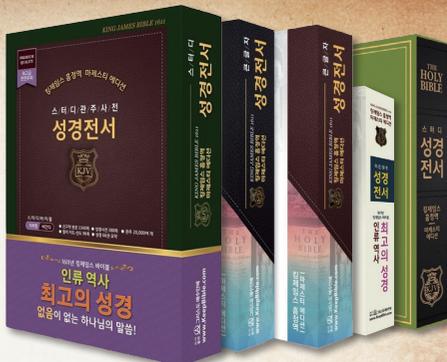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값 8,000원

# 킹제임스 흠정역

##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슨 외/ 고정민 역

모든 것을 끝내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려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뵘임을 변증한 책.

##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 킹제임스 흥정역

###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